

2023학년도 1학기
교수법
연구모임
결과 보고서
모음집



Faculty Learning Communities Report





목 차

1. 다언어 강의 환경에서의 한국어통번역 실습 교수법 연구	1
2. 해외대학과의 가상교실수업(Virtual classroom)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Virtual Classroom with Students from an Overseas University: A Study on Activation Methods	11
3. Exploring th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ChatGPT as a Learning Aid in the Classroom	27
4. 문학 수업에서 작품 이해와 토론참여 효과를 높이기 위한 ChatGPT활용	53
5. Post COVID-19 시대의 시청각 자료 분석과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아프리카 지역학 교수법	65
6. '문제 중심 학습(PBL)'을 활용한 중국어 교수법 연구	78
7. From Teaching to Coaching: 학생들의 팀프로젝트 지도에 있어 팀원 간 효과적 업무 배분 및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교수의 역할	90
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재 연구	102
9. 지역전문가를 위한 언어교육 방법론	113
10. ChatGPT를 활용한 초급 중국어 교육의 가능성 탐색	123
11. 중한 법률통번역수업 교수법 연구 2	135
12. 한국어 독학을 위한 온라인 학습 사이트 분석	143
13. 영화를 활용한 리터러시 교수법 연구	155
14. 인간중심 AI교육을 위한 Embedded Ethics 모듈 개발	166
15. 한국어 번역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 방안 연구 모임	180
16. ChatGPT를 활용한 번역 교육 수업 모형 연구	192
17. 표준교육과정에 따른 효과적인 터키어 전공 교육 방안 연구	205
18. AI를 활용한 교수법 연구 : ChatGPT를 중심으로	217
19. 동남아 지역 과목 법제 교육 모형 연구: 베트남 및 태국을 중심으로	229
20. 사례 중심의 화용론 교수법 연구	240
21. 중국어 초·중급 학습자의 학습동기 제고 및 상호작용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기반 교수-학습 설계 전략: 온라인 협업 툴 활용을 중심으로	248
22. TTT 모형을 적용한 중급 한국어 교수법 연구	261
23. 한 노- 동시통역 교수법 연구	272
24. 학부에서의 웹툰 번역 교수법 연구	284

「다언어 강의 환경에서의 한국어통번역 실습 교수법 연구」

FUJIMOTO TAKUMI 교원, 부티투안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2000년대 이후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고급 한국어 학습자 또한 늘어남에 따라 '한국어통번역' 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어통번역이란 한국어를 B언어로 학습한 외국어 화자에 의한 통번역을 말한다. 이는 제2외국어로서 B언어를 학습하거나, 또는 이중 언어 사용자인 한국어 화자에 의한 기존의 한국에서의 통번역 패러다임과 반대되는 통번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KFL학부 외국어로서의한국어통번역전공이 개설되었으며, 여기서는 한국어교육과 통번역교육을 융합한 교육을 실천하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전공에는 통번역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의 통번역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통번역을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실습 강의에 대한 요구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과 통번역교육의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교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통번역 실습 강의를 다른 전공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2023년 1학기 기준으로 해당 전공에 개설된 실습 강의 중에는 통역 실습 과목인 '시사 통역실습'과 번역 실습 과목인 '언론기사와한국어번역'이 있다. 실무와의 연계성이 높은 통번역교육의 특성과, 전원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성된 해당 전공의 특성상, 위 두 과목은 B언어가 한국어인 외국어 화자이면서 통번역 업무를 현역으로 병행하고 있는 본 연구모임 구성원인 외국인 교강사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해당 과목들은 다양한 모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으며 교강사와 학생들의 모어가 서로 다를 수 있는, 한국어 외에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참여자가 공존하는 '다언어 강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모임 구성원인 외국인 교강사가 놓인 상황은 기존의 한국에서 이루어져 온 통번역교육과는 다른 점을 지닌다. 그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AB 또는 BA 한 방향으로 개설되어 도착어가 모어인 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존의 통번역교육과 달리 도착어가 외국어인 교강사가 담당한다. 2) '한영과', '한중과' 등 기본적으로 두 언어 쌍을 다루는 기존의 통번역교육과 달리 세 개 이상의 언어와 한국어의 쌍을 다루는 다언어 강의 환경이다. 3) 한 과목에서 AB 또는 BA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기존의 통번역교육과 달리 한 과목에서 AB와 BA 두 방향을

모두 다루어야 한다. 4) 1~3과 같은 기존의 통번역교육과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참고할 수 있는 연구 자료가 많지 않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본 연구모임 구성원들은 실습 강의 운영에서 여러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 1) 교강사가 지식이 없거나 지식이 부족한 언어에 대한 피드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교강사와 일부 학생의 A언어가 일치한다 하더라도 해당 언어만 자세하게 피드백을 실시하면 그 외 언어권 학생들이 불만을 갖는다. 2) AB 방향 실습의 경우 교강사가 수강생들의 다양한 A언어로 된 실습 텍스트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렵다. 그렇다고 한국어로 된 실습 텍스트만 준비하여 BA 방향만을 다룬다면 반쪽짜리 강의가 되어버린다. 3) 언어권 별로 학생 수의 차이가 크다. 대부분은 중국어권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 언어의 경우 학생이 1명만 있는 경우도 흔하다. 교강사의 A언어 또한 비교적 학생 수가 적은 언어에 속하며, 수강생 대부분이 사용하는 중국어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제한적이다.

본 연구모임은 위와 같은 공통적인 어려움을 공유하는 교강사가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강의 운영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다 효과적인 한국어통번역 실습 강의 운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이것이 본 연구모임의 첫 번째 목적이다. 본 연구모임의 두 번째 목적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외국어 화자인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통번역교육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경험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한국어통번역을 배우려는 외국인 학생이 증가하면서 실습 강의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자격을 갖춘 교원이 부족해지고 있다. 한국어통번역 교육이 이루어지는 다언어 강의 환경에서의 통번역교육 경험과 연구도 아직 적은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교강사들이 각자의 경험과 수강생에 따라 강의 환경에 맞춰서 실험적인 시도를 거듭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연구모임의 위와 같은 목적이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되어 모임을 시작하고자 하였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다언어 강의 환경에서의 한국어통번역 실습 교수법 연구

목적: 본 연구모임 구성원인 교강사들이 소속된 KFL학부 외국어로서의한국어통번역전공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모여 그들의 모어와 한국어 간 통번역을 공부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한국에서의 통번역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전제되었던 A언어=한국어, B언어=외국어라는 통번역 언어 쌍과 반대로 A언어=외국어, B언어=한국어라는 차이를 지니고 있다. 해당 전공 소속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번역 실습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본 연구모임 구성원인 교강사들 역시 한국어가 B언어인 한국어 학습자이면서 다양한 모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교강사들이다. 그리고 해당 전공 실습 과목은 수강생의 모어별로 개설되지 않고 다양한 모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같이 수강한다. 따라서 교강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이 서로 다른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른바 '다언어 강의 환경'에서 강의를 진행된다. 이러한 다언어 강의 환경에서 통번역 실습 강의를 운영해야 하는 교강사들은 이에 따른 다양한 어려움을 공유한다. 이에 다언어 강의 환경에서 어떻게 효과적인 통번역 실습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이를 실제 강의에 적용하여 효과적인 교수법을 확립하는 것과,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한국어통번역 교육 실습 교수법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본 연구모임의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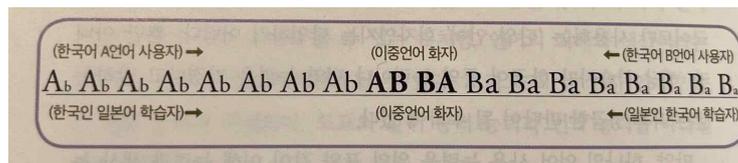
3. 연구 진행 내용

3.1. 기초 연구와 이론적 배경

3.1.1. 한국어통번역 학습자의 특징

한국어통번역이란 한국어 학습자, 다시 말해 한국어가 모어가 아닌 자가 B언어로서의 한국어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통번역을 말하는 개념이다.

<그림1> 한국어통번역의 접근 방향 모형



임형재 외(2023: 8)는 그림1에서 Valdes(2003)의 이중언어 화자 개념 설명 모형을 인용하여 한국어 화자의 통번역 접근법과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통번역 접근법의 방향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그림1에서 대문자 'A'와 'B'는 모어를 나타내며, 소문자 'a'와 'b'의 크기는 외국어 숙달도를 나타낸다. 이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가 모어인 한국어 화자와 외국어가 모어인 한국어 학습자는 서로 목표는 같지만 출발점과 접근하는 방향이 전반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어통번역 교육이 기존의 통번역교육과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한국어통번역 학습자의 증가는 본 연구모임 구성원이 소속된 KFL학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통번역전공 학생 수를 보아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한국어통번역 학습자의 증가는

과거 외국어교육과 명확히 구분되어 왔던 통번역교육이, 그 경계를 넘어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목표와 학습 목적에 들어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이중언어 화자 또는 이에 준하는 두 언어 능력을 이미 갖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통번역교육의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 외국 현지 세종학당에서 중급 이상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통번역교육이 도입되고 있는 사실은 한 예이다. 또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주류 언어권이 아닌 학생들의 경우, 한국어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일상적으로 통번역을 경험하기도 한다. 주류 언어권 한국어 학습자라 할지라도 기계번역 등의 번역 보조도구가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통번역 업무를 이른 단계에서부터 경험한다. 전자의 예로 본 연구모임 구성원들이 담당하는 실습 강의 수강생 중에서도 이미 통번역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흔하게 볼 수 있고, 심지어 한 베트남 학생은 의료기관에서 전문성 높은 통역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후자의 예로는 2022년 한국문학번역상 신인상에서 중급 한국어 학습자인 일본인이 기계번역을 활용한 번역으로 대상을 수상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제 통번역은 이상적인 이중언어 사용자의 전유물이 아니며 심지어 고급 수준의 또는 모어 화자 수준의 B언어 능력을 요구하지도 않을 수 있다(임형재 외, 2023: 308).

이에 따라 한국어통번역 행위란 다언어 사용자가 자신의 언어능력에 따라 나름의 언어 전환 능력을 활용하여 행하는 다양한 수준의 언어 전환 행위(같은 책, 328)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통번역 학습자의 이러한 다양성과 한국어통번역을 둘러싼 상황 변화에 따라, 한국어통번역 교육을 위해서는 기존의 통번역교육과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 더 명확해진다. 다음으로 이러한 한국어통번역 교육의 몇 가지 특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

3.1.2. 한국어통번역 교육의 특징

통번역 능력이란 지식적 능력, 심리적 능력으로 크게 나뉘지며, 지식적 능력은 그 하위에 텍스트 구성 능력, 문화 능력, 전환 능력을 둔다(같은 책, 327). 기존의 통번역교육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한국어통번역 교육에서도 이러한 일반적인 통번역 능력을 고려한 교육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통번역 행위는 분석, 전이, 재구성의 세 단계를 거친다. 한국어통번역 교육 측면에서 보면 AB(A언어인 학습자 모어를 B언어인 한국어로 통역 또는 번역하는 방향을 나타냄) 또는 BA 방향에 따라 요구되는 한국어 능력이 달라진다. AB 방향에서는 한국어를 재구성하기 위한 말하기 및 쓰기 능력이 요구되며, BA 방향에서는 한국어를 분석하기 위한 듣기 및 읽기 능력이 요구된다(같은 책, 329).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요

소를 포함하고 있는 본 연구대상 실습 과목에서는 위 4가지 능력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도록 AB 방향과 BA 방향을 모두 다루어야 한다. 이는 기존의 통번역 실습 과목과 다른 점이다.

다음으로 한국어통번역 실습 강의에서의 교수법을 확립하기 위해 교육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기로 하자. 분석, 전이, 재구성의 세 단계에 따라 필요한 한국어 능력과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정리한 것이 임형재 외(같은 책, 337)에서 제시한 다음 <표1>이다.

<표1> 통번역 과정에 따라 요구되는 한국어 능력과 이를 위한 교육 내용

전개 과정에 따른 기준	기준에 따른 교육내용 구성
한국어 분석 능력 (이해)	다양한 담화/텍스트 듣기 및 읽기 연습 통번역 분야와 한국 문화적 배경지식 학습 통번역 분야별 술어 및 이해 어휘 확장
한국어 전이 능력 ¹⁴ (언어 전환)	언어 전환을 위한 통번역의 절차적 지식 학습 모국어와 한국어의 대조 문화적 개념 학습 모국어와 한국어의 대조언어학적 체계 학습
한국어 재구성 능력 (표현)	다양한 담화/텍스트 말하기 및 쓰기 연습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의 한국어 규정 학습 정확한 발음, 억양, 언어 예절 통번역 분야별 술어 및 표현 어휘 확장

한국어 분석 능력은 ST(Source Text, 원문)를 이해하는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텍스트를 교재로 사용하여 통번역이 이루어지는 분야별 배경지식과, 한국의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배경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번역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용어와 표현을 학습하고 어휘를 확장해야 한다.

한국어 전이 능력은 AB 또는 BA 방향으로 언어를 전환하는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다. 언어 전환을 위한 통번역의 절차적인 지식, 예를 들어 기억을 유지하는 기법이나 이를 보조하는 노트테이킹 기법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모어와 한국어의 대조 문화적, 대조 언어학적 지식을 획득해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어 재구성 능력은 다양한 TT(Target Text, 번역문)를 산출하여 표현하는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다. 다양한 상황에 맞는 형식으로 말하고 쓸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 쓰기 능력에는 한국어의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외국어표기법 등 어문규정 관련 지식이 포함되며, 말하기 능력에는 한국어화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발음, 화용적 능력을 비롯한 언어 예절이 포함된다. 다양한 목표언어 어휘를 알아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어휘 확장은 여기에도 관련된다.

한국어통번역 교육에서는 세 단계 별로 한국어뿐만 아니라 모어 능력 또한 향상시켜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는 분명 한국어교육의 범주 밖에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다양한

수강생의 모든 모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교강사가 이 영역까지 교육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다만,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학생들이 모어 능력 향상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같은 언어권 학생들끼리 그룹 활동이나 상호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교강사가 언어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적절히 언급하는 것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으며, 한국어통번역 교육에서는 이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3.2. 강의 운영 사례

위에서 살펴본 한국어통번역 교육의 특징과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모임 구성원이 담당하는 '시사통역실습'과 '언론기사와한국어번역' 각 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교수법을 설계하고 운영하였다. 여기에서는 학습 목표, 수업 절차, 교육 자료, 교사와 학생의 역할로 나누어 기술하기로 한다.

3.2.1. 시사통역실습

본 연구모임 구성원이 2021년 2학기 신규 개설 시부터 담당하고 있다. 다만 개설 당시부터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전면 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통합 강의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번 2023년 1학기 강의가 처음으로 전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다. 교강사의 모어는 일본어이다. 총 수강 인원은 26명이며 중국어, 광둥어, 베트남어 등 총 3개 언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학생들이 수강하였다.

본 강의는 첫 주차의 오리엔테이션과 마지막 강의인 15주차의 모의회의를 제외하고 후술하는 절차에 따라 강의를 운영하였다. 마지막 주차에는 자유 주제로 각 학생이 원고를 준비하고 연사, 통역사, 청중 및 질문자로 역할을 나누어 모의회의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학습 목표는 강의계획서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설정하였다. 학습 목표는 다음 세 가지다. 1) 다양한 한국어통역 상황에서 사용되는 인사말 등의 표현 및 시사 전문용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다양한 한국어통역 상황에 맞게 통역할 수 있다. 3) 제 통역 이론을 이해할 수 있다.

수업 절차는 도입, 실습, 피드백, 정리의 4단계로 진행하였다. 도입에서는 그날 다룰 ST와 관련된 분야별 배경지식, 전문용어, 한국의 문화 등에 대해 확인하고, 필요한 통역 이론과 필요한 통역 기법에 대해서 논의한다. 다른 통역 이론에는 이미지화, 인지적 단계 등이 있으며, 통역 기법에는 메모를 위한 기호 만들기 등이 있다. 또한 매주 학생에게 이

전 강의에 대한 소감을 작성하게 하였는데, 이 중에서 거론할만한 질문, 의견이 있으면 소개하였다. 도입 후에는 실습을 진행하였고 피드백도 동시에 실시하였다. 실습은 중간시험까지는 BA 방향, 중간시험 이후에는 AB 방향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해 시역, 한 문장씩 외워서 통역하기, 한 문장씩 메모하고 통역하기, 여러 문장을 메모하고 통역하기 순으로 진행하면서 여러 통역 기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 한 명당 1번 이상 통역하게 하고 나머지 학생들 중에서 1명 이상이 피드백을 하도록 하였다. 순차통역 실습임을 고려하여 교실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통해 통역하게 하였으며 연사 역할도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하게 하였다. BA 방향에서는 같은 언어권 학생을 지목하여 피드백을 하게 하였다. 피드백 내용은 언어 전환의 적절성, 발음 등 언어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자세, 목소리 크기 등 전달 요소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마지막 정리 시간에는 매주 부과한 회의에서 자주 쓰는 표현에 대한 BA 번역과제를 확인하고, 학생들이 매주 제출한 질문과 소감에 대한 답변과 코멘트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교육 자료는 연설문 원고 텍스트를 사용하였다. 난이도를 고려하여 처음에는 한국어 말하기대회 등 배경지식이 필요 없는 텍스트로 시작해 관광 등 친숙한 분야를 거쳐 외교, 경제 등 비교적 어려운 전문분야는 나중에 다루었다. BA 방향 실습을 위한 한국어 ST는 강사가 국정브리핑 등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 중에서 선정하였다. 이때 고유명사를 삭제하는 등 난이도를 조정하기도 하였다. AB 방향 실습을 위한 외국어 ST는 각 언어권 학생들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난이도와 길이에 대한 가이드를 주고 준비하게 하였다. 학생들은 주로 국가원수 연설문, 기업가 연설문 등을 찾아서 제출했다.

교사는 진행을 담당하는 강의 운영자 역할을 주로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피드백을 실시하거나 연사와 청중 등 통역 참여자 역할을 맡아 실습의 현장성을 높였다. 학생을 실습의 주체로 설정하였으며 연사, 통역사, 청중 등 통역 참여자의 역할을 매주 1번씩 담당하도록 하고, 자율적으로 배우며 때로는 상호학습을 위한 교사의 역할도 하도록 독려하였다.

3.2.2. 언론기사와한국어번역

본 연구모임 구성원이 2022년 2학기 신규 개설 시부터 담당하고 있다. 교사의 모어는 베트남어이다. 총 52명의 학생이 수강하였으며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우즈베크어 등 총 7개 언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학생들이 수강하였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번역의 원리와 기초 이론을 이해하고 번역사의 자질, 번역과 언어 간의 관계 등 번역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갖춘다. 2) 실제적인 다양한 상황의 언론기사 번역을 통해 번역의 본질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번역

을 할 수 있다.

수업 절차는 도입, 실습/발표, 마무리 순서로 진행하였다. 도입에서는 그날 실습과 관련된 이론을 제시하였다. 실습은 중간시험까지는 BA 방향, 중간시험 이후에는 AB 방향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실습에서는 준비한 텍스트를 강의 시간 내에 학생들에게 번역하게 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차주에 실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공통적인 피드백을 먼저 교사가 실시하고 다음으로 같은 언어권 학생끼리 추가적인 피드백을 실시하게 하였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발표도 운영하였다. 매주 언어권별로 2, 3팀씩 텍스트를 번역하게 하고 이에 대해 발표하게 하였다. ST로 외국어 기사를 사용하였으며, 발표 내용은 외국어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그렇게 번역한 이유, 번역 방법, 번역하면서 논의한 내용과 그 해결 방법 등이다. 발표를 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번역에 대해 생각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교육 자료로 시사 관련 텍스트를 사용하였다. 주로 KBS 라디오 뉴스 기사 중 같은 내용이 다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텍스트를 교사가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높은 시사성을 확보하고 최신 정보의 배경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강생이 많은 강의 특성상, 교사가 중심으로 강의를 운영하되 실습과 발표에서는 학생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4.1. 연구에 따른 강의 운영 결과

연구를 바탕으로 각 강의를 운영한 결과를 자가평가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학습 목표는 한국어통번역의 특성과 학부 강의임을 감안할 때, 학생들이 통번역을 일단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큰 부분에서는 달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업 절차 측면에서는, 연구를 바탕으로 구상한 실습 운영이 대체로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정된 시간 대비 학생 수가 많아, 모든 학생들이 충분히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더 많은 양의 실습을 원하는 학생 피드백이 있었다. 아울러 같은 이유로 번역 결과물이나 통역에 대해 교사가 모든 학생들의 모든 부분에 피드백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모의회의나 발표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높은 현장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학생들에게도 대체로 좋은 평가를 얻었다.

교육 자료는 실습 강의의 특성상 온라인으로 공개된 시사성이 높은 뉴스나 연설 원고를 활용하였고 현장성이 높고 실제 업무와의 연계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다만 KBS 라디오 뉴스 기사의 경우, 다국어 번역을 제공한다 하더라

도 우즈베크어 번역은 제공하지 않는 등 소수언어를 중심으로 교육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언어마다 제목이나 내용, 문단에서 번역문에 차이가 존재하여 교재의 일관성 확보에도 애로가 있었다. 다국어 강의 환경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교재개발 등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와 학생의 역할에서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만족도 높은 강의 운영에 기여하였다. 다만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통번역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일에 익숙하지 않아 "잘했어요"와 같은 피상적인 말만 하게 되는 일이 빈번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피드백에 대한 적절한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 '언론기사와한국어번역' 강의에서는 이러한 피드백의 부족한 부분을 발표가 보완하기도 하였다. 발표를 하게 함으로서 학생들이 보다 객관적으로 번역 시 사용한 전략 등의 생각에 대해 편하게 발언할 수 있는 것 같았다.

4.2. 활용방안

본 연구모임에서는 KFL학부 외국어로서의한국어통번역전공 실습 강의를 담당하는 외국인 교강사들이 다언어 강의 환경에서 한국어통번역 실습 강의를 운영하는 하나의 교수법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교수법 모델을 다른 한국어통번역 실습 강의 운영에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며, 본 연구에 따른 강의 운영 결과가 여러 시사점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은 앞으로 한국어통번역 실습 강의를 위한 교안 개발 및 교재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강의를 운영하기 이전 단계인 강의 설계에도 활용될 수 있다. 앞서 운영 결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들의 통번역 실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생들의 실습 결과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피드백이 꼼꼼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강 학생 수를 20명 내외로 조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 본 연구모임 구성원들의 공통되는 생각이다. 수강생 구성도 미리 조율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교강사의 모어를 제외한 언어권별로 두 명 이상의 학생이 있어야 특히 BA 방향 통번역 실습에서 적절한 상호학습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 수가 많은 언어권은 해당 언어권 교강사가 담당하는 실습 과목을 따로 개설하거나, 적어도 두 명 이상 같은 언어권 학생이 같이 수강할 수 있도록 수강생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14), 한국어 교육학 사전, 서울: 하우.

이상빈(2017), 생각을 키우는 번역 수업,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이석규 외(2002), 우리말답게 번역하기, 서울: 역락.

임형재 외(202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통번역학의 이해, 서울: 하우출판사.

정호정(2008), 제대로 된 통역 번역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Gonzalez Davies, M(2014), 신지선 역, 학습자 중심의 번역 수업 모델: 활동, 과업, 프로젝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Stolze, R(2011), 임우영 외 역, 번역이론 입문: 번역학 꿰뚫기,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해외대학과의 가상교실수업(Virtual Classroom)

-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Virtual Classroom with Students from an Overseas University:

A Study on Activation Methods ㄱ

Lyudmila Atanasova 교원, 이하얀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For many years, it has been known that the students of Bulgarian Studies who have the opportunity to go to Bulgaria for any reason – short or long term studies, internship, employment, or just travel – have positive experiences that increase their motivation to pursue their studies, elevate their confidence as Bulgarian Studies major students, develop positive outlook on their future employment prospects, and make them more active and involved in department matters and events, like taking the administrative positions of assistants, promoting Bulgarian Studies and assisting junior students.

The traditional classroom education, which involves students passively acquiring knowledge of facts presented to them by the instructor, does not allow the contemporary young people, used to constant sense stimulation and interaction in online environment, to get a realistic idea, “feeling” of Bulgaria. The conservative way of teaching area studies, in this case Bulgarian Studies, leaves the place of Bulgaria as an abstraction in the students’ minds, and their involvement with their filed of study remains within the confines of the classroom, and finishes with receiving the desired grade.

Apparently, direct contacts and experiences with Bulgaria as a place with its own characteristics, culture, language, traditions, social conventions. etc. has and entirely different effect on the students and influences very positively their studies,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their growth as individual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hen international programs and overseas travel were interrupted, the professors of Bulgarian Studies started looking into the possibility to achieve in Internet environment some of the positive effects that

students acquire when traveling to Bulgaria.

Research was done on the ways in which place and space is experienced by humans and video exchange was conducted between students from HUFS and Sofia University.

Even though the pandemic is over, and international programs have been reactivated, our experience has shown that online cooperation with foreign education institutions with the purpose of pursuing stimulating and effective teaching methods is highly productive and needs to be further explored.

On that basis, this semester we decided to design and realize direct contacts, joint activities, research and study exchange online between the students of Bulgarian Studies at HUFS and the students of Korean Studies at Sofia University “St. Kliment Ohridski”, Bulgaria.

It was our first attempt to organize direct online contacts between the students and we were quite apprehensive and careful, considering possible communication problems due to language barriers, cultural differences, unwillingness for direct face exposure, etc. That is why the current study is considered a pilot project that was meticulously assessed with the purpose to further develop and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joint virtual classroom education method.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Theorization and Practical Realization of Virtual Classrooms with Students from an Overseas University to Aid and Diversify the Area Studies Education

목적: Exploring and testing ways of creating virtual classrooms with students from the Bulgarian Studies major at HUFS and the Korean Studies Department at Sofia University ‘St. Kliment Ohridski’, Bulgaria, with the purpose of recreating in a virtual environment the positive effects that students from Bulgarian Studies experience when they visit Bulgaria.

3. 연구 진행 내용

Previous research done by professors of Bulgarian Studies on the experience of

space and place used the ideas of Yi-Fu Tuan in his book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2001).

The main points of Tuan’s book were taken and used to develop concepts and suggestions for online activities that could produce experience of place in virtual environment that emulates, at least to some degree, the direct experience of physical place.

The following is a table that was presented as part of the HUFs Teaching Methods Research Project (HUFs 교수법 연구) 2021-1.

Aspects of Direct Experience of Place	Applications for Place Experience in Digital Environment
<p>1. Direct experience is based on stimulation of the senses. Information about a place is acquired mainly through the senses of sight and hearing. Additional information is provided by the senses of smell, taste and touch. Place / space is also experienced through movement (kinesthesi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pplying rich video (photo) sources to support the lecture content in teaching area studies courses (Videos should be focused not only on presenting physical places, but also providing social and cultural content (institutions, different people, social groups, ethnological material, music, shows, etc.)
<p>2. Place is experienced based on the dimensions of the human bod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mulating a direct place experience through choosing videos that are filmed to reflect the view point of an actual person experiencing the environment directly, in the location in question - Asking students themselves to create videos from the perspective of a person moving through/around a place and exchange such videos with <u>Bulgarian students</u>
<p>3. As a person matures, he/she can perceive objects in space / pla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ructuring the syllabus to introduce culturally unfamiliar

<p>in more detailed way and can associate them with their context, in relation to other objects, as well as identify their social functions.</p>	<p>concepts in an easy-to-comprehend way and at a later stage proved more detailed information in a scientific context to create a cognitive continuum</p>
<p>4. Place is experienced through social bonding with local people.</p>	<p>- Using Internet meeting platforms and social networks for direct socialization with people from other places</p>
<p>5. Place is experienced through communication in the local language.</p>	<p>- Utilizing Internet resources for language learning (Youtube videos, music videos)</p>
<p>6. Place attachment and place satisfaction are developed through positive experiences of place.</p>	<p>- Diverse gratifying contacts and experiences with people and places in electronic environment can be a stimulating factor in pursuing area studies.</p>

In addition to the previous research, we searched for answers to the questions of not just how to create experience of place in an Internet environment but also how to create experiences that are positive and stimulate intellectually and emotionally the students in a way similar to the influence of the physical environment on them.

Regarding the positive experience of place, we referred to the concepts of ‘place satisfaction’ and ‘place attachment’, which in academic literature are researched mainly in relation to tourism.

“Place satisfaction, measured as visitors’ summative evaluation of their experience, is likely to be mo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place dependence, identity, affect and social bonding” (Ramkissoon and Mavondo 2015: 2593). Place satisfaction contributes to developing emotional ties with the place in question. These emotional ties are also referred to as “place attachment” (Ibid). According to Lee, Kyle and Scott (2012) satisfying experiences predict future intention, which, in our case, explains the positive changes that occur in the students’ attitude towards their major after traveling to Bulgaria.

Making an overview of a significant amount of research on the topic,

Ramkissoon and Mavondo (2015) identify four major factors, called by them “dimensions”, that contribute to the visitors’ place satisfaction and place attachment; place dependence, place identity, affect and social bonding. “Place dependence depicts how well a setting’s resources facilitate users’s enjoyment of activities in meeting their functional goals or serve instrumental values... Place identity refers to the cognitive connection, depicting the symbolic link between a person and a place, and emerges through accumulation of experience with a place” (Ibid: 2594). Place affect is defined as the emotive dimens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 person and a place, which allows individuals to build their sentiments about a place and give meaning to it (Ibid). “Place social bonding is the other dimension of place attachment focusing on people’s experiences derived from social interactions at a particular place... Some researchers note that positive bonds connecting humans can be stronger than with the physical attributes of a place...[Also] place social bonding was found to be a significant predictor of place satisfaction“ (Ibid).

Based on our previous study and the research that we did this semester, we designed interactive online activities for our students. We attempted to combine out theoretical findings, selecting among them the ones that are applicable in online environment and suitable to our teaching goals.

To help students experience positively Bulgaria as a place, while acquiring knowledge of the country and of the Bulgarian language, we focused the following findings:

Place is experienced based on stimulation of the senses, mainly vision and hearing.

Place is experienced based on the dimensions of the human body.

Place is experienced through social bonding with local people (a very strong predicting factor of place attachment and satisfaction).

Place is experienced through communicating in the local language.

Place identity, which is closely associated with place attachment, emerges through an accumulation of experience with a place.

Providing students with opportunities for learning through experience, rather than passively accumulating knowledge in itself promises to be productive,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generations of young people. Designing the experience to follow certain patterns that have been researched to provide positive results in place experience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creating effective teaching methods for

students majoring in area studies.

Striving to implement the above research into practice, we decided to focus on activities that stimulate the students vision and hearing senses (photos, videos, direct online contacts), develop thei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kills (directly interacting with foreign students), increase their foreign language abilities (Bulgarian and English), and help them build contacts/relationships with young people from Bulgaria. To add a learning dimension to the experience, and at the same time to provide a focus for the interactions, the students were also required to do a simple assignment.

The students enrolled in Intermediate Bulgarian Conversation 1 (중급 불가리아어 회화 1) class, taught by Lyudmila Atanasova, were asked to create a short video or a reel in cooperation with the Bulgarian students on one of the following topics “University Students’ Life in Bulgaria” or “A Place in Bulgaria” (a city, a village, a mountain, a tourist location, a museum, a store, etc.) The HUFs students were to explain their tasks to the Sofia University (SU) students and the SU students were to provide video or photo materials, along with information, which our (HUFs) students were to use to make a bilingual video (Bulgarian and Korean with one of the languages being spoken and the other used in the subtitles.)

The students enrolled in Lee Hayann’s 불가리아지역정치론 class had to prepare information cards (카드 뉴스) on topics related to the subject syllabus, again asking the Bulgarian Students for information, advice, photo materials, sources, etc.

The students of Bulgarian Studies at HUFs, participating in the virtual joint classrooms, in return, also had to provide materials on Korea and assist Bulgarian students with assignments that they had to do for their classes of Korean Studies.

The participation of Bulgarian students of Korean Studies in the virtual classroom added an additional element of cultural awareness to the experience, as our (HUFs) students had the opportunity to get to know how foreigners study and perceive their country. It also contributed to the study of the Bulgarian and Korean societ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e conceptualization, planning and organization of the virtual classroom activities took many meetings, discussions and clarifications with the Bulgarian professor who was in charge of the cooperation with HUFs on the matter. The language levels of the students, the goals and the assignments had to be adjusted

to suit both parties. For example, our desire was to have the students interact in smaller groups, but the Bulgarian professor insisted on 2-3 Bulgarian students working in the same team, therefore, we also had to include a similar number of HUFS students in the team, thus the teams growing to 6-7 students from both Universities.

Together with the Bulgarian professor from SU, we wrote instructions/ground rules for the project, trying to prevent possible cultural misunderstandings, excessive requirements from the opposite side, etc. The students were required to meet at least three times within the project period, which was about 45 days. Each meeting had to be documented in a protocol, which was submitted right after the meeting, so that the professors in charge can follow the developments.

Having experience with online educ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e were aware of the unwillingness of Korean students to show their faces online and there reservations about taking active participation in online meetings. Still, all of them showed enthusiasm when the idea of the project was presented to them. They were quite curious to meet their Bulgarian peers. We perceived the smooth communication online as the main challenge, therefore we did not place strong emphasis on the assignments. The assignments for this project were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the final grad for the semester were formed. The purpose was to give as much freedom as possible to the students and to diminish their stress of having to communicate online with foreigners.

When everything for the project was prepared, we held a general online meeting with all Korean and Bulgarian professors and students, which served as an orientation and acquaintance gathering. After the general meeting, students were divided in teams and teams met in break away rooms. Professors entered each break away room trying to aid the communication, introduce students to each other, etc. Students were asked to exchange contact information and to arrange for the next meeting which was to be held only with the team members present on an online platform of the team's choosing.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The teams' meeting opportunities were interrupted by the short Easter vacation

in Bulgaria and by the mid-term exam period at HUFS, but after that the teams met regularly (judging by the meeting protocols) and fulfilled their assignments. In class, sometimes we discussed the ongoing activities and meetings with Bulgarian students. Our students shared that Bulgarian students are very active, speak Korean quite well and are very free in their communication approach. Some problems seemed to be caused by the time difference and by the fact that it was hard to match the meeting time for the big number of team members. On the other hand, students became very aware of different time zones, of online meeting organization methods, etc. In general, the students reacted very positively when asked about their interactions with the Bulgarian students. Some of them develop individual (outside the team) contacts with Bulgarian students, helping each other with their studies, exchanging information pop music, drama, celebrities,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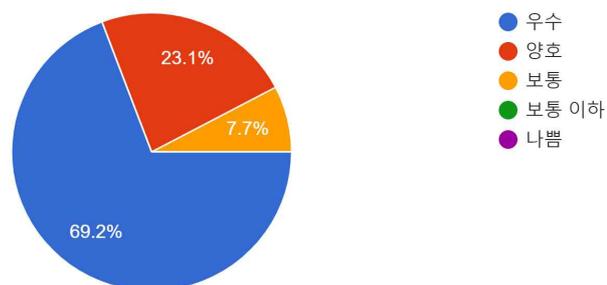
At the end of the project, we conducted a survey, which gives us insights into the results of the project and about the elements that can be improved in the future.

Here are the results of the survey (The project was named “불가리아 친구와 공부하자”):

불가리아 친구와 공부하자 설문지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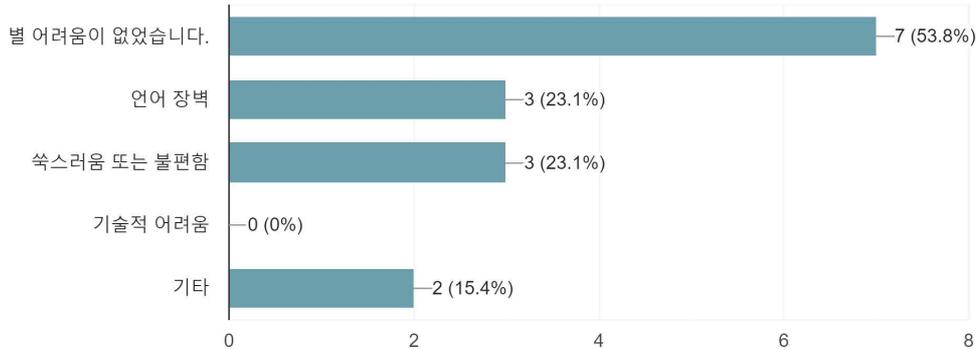
1. 프로젝트에 참여한 전반적인 경험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응답 13개



2. 프로젝트 진행 중 겪었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선택가능)

응답 13개



3. 프로젝트 진행 중 겪었던 어려움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응답 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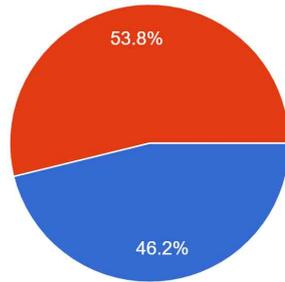
- 다같이 약속잡기 힘들었다. 영상에 출연하는것이 부담스러웠다.
- 1. 같은 조원들의 비협조적 태도 (불가리아 친구들은 말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국 친구들은 말을 안하는 사람은 아예 안함) 2. 불가리아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미팅 시간을 맞추기 까다로움.
- 시차가 있어 학기 중에 모든 학생들의 시간을 맞춰 미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초반에 쑥스러움이 있어 스몰토크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 줌 회의를 진행할 때 쑥스러움과 영어, 불가리아어가 미숙해 하고 싶은 말을 바로 못한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4. 위 문항에서 언급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응답 5개)

- 만날 수 있는 사람만 모였다.
- 메신저로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 해달라고 부탁함
- 그래도 학생 모두가 의견을 내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하였고 참여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 회의 때 참여하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참여 학생이 미참여 학생에게 미참한 날 한 회의 내용을 전달해주었습니다.
- 다행스럽게도, 불가리아 친구들이 먼저 나서 긴장을 풀어주고 대화를 이끌어주었습니다.
- 말을 많이 하지 못하는 대신 회의 진행 전이나 후에 글로 소통했습니다. 회의 중에는 사전에 글로 제안한 사항 등에 말하거나 가볍게 얘기를 나누고, 회의 중에는 채팅으로 보완하는 식으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5. 불가리아 학생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 기대했던 것과 실제 경험을 비교하면 어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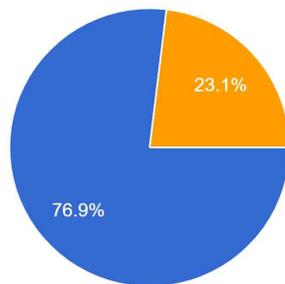
응답 13개



- 내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6. 이 프로젝트의 결과로 불가리아와 불가리아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바뀌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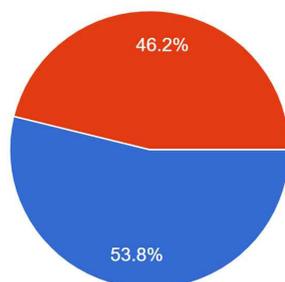
응답 13개



- 예,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 예,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 아니요, 동일하거나 비슷합니다.

7. 프로젝트가 불가리아와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응답 13개



- 예,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 예,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 아니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문화적 차이가 없거나 적은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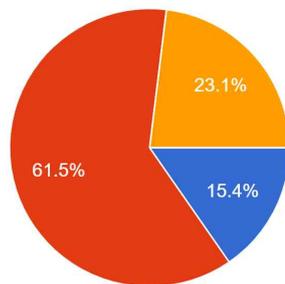
8.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흥미로운 불가리아의 특정 문화적 측면이 있었습니까?

까? (있었다면 서술해 주십시오.) (응답 4개)

- 시간표를 짜서 주기때문에 공강이 없다는 점과 교통비는 한달동안 약 만원정도의 카드를 구매하면 그걸로 타고다닌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 불가리아 학생들이 의외로 한국 문화를 많이 알고 한국 문화와 가까이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 불가리아에는 학기 중 방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 'Name Day'나 부활절 등 종교 축일이 많은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9. 프로젝트 기간 동안 불가리아어를 배우거나 연습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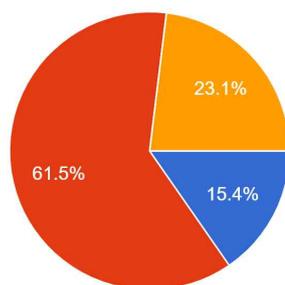
응답 13개



- 예, 전반적으로 불가리아어를 연습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 예, 어느 정도는 불가리아어를 연습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10.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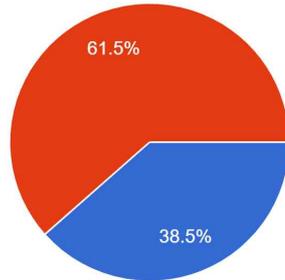
응답 13개



- 예,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 예, 어느 정도 향상되었습니다.
- 아니요, 별로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11. 과제에 대해서만 불가리아 학생들과 소통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반 및 개인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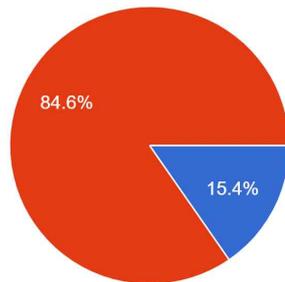
응답 13개



- 과제에 대해서만 소통하였습니다.
- 과제와 다른 주제에 관해서도 소통하였습니다.

12. 본 과목 이외의 다른 과목에서의 과제나 숙제를 도와달라고 불가리아 학생에게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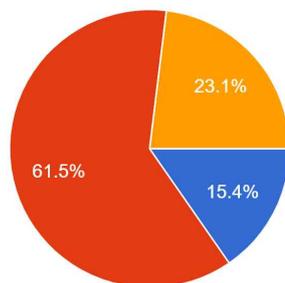
응답 13개



- 예, 있습니다.
- 아니요, 없습니다.

13.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프로젝트에서 만난 불가리아 학생들과 계속 연락할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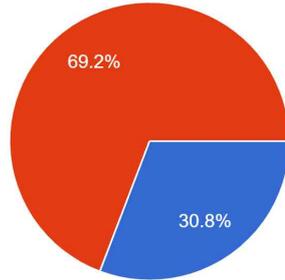
응답 13개



- 네, 확실히 연락할 것입니다.
- 아마도 연락할 것입니다.
- 아니요, 연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14. 본 프로젝트가 타문화 이해와 의사소통 촉진 측면에서 기대에 부응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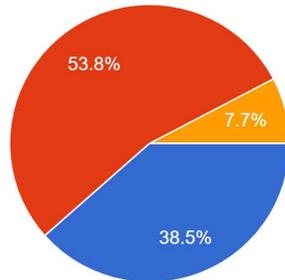
응답 13개



- 예,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 예, 어느정도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 아니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15. 본 프로젝트를 통해 불가리아의 언어, 문화 또는 역사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은 동기가 생겼습니까?

응답 13개



- 예,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 어느정도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 아니, 별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16. 프로젝트가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기여하였습니까? (서술해 주십시오) (응답 3개)

- 모르겠다
- 불가리아어 직접 말해보려고 노력하다보니 생각보다 단어들이 잘 생각나지 않았지만 계속 해보려고 하다보니 불가리아 회화를 하는 부분에서 조금 성장한 것 같습니다.
- 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효율적일지 고민하며 언어능력이 향상한 것 같습니다.

17. 프로젝트의 어떤 측면이 가장 유익하거나 즐거웠습니까? (서술해 주십시오) (응답 5개)

- 저희 그룹은 영상 자막을 서로 번역해주었는데, 직접 불가리아 친구들이 써 준 글이 자연스럽고 유익한 표현을 익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

었던 것 같아 기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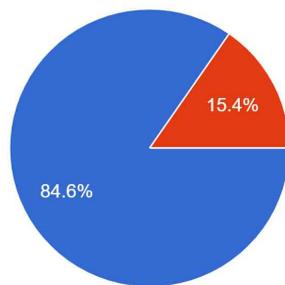
- 모르겠다
- 불가리아어를 입 밖으로 내뱉어 보는 것이 재밌었습니다.
- 불가리아 친구들과 함께 회의하며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는 시간이 가장 유익했습니다.
- 영상의 구성에 대해 고민하고 얘기 나누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불가리아 학생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불가리아 학생들과 함께 협력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 유익했고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18. 프로젝트 경험이나 재미있었던 에피소드에 대해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서술해 주십시오) (응답 3개)

- 힘들었다
- .
- 줌 회의 중 다같이 사진을 찍고 싶어 스크린샷을 찍었는데, 한 명이 그 순간에 참여하지 못해서 후에 그 학생만 사진에 합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사진이 영성하지만 모두 즐거워보여 재밌었습니다.

19. 프로젝트에 주어진 시간은 충분했습니까?

응답 13개



- 예,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 더 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더 짧은 시간이라도 충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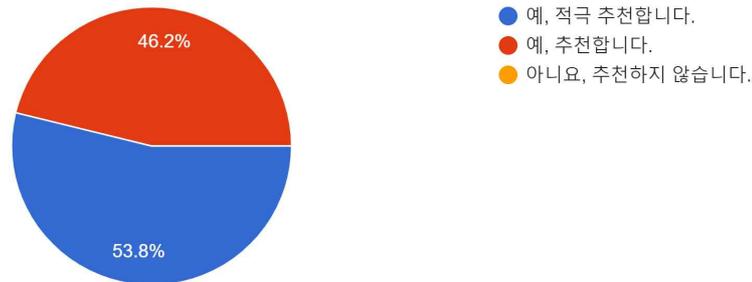
20. 프로젝트 구성 개선에 대한 제안 사항이 있습니까? (서술해 주십시오) (응답 3개)

- 취지는 좋으나 불가리아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한국모습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알려주고 싶은 한국모습에 대해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하면 좋겠다. 불가리아 친구들이 주는 주제가 곤란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 .
- 프로젝트 기간이 불가리아 학생들의 단기 방학이나 한국 학생들의 시험기간과 겹쳐 회

의 일정을 잡기 조금 어려웠습니다. 행사나 시험 기간을 되도록 피해서 기간을 정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1. 비슷한 타문화 프로젝트를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시겠습니까?

응답 13개



5. 교수법 연구모임의 효과 및 제언

In general, the survey shows positive results of the virtual classroom project. It has to be kept in mind that some of the answers reflect only the results as they are perceived by the students, and they might only become aware of some effects of the project on them later on.

The online communication with foreigners seems to present a major challenge to the students. Therefore, future research can be directed at the question how can students be trained to overcome such obstacles.

In the current attempt, they were left to rely on their own skills, as they would in a physical environment, but there were additional factors that are not usually present in face-to-face communication: the limit of the camera communication, like the camera showing clearly only the talking members of the team, the impossibility to witness body language, the group environment, etc. It can be explored whether students will be more comfortable in one-to-one meetings.

Additionally, assignments should be more concrete, perhaps individually tailored and students should be consulted when designing them.

One of the students has written a very good comment on the assignments, namely that instead of being asked to provide certain information on Korea, Korean students should be given choice what to present to the Bulgarian students



about Korea. It could be that Korean students encountered some preconceptions about their country. This is also a part of th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but such situations should be avoided by taking this into account when activities are designed by the professors,

Professors did not interfere in the middle of the project, but it could be helpful to have midway consultation sessions with the students.

The online virtual classroom methods of instruction and learning in cooperation with Sofia University will be continued and further explored as they have given positive results and students show pronounced desire to participate in them.

※ 참고문헌

Lee, Jenny; Kyle Gerard T. and Scott, David. 2012. The Mediating Effect of Place Attach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estival Satisfaction and Loyalty to the Festival Hosting Destination. In *Journal of Travel Research* 51 (6). 754-767.

Ramkissoon, Haywantee and Mavondo, Felix T. 2015. The Satisfaction - Place Attachment Relationship: Potential Mediators and Moderators. I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8. Elsevier. 2593-2602.

Tuan, Yi-Fu. 2001.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Exploring th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ChatGPT as a Learning Aid in the Classroom 」

Tae Young Choi 교원, Reid McLain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Background)

ChatGPT, developed by OpenAI, stands as a significant breakthrough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xhibiting remarkable capabilities across sectors like customer service, content generation, and language translation. In the domain of education, ChatGPT holds transformative potential, promising to reshape the way students learn, engage, and interact with educational content. However, as with any human invention, it brings forth dual effects. While expected benefits of ChatGPT in educational settings have been explored, concerns about potential harm have also been raised. To delve deeper into these factors within the classroom, this explorativ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integrating ChatGPT and uncover the potential benefits and challenges of implementing this technology in education. Through this research, we seek to evaluate ChatGPT's impact on student engagement and learning outcomes, explore its integration with traditional teaching methods, assess technical feasibility, and gather valuable insights on attitudes and perceptions from both students and teachers. The resulting findings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ractices and guidelines for the responsible and effective utilization of ChatGPT in educational settings.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Main Theme & Objectives)

대주제: Is ChatGPT an effective tool for enhancing students' learning effectiveness? If so, how so? and if not, what are the drawbacks?

목적: The objective of this proposal is to test the effectiveness of using ChatGPT in a classroom setting and to identify the potential benefits and challenges of

implementing this technology in education.

We the objectives specified, we have devised the following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ChatGPT on student engagement and learning outcomes in a classroom setting.

To explore how ChatGPT can be used to supplement traditional teaching methods and enhance student learning.

To assess the feasibility of integrating ChatGPT into the classroom environment and the technical requirements needed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To evaluate the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students and teachers towards using ChatGPT in the classroom.

To identify potential ethical and privacy concerns related to the use of ChatGPT in education and develop appropriate guidelines and safeguards.

To provide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hatGPT for educational purposes.

Overall, the aim of this proposal is to provide insights into the potential of ChatGPT as a tool for enhancing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classroom, and to identify suitable practices for its implementation and use.

3. 연구 진행 내용 (Research Progress)

3.1 Theoretical Underpinning from Literature

3.1.1 The Impact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tools on Instructional Design in Higher Educatio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ive AI) are technology tools that allow users to ask questions that receive a response to automatically develop new content that sounds as if the output is human-produced and, depending on the question asked, can be varied in style and prose (Pickell & Doak, 2023). This disruptive technology is already used in many disciplines and industries, such as media and business, which have leveraged algorithmic generative technology to produce content (Pavlik, 2023). In November 2022, OpenAI released a Generative AI tool called ChatGPT for public access (McKinsey, 2023; Mollick & Mollick,

2022). “ChatGPT is a large language model (LLM), a machine-learning system that autonomously learns from data and can produce sophisticated and seemingly intelligent writing after training on a massive data set of text” (van Dis et al., 2023, p. 224). Chat GPT and other LLM machine learning systems are also coming quickly to innovate in education. A recent white paper from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at the Mack Institute for Innovation Management titled Would Chat GPT Get a Wharton MBA? (Terwiesch, 2023) challenged the technology to see how well it would fare on the MBA final exam; ChatGPT received a B to B- on the exam.

The systems appear very smart and may present many opportunities and innovations to enhance what can be done for learning environments and aid both instructors and students. But As noted by Pickell and Doak (2023), there is a dark side to these possibilities, and the questions shift to what to do if using ChatGPT causes academic integrity to be compromised or misinformation to be spread. This new technology presents an ethical quandary for the education industry. On the one hand and these innovations in AI may be an aid in self-directed learning, student engagement, and other pedagogical needs, as seen with earlier models of Chatbot integrations (Abrams, 2021; Adamopoulou & Moussiades, 2020; Liu et al., 2022; Tlili et al., 2023). On the other hand, some concerns surround the dilemma of academic integrity and information accuracy (Fiske et al., 2019; Javed et al., 2022; Tlili et al., 2023). Instructors seem split on what to do, and exploration needs to be done to discover the future implications for education.

This disruptive technology presents a dichotomous opportunity for responsible adoption by Instructional Design (ID) practitioners. The first opportunity is the aspect of looking to change how ID can develop content and learning environments for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guide instructors to implement it, and train future workers to manage it (Lim et al., 2023; Tlili et al., 2023). The second is that systems and policies may need to be developed that help keep academic integrity high, prevent plagiarism, and guard against some of the pitfalls of the technology not producing accurate results (Floridi, 2023). In light of these, we have examined the dichotomous impact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tools on instructional design in higher education.

3.1.2 Negative Aspects of Generative AI Integration

The first negative aspects of the use of generative AI in education surround the student and the potential for academic dishonesty combined with the possibility of cognitive ability decline. “Students may rely on ChatGPT to generate written assignments, such as essays, and submit these assignments as their own work” (Choi et al., 2023, p. 2). Riad notes that this behavior may follow learners into the professional world (Riad, 2023). Some of the academic dishonesty research suggests that cheating in online courses happens more than in face-to-face classes, so the introduction of generative AI would be similar (Watson & Sottile, 2010; Riad, 2023; Northcutt et al., 2016; Susnjak, 2022). The human acquisition of cognitive skills could also be considered threatened by the use of the tool; skills, such as problem-solving, critical thinking, and other cognitive tasks, which are challenging and demanding and could decline; as a result (Coghlan et al., 2021; Mollick & Mollick, 2022; Riad, 2023; Susnjak, 2022). While AI tools may facilitate some understanding, these cognitive abilities of students might not be developed if relying on the tool (Choi et al., 2023)

Because of the potential of the decline in the lack of critical thinking and other cognitive threats, the other negative ethical concerns about using the technology stem from how the generated output looks real but may contain programming biases and incorrect information (Stokel-Walker & Van Noorden, 2023; Tlili et al., 2023; Alkaissi & McFarlane, 2023). Artificial hallucination refers to machines generating realistic responses corresponding to real-world input but false information; while not common in chatbots, it can occur in advanced AI systems like ChatGPT (Alkaissi & McFarlane, 2023). These hallucinations have the potential of being able to fool users if they cannot discern the errors when they are generated (Kavitha & Lohani, 2019). Currently, there is no way for users to automatically correct these errors because of the way the algorithm is built (Abrams, 2021; Felix, 2020; Javed et al., 2022). This indicates that without users practicing critical thinking and checking the results, A recent report that looked at the governance of AI policy for governments noted that a few companies monopolize the control of the information and that there is a real possibility of bias and groupthink among these entities and no way for users to verify the

information easily, further exacerbating the misinformation issue (Ulnicane et al., 2021).

3.1.3 Positive Views on Generative AI Integration

Some studies examined the use of chatbots and other generative AI tools in learning design have highlighted the potential positive impacts of integrating these technologies, suggesting that they may enhance the learning experiences by augmenting existing pedagogical structures by providing personalization and engagement for learners (Abrams, 2021; Adamopoulou & Moussiades, 2020; Liu et al., 2022; Tlili et al., 2023; Mollick & Mollick, 2022). There are many reported benefits for using generative AI in tasks, such as remembering all the lessons, answering questions about the learning material, and helping facilitate some administration issues and teacher tasks (Adamopoulou & Moussiades, 2020). Researchers in Taiwan evaluated the use of chatbots for engagement with reading material; they found that the students maintained a better engagement and that students felt the output was real (Liu et al., 2022). Other studies suggest that the more human the output from the technology, the more engaged the subjects appeared to embrace the interaction (Fiske et al., 2019; Liu et al., 2022). This is promising because educators have advocated the idea that being able to have personalized learning instruction would be a goal of instructional design (Heo & Lee, 2018; Skjuve et al., 2021; Smutny & Schreiberova, 2020; Tlili et al., 2023). Some preliminary studies show that these tools can positively help students and instructors in one-on-one tutoring situations (Hemachandran et al., 2022).

Students are not the only benefactors of the positive aspects of generative AI; the tool has been shown to have some competency in lesson creation and evaluation for instructors, too (Lim et al., 2023; Lund & Wang, 2023; Pickell & Doak, 2023). Mollick and Mollick (2022) have been developing assignments where one of them is to ask the generative AI tool to act as a student, and then students evaluate and critique the essay. This may mitigate some of the negative aspects discussed earlier in the paper by helping students exercise their critical thinking (Choi et al., 2023). Other researchers have used the tool for lesson planning and evaluations that may allow for the automation of some administrative tasks

(Tahiru, 2021). Tahiru also uses “AI to make textbook contents more coherent, and it is easy to navigate by introducing chapter summaries, flashcards, and practical tests” (2021, p. 3).

3.1.4 Learning Theory Association

The learning theory that best describes using Generative AI in education would be from the constructivist viewpoint (Schunk, 2020). The epistemology of a constructivist view shows the learner assembling their own knowledge while advocating for the interaction to help facilitate this, and “does not propound that learning principles exist and are to be discovered and tested, but rather that learners create their own learning” (Schunk, 2020, p. 315). When learners can ask questions and receive responses from the AI that support their learning task, help build ideas or remind them of their learning, it aligns well with the idea of creating their own knowledge as advised by a constructivist approach (Dirksen, 2015; Schunk, 2020). Some of the literature highlights the interactive nature of generative AI and that some positive relationships for learning add value to the students as they construct their understanding (Cukurova et al., 2019). The social aspect of the interaction is also part of the constructivism as Schunk points out:

“The assumption is that teachers should not teach in the traditional sense of delivering instruction to a group of students. Rather, they should structure situations as such that learners become actively involved with content through manipulation of materials and social interaction.” (Schunk, 2020, p. 315)

The other area of learning theory that applies to using generative AI in education concerns using memory and the ideas in the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Schunk, 2020). While the initial interaction with the tool looks similar to a basic internet search since the exchange is a more natural language based and replicates human-sounding conversation, the model helps construct responses that are new (Abrams, 2021; Cano, 2023; Dantas et al., 2022; Gordijn & Have, 2023). Dirksen says that “successful learning involves encoding and retrieval—memory in and memory out. Remembering is a necessary first step, but you must be able to retrieve, manipulate, combine, and innovate with the information you remember” (2015, p. 153). When using ChatGPT, the responses from the AI may aid lear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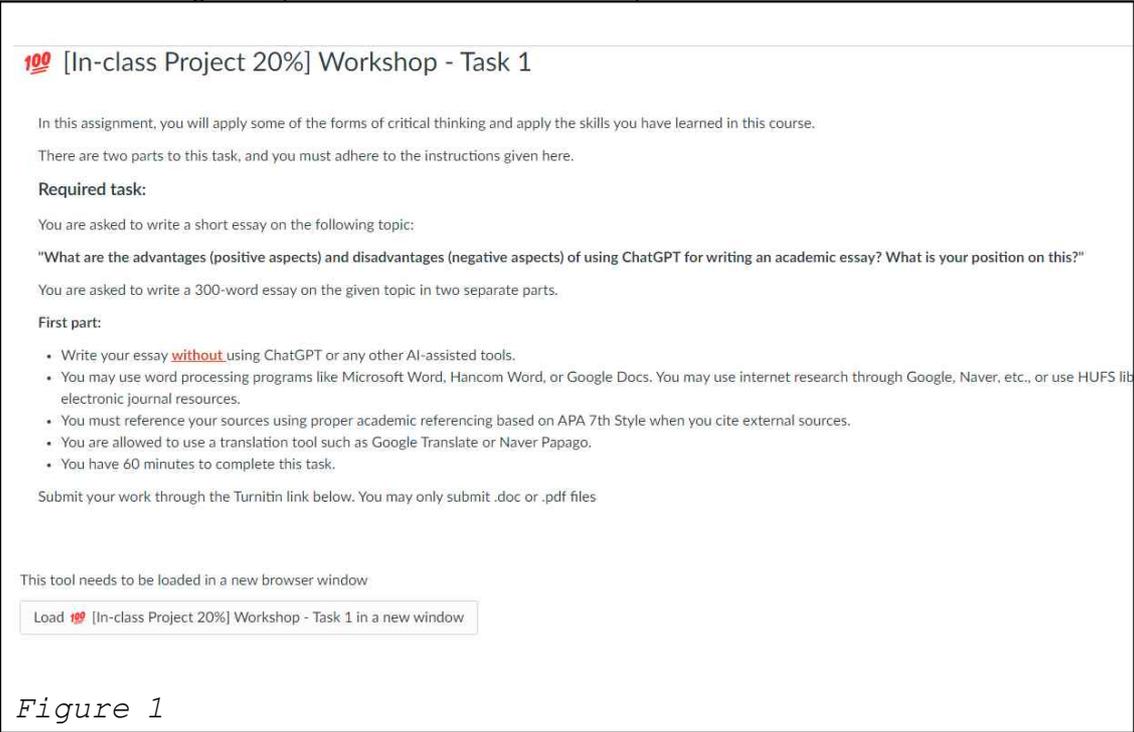
in memory retrieval if they can feed the AI adequate prompts (Mollick & Mollick, 2022).

3.2 Students On-Boarding Procedures

To investigate the potential effects of using ChatGPT on learning effectiveness, we employed Canvas by Instructure, an effective 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 to collect the assigned tasks. We designed two distinct tasks to assess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ChatGPT could be utilized and determine if any additional benefits could be derived from its usage.

3.2.1 Tasks involving academic research and critical thinking.

The objective of the task was to investigate the potential of ChatGPT as an effective research aid and determine its impact on students' critical thinking abilities. The task was divided into three stages. Initially, students were instructed to write essays on a given topic using only traditional research aids like internet search and library resources. They were explicitly instructed not to consult ChatGPT during this phase to allow for a comparison of outcomes between tasks.



100 [In-class Project 20%] Workshop - Task 1

In this assignment, you will apply some of the forms of critical thinking and apply the skills you have learned in this course.

There are two parts to this task, and you must adhere to the instructions given here.

Required task:

You are asked to write a short essay on the following topic:

"What are the advantages (positive aspects) and disadvantages (negative aspects) of using ChatGPT for writing an academic essay? What is your position on this?"

You are asked to write a 300-word essay on the given topic in two separate parts.

First part:

- Write your essay **without** using ChatGPT or any other AI-assisted tools.
- You may use word processing programs like Microsoft Word, Hancom Word, or Google Docs. You may use internet research through Google, Naver, etc., or use HUFSS library electronic journal resources.
- You must reference your sources using proper academic referencing based on APA 7th Style when you cite external sources.
- You are allowed to use a translation tool such as Google Translate or Naver Papago.
- You have 60 minutes to complete this task.

Submit your work through the Turnitin link below. You may only submit .doc or .pdf fi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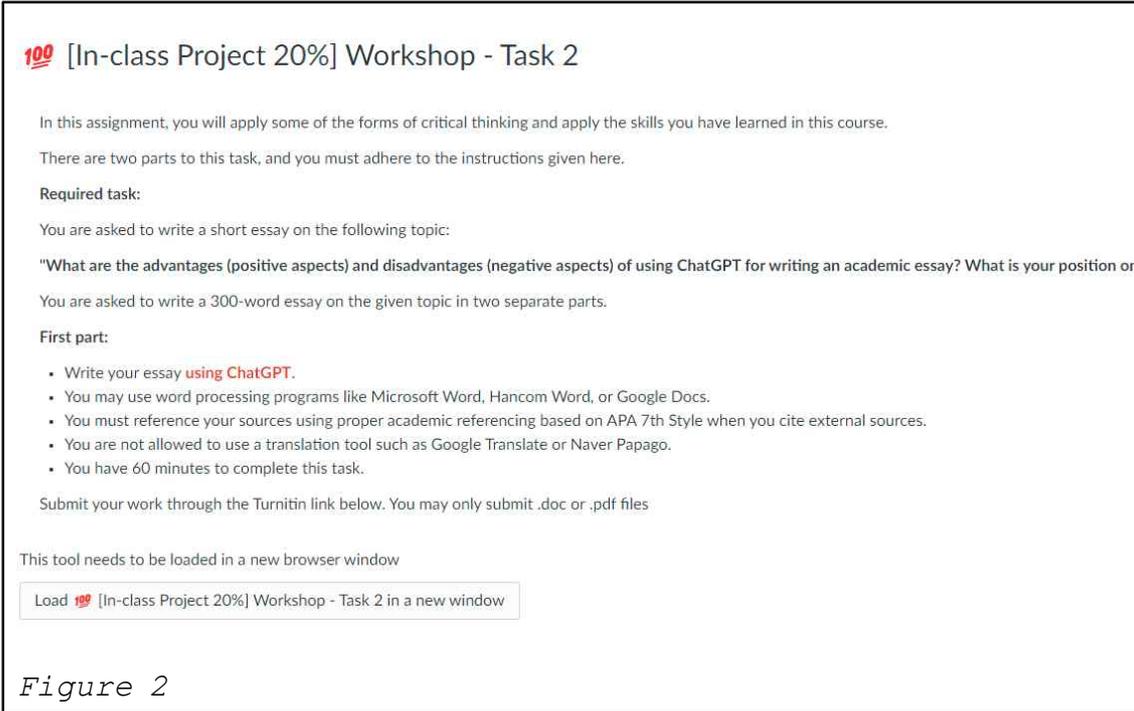
This tool needs to be loaded in a new browser window

Load **100** [In-class Project 20%] Workshop - Task 1 in a new window

Figure 1

Next, the second task involved students writing the same essay but with the

option to utilize ChatGPT either fully or partially as an aid. The extent to which they chose to utilize ChatGPT was left to their discretion, but it was emphasized that ChatGPT should be the primary source of assistance.



100 [In-class Project 20%] Workshop - Task 2

In this assignment, you will apply some of the forms of critical thinking and apply the skills you have learned in this course.

There are two parts to this task, and you must adhere to the instructions given here.

Required task:

You are asked to write a short essay on the following topic:

"What are the advantages (positive aspects) and disadvantages (negative aspects) of using ChatGPT for writing an academic essay? What is your position on

You are asked to write a 300-word essay on the given topic in two separate parts.

First part:

- Write your essay **using ChatGPT**.
- You may use word processing programs like Microsoft Word, Hancom Word, or Google Docs.
- You must reference your sources using proper academic referencing based on APA 7th Style when you cite external sources.
- You are not allowed to use a translation tool such as Google Translate or Naver Papago.
- You have 60 minutes to complete this task.

Submit your work through the Turnitin link below. You may only submit .doc or .pdf files

This tool needs to be loaded in a new browser window

Load **100** [In-class Project 20%] Workshop - Task 2 in a new window

Figure 2

The third task required students to share or capture screen prompts used in ChatGPT. This step aimed to facilitate the analysis of how students utilized ChatGPT during their research and writing process.

3.2.2 Tasks involving general English composition.

Another scope of the task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ChatGPT in writing general English compositions related to real-life scenarios, such as letter and email correspondence. The aim was to assess how well ChatGPT could assist students in composing written communication in various practical contexts.

ChatGPT Activity

Please add the text, a screenshot, and an image scan to each of the tables below based on the instructions.

Step 1: Human Writing

Your boss asked you to fly to Vietnam on a business trip this weekend to check on manufacturing issues. Your sister is getting married, and you cannot travel this weekend, but can another weekend, or during the week. Draft a handwritten response to this scenario in 200 words or less, telling the boss you cannot attend this weekend but provide a solution for being able to go.

Step 2: AI Writing

Copy and paste the following into ChatGPT

"My boss Mr. Business asked me to fly to Vietnam on a business trip this weekend to check on manufacturing issues. My sister is getting married, and I cannot travel this weekend, but can another weekend, or during the week. Please write a handwritten response to this scenario in 200 words or less telling my boss I cannot attend this weekend. Please be polite and professional."

Add your prompt link here:

Step 3: Human + AI

Using your Step 1 Writing, add the text to ChatGPT and have a conversation to improve and fix any errors. Use the share feature in ChatGPT to share the link to the conversation.

Add your prompt link here:

Figure 3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Results and Discussions)

As this was set as a class activity, participation in this explorative study was encouraging. The results for this study were obtained from two different avenues. The first one was based on the performance of the tasks provided by the students and was assessed based on the marking criteria of the essays/writings. The second avenue of the results was collected from reflective interviews with student post task completion.

These were then analyzed through MaxQDA qualitative data analysis tool.

4.1 Findings

4.1.1 Findings from task evaluation based on marking criteria for essays/correspondence writing

The marking of the two separate tasks revealed distinct areas where the utilization of ChatGPT had a superior impact, thereby balancing out the overall marks. However, it was surprising to note that the ChatGPT responses were not identical across all students, despite receiving the same prompts. Nevertheless, the overall approach taken by ChatGPT in generating responses remained similar, unless the students provided additional prompts that influenced the model's output. The study observed the following outcomes within the context of the marking criteria for essay writing and correspondence:

Contents: When aided by ChatGPT, students demonstrated a more balanced approach in covering comprehensive areas of the given topics. However, it was observed that ChatGPT's responses were sometimes confined and repetitive. This can be remedied by students providing additional prompts to ChatGPT that reflect their own perspectives. On the other hand, students who relied on traditional internet search and library resources exhibited more variation in their chosen topics.

Structure & flow: In terms of logical coherence and the flow of their writing, students who utilized ChatGPT experienced a notable improvement, as the model's assistance resulted in more succinct structures and logical progressions in their essays.

Coverage: In terms of coverage, the utilization of ChatGPT yielded noteworthy outcomes in the students' writings. The assistance provided by ChatGPT enabled students to achieve a more comprehensive exploration of the given topics. The model's suggestions and prompts guided students to delve into various areas and aspects related to the subject matter. This broadened perspective and comprehensive coverage enhanced the depth and richness of their essays and email correspondence.

Grammar and punctuation: Once again, ChatGPT proved to be highly beneficial in this aspect. The writings aided by ChatGPT, particularly for non-native English speakers, displayed superior grammar corrections and improved sentence structures, leading to enhanced coherence in their compositions.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e positive impact of ChatGPT on various aspects of the marking criteria. While ChatGPT assists students in achieving a balanced and comprehensive coverage of the topics,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in the model's response diversity. Students can contribute to this by providing additional prompts that prompt ChatGPT to generate more varied and personalized outputs. Notably, the utilization of ChatGPT greatly improved the logical flow and coherence of the writings. Furthermore, it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rectifying grammar and punctuation errors, particularly benefiting non-native English speakers. These observations highlight the potential of ChatGPT as a valuable tool to support students' writing skills in terms of content coverage, structure, logical flow, and grammar proficiency.

4.1.2 Findings from students reflective interviews of utilizing ChatGPT as a research aid, essay composition and letter/email composition.

We drew three key themes from the evidence gathered in our analysis that related to the research questions we formulated, which was used to illustrate the students' reflections on using the ChatGPT as a writing aid tool.

Pros/Benefits	"Using ChatGPT for emails made communication effortless. Its real-time suggestions for tone, language, and clarity ensured professional and concise messages, saving time
---------------	---

	<p>and leaving a lasting impression."</p> <p>"ChatGPT revolutionized my essay writing. It provided relevant research sources, sparking new ideas and prompting critical thinking. My essays became compelling, well-supported, and a reflection of my growth as a writer."</p> <p>"The impact of ChatGPT on my academic work was significant. It strengthened my arguments, refined my language, and improved the overall quality of my assignments. Its personalized feedback helped me excel in my writing."</p> <p>"What I appreciated about ChatGPT for email writing was the confidence it instilled. Its intelligent suggestions crafted professional and concise messages, making me feel assured in my communication."</p> <p>"ChatGPT transformed my research process for essays. Its suggestions enriched my sources and guided my thoughts, resulting in more compelling and well-supported arguments."</p> <p>"The collaboration between ChatGPT and me during essay writing was enlightening. Its prompts and suggestions refined my arguments, ensuring coherence and capturing the reader's attention from the beginning."</p> <p>"ChatGPT's assistance in essay writing inspired creativity. Its suggestions for unique angles and compelling introductions made my essays stand out and engage the reader."</p> <p>"Utilizing ChatGPT for research-intensive essays brought efficiency and depth. Its relevant sources and recommendations on citing and integrating evidence</p>
--	--

	<p>strengthened my arguments."</p> <p>"ChatGPT's support in email writing was invaluable. Its suggestions for professional language and concise explanations helped me craft effective messages that received positive responses."</p> <p>"ChatGPT's grammar suggestions refined my writing over time. It helped me identify errors, fine-tune sentence structures, and improve the overall coherence of my academic work."</p> <p>"Using ChatGPT for email correspondence resulted in more effective communication. Its suggestions for tone, language, and clarity allowed me to convey my thoughts accurately and concisely."</p> <p>"ChatGPT's language support elevated the sophistication of my writing. Its nuanced vocabulary suggestions expanded my linguistic repertoire and made my essays more impactful."</p> <p>"ChatGPT's grammar suggestions transformed my writing. It helped me fine-tune sentence structures and polish my prose, leading to improved coherence and professionalism in my academic work."</p>
<p>Cons/Challenges</p>	<p>"One challenge I encountered with ChatGPT for essay writing was its potential to become a crutch. It was crucial to strike a balance and ensure I retained my critical thinking skills instead of relying solely on the model's suggestions."</p> <p>"A drawback of using ChatGPT for email correspondence was its occasional inability to capture the nuances of context-specific communication. It sometimes provided generic responses that didn't address the unique nature of</p>

	<p>certain messages."</p> <p>"ChatGPT's suggestions for language and tone in essays were helpful, but it occasionally lacked the sensitivity to specific subject matters. I needed to carefully review and adapt the generated content to ensure it aligned with the topic and maintained my voice."</p> <p>"One challenge I faced with ChatGPT for email writing was the risk of sounding overly formal or robotic. It required me to carefully review and personalize the suggested language to maintain a human touch in my communication."</p> <p>"ChatGPT's suggestions for evidence incorporation were valuable, but it occasionally recommended sources that were outdated or not fully reliable. I had to double-check and verify the credibility of the suggested materials."</p> <p>"An issue I encountered with ChatGPT for essay writing was its tendency to prioritize quantity over quality. While it provided ample content suggestions, I needed to ensure I focused on selecting the most relevant and impactful information."</p> <p>"ChatGPT's language support was beneficial, but it sometimes suggested uncommon or overly complex vocabulary that didn't fit the context. I had to exercise judgment and adapt the suggestions to maintain clarity and coherence."</p> <p>"One challenge of using ChatGPT for email correspondence was the potential misinterpretation of the recipient's tone or intent. Relying solely on ChatGPT's suggestions without considering the recipient's context could lead to misunderstandings."</p>
--	--



	<p>"ChatGPT's grammar suggestions were helpful, but they occasionally overlooked contextual grammar rules. I had to manually review and ensure the suggested corrections were appropriate for the specific writing task."</p> <p>"A potential drawback of using ChatGPT for essay writing was the temptation to rely heavily on the model's ideas and arguments. It was important to maintain originality and ensure my own unique perspective was reflected in the final work."</p>
Effectiveness/preference of ChatGPT as a research/writing tool	<p>"As a non-native English speaker, I found ChatGPT to be an invaluable research and writing tool. Its language support and suggestions greatly improved my confidence and the overall quality of my work."</p> <p>"ChatGPT's assistance in research and writing was a game-changer for me. It provided relevant sources and guided me through the writing process, enabling me to produce well-structured and coherent essays."</p> <p>"Being a non-native English speaker, ChatGPT's language suggestions were immensely helpful in enhancing my writing. It introduced me to new vocabulary and improved my sentence structures, making my essays more polished."</p> <p>"ChatGPT's research aid was a blessing for me. It saved me time by suggesting credible sources and offering insights I might have missed. It helped me produce well-informed and comprehensive essays."</p> <p>"As a non-native English speaker, ChatGPT's grammar suggestions were invaluable. It assisted me in overcoming language barriers and improved the accuracy and professionalism of my written work."</p>

"ChatGPT made research and writing more accessible for me as a non-native English speaker. Its assistance in organizing ideas and generating coherent paragraphs streamlined my essay writing process."

"I preferred using ChatGPT for research as it exposed me to diverse perspectives and sources that I might not have discovered on my own. It broadened the scope of my essays and enriched the overall content."

"ChatGPT's assistance as a research and writing tool was a time-saver. As a non-native English speaker, it provided language support and suggested improvements that enhanced the clarity and impact of my essays."

"ChatGPT's guidance was instrumental in my research process. It helped me develop stronger arguments, find evidence to support my claims, and ensured that my essays were well-structured and persuasive."

"As a non-native English speaker, ChatGPT's support in writing emails was invaluable. It offered language suggestions and polished my messages, ensuring effective communication and helping me build professional relationships."

"ChatGPT's writing suggestions were particularly helpful for me as a non-native English speaker. It guided me in selecting appropriate vocabulary, improving sentence structures, and making my essays more eloquent."

"ChatGPT's assistance in research and writing allowed me to explore topics beyond my initial knowledge. It prompted critical thinking and provided valuable insights, making my essays more comprehensive and insightful."

"Being a non-native English speaker, ChatGPT's language

	support was a game-changer for me. It offered grammar suggestions and helped me express my ideas more fluently, improving the overall coherence and readability of my essays."
--	--

Based on the excerpts from students' reflection interviews presented above, we have compiled a summary of the benefits and challenges associated with utilizing ChatGPT for writing essays and correspondence.

4.2 Application of Findings to the Objectives

4.2.1 Benefits Identified and Ways to Extend

By analyzing the above responses, we have gathered the following overarching keywords that represent the benefits and pros of utilizing ChatGPT as a research and essay writing tool, as well as for general English composition writing:

- Effortless communication
- Real-time suggestions
- Professional and concise messages
- Time-saving
- Compelling essays
- Well-supported arguments
- Improved language and grammar
- Critical thinking
- Enhanced creativity
- Efficiency in research
- Stronger arguments
- Personal growth as a writer
- Confidence in communication
- Enhanced vocabulary usage
- Improved coherence and professionalism

These keywords capture the main themes and benefits expressed in the comments, highlighting the positive impact of ChatGPT as a research and writing tool in various aspects of communication, language proficiency, writing quality,

critical thinking, and personal growth as a writer.

The benefits and pros of using ChatGPT, as highlighted in the responses from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align with the objectives of the research. Firstly, ChatGPT offers a valuable tool for enhancing communication effectiveness, particularly in email correspondence. Its real-time suggestions for tone, language, and clarity empower users to craft professional and concise messages effortlessly. This not only saves time but also leaves a lasting impression on the recipients. Moreover, the personalized feedback and intelligent suggestions of ChatGPT instill confidence in the users, enabling them to communicate their thoughts accurately and concisely. This aspect of ChatGPT supports the objective of exploring its integration with traditional teaching methods, as it provides students with a valuable resource for improving their writing and communication skills.

Secondly, ChatGPT demonstrates its potential for revolutionizing essay writing and academic work. It serves as an effective research aid, providing relevant sources, sparking new ideas, and prompting critical thinking among users. By enriching research sources and guiding thoughts, ChatGPT helps students develop more compelling and well-supported arguments in their essays. The collaboration between ChatGPT and users in the essay writing process ensures coherence in arguments, captures the reader's attention from the beginning, and inspires creativity with suggestions for unique angles and compelling introductions. These benefits align with the objective of investigating the impact of ChatGPT on student engagement and learning outcomes. By offering valuable guidance and support, ChatGPT empowers students to produce higher-quality assignments, refine their language skills, and excel in their academic work.

4.2.2 Challenges Identified and Ways to Remedy

The following list highlights the challenges that are commonly encountered from students' reflections on their experiences of writing an essay/written correspondence:

- Dependency on suggestions
- Striking a balance
- Critical thinking skills

- Nuances of context-specific communication
- Generic responses
- Sensitivity to subject matters
- Personalizing the language
- Human touch in communication
- Outdated or unreliable sources
- Verifying credibility
- Quantity versus quality
- Relevant and impactful information
- Contextual vocabulary usage
- Misinterpretation of tone or intent
- Overlooking contextual grammar rules

These keywords represent the recurring challenges and drawbacks expressed in the comments, highlighting the potential limitations and areas for improvement when using ChatGPT for essay writing and email/letter correspondence.

The challenges and cons of using ChatGPT, as reflected in the responses from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provide insights that align with the objectives of the research. One common challenge highlighted is the potential for ChatGPT to become a crutch in essay writing, which may hinder the retention of critical thinking skills. This raises the need for users to strike a balance and ensure that they maintain their own analytical abilities rather than solely relying on the model's suggestions. This finding contributes to the objective of identifying potential challenges and limitations of implementing ChatGPT in the educational context, as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fostering independent thinking and avoiding overreliance on the tool.

Another challenge mentioned is the occasional inability of ChatGPT to capture the nuances of context-specific communication in email/letter correspondence. Users reported that the model sometimes provided generic responses that did not address the unique nature of certain messages. This finding aligns with the objective of exploring the feasibility of integrating ChatGPT into the classroom environment, as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context and the specific needs of the communication task. It highlights the need for users to carefully review and adapt the generated content to ensure it aligns with the intended message and maintains a human touch. Addressing these challenges can help develop guidelines and

safeguards for responsible and effective usage of ChatGPT in educational settings.

Overall, the challenges and cons identified in the responses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understanding the potential limitations and considerations when using ChatGPT for essay writing and email correspondence. By recognizing these challenges and developing strategies to overcome them, educators and students can make informed decisions about the integration of ChatGPT, ensuring its responsible and effective usage as a tool for enhancing teaching, learning, and communication.

5.1 Discussion and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valuable insights into the benefits and challenges associated with using ChatGPT in an educational context. The findings support the notion that ChatGPT can be a powerful tool for enhancing various aspects of communication and writing, including email correspondence, essay writing, and general English composition. The real-time suggestions for tone, language, and clarity generated by ChatGPT can save time and improve the overall quality of messages and assignments. Additionally, students reported that ChatGPT's support in research and essay writing sparked new ideas, prompted critical thinking, and strengthened their arguments. These findings align with previous research highlighting the potential of AI language models like ChatGPT to revolutionize educational practices.

However, it is important to acknowledge the challenges and limitations identified in the study. The risk of overreliance on ChatGPT was a common concern raised by participants, as it could potentially diminish critical thinking skills if used as a crutch. Moreover, participants highlighted instances where ChatGPT lacked sensitivity to specific subject matters or provided generic responses that did not align with the intended context. These challenges underscore the need for students and educators to exercise judgment and adapt the suggestions provided by ChatGPT to maintain originality and ensure the content aligns with the specific requirements of the task.

To optimize the use of ChatGPT, it is recommended that students leverage its capabilities strategically. The tool can be particularly valuable during the planning and editing stages of writing, where students can benefit from its assistance in

structuring ideas, fixing flow, and addressing grammar mistakes.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to students that they are in control and must actively engage in critical thinking throughout the writing process. By incorporating ChatGPT as a supportive tool rather than relying on it exclusively, students can enhance their writing skills while retaining their own voice and perspective.

In conclusion, the study highlights the potential benefits of using ChatGPT in education while acknowledging the challenges that arise. By understanding the capabilities and limitations of ChatGPT, educators can guide students to make the best use of the tool. Critical thinking can be enhanced by using ChatGPT selectively and being mindful of its prompts. It is essential to remind students that they are ultimately responsible for their work and that ChatGPT is a tool to assist and enhance their abilities. Moving forward, it is crucial to continue developing guidelines and safeguards to ensure the responsible and effective integration of ChatGPT in educational settings, and to conduct further research to refine its capabilities and address specific concerns, such as capturing context-specific nuances and providing more tailored assistance.

※ 참고문헌

Abrams, Z. (2021). The promise and challenges of AI. <https://www.apa.org>.
<https://www.apa.org/monitor/2021/11/cover-artificial-intelligence>

Adamopoulou, E., & Moussiades, L. (2020). Chatbots: History, technology, and applications. *Machine Learning with Applications*, 2, 1 - 18.
<https://doi.org/10.1016/j.mlwa.2020.100006>

Alkaisi, H., & McFarlane, S. I. (2023). Artificial hallucinations in ChatGPT: Implications in scientific writing. *Cureus*. <https://doi.org/10.7759/cureus.35179>

Branch, R. M. (2009). *Instructional Design: The ADDIE Approach*. Springer US.
<https://doi.org/10.1007/978-0-387-09506-6>

Cano, Y. M. Y. (2023). ChatGPT and AI text generators: Should academia adapt or

resist. Harvard Business Publishing.
<https://hbsp.harvard.edu/inspiring-minds/chatgpt-and-ai-text-generators-should-academia-adapt-or-resist?>

Choi, E. P. H., Lee, J. J., Ho, M. H., Kwok, J. Y. Y., & Lok, K. Y. W. (2023). Chatting or cheating? The impacts of ChatGPT and other artificial intelligence language models on nurse education. *Nurse Education Today*, 125, 105796. <https://doi.org/10.1016/j.nedt.2023.105796>

Coghlan, S., Miller, T., & Paterson, J. (2021). Good proctor or “big brother”? Ethics of online exam supervision technologies. *Philosophy & Technology*, 34(4), 1581-1606. <https://doi.org/10.1007/s13347-021-00476-1>

Cukurova, M., Kent, C., & Luckin, R. (2019).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ultimodal data in the service of human decision-making: A case study in debate tutoring.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50(6), 3032-3046. <https://doi.org/10.1111/bjet.12829>

Dantas, L., Estrela, E., & Yuan, Z. (2022). What can AI learn from teachers and students? A contribution to build the research gap between AI technologies and pedagogical knowledge.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and Pedagogy*, 3(6), 189-198. <https://doi.org/10.24018/ejedu.2022.3.6.509>

Dirksen, J. (2015). *Design for how people learn*. New Riders.

Felix, C. V. (2020). The role of the teacher and AI in education. In E. Sengupta, P. Blessinger, & M. S. Makhanya (Eds.), *Innovations in Higher Education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the Role of Technology in Humanizing Higher Education* (Vol. 33, pp. 33-48). Emerald Publishing Limited. <https://doi.org/10.1108/s2055-364120200000033003>

Fiske, A., Henningsen, P., & Buyx, A. (2019). Your robot therapist will see you now: Ethical implications of embodied artificial intelligence in psychiatry,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21(5), e13216. <https://doi.org/10.2196/13216>

Floridi, L. (2023). AI as agency without intelligence: On ChatGPT, large language models, and other generative models. *Philosophy & Technology*, 36(15). <https://doi.org/https://doi.org/10.1007/s13347-023-00621-y>

Gordijn, B., & Have, H. T. (2023). ChatGPT: evolution or revolution. *Medicine, Health Care and Philosophy*, 26(1), 1-2. <https://doi.org/10.1007/s11019-023-10136-0>

Hemachandran, K., Verma, P., Pareek, P., Arora, N., Rajesh Kumar, K. V., Ahanger, T. A., Pise, A. A., & Ratna, R. (2022). Artificial intelligence: A universal virtual tool to augment tutoring in higher education. *Computational Intelligence and Neuroscience*, 2022, 1-8. <https://doi.org/10.1155/2022/1410448>

Heo, M., & Lee, K. J. (2018). Chatbot as a new business communication tool: The case of naver TalkTalk. *Business Communication Research and Practice.*, 1(1), 41-45. <https://doi.org/10.22682/bcrp.2018.1.1.41>

Javed, R. T., Nasir, O., Borit, M., Vanhee, L., Zea, E., Gupta, S., Vinuesa, R., & Qadir, J. (2022). Get out of the BAG! Silos in AI ethics education: Unsupervised topic modeling analysis of global AI curricula. *Journ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73, 933-965. <https://doi.org/10.1613/jair.1.13550>

Kavitha, V., & Lohani, R. (2019). A critical study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e-Learning technology and tools to enhance the learners experience. *Cluster Computing*, 22(S3), 6985-6989. <https://doi.org/10.1007/s10586-018-2017-2>

Lim, W. M., Gunasekara, A., Pallant, J. L., Pallant, J. I., & Pechenkina, E. (2023). Generative AI and the future of education: Ragnarök or reformation? A paradoxical perspective from management educator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21(2), 100790. <https://doi.org/10.1016/j.ijme.2023.100790>

Liu, C.-C., Liao, M.-G., Chang, C.-H., & Lin, H.-M. (2022). An analysis of children's interaction with an AI chatbot and its impact on their interest in reading. *Computers & Education*, 189, 104576. <https://doi.org/10.1016/j.compedu.2022.104576>

Lund, B. D., & Wang, T. (2023). Chatting about ChatGPT: how may AI and GPT impact academia and libraries. *Library Hi Tech News*, ahead-of-print(ahead-of-print). <https://doi.org/10.1108/LHTN-01-2023-0009>

McKinsey, E. (2023). What is ChatGPT AI. McKinsey. <https://www.mckinsey.com/featured-insights/mckinsey-explainers/what-is-generative-ai>

Mollick, E. R., & Mollick, L. (2022). New modes of learning enabled by AI chatbots: Three methods and assignments. *SSRN Electronic Journal*. <https://doi.org/10.2139/ssrn.4300783>

Northcutt, C. G., Ho, A. D., & Chuang, I. L. (2016). Detecting and preventing "multiple-account" cheating in massive open online courses. *Computers & Education*, 100, 71-80. <https://doi.org/10.1016/j.compedu.2016.04.008>

Pavlik, J. V. (2023). Collaborating with ChatGPT: Considering the implications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for journalism and media education.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Educator*. <https://doi.org/10.1177/10776958221149577>

Pickell, T. R., & Doak, B. R. (2023). Five ideas for how professors can deal with GPT-3. for now. *Faculty Publications - George Fox School of Theology*. <https://digitalcommons.georgefox.edu/ccs/432>

Riad, J. (2023). Academic dishonesty in higher education: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Journal of Research Initiatives*, 7(2). <https://digitalcommons.uncfsu.edu/jri/vol7/iss2/11>



- Schunk, D. H. (2020). Learning theories: an educational perspective. Pearson.
- Skjuve, M., Følstad, A., Fostervold, K. I., & Brandtzaeg, P. B. (2021). My Chatbot Companion - a Study of Human-Chatbot Relationship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Studies*, 149, 102601. <https://doi.org/10.1016/j.ijhcs.2021.102601>
- Smutny, P., & Schreiberova, P. (2020). Chatbots for learning: A review of educational chatbots for the Facebook Messenger. *Computers & Education*, 151, 103862. <https://doi.org/10.1016/j.compedu.2020.103862>
- Stokel-Walker, C., & Van Noorden, R. (2023). What ChatGPT and generative AI mean for science. *Nature*, 614(7947), 214-216. <https://doi.org/10.1038/d41586-023-00340-6>
- Susnjak, T. (2022). ChatGPT: The end of online exam integrity. arXiv, 2212.09292v1. <https://arxiv.org/abs/2212.09292v1>
- Tahiru, F. (2021). AI in education. *Journal of Cases on Information Technology*, 23(1), 1-20. <https://doi.org/10.4018/jcit.2021010101>
- Terwiesch, C. (2023). Would chat GPT3 get a Wharton MBA? A prediction based on its performance in the operations management course. Mack Institute for Innovation Management at the Wharton School, University of Pennsylvania. <https://mackinstitute.wharton.upenn.edu/2023/would-chat-gpt3-get-a-wharton-mba-new-white-paper-by-christian-terwiesch/>
- Tlili, A., Shehata, B., Adarkwah, M. A., Bozkurt, A., Hickey, D. T., Huang, R., & Agyemang, B. (2023). What if the devil is my guardian angel: ChatGPT as a case study of using chatbots in education. *Smart Learning Environments*, 10(1), 15. <https://doi.org/10.1186/s40561-023-00237-x>
- Ulnicane, I., Knight, W., Leach, T., Stahl, B. C., & Wanjiku, W.-G. (2021). Framing governance for a contested emerging technology: insights from AI policy. *Policy and*



Society, 40(2), 158-177. <https://doi.org/10.1080/14494035.2020.1855800>

van Dis, E. A. M., Bollen, J., Zuidema, W., van Rooij, R., & Bockting, C. L. (2023). ChatGPT: five priorities for research. *Nature*, 614(7947), 224-226. <https://doi.org/10.1038/d41586-023-00288-7>

Watson, G., & Sottile, J. (2010). Cheating in the digital age: Do students cheat more in online courses. *Online Journal of Distance Learning Administration*, 13(1). https://mds.marshall.edu/eft_faculty/1/

「 문학 수업에서 작품 이해와 토론참여 효과를 높이기 위한 ChatGPT활용 」

강채희 교원, 홍구슬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2019년 2월 미국의 OpenAI사는 GPT-2¹⁾ 모델을 홍보하기 위한 언어 모델 샘플을 공개했다. 기초적인 독해, 기계 번역, 질문 응답 및 요약 수행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 (a large-scale language model)²⁾로 공개된 샘플 중 하나의 프롬프트(질문)는 다음과 같다.

For today's homework assignment, please describe the reasons for the US Civil War.

오늘의 숙제, 미국 남북전쟁의 원인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³⁾

위 질문에 답변으로 GPT-2는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가지는 A4용지 2~3장 분량의 약 500 단어로 이루어진 보고서를 작성했다. GPT-2 모델은 특정 단어 뒤에 올 다음 단어를 예측하도록 훈련되었다. 인간은 글을 쓸 때 어떤 단어들을 서로 연결해야 좋을지 고민하고 결정하여 논리적인 문장을 만들어 내는데, 이것을 AI 기술로 구현하는 것은 그동안 꽤 어려운 문제였다. 하지만 GPT-2가 작성한 텍스트 샘플들은 그것의 작성자가 인간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단순히 프롬프트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역사 수업의 작문 과제를 몇 분 안에 완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2022년 겨울 더욱 발전된 최신 ChatGPT-3.5 모델이 출시되고, 2023년 봄 학기가 시작될 무렵 인문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놀라움과 우려가 동시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출판물과 언론을 통해 이 도구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새로운 의견을 매일 접할 수 있었다. 외신 보도에서는 ChatGPT를 이용해 작성한 보고서에 0점을 주었다 거나, ChatGPT를 이용해 과제를 작성했는지를 판별하

1) 권기대: 챗GPT혁명. 베가박스 2023, 40-41쪽 참조. 'Generative(생성) Pretrained(사전 학습된) Transformer (트랜스포머: 신경망모델)의 약자. 정해진 답이 아니라 답을 생성해내며, 실시간 학습이 아니라 사전 학습에 기반한 정보만을 반영하고, 언어의 맥락을 파악하고 대화를 기억하는 신경망 모델을 갖추었다. 2020년 GPT-1이 출시된 후 꾸준히 업그레이드 중이다.'

2) 같은 책. "텍스트를 읽고 요약하고 번역할 뿐 아니라 한 문장에서 다음에 나올 단어들을 예측할 수 있는 AI도구를 가리킨다."

3) <https://openai.com/research/better-language-models>. (검색일 : 2023.7.9.)

는 프로그램이 등장했으며, 수업시간에 챗봇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는 내용 등이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런 추세를 인정하고 교육 환경이 적극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접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진행하는 도중에도 ChatGPT는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여 3월에는 GPT-4 버전이 공개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ChatGPT를 직접 사용해본 후, 인문학 분야에서도 AI기술의 보편적 활용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수업을 진행해 보기로 했다. 과거 대학 레포트를 수기가 아닌 컴퓨터로 작성하여 제출하기 시작했을 때, 휴대용 컴퓨터와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강의실에 노트북을 가지고 들어와 수업을 듣기 시작했을 때, 참고문헌 출처를 위키피디아로 링크하는 시대가 도래했을 때도 현재와 비슷한 놀라움, 당황스러움, 그리고 기대가 혼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변화에 결국 적응하였고 이를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ChatGPT를 누구나 쉽게 접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기존의 과제 출제 방식이나 강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수업의 교육적 효과를 발휘하는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AI 시대에 적합한 효과적인 교수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ChatGPT를 문학 수업과 과제에 적용해 보는 것으로, 2023년 1학기 동안 세 과목의 문학 강의에서 총 72명의 학생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본 연구의 주제는 ‘문학 수업에서 ChatGPT의 활용이 작품 이해와 토론 참여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이 문학 작품과 작가, 등장인물, 주제, 배경, 관련 이론 등에 능동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를 통해 수업 참여와 흥미, 창의성, 비판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ChatGPT를 어떻게 활용하면 효과적일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질문 생성: 학생들이 작품에 대해 궁금한 점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 자신만의 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 ChatGPT와의 대화: 차별화된 자신만의 질문 (각자가 다른 질문)을 ChatGPT에 입력하고, 그 답변을 통해 대화를 이어 나가며 작품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 ChatGPT의 답변 분석: ChatGPT가 출력한 결과가 자신이 의도한 결과인지 검증하고 분석하면서, 다시 질문하거나 반론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키운다. 또한 이 결과물을 보고 교수자는 학생의 학습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 토론: 학생들은 서로의 질문과 ChatGPT가 출력한 분석 내용을 비교하고 토론해본다. 이런 방식으로 각자의 다양한 관점을 주고받으면서 작품에 대한 참신하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해진다.

- 설문조사와 학생들의 강의 소감을 포함한 실험의 결과로 ChatGPT가 교육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한다.
- ChatGPT를 활용한 문학 수업의 한계와 문제점 도출, 개선점 제시: ChatGPT를 수업에 적용하면서 마주치게 될 수 있는 문제나 한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거나 개선할 수 있을지 의견을 제시한다.

3. 연구 진행 내용

3.1. 첫 번째 수업 - 과제 수행 도구로서 ChatGPT 활용: 질문 생성

ChatGPT를 활용하는 문학 수업의 과제는 기존 과제와 비교하여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책을 읽고 정해진 형식을 갖춘 감상평을 단순히 ChatGPT의 도움을 받아 3장 이상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ChatGPT의 핵심은 Chat (이야기 나누다 또는 수다를 떨다), 즉 대화를 이끌어내는 기능에 있다. 그렇다면 어떤 ‘채팅’을 해야 하며, 어떻게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자신만의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어낼 것인가? 또한 이러한 채팅 방식이 어떻게 우리의 세미나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며 과제를 출제했다.

수업에서 다루는 작가의 대부분은 이미 고인이며, 그들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실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자는 작가의 의도나 등장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추론하고 근거가 되는 자료를 검색, 학습하여 분석한다. 그런데 만약 ChatGPT에게 이런 프롬프트를 입력해본다면 어떨까? “지금부터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와 대화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프로이트씨, 카프카의 《변신》에서 그레고르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벌레로 변신하였는데요, 이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런 방식의 질문은 다소 엉뚱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를 수행하는 학생들에게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카프카의 《변신》을 분석하시오’ 라는 과제보다 더 이해하기 쉽고, 생동감 있으며, 흥미로운 접근법이 될 것이다. 이 과제 실험은 ChatGPT가 100년 전의 인물인 프로이트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생전에 알지 못했을 카프카라는 작가와 그의 작품을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타당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졌을 거라는 전제에서 실행되었다. 이러한 채팅 방식은 구글 검색이나, 전문서적 또는 교수자에게서 기대하기 어려운 새로운 학습 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3.1.1. ChatGPT와의 대화: 작가와 인터뷰

이제 학생들의 과제를 보도록 하자. '첫 번째 수업'에서 ChatGPT를 활용하여 수행할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다.

ChatGPT 활용

- 수업시간에 다룬 문학작품을 선택하여 작가, 또는 등장인물과 인터뷰하기
- 질문은 최소 3개 이상이나,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추가해도 좋다.
- 인터뷰 진행 도중 새로운 질문이 생긴다면, 자유롭게 이어 나가도록 한다.
- 각 질문에 대해 왜 그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할 것.

<과제 예시> 학생 A: 사용한 버전 ChatGPT- 4

학생A는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를 작성하여 ChatGPT와 인터뷰를 시도했다.



이렇게 학생A와 ChatGPT는 각각 인터뷰어와 카프카라는 가정하에 역할놀이처럼 대화를 이어 나가며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A 당신은 <Der Brief an den Vater>에서 말했듯 아버지를 두려워했는데요. 그런 두려움이 <Das Urteil>에 투영되었습니까?

Please write in Korean language.

 저, 프란츠 카프카는 아버지와 관계가 내 작품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Der Brief an den Vater"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나는 아버지에 대한 내 복잡하고도 갈등하는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Das Urteil" ("판결") 같은 작품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Das Urteil"에서 주인공인 조지 벤트만이 아버지에 의해 판결을 받게 되는 장면은, 사실 나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이 반영된 것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엄격함과 기대에 짓눌려 왔으며, 이러한 감정은 나의 작품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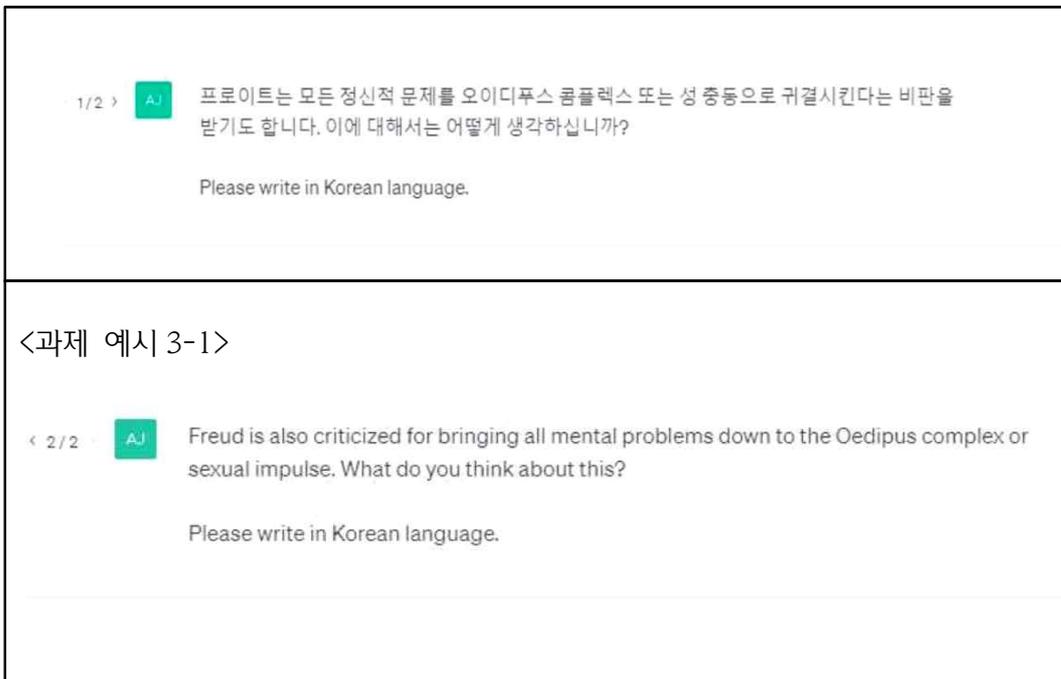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은 나의 삶과 작품 모두에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Das Urteil"은 이러한 두려움이 어떻게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나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나의 예술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위에서 '학생 A'는 과제 작품으로 독일 작가 프란츠 카프카 (Franz Kafka, 1883-1924)의 단편소설 《선고das Urteil》(1913)를 선정했다. 《선고》에는 주인공 아들과 권위적인 아버지 간의 갈등이 뚜렷하게 서술되어 있다.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 Der Brief an den Vater》(1919)는 카프카가 실제로 자신의 부친에게 썼으나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선고》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많이 참고되는 편지 글이다.

물론 위 예시는 실제 카프카의 답변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수집된 카프카의 작품,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논문들을 종합, 조합하여 확률적으로 선택을 받은 단어의 조합에 의한 예상된 결과일 뿐이다. 실제 카프카라면 (그의 성격상) 아마 노코멘트 하거나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마치 작가 본인과 이야기를 나누듯 작품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된다.

3.1.2. ChatGPT의 답변 분석: 스스로 사고하여 결과를 검증

<과제 예시 3>



<과제 예시3> 에서 ‘학생 A’는 ChatGPT가 제공한 답변의 오류를 발견하였고, 질문언어를 영어로 변경하여 <과제 예시3-1>에서 재시도 했다. ‘학생 A’는 ChatGPT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심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질문을 수정한 것이다.⁴⁾

‘학생 A’의 예시처럼 ChatGPT 답변의 오류를 인식하고 질문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사전 지식과 비판적인 사고력이 요구된다. 이는 ChatGPT를 활용할 때 어떠한 태도와 접근 방식이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이 과제 실험을 통해 AI를 정보의 소스로서만 사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정보를 검증하고 분석하는 사용자의 능력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과제 수행 과정을 통해 교수자는 학생들이 충분한 독서를 하였는지, 관련된 이론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스스로 하는 질문과 검증으로 이루어진 ChatGPT 학습은 학생들이 과제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창의적인 사고와 비판적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3.2. 두 번째 수업 (1) - GPT를 활용한 토론수업과 과제작성 진행방식

토론수업 전, GPT를 수업 시간 내에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사용 방법을 숙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수업은 문학작품을 읽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학습자에게 작품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4) 학생A는 문장 간의 호응관계가 맞지 않다고 하였는데, 이는 한국어로 된 정보자체의 오류이거나, 번역의 오류일 수 있다.

토론은 조별로 이루어졌으며, 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학습자의 원활한 토론 진행과 GPT의 바람직한 활용을 통한 생각 확장을 위해 교수자는 학습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방식으로 토론 과정을 감독했다. 학습자에게 GPT를 활용할 경우 GPT가 제공하는 정보가 확실한지 확인하고 토론해볼 것을 요구했다. 조 안에서 토론의 중단, 잘못된 정보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질문을 함으로써 토론에 개입했다. 토론을 마친 뒤 조별로 학습자를 무작위로 선발해 발표를 하도록 했다.

과제를 작성할 때에도 GPT를 활용하도록 했다. 과제는 세 가지로, 1페이지 분량의 논술과 GPT를 통해 검색한 질문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설문조사에 응하는 것이었다. 논술의 경우 GPT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 근거를 반드시 각주로 표기하도록 했으며 틀린 정보가 있을 경우 감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학습자에게 설문조사가 GPT연구에 활용될 것이라는 점과 개인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페이지만이 연구에 활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학습자가 토론 수업과 과제 작성시 GPT를 활용하며 느낀 점을 답변하도록 설문지를 구성했으며, 예/아니오 둘 중 하나를 답변으로 선택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했다. 더 나아가 토론 수업과 과제 작성에서의 GPT 활용방법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토론과 과제작성에 대한 설문을 분리했고 종합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설문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GPT에 대한 학생의 의견이 학생의 점수를 좌지우지 않는다는 점과 답변의 성실도만이 반영될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학습자는 토론 수업 내에서, 그리고 과제 작성 시 ChatGPT를 활용했으며, 학습자가 작성한 설문지에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GPT 토론 수업에서 활용되었을 때와 과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활용되었을 때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4.1. 두 번째 수업 (2) - 토론 수업과 과제작성에서의 GPT 활용에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지는 토론 수업, 과제 작성, 전반적 활용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설문을 분리함으로써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 GPT가 학습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토론 환경이나 과제 작성시 학습자가 GPT를 남용하지 않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토론 수업과 과제 작성에 GPT를 활용한 뒤 설문에 참여한 학생은 총 22명이었다.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설문에 대한 답변에 각각 0.5표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

하고 결과를 산출했다. 더 나아가 예/아니오 질문에 이어지는 구체적 답변을 통해 학습자의 의견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토론 수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설문(토론에서의 활용)	답변	백분율
GPT가 독일 문학 토론 수업에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생각하나요?	된다	70%
	안된다	30%
독일문학토론 수업 내에서의 GPT활용이 수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했나요/유발하지 않았나요?	유발했다	82%
	유발하지 않았다	18%
토론 수업 내에서의 GPT활용이 학습욕구를 충족시켰나요/충족시키지 못했나요?	충족시켰다	59%
	충족시키지 못했다	41%
GPT 활용이 토론에 도움/방해가 되었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그러했나요?	도움이 됐다	70%
	방해가 됐다	30%
GPT 활용이 독일 문학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도움이 되지 않았나요?	도움이 됐다	55%
	도움이 되지 않았다	45%
수업시간에 GPT를 활용했을 때 능동적으로/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언제 그러했나요?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64%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36%
수업시간에 GPT를 사용하면서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였고 어떻게 해결했나요?	의문이 들었다	100%
	안들었다	0%

<토론 수업에서의 GPT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문학토론수업 내에서의 GPT 활용이 수업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학습자는 70%로 과반수 이상이 GPT 활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GPT 활용이 학습자에게 흥미를 유발한다는 학생은 82%였으며, 18%에 해당하는 몇몇 학생의 경우 GPT가 그저 신기술이기 때문에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흥미를 유발한다고 본 82%의 학습자는 GPT의 빠른 정보제공에 따른 적극적 토론 참여를 토론 수업에 대한 흥미유발요소로 꼽았고 또 다른 몇몇 학습자는 GPT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색다른 답변을 해주었기 때문에 흥미로웠다고 답변했으며 ‘마치 한 명의 토론자가 더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흥미를 유발한다고 본 학습자 가운데 한 명은 GPT가 제공하는 부정확한 정보가 오히려 수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했다고 답했다.

독일문학토론 수업 내에서의 GPT활용이 수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했나요/유발하지 않았나요? ↓	흥미를 유발하였습니다. GPT의 답변이 놀랍도록 창의적이거나 정확해 서가 아닌, 부정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흥미를 더 유발했다고 느낍니다. GPT 덕에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논문을 찾아보거나 작품을 직접 찾아 읽었고, 오히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	--

<토론 수업 내에서의 GPT의 흥미 유발 측면에 관한 답변>

GPT가 학습자의 학습욕구를 충족시켰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충족시켰다고 보는 학습자는 59%, 학습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는 학습자는 41%로 나타났다. 이 설문은 학습자가 정확한 정보를 얼마나 자주 제공받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랐는데,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는 41%의 학습자의 대부분은 GPT가 제공하는 ‘잘못된 정보’를 그 이유로 꼽

았다.

토론수업에서 GPT가 학습자의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해보기 위한 ‘수업시간에 GPT를 활용했을 때 능동적/수동적으로 참여한다고 생각합니까?’와 같은 설문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한다고 본 학습자는 64%, 수동적으로 참여한다고 본 학습자는 36%로 집계됐다. 능동적으로 참여한다고 본 학습자의 대부분은 내향적 성향을 지닌 학습자가 GPT를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본 반면, 수동적으로 참여한다고 본 학습자들은 작품을 읽어오지 않은 배경지식이 없는 학생이 GPT에만 의존해 토론을 하게 되는 부작용을 문제로 꼽았다.

토론 수업에서 GPT를 활용하며 의문이 들었던 학습자는 100%로 집계됐다. 그 이유는 GPT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었으며, 학습자들은 GPT에 질문을 바꾸어 재검색을 하거나 다른 검색엔진을 사용했다고 답변했다.

과제작성에서의 GPT 활용에 대한 설문에서 GPT가 특별한 아이디어나 영감을 주거나 주제 선정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학습자들의 의견은 특별히 한 방향으로 뚜렷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다만 학습자의 82%는 홀로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와 차이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과제 작성 시 홀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경우와 GPT를 활용했을 때 차이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있다	82%
	없다	18%

<과제 작성에서의 GPT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2% 학습자의 관점 가운데 상당수는 GPT가 자신이 모르는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제공한다는 측면과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 해준다는 측면을 그 차이점으로 제시했다. 이 결과는 학습자가 GPT를 크게 정보 검색의 도구이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도구로 보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에 다음과 같은 또다른 흥미로운 설문 결과도 살펴볼 수 있었다.

과제 작성 시 홀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경우와 GPT를 활용했을 때 차이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홀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경우보다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한 명의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
---	--

<p>과제 작성 시 홀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경우와 GPT를 활용했을 때 차이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ㄱ</p>	<p>홀로 브레인스토밍을 했을 때에는 질문을 생각하지는 않았다. 단순히 어떠어떠 하다~ 라는 평서문만 생각을 했으나, GPT를 활용했을 때는 질문을 생각해야 했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과 주제를 같이 의논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 ㄱ</p>
--	---

<p>과제 작성 시 홀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경우와 GPT를 활용했을 때 차이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ㄱ</p>	<p>차이가 있다. 결국 GPT는 AI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이 나오는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은 GPT의 대답을 다수의 생각이라 생각하고 본인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처럼 치부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고 다른이들과 소통을 하는 느낌이 들어 더욱 재미도 있었고 새로운 의견들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 ㄱ</p>
--	--

<홀로 브레인스토밍을 했을 때와 GPT를 사용했을 때의 차이에 대한 답변>

위와 같은 학습자들은 GPT를 의논상대로 보고 있었다. 학습자들은 GPT를 사용했을 때 홀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과 함께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답변했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이어지는 링크를 따라 정보를 찾는 방식과는 다르게 GPT는 질문에 대답을 얻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습자가 그 과정을 하나의 '소통'으로 느낀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학습자들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답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 가운데 일부는 구체적인 답을 얻고자 GPT에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한다고 답했다.

토론수업에서와 과제 작성에서의 GPT 활용에 차이점이 있는지 조사해보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집계됐다.

<p>GPT를 혼자 사용했을 때와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용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나요?</p>	<p>차이 있다</p>	<p>18</p>	<p>82%</p>
	<p>차이 없다</p>	<p>4</p>	<p>18%</p>

<GPT를 혼자 사용했을 때와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용했을 때의 차이에 대한 설문 결과>

82%의 학습자 가운데 대다수는 GPT를 홀로 사용했을 때와 함께 사용했을 때의 차이로 '질문 다양성'을 꼽았다. 학습자들은 토론수업에서 각자에게 GPT가 제공한 답변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때 다양한 사람이 함께하는 만큼 질문의 질과 방향이 다양해진다는 점을 체험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와 연관된 학습자의 답변 중 일부다.

<p>GPT를 혼자 사용했을 때와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용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나요? ㄱ</p>	<p>차이가 있다. 같은 내용을 질문하더라도 문장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쓰였냐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졌다. 이를 비교하며 더 고무적인 토론을 할 수 있었다. ㄱ</p>
---	---

GPT를 혼자 사용했을 때와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용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이 있다. gpt에게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답변이 달라지기 때문에 혼자 사용할 때보다 다같이 사용했을 때 더 질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다. 」
---	---

< GPT를 혼자 사용했을 때와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용했을 때의 차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일부>

학습자는 위와 같이 토론 수업에서 사용했을 때 GPT가 더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4.2. 세 번째 수업 - ChatGPT의 한계점과 개선할 점

‘세 번째 수업’ 학생들에게는 기말 과제로 ‘첫 번째 수업’ 학생들과 동일한 과제를 주었으며, 과제 수행 과정에서 느낀 ChatGPT의 한계와 개선해야 할 점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결과의 요약은 아래와 같다.

4.2.1. ChatGPT의 한계점

- 정보의 부족

ChatGPT는 현재 2021년 9월까지의 정보만을 학습하였다. 학습된 데이터에 근거하여 답변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타당한 답변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더 문제인 점은 대중적이지 않은 작품에 대한 정보는 빈번하게 오류를 제공하여, 이 때문에 학생들은 과제의 대상 작품을 변경해야 했던 사례도 있었다.

- 정보 출처 확인의 어려움

ChatGPT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곤 한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정보의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 문제

ChatGPT는 부정확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허위 정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말이 되는 것처럼 대답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작품 《햄릿》에 등장하는 유령이 아버지가 아닌 숙부라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 한국어 처리 문제

ChatGPT는 영어 텍스트에 대한 학습에 기반하며 개발되었으며, 아직은 한국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 이런 문제는 한국어 자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정보제공 측면에서도 한국어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 윤리, 도덕적 문제의 판단을 회피하는 경향

사형 제도의 대체방안과 같은 질문에 '항상 논란이 따르는 주제' 라며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런 점은 인문학적인 시각에서의 답변을 요청한 경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이러한 한계를 고려한다면 이는 인공지능 보다는 학습기능이 좋은 빅데이터로 보인다.

4.2.1. ChatGPT 활용 수업의 개선방향

기술적인 문제는 시장에서 니즈(Needs)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당분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충분히 이를 고려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정보의 진위여부 판단과 윤리, 도덕적 문제는 사용자 스스로가 이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ChatGPT가 의도한 대로 사용자가 움직이는 모순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교육현장에 있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ChatGPT를 비롯한 AI 도구들을 수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기술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며 학생들과 함께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험하는 수업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 참고문헌

권기대: 챗GPT혁명. 베가북스 2023.

Franz Kafka: Erzählungen. Reclam 1995.

_____ : Brief an den Vater. Reclam 1995.

오픈AI: <https://openai.com/research/better-language-models>. (검색일: 2023.7.9.)

「 Post COVID-19 시대의 시청각 자료 분석과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아프리카 지역학 교수법 」

김계리 교원, Ghebru Bethel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아프리카 전공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학 수업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수법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 외국어 대 교의 다양한 언어 수업은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교수법에 대한 연구 개발이 상당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지역학에서 정치, 경제 및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시청각 매체 활용 수업은 아직 체계화 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몇몇 관심 있는 강연자가 유튜브(youtube)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여 수업 시간의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Postlethwait은 1961년에 시청각 매체 활용 교수법(Audio Tutorial Instruction)을 제안했다. 교수법의 기본 특징은 학습의 계열화된 전체 과정에서, 각 부분마다 제공되는 여러 가지 적절한 시청각 매체(인쇄된 설명노트, 녹음테이프, 정화 또는 영화, 다감각적 학습을 위한 실험실습, 지필 및 구두 퀴즈의 다섯 가지)들 중 학습자가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활용함으로써 교수-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지역학에서 시청각 매체 활용 교수법을 적극 활용하면 전공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학업 성취도 또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학의 경우 아직 현지 경험이 전무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여 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를 통해 그동안의 시청각 매체 활용 교수법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와 지역학 특색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고자 한다. 수업을 통해 관련 지역의 다양한 이미지, 지도, 동영상, 음성 녹음 등을 활용하여 전공생들이 해당 지역을 입체적으로 받아들이고 학습자들 또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 자료를 수집하고 제작하는 법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조별 발표 등을 통해 자신들이 조사하거나 제작한 시청각 매체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에 대한 흥미와 이해도 제고는 물론이고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지역학 강의에서 시청각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목적: COVID-19 이후 이동의 제한으로 인해 연구와 강의를 위한 생생한 지역 자료 확보가 어려워졌다. 따라서 다양한 콘텐츠를 분석하고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생생한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여 학습 효율을 높인다. 실습 교수법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본 연구모임의 목적이다.

3. 연구 내용

디지털 조사법(Digital Research Method)은 연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온라인이나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소셜 미디어나 소셜 네트워크 분석, 콘텐츠 분석, 웹 기반 조사 등이 디지털 조사 방법에 속한다 (Snee, et.al, 2016: 1-11).

디지털 조사법이 최근 들어 더욱 관심을 끄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동안 인문·사회학자들은 주로 현지조사와 대면 의사소통을 통해 연구 자료를 수집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연구법 모색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행 제한과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이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연구 윤리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디지털 조사법은 대면 현지조사의 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비록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선진국에 비해서 디지털 조사법 구현의 한계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디지털 조사법은 분명 연구 방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Rifai et al. 2021: 75). 비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측면에서가 아니라도 연구자의 직접 방문과 대면 조사가 어려운 연구 환경을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법 구축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프리카라는 지역적 맥락에서 디지털 조사법이 가지는 효용성을 실험하고 지역 맞춤형 디지털 연구 방법을 모색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시청각 매체 또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사회과학 교수법 연구는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제 지역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법으로써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 특히 정치경제적 분석을 위해 이러한 교수법은 학생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4. 연구 활용

사례1:

적용 과목: 아프리카 사회문화 개론

대상: 아프리카학부생

적용사례: 다양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현지의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감각을 익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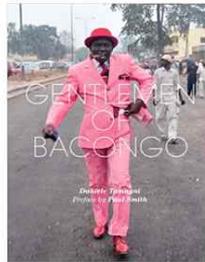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콘텐츠를 다각도로 검증하여 수업에 활용한다.

<유튜브에 업로드 된 동영상을 통해 아프리카 패션 알아보기>

02/ 세계속의 아프리카 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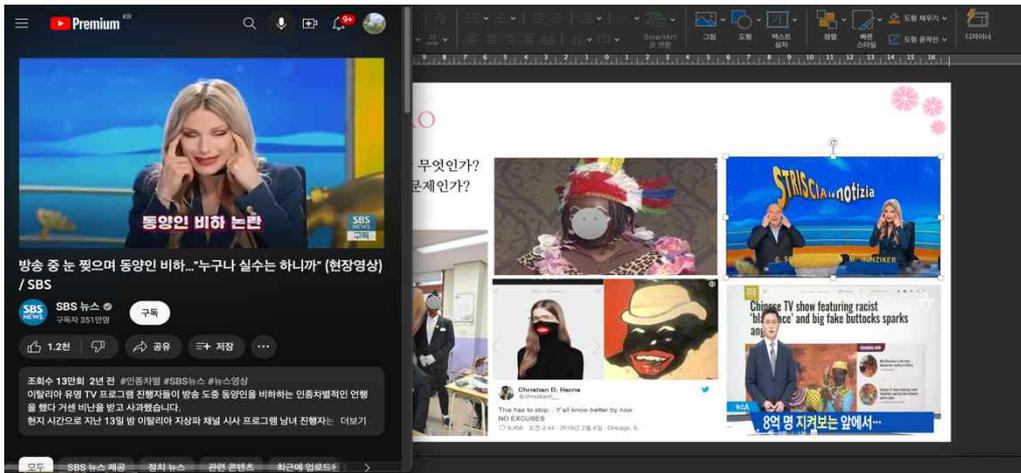
□ the sapeurs

- High fashion in Republic of Congo, Brazzaville
- 베르사체, 아르마니, 생로랑, 프라다, 디올 등 럭셔리 브랜드
- 프랑스 식민 이후 생긴 문화, 콩고 병사들과 콩고 유학생들
- 다양한 문화 요소에 영감을 줌



<아프리칸 패브릭 염색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 활용하기>

<논란이 된 인증비하 뉴스 영상을 활용해서 문제점 토의하기>



<인종전시를 다른 영화의 한 부분을 활용하여 식민 되짚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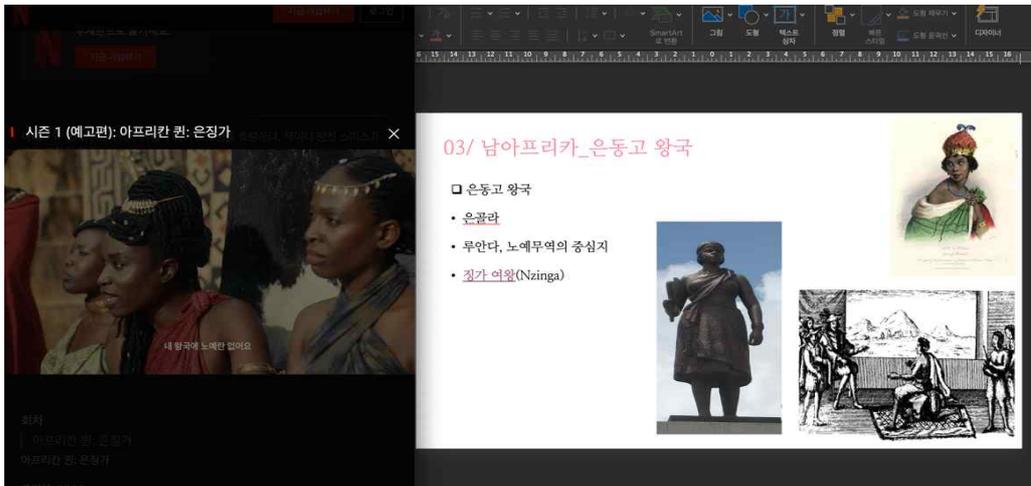


<아프리카 노예 수출 향선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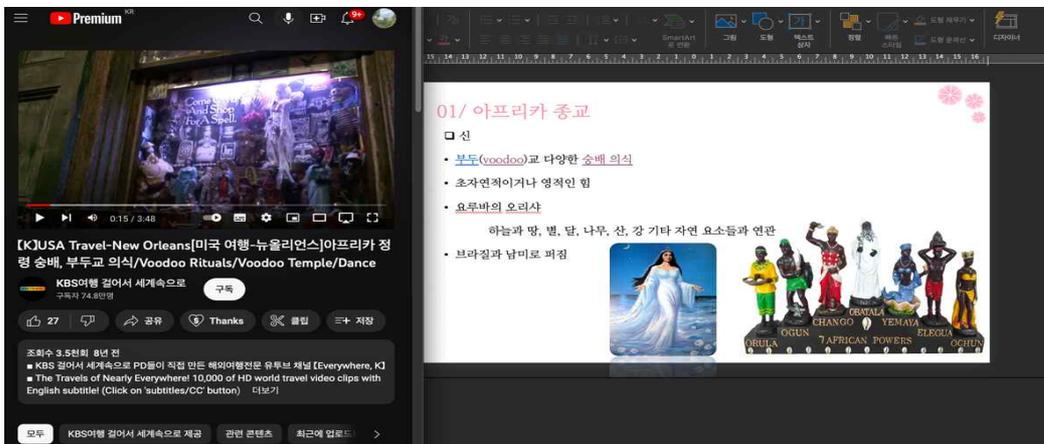
01/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의 형성

- 대항해시대와 제국주의
 - 1) 포르투갈
 - 2) 네덜란드_동인도회사
 - 3) 영국_동인도회사
 - 4)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 From 디아스포라 to 제국
 - 노예무역
 - **tumbeiro**, 루안다병

<역사적 사실을 재현한 앙골라 은징가 여왕에 관한 시리즈물 시청>



<아프리카 종교에 관한 KBS 제작 영상 콘텐츠 활용>



<학기말 동영상 활용에 관한 학생 피드백>

시술형 문항

이 강의에서 특별히 좋았던 점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을 작성해주시고. (300자 이내)
(Please write what you particularly liked or would like to improve in this course. (Maximum 300 characters))

순번	답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동영상 자료가 너무 유익했습니다.
14	

뒤돌아가기(Back) 프린트(Print)

사례2:

적용 과목: 아프리카정치경제세미나

대상: 아프리카학부생

적용사례: 아프리카 빈곤, 분쟁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

1) 우선 “아프리카는 왜 아직도 가난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과 아프리카를 경험한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거하여 설명이 필요함.



Why is Africa Still So Poor?
4.7M views · 2 years ago
History Scope

The African continent is famous for its poverty... But many people don't know th

CC

The Ottoman Empire and the Western European Empires | West Af

Why Development in Africa Is So Difficult | Big Think.
234K views · 11 years ago
Big Think

Pamela Cantor, M.D. practiced child psychiatry for nearly two decades, specializ



Why Is Africa Still In Poverty?
288K views · 8 years ago
AJ+

#poverty #africa #povertyinafrica Like us on

One Size Fits All | Jeffrey Sachs

Why is Africa So Poor?
4.6K views · 4 months ago
CAGE Research Centre

Why is Africa so poor? Economic historian N
trades. This video is part of ...



THIS KILLED AFRICA

Why Africa is so Poor (Hint: It isn't Colonialism)
3K views · 10 days ago
The Why Minutes with Nick Freitas

Colonialism isn't the only reason Africa is poor. It isn't even the primary r
why Africa is the poorest ...

<전문가들이 말하는 아프리카 빈곤의 원인에 대한 영상을 보고 토론하기.>

Why Africa is Doomed to Stay Poor
947K views · 1 year ago

Casual Scholar

"China in Africa" is a highly contentious topic of debat

CC

China in Africa | Entebbe International Ai

8:52

Why is AFRICA STILL POOR
1.7K views · 8 months ago

Bright Adam

Poverty is as old as human civilization itself. Since humans start to live in con

HOW GEOGRAPHY DOOMED AFRICA
2M views · 4 years ago

Atlas Pro

Africa has hosted many great empires over the ages, but despite having conta

CC

WHY IS AFRICA STILL SO POOR?
1.8K views · 1 month ago

Displere

Africa, despite being rich in natural resources and diverse cultures, continues

20:33

<아프리카 불평등의 원인 다양한 견해에 대한 영상을 보고 토론하기.>

Why South Africa is still so segregated
10M views · 2 years ago

Vox

How centuries of division built one of the most unequal countries on earth. Subs

CC

Cape Colony | 148 apartheid laws | Bantustans

GRAVITAS
Making Sense of the NEWS

'ONLY WHITE PEOPLE ALLOWED'
1.3M views · 10 months ago

WION

A 'whites-only' town in South Africa is making headlines. Black people cannot liv

4:24



WHY ARE WE BLIND TO AFRICA?

Why Are We Blind To Africa?
Nas Daily ✓ 1.5M views • 3 years ago

If you liked this video, you will love reading my book: Arc in 60 Seconds <http://www.nasdaily.com/book>

4:10



THE AFRICAN KID WHO IMAGINED A CAR

The African Kid Who Imagined A Car
Nas Daily ✓ 2.2M views • 1 year ago

The 30 Day Video Marathon continues! Today, I have another story for you all the way from Sierra Leone. See you tomorrow!

4:40

서방국가들은 왜 아프리카가 발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가? 아프리카 발전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가?



THE TRUTH ABOUT HOW THE WEST IS KEEPING AFRICA DOWN

Prof. Jeffrey Sachs

AFRICAN NARRATIVE 10:44

Africa Web TV ✓

The Truth About How The West Is Keeping Africa Poor | American Economist Professor Jeffrey Sachs

556K views • 1 year ago

American economist Professor, Jeffrey Sachs exposes how America, its Western allies, the CIA and the defence industry...

CC



KEEPING AFRICA POOR BY ALL MEANS

16:16

6 ways used by the west to forever keep africa poor

194K views • 1 year ago

LuiSpot ✓

Dr Howard Nicholas explains why the western world does everything in its power to keep africa forever stays poor ...

CC

“아프리카 왜 아직도 가난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시청한 영상을 통해 다양한 의견에 대

한 토론하기.

2) 아프리카 분쟁의 정치경제적 분석을 위해 영상 자료 활용.

사례연구: 콩고 민주 공화국; 부룬디; 차드; 수단;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Why are they fighting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 Start Here
178K views · 2 years ago

Al Jazeera English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was supposed to cement a peace... thousands of people are ...

CC

<아프리카에서 왜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국가들 있는가? 다양한 아프리카의 분쟁 유형과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토론은 하는 시간 갖는다.>

3) 아프리카 천연자원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을 위한 영상 자료 활용.

The Secret Reasons Why The World Depends On Africa
450K views · 3 months ago

Dispolre

Afric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tinent, and the world cannot survive without it. explore the reasons why ...

Why will the WORLD DEPEND more and more on AFRICA?
VisualPolitik EN
96K views · 11 months ago

VisualPolitik EN

Two-thirds of all the inhabitants of planet earth live in countries where the fertility rate c... reach the replacement rate, ...

CC

The Western world depends on Africa in every possible way
164 views · 2 years ago

Live Your Life

Africa is the most resource-rich continent on Earth. That's wh... countries are so interested in it. They need Africa to stay ...



아프리카의 다양한 귀중한 천연자원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탐내는 대상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는 어떻게 하면 자원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프리카 천연자원 문제에 대해 정치경제적 분석을 통해 토론하기.>

5.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이번 연구를 통해 그동안의 시청각 매체 활용 교수법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와 지역학 특색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고자 했다. 수업을 통해 관련 지역의 다양한 이미지, 지도, 동영상, 음성 녹음 등을 활용하여 전공생들이 해당 지역을 입체적으로 받아들이고 학습자들 또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 자료를 수집하고 제작하는 법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조별 발표 등을 통해 자신들이 조사하거나 제작한 시청각 매체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에 대한 흥미와 이해도 제고는 물론이고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Richard E. Mayer(2022)는 학습을 위한 멀티미디어 설계의 증거 기반 원칙에 대한 교육 및 학습 설계 분야의 탐구에서 개선을 위한 일부 영역으로 간주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공했다. "미디어"가 비디오 프레젠테이션, 정보 시각화, 게임, 시뮬레이션 및 확장된 현실을 포함하도록 성장함에 따라 멀티미디어는 계속해서 빈번한 연구 주제가 되고 멀티미디어 디자인은 학습 경험 디자이너 및 교육 디자이너의 핵심 전문 역량이다 (Molenda, 2022). 미디어가 학습 경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려할 때 멀티미디어가

학습 경험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교수법은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교수법 중에는 교과 과정을 보충하거나 학습 내용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영상 활용을 한 강의가 효과적이다. 시각적인 자료와 음성을 결합하여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복잡한 현상이나 실험을 설명하는데 시각적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시각화는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증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현실 세계의 사건과 역사적 사건에 대해 뉴스 및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도록 학생들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제로 아프리카의 다양한 면을 이해하고 시각적으로 즐겁게 학습할 수 있다.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교수법은 학생들에게 참여와 창의적 사고를 촉진한다. 학생들에게 토론, 프로젝트, 그룹 활동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평가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공유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교수법은 학생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흥미를 느끼도록 도와준다. 다양한 시각적 및 청각적 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이해도와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시청각 매체 활용 교수법을 통해 학습자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지역학에 대해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 교수법 연구모임을 통해서 개발하는 시청각 매체 활용 연구법은 세미나를 통해 동료 교수들과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며 연구와 동시에 수업에 직접 적용하여 학기가 끝난 후에 그 타당성과 효용성을 검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체계적인 교수법이 구축되고 이를 공유하고 환류 과정을 통해 학내 교육 연구 문화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교수법 연구모임에서 개발된 교수법들은 대학 내부 및 외부 발표 및 논문 등을 통해 공유하고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Mayer, R. E. (2002). Multimedia learning. *Psychology of learning and motivation* (Vol. 41, pp. 85-139). [https://doi.org/10.1016/S0079-7421\(02\)80005-6](https://doi.org/10.1016/S0079-7421(02)80005-6)

Molenda, M. H. (2022). History and development of instructional design and technology. In O. Zawacki-Richter, & I. Jung (Eds.) *Handbook of open, distance and digital education* (pp. 1-18). Springer Singapore. https://doi.org/10.1007/978-981-19-0351-9_4-1.

Rifai, B., Yayusman, M. S., & Barid, V. B. 2021. "Can Digital Research be an



Alternative Metho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Indonesia?” *Journal of Indonesian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11(1): pp. 75-91.

Snee, H., Hine, C., Morey, Y., Roberts, S., & Watson, H. 2016. Digital methods as mainstream methodology: an introduction. In H. Snee, C. Hine, Y. Morey, S. Roberts, & H. Watson (Eds.), *Digital Methods for Social Science: An Interdisciplinary Guide to Research Innovation*. pp. 1 - 11. Palgrave Macmillan.

「‘문제 중심 학습(PBL)’을 활용한 중국어 교수법 연구」

김매 교원, CUI XIANGLAN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PBL(problem-based learning) 수업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개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이다. PBL 수업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여 깊이 있는 프라임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일반 수업과 차별화된 PBL을 적용한 중국어 교수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문제 중심 학습(PBL)’을 활용한 중국어 교수법 연구

목적: 교수의 존재 이유는 지식전달이 아닌 학생들의 동기유발이며 학생들은 본인의 활동이나 행동이 목표된 성취에 비추어 잘 다가가고 있음을 인지할 때 동기와 흥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개인적인 가치와 목표와 일치되는 자율성이 높은 환경이 되도록 학습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PBL 수업은 설계에 있어서 기존의연습문제 풀이가 아닌 창의적 및 고차원의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모임은 기존 수업 모형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키우고 어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오프라인 과제 개발을 중심으로 한 PBL 수업인 중국어 교수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3. 연구 진행 내용

3.1. 서론

본문은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말하기 수업에 초점을 두고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PBL(Problem-Based Learning, 문제 중심 학습) 수업’을 설계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현재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수법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PBL 수업

방식을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수업에 도입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기반 PBL 수업'도 기존 PBL 수업을 기초로 하여 설계하였다.

PBL(Problem-Based Learning)은 문제 중심 교수법이다. 즉, 문제를 가지고 학습자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전형적인 자기주도 학습법이다. 중국어 말하기 수업의 기존 교육 방식은 교수자가 강의하고 질문하는 교수자 주도 형식을 사용하는데 PBL수업은 해당 과정을 거꾸로 진행한다. 즉, 해당 수업에서 필요한 지식을 학습자 스스로 찾아보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을 끌어내는 학습법으로 팀별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해당 교육 모형은 학생을 주체로 하여 학습자가 교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교육 분위기를 개선하며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기존의 중국어 말하기 수업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교재 선정에 있어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수자들은 대부분 기존 출판된 교재를 선택하여 내용이 지루하고 학습자의 흥미 유발에 실패한다. 둘째, 교수자들은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말하기 수업에 실제로 PBL 형식을 도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 셋째, 말하기 수업의 학기말 평가방식을 여전히 필기시험으로 진행하거나 말하기 시험으로 평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중국어 말하기 수업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예능 프로그램 '脱口秀大会S4'를 교재로 선정하여 ebook을 만들었다. 토크쇼의 내용이 해학적이고 현대 중국 사회에서 유행하는 신조어 및 새로운 문화 현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둘째, 본 교재는 수업에서 Wakelet, edpuzzle, Hihaho, Quizlet 등 웹 기반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질문을 만들고 과제를 실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의 동기화를 달성할 수 있으며 수업 중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학기말 평가에 CBT형식 말하기 시험을 도입해서 중국어 말하기 수업에 적합한 객관적인 평가 방식을 도입했다.

수업 전 부분을 수업 시간에 배치하고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PBL(문제 중심 학습)을 활용한 중국어 수업' 교육 모형을 설계하여 기존의 수업이 현재의 교육 체제와 충돌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2. 'PBL(문제 중심 학습) 수업'의 개념

PBL 수업은 문제 해결 중심 학습법으로 기본 모형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PBL 수업 모형

<그림 1>의 PBL 수업에서 교사는 중국어 자막이 있는 동영상을 틀어주고 우선 듣기와 문해력을 연습하도록 지도한다. 다음은 학생이 휴대한 노트북이나 태블릿pc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교사가 제공한 e북 링크에 접속하여 해당 동영상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새 단어를 추출하고 자신만의 단어장을 만들며 그 기반으로 본문을 해석하고 학습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발견되면 수시로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다음 단계는 교사가 해당 수업에 관련된 핵심 문법을 제시하고 팀별 말하기 연습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수업에 관련된 배경문화를 설명하고 팀별 토론 후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3.3. PBL 수업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wakelet, edpuzzle, Quizlet, hihaho” 등이 있다.

3.3.1 Wakelet¹⁾

Wakelet은 학생들을 위한 리소스 및 정보 모음을 구성하고 선별할 수 있는 무료 가상 학습 도구이다. 원격 학습을 위한 수업을 만들기 위한 완벽한 도구라 할 수 있다. Wakelet에서는 동영상, 웹 사이트, 텍스트, 이미지, PDF 파일, 영상 직접 촬영, Google 드라이브, 원드라이브 리소스 등이 포함 된 컬렉션을 생성하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한 학기를 15주라고 가정하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제외하고 남은 13주간의 수업을 Wakelket 컬렉션 13개

1) Wakelet의 조작 방법은 박정원 (2022:34~51) 참고

(Collections)로 정리하고, 매주 수업 일주일 전에 다음 수업의 컬렉션 링크를 학생들에게 공유하여 다음 수업의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며, 방과 후 복습에도 활용할 수 있다.

3.3.2 Edpuzzle

Edpuzzle은 영상 기반 상호작용이 가능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도구이다. 교사가 자신의 수업 파일을 쉽게 업로드할 수 있고, 학생이 접속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사들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비디오 소프트웨어인 YOUTUB는 일부 저작권 제한으로 임의로 편집해서 업로드할 수 없지만, Edpuzzle은 그런 제한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Edpuzzle의 비디오 수집 기능을 사용하여 챗터별로 클립 된 코스웨어 비디오를 Edpuzzle으로 전송하고 Edpuzzle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공유 링크를 사용하여 해당 wakelet 페이지에 삽입하여 수업 초반에 비디오를 재생할 수 있다.

3.3.3 Quizlet

Quizlet은 온라인으로 낱말 카드를 만들고 분류하는 데에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이다. Quizlet은 사용자가 온라인 낱말 카드를 쉽게 만들고 분류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의 지식 저장 상태를 테스트할 수 있는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학습자는 스스로 단어장을 만들고 Quizlet의 여러 기능을 활용해서 자가 발음 테스트 및 용법 테스트를 할 수 있다. Quizlet은 웹 페이지, iOS 및 Android와 같은 장치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기주도적인 학습에 활용하기 편리하다.

3.3.4 Hihaho

Hihaho는 인터랙티브 비디오를 즉시 만들 수 있는 쉬운 Do-It-Yourself 도구이다.²⁾ Hihaho는 오버레이를 추가하여 비디오를 대화식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대화형 장을 추가하거나, 대화형 시나리오를 만들거나,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파일에 연결하여 영상을 시각화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Hihaho는 카탈로그, 팝업 메뉴, 일시 정지 화면, 점프, 텍스트, 이미지, 소리, 스크롤 텍스트, 하이라이트, 등급, 링크 비디오 또는 양식을 쉽게 추가할 수 있다. '일시정지 화면' 기능을 사용하여 관련 질문을 삽입하여 교사가 문장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고 추가 설명을 할 수 있다. '문제' 기능을 사

2) Hihaho의 조작 방법은 박정원(2022 : 54~79)

용하여 연습 및 복습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설정할 수도 있다. 또한 동영상에 핫스팟, 하이라이트 및 디지털 줌 효과를 추가하여 학습자의 주의를 이미지의 특정 부분으로 끌어서 설명 또는 링크를 열 수 있다. 또는 동영상에 클릭 가능한 투명 필드를 설정하고 텍스트와 오디오를 스크롤하여 학습자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3.4. PBL 수업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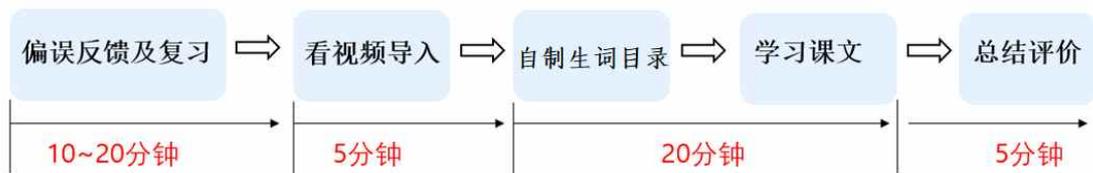
본 논문에서는 교재를 주차 별로 wakelet 컬렉션으로 정리하고 학생들이 예습과 연습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링크를 공유한다.

각 컬렉션 아래에는 '복습', '동영상', '배경문화' 등 5개 항목을 나열하다. 복습과 중점 정리 항목은 Hihaho를, "동영상"은 edpuzzle를, "본문"은 ebook을 사용한다. "배경문화"는 wakelet에 바이두 링크나 영상 링크를 바로 삽입해서 연결한다. 수업 시간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앞에 위치한 3개 항목은 1교시에 진행하고 마지막 3개는 2교시에서 진행한다.

본 수업 설계는 한 학기에 13주 과정으로 구성되며 주당 2시간으로 1교시와 2교시 각 50분씩 진행된다.

3.4.1 1교시 설계

1교시는 20분, 5분, 20분, 5분 순서로 설계했으며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1교시 설계

<그림 2>와 같이 1교시 수업은 주로 새 단어와 본문을 학습하며 말하기 수업의 기초 자료를 수집한다. 우선 교사는 학생들이 지난주 수업 토론 때 나타났던 전형적인 오류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 지난 수업 내용을 복습한다. 다음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동영상을 보여주며 학습 내용을 설명한다. 그다음은 학생들이 스스로 단어장을 구성하고 본문을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확한 발음을 교정해 주고 발음을 평가한다.

첫째, 지난주 수업 중에 말하기 토론에서 나타났던 오류에 관하여 학생들에게 설명한

다.

둘째, '복습' 항목을 클릭하여 지난주 수업 내용을 재차 복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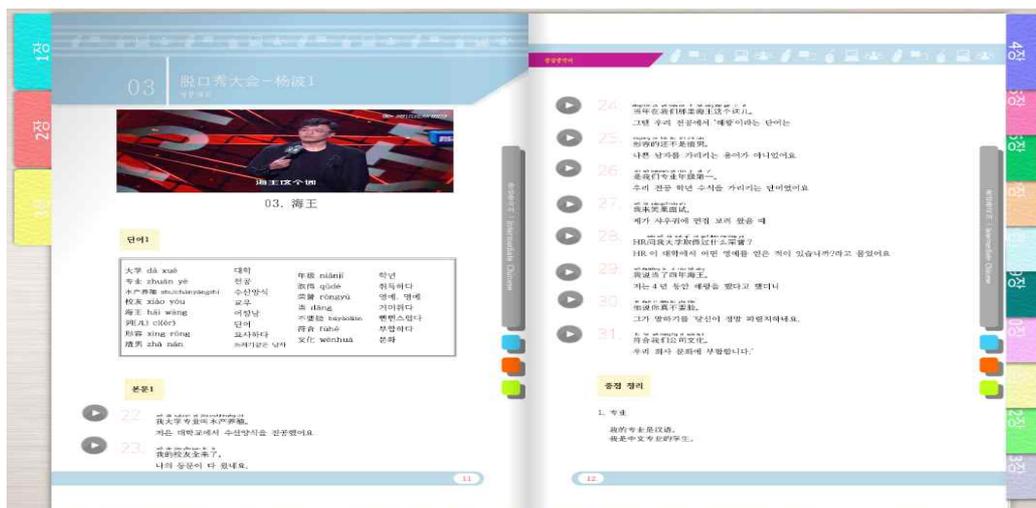
2장_yangbo1.mp4

<그림 3> “복습”항목 예시

셋째, '동영상' 항목을 클릭하여 본 수업의 동영상을 재생하여 수업 내용을 도입한다.

넷째, ebook을 열고 이 장의 새 단어를 채워 넣고 본문을 해석한 다음 발음을 검증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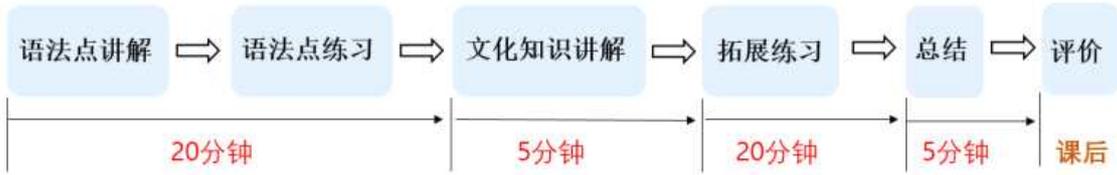


<그림 4> ebook 예시

3.4.2 2교시 설계

2교시는 20분, 5분, 20분, 5분 순서로 설계했으며,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第二课时安排



<그림 5> 2교시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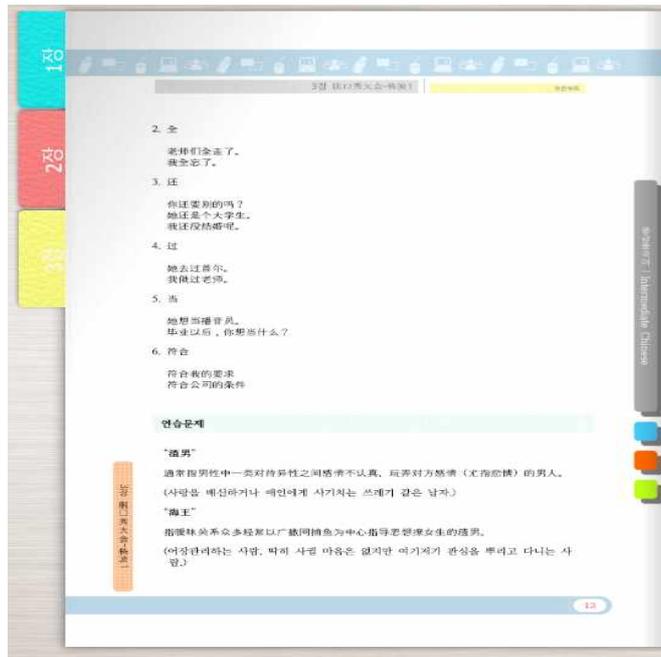
<그림 5>에서 교사가 주요 문법을 설명하고 학생들은 연습문제를 통해 충분히 익히고 훈련한다. 다음 단계는 본 수업에 관련된 역사, 도시, 음식, 인터넷 등 문화를 설명한다. 그다음은 본 내용에 대해 팀별로 토론을 진행하여 배운 지식을 충분히 응용하도록 하여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킨다. 마지막으로 강의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를 한다. 교사는 2교시가 끝나면 학습자가 팀별로 토론한 다음 업로드한 녹음 파일을 평가하고 오류의 원인을 분석해 다음 수업 1교시에서 피드백을 제시한다. 이 과정은 아래와 같다.

우선, '중점정리'를 열고 본 수업에서 장악해야 할 핵심 문법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활용해서 팀별 말하기 연습을 진행한다.



<그림 6> 문법 설명

이어서 "배경문화" 항목을 클릭하여 역사, 도시, 음식, 방언, 인터넷 등 문화 지식을 설명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4~5명의 학생이 한 팀으로 20분 이내로 토론을 진행한다.



<그림 7> 배경문화 예시



<그림 8> 팀별 토론 예시

2교시가 끝난 다음 교사는 업로드 된 그룹 토론 녹음 파일을 평가한다. 토론에서 주로 나타나는 문법적 오류와 어휘 사용 오류 및 발음 오류 등을 정리하고 다음 수업 시간에 설명해주고 피드백을 제시하며 오류를 최소화 한다.

3.5. CBT 말하기 시험

본 연구에서 설계한 중국어 말하기 수업의 학기말 평가는 CBT형식인 Compute Based Test 형식을 도입한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말하기 시험은 TSC 시험을 기반으로 하며³⁾, 중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용적인 시험이다.

중국어 회화 수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하기 시험은 팀별 상황극이나 교수자와 1:1 인터뷰 시험으로 평가하는데 기존의 시험 방식은 장소와 응시 인원 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교수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지하는 단점이 있다. TSC는 그러한 제약 없이 원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말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동일한 문제로 진행되며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9>

<그림 9>에서 시험은 강의실에서 자리에 앉아 본인 핸드폰에 있는 녹음기로 진행된다. 교사는 강의실 스크린에 시험 동영상 을 재생하고 응시자는 문제를 듣고 핸드폰 녹음기를 통해 답안을 녹음하는 방식이다.

3) TSC(Test of Spoken Chinese)는 국내 최초의 CBT 방식의 중국어 Speaking Test로 중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표 4> 말하기 시험 예시

<표 4>에 보이듯이, 본 논문에서 설계한 말하기 시험은 4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자기소개 부분으로 주로 학습자의 이름이나 다니는 학교 등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테스트한다. 두 번째 부분은 어휘 테스트로 주로 교재에서 배운 단어를 습득했는지를 테스트하는 항목이다. 세 번째 부분은 상황별 대화로 교재에 나타난 문장으로 질문이 이루어지고 문장을 알아들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듣기 테스트와 대화를 적절하게 이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말하기 테스트이다. 네 번째 부분은 주제별 서술 문제로 수업 중 특별 토론한 주제가 질문으로 이어지며 중국어 작문 능력을 확인하는 테스트이다. 모든 질문에는 별도로 제한 시간을 설정하고 첫 번째 부분은 문제당 제한 시간이 10초, 두 번째 부분은 6초, 세 번째 부분은 15초, 네 번째 부분은 중간고사 25초, 기말고사는 50초로 설정한다.

녹음에 대한 평가는 발음, 어휘, 문법, 유창도 네 개 부분으로 이루어지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녹음 당 평균 3회를 듣고 평가한다.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ARCS는 Attention(주의집중-흥미유발), Relevance(관련성-필요한 학습활동), Confidence(자신감-효능감 증진), Satisfaction(만족감-충족감)을 가리키는데 ‘문제 중심 학습(PBL)’을 활용한 중국어 교수법은 동기 기반 교수설계 모형(ARCS)에 적합하다. 본 연구 모임은 수업의 진행 방식을 더욱 깊이 있게 고찰하고 나아가 2023년 2학기 중국언어문

화학부의 초급중국어회화 수업과 중급중국어회화 수업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5. 교수법 연구모임의 효과 및 제언

본 모임은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PBL수업에 결합하여 중국어 말하기 수업에 적합한 교육 모형을 설계하고자 했다. 본 교육 모형은 교재 선택과 교과 자료의 배열 및 수업 시간 설계에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 능력과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유창한 중국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박정원(2022), 『큐레이션 플랫폼』, 서울: 아우라, (ebook)
- 冯振辉(2019), 「汉语为第二语言的多媒体口语语料库:语料库的建立及二语者趋向补语的习得分析」,《海外华文教育》
- 龚瑶, 「多媒体在对外汉语教学中的应用初探」, 『北方文学』
- 耿丹华, 「2021对外汉语中级综合课教师多媒体课件运用策略研究——以新疆师范大学为例」,《新疆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 刘继璇, 「2021对外汉语口语教学研究综述」, 『文学教育』, 35期
- 马雨晴(2018), 「短期速成初级汉语口语课课堂语言环境构建研究」,《沈阳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 史若琛, 「多媒体技术在对外汉语教学中的应用分析」, 『信息记录材料』, 2020年6月, 第21卷第6期
- 孙明明(2015), 「汉语教学软件在对外汉语初级口语教学中的应用研究」,《辽宁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 王斌(2019), 「基于多媒体下的高级口语汉语课的教学设计」, 『法制与社会期刊』
- 文柏力(2017), 「对外汉语口语课多媒体辅助教学设计与应用研究」,《西安外国语大学硕士学位论文》
- 香成儒(2021), 「论对外汉语初级口语课教学中的多媒体课件设计制作」,《兰州大学硕士学位论文》
- 游雪芹(2022), 「基于支架式教学法的线上对外汉语初级口语课教学设计-以『酒店入住』为例」,《吉林外国语大学, 硕士论文》.
- 袁平(2018), 「基于PBL教学法的“半”翻转课堂的教学研究」, 『科技教育』, 第24期



张咪咪(2022), 「汉语口语APP“Learn Chinese-Listening and Speaking研究」, 吉林大学硕士学位论文

张璐(2019), , 「汉语口语习用语多媒体资源库的建设」, 兰州大学硕士学位论文

「 From Teaching to Coaching:
학생들의 팀프로젝트 지도에 있어 팀원 간 효과적 업무 배분 및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교수의 역할 」

김민형 교원, 이정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유튜브, SNS 등 비대면 소통 도구가 발달할수록 학생들은 대면 소통 및 협업 활동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그들은 팀단위 활동을 경험하며 때로는 결과에 만족하고 과정에서 배움을 얻지만 많은 경우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수행과정에서 타인의 무임승차 등 불쾌한 경험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팀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나가게 될 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능력이 바로 타인과의 협업 능력이다. 입사 후 서로 모르는 사람과 소통하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긍정적 경험이 없으면 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들이 사회에서 맞닥뜨릴 협동 업무 수행을 학교에서 배움의 과정으로 미리 경험하게 하여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 사회생활과 매우 유사한, 정교하고 치밀한 팀프로젝트 ‘세팅’을 통해 교수의 개입은 최소화하면서도 최선의 결과물을 도출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역할에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게 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세팅의 핵심 요소는 MZ세대의 가장 큰 화두인 ‘공정성’이다. 최고의 팀 성과를 위해 협업하면서도 개인 간 효과적 업무 분담을 통해 공정성을 극대화시키는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한 교수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학생 팀프로젝트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교수의 역할

목적: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경험하게 될 다양한 팀 단위 프로젝트를 사회와 유사하게 세팅된 학교라는 공간에서 미리 경험하게 하여,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장단점 및 의무/책임을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교수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연구 진행 내용

본 연구를 위해 두 가지 종류의 학생 팀프로젝트가 진행,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첫째는 Maker Project로서, 학생들이 스스로 Technology-Media-Design을 아우르는 세부모듈 커리큘럼과 연관된 주제를 선정하여 콘텐츠의 발상과 기획의 전 과정을 수행하고, 팀별로 완성된 프로젝트 기획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는 Analysis Project로서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그에 적합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후 결과도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음은 각 연구 프로젝트의 세부 진행 과정이다.

3.1 Maker project의 코칭 가이드 및 수행 미션 구성과 주차별 코칭 과정

3.1.1 프로젝트 개요

본 프로젝트의 참여자는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방법론을 활용하여 자신이 기획한 콘텐츠를 직접 창작하는 제작자(maker)의 역할을 실천하고, 지속가능성과 혁신의 결과물을 도출한다. 모든 수강생들은 콘텐츠 프로젝트 기획서를 기안하여 제시하고, 기획서의 내용과 범위에 맞추어 프로젝트별 진행 형식과 일정을 추진함으로써, 본Content Professional을 위한 디자인씽킹 방법론을 훈련하고, 상호 피드백에 기반하는 기획과 제작의 과정을 통해 협업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1.2 디자인씽킹 5 단계별 코칭 가이드 및 수행 미션

1단계 - 발견하기(Discovery)

- 설명: '발견하기' 단계는 사용자의 니즈를 깊이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발견하기'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도록 영감을 받는 단계이다.
- 코칭 가이드: 챌린지 이해하기(Review the challenge) / 사용자로부터 배우기(Learn from users) / 동료로부터 배우기(Learn from peers)
- 수행 미션: 관찰하기(observing) / 정의하기(defining) / '만약에 ~ 한다면?' 질문하기 ('what if' question)

2단계 - 해석하기(Interpretation)

- 설명: '해석하기' 단계는 우리의 이야기를 의미있는 통찰로 바꾸어 준다. '해석하기' 단계는 흥미 있는 관점을 찾아내고 아이디어들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찾아내기 위해 사고의 분류와 통합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포함한다.
- 코칭 가이드: 인사이트 정의하기(Define insights) / 인사이트 가시화하기(Make insights visible) / 발견한 내용 의미화하기(Make sense of findings)
- 수행 미션: 스토리텔링(storytelling) / 기록(documenting) /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질문하기('how might we?' question)

3단계 - 아이디어 내기(Ideation)

- 설명: '아이디어 내기'는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뛰어난 생각들은 종종 매우 거칠고 비현실적인 아이디어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신중한 준비와 명확한 규칙만 정해진다면 현실적인 제약 조건 없이 다양한 생각들을 마음껏 펼쳐낼 필요가 있다.
- 코칭 가이드: 아이디어 생성하기(Generate ideas) / 아이디어 다듬기(Refine ideas)
- 수행 미션: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 아이디어 분류하기(categorizing) / 우선순위 매기기(prioritizing)

4단계 - 실험하기(Experimentation)

- 설명: '실험하기'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들을 현실화한다.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은 아이디어를 가시화하고, 제작과정에서 몰랐던 것을 배우며,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공유하는 것을 과정이다. 매우 초기의 프로토타입 일지라도,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것인지,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답을 얻을 수 있다.
- 코칭 가이드: 아이디어 현실화하기(Bring ideas to life) / 피드백 구하기(Get feedback)
- 수행 미션: 프로토타입 만들기(prototyping) / 테스트 하기(testing)

5단계 - 발전시키기(Evolution)

- 설명: '발전시키기' 단계는 도출된 컨셉을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아이디어 실천을 위한 다음 단계를 계획하는 것, 함께 아이디어를 실천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 그리고 전체과정을 문서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 코칭 가이드: 발전과정 기록하기(Document progress) / 성공요소 규정하기(Define success)

- 수행 미션: 개입하기(engaging) / 복제 • 확산하기(replicating) / 연계 • 확장하기 (connecting)

3.1.3 주차별 프로젝트 코칭 과정

주차	커리큘럼 목표	코칭 내용	디자인씹킹 단계
1	Class OT	- Ice Breaking & Introduction - Orientation - Class Activity 01	DISCOVERY
2	Methodology I	- Warm-up - Reading Manzini's Book - Class Activity 02	
3	Methodology II	- Conventions & Design - Design Mode Map - Class Activity 03	
4	Methodology III	- Social Innovation - Visible & Tangible - Storytelling & Hybrid Reality - Class Activity 04	INTERPRETATION
5	Design I	- Possible & Probable - Effective & Meaningful - Replicable & Connected - Design Thinking Activity 01	
6	Design II	- User Test - Emotional Responses - Design Thinking Activity 02	IDEATION
7	Design III	- Review & Midterm Prep - Design Thinking Activity 03	
8	Presentation I	- Maker Case Study Presentation - Self & Peer Feedback	
9	Production I	- Final Project Schedule - Team Intro Prep - Subject Discussion	EXPERIMENTATION
10	Production II	- Subject Presentation & Feedback - Team Online Session	
11	Production III	- Proposal Presentation & Feedback - User Mapping - Project Value Modelling	
12	Production IV	- Team Consulting 01 (online)	
13	Feedback I	- Team Consulting 02 (in-class)	EVOLUTION
14	Feedback II	- Project Submission Prep - A/B Testing & Feedback	

		- Team Consulting 03 (in-class)	
15	Presentation II	- Project Presentation - Peer Evaluation	

3.2 Analysis project에서 보여지는 학생들이 업무 분장 및 교수의 역할

3.2.1 프로젝트 개요

학생들은 AI, 클라우드컴퓨팅, 플랫폼 비즈니스 등 최신 IT기술 관련 다양한 이슈들을 조사한 후, 하나의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 혹은 모델을 제안한다. 단, 제안함에 있어 그를 뒷받침할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팀프로젝트의 주된 활동은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며 그에 기반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제시는 분석 활동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수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3.2.2 프로젝트 5 단계별 활동 사항 및 코칭 가이드

1단계 - 팀 구성 및 업무 분장

- 교수의 역할: 학생들의 전공과 학년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심과 능력을 가진 5-6명의 학생들이 한 조가 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해 준다.
- 이후 학생들은 스스로 논의하여 팀장, 조사팀원, 분석팀원, 결과해석 및 정리팀원, 기타 지원팀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2단계 - 시장 조사 및 주제 선정

- 학생들은 각자 자신이 관심을 가진 분야를 조사한 후, 이를 팀회의에서 공유하며 어떤 주제가 가장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지 토론했다. 이 단계는 개인 활동이며 팀장은 이 때 각 개인의 관심과 노력이 올바른 과정을 통해 팀 주제 선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 교수의 역할: 만약 학생들이 주제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i.e., 4주차 이후에도 주제 선정을 못할 경우) 팀별 미팅을 통해 주제 선정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때에도 주제 자체를 교수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팀별 회의를 옆에서 관찰함으로써 주제 선정 지연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예를 들어 각 팀원이 활발하게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며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팀장의 역할을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팀원의 조사활동 및 아이디어 제시가 많지 않아 팀장이 어려움을 겪는 거라면 팀장이 구체적

으로 팀원의 할 일을 지정하여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팀장의 역할을 팀원 앞에서 명시해 준다. 이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팀장에 대한 교수의 지도가 필요하다.

3단계 -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학생들은 선정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직접 수집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2차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 단계에서 핵심은 데이터의 관련성에 대한 판단 (i.e., “우리 주제와 관련된 데이터는 어떤 것인가?” “우리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는 어떤 것인가?”) 과 데이터의 접근성 (i.e., “그런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가?” “그런 데이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이다. 학생들은 위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으며 주제와 데이터와의 관계를 이해한다.
- 데이터 수집 후 학생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배운 다양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탐색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한다. 탐색적 분석이란 어떠한 사전 가정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에 접근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접근법을 말한다.
- 교수의 역할1: 만약 학생들이 데이터 수집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다양한 예시와 데이터 소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후 학생들이 해당 데이터 소스에 직접 접근하여 다양한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 후, 그 중 어느 데이터가 가장 적합한지 그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교수는 팀 회의를 소집하여 그 회의를 관찰한다. 주제와 데이터와의 관련성은 팀에서 창의적으로 발전, 제시되어야 하는 논리이므로 교수는 관여하지 않고, 다만 토론의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단계를 파악한 후 팀장, 혹은 팀원에 대한 가이드를 통해 해당 병목현상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간을 정해놓고 팀원간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 교수의 역할2: 만약 학생들이 분석 방법의 이해 및 습득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직접적으로 학습에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오피스 아워를 통해 지도를 할 수 있다.

4단계 - 결과 정리 및 시사점 도출하기

- 학생들은 분석 결과(i.e., 정량적 결과물)를 공유하며 이로부터 시사점 (i.e., 정성적 결과물)을 도출한다. 이 때 학생들은 정량적 결과물이 신뢰성이 있는지 크로스체크를 하며 이로부터 어떤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지, 수업에서 배운 각종 이론과 지식, 논리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팀원들과 논의한다.
- 교수의 역할: 학생들이 배운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주지시킨다. 많은 학생들이 이 과정에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 아티클 등을 소개하며 자신들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넓힐 수 있도록

격려한다.

5단계 - 결과물의 작성, 수정 및 다듬기

- 학생들은 최종 레포트 작성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전체 레포트의 방향성과 결론을 명확하게 서로 공유한 후, 분량을 나누어 작성하거나 혹은 일부가 작성한 후 다른 팀원이 이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교수의 역할: 대부분의 팀은 남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량을 나누어 작성하기 때문에 교수는 이 때 레포트가 하나의 관점으로 일관되게 작성되어야 함을 매우 강조한다. 마감 열흘 전에 초안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학기 초부터 격려하고, 열흘 전에 초안을 마감한 팀에 한하여 초안에 대한 자세한 피드백을 하여 레포트 작성에 대한 학생들의 방향성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렇게 피드백을 반영하여 작성한 레포트에는 최종 평가시 그 부분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또한 서론에서 언급한 내용이 결론 부분에 반드시 언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결론을 내림에 있어 근간이 되는 이론을 강조하도록 지도한다. 문장의 경우 한 페이지 당 대략 3-4개의 문단이 들어갈도록 지도하고, 문단을 나누는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도 일관성을 지키도록 지도한다. 어떤 제목을 써야 하는지, 제목의 역할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팀원 간 크로스체크를 필수/공식화 하여 오타 및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한다.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4.1 The Coaching of Maker Project 결과 및 활용방안

4.1.1 코칭 결과

팀A 사례) 주제의식이 높은 경우

주제) “어떻게 사람들에게 친숙한 형태로 회계정보를 가공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

프로젝트명) AccounTranslatoR

활동 특징) 평소 주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는 데 관심이 많고 이를 프로젝트 내용에 반영하고자 노력함. 사용자 그룹을 20-30대 초보 투자자로 설정하여 본인과의 연계성을 높임. 프로토타입 아이디어가 전문적이면서도 독창적임. 팀별 컨설팅 피드백 수용도가 높음.

코칭의 방향성) 높은 주제의식을 활용하여 전문가 인터뷰 및 디테일한 유저 테스트를 수

행할 것을 권장함. 주제의식의 심도에 비해 과정별 상세 기록 체계가 취약하여 디자인 씽킹 템플릿을 꼼꼼하게 활용하고 의도적으로 노션 페이지 분량을 늘리도록 코칭함. 전문 주제의식이 대중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시각화 수준을 향상하도록 제안함.

팀B 사례) 수행력이 높은 경우

주제) “교내 대학 무인 편의점 쿵스켓의 불편한 점을 알아보고, 더 편리하게 개선된 모델을 제시해볼까?”

프로젝트명) 우리편해요

활동 특징) 주제와 관련된 자료 수집과 사례 연구가 우수함. 입체적인 사용자 맵핑을 바탕으로 제한된 여건 속에서 다수의 사용자 인터뷰를 진행함. 방법론 학습과 적용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노션 플랫폼의 공유 기능을 스케줄 운영과 회의록 작성에 효과적으로 활용함.

코칭의 방향성) 데이터 수집의 규모에 비해 데이터 선별과 분류가 취약하여 보다 명시적인 취사선택의 기준을 선정하도록 코칭함. 프로젝트 방법론 습득이 우수한 반면 이론에 경도되는 경향이 있어 디자인씽킹 템플릿 활용을 초월하는 인사이트 발견을 유도함.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팀 프로젝트 수행력과 실질적 협업 사이의 관계성 파악을 위해 팀원 상호평가를 실시함.

팀C 사례) 동기와 협업이 높은 경우

주제)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프로젝트명) 드림버스

활동 특징) 상대적으로 저학년으로 구성된 팀으로 팀원 사이의 순수한 상호작용이 활발함. 수년간 발달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관련 단체에서 일한 개인적 경험이 프로젝트의 강한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주제 구성에 잘 활용함. 클래스 피드백과 팀별 컨설팅 수용에 유연하여 프로젝트 방향성 재설정을 자발적으로 수행함.

코칭의 방향성) 총체적 학습량이 적은 저학년 팀의 약점을 개인적 경험에 근거한 팀의 아이덴티티와 서사로 극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수업 내외적으로 활성화된 협업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재미 위주의 별도 미션을 부여함. 노션 등의 협업 도구와 미리캔버스 등의 시각화 도구에 능숙한 팀의 장점을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에 반영하여 시각 자료 역시 또다른 의미작용을 수행하도록 코칭함.

4.1.2 활용방안

- 프로젝트 참여 학생을 위한 코칭 가이드와 수행 미션을 표준화하여 일반 프로젝트 수업에 활용 가능
- 팀별 사례 연구의 결과를 코칭의 척도를 가능할 수 있는 지표(예: 주제의식, 동기, 수행력, 협업, 자유도 등) 개발에 활용 가능
- 구글클래스룸, 노션, 미리캔버스 등 프로젝트 수업에 최적화된 디지털 도구 발굴과 매뉴얼 작성에 활용 가능

4.2 The Coaching of Analysis Project 결과 및 활용방안

4.2.1 사례 연구 - 세 가지 팀과 세 가지 코칭

다음은 본 연구모임의 결과로서 세 가지 다른 종류의 팀 활동과 그에 대한 코칭 활동을 소개한다. 세 가지 아주 다른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각 팀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맞춤형 코칭 활동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는다.

팀A 사례)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팀에 대한 코칭

주제) 말을 할 수 없는 농인들이 AI를 활용한 수어시스템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여러 매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팀 구성 방법) 동일학과 학생들이 교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팀을 결성함.

활동 특징) 교수가 원하는 방향에 대한 질문을 수시로 하여 어떠한 과정을 반복하거나 다시하는 오류를 최소화하여 결과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함. 이전에 팀프로젝트에서 호흡을 맞춰본 학생들이며 전원 성실성이 평균 이상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분업을 하고, 회의를 하는 과정이 매우 효과적임. 주제를 정하거나 결과를 도출하는 등 중요 과정을 수행할 때에는 꼭 교수님께 질문을 하고 확인을 받아 그 방향성을 잡아나감.

과정에서의 문제) 특별한 문제가 없음.

코칭의 방향성) 이렇게 큰 문제가 없는 팀의 경우 주요 단계에서 질문이 들어올 때 최대한 여러 학생과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주고 격려하는 방향으로 코칭함. 특히 이전 코칭 방향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잘 반영되었는지를 칭찬하고 그대로 자신감있게 나아가면 된다고 코칭함. 이런 팀의 경우 대체로 기본 성실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끝까지 흥미를 잃지 않고 '재미있고 보람있게' 팀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중요함.

팀B 사례) 개개인은 열심히 하지만 팀이 하나로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팀에 대한 코칭

주제) 처음에는 교통정보 서비스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보플랫폼을 구상하였으나 중반에 대학생용 정보포털서비스로 주제를 변경함.

팀구성) 학과, 학년, 성별 등이 매우 다양하게 혼합된 팀. 첫 회의 때 협의를 통해 팀장 선출 및 업무 분장을 함. 고학년 이중전공 학생이 팀장으로 선출됨.

활동 특징) 개개인의 성격과 업무 스타일이 매우 다름. 그러나 팀멤버 전원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회의 및 프로젝트에 임함.

과정에서의 문제) 개개인이 매우 적극적으로 각자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열심히 조사하고 의견을 내다보니, 다양한 의견을 종합한 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협의에 의해 도출하는 과정이 쉽지 않음. 특히 A학과 학생이 다수인 상태에서 이중전공생인 타학과 학생이 팀장을 맡은 것도 의견 수렴에 어려움을 더함. 팀장은 최대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취합하며 한 사람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다 수렴하려다보니 여러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함. 그러다보니 중간고사 이후 주제를 변경하게 되어 학생들의 우려가 커짐. 중간에 주제를 바꾸는 팀은 종종 있으나 중간고사 이후 바꾸는 팀은 많지 않음. 이에 팀원 및 팀장이 개인별로 조언을 얻는 경우가 많았음.

코칭의 방향성) 주제를 바꾼 이후 자주 상담을 하였음. 상담의 방향은 주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의 완성도에 집중하라 하였음. 주제 변경 후 더 이상 탐색적 조사 및 토론을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데이버 분석 및 결과를 도출하고, 마감 2주 전에 초본을 완성하여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도록 유도함. 타 팀보다 진도는 늦었지만 개인 역량은 충분한 팀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속도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실제로 해당 팀은 다른 팀보다 늦게 시작하였음에도 2주 전에 초본을 완성하여 피드백을 받았음. 실제 마감 전까지 두 번의 피드백을 받아 그에 맞게 프로젝트를 수정, 보완을 철저히 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높은 완성도를 보여줌.

팀C 사례) 개개인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팀장 등 일부 학생만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상황에서의 코칭

주제) 가정 언어 교육을 도와주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 개발

팀구성) 다양한 전공 및 학년의 학생들로 구성됨. 첫 회의 때 업무분장을 함.

활동 특징) 열심히 하고 적극적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양분되어 계속 회의가 진행됨. 모든 회의의 주제 및 방향성, 결과는 적극적인 일부 학생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결

정됨.

과정에서의 문제) 일부 학생들의 역량이 뛰어나고 적극적인 것은 사실이나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일부러' 업무를 해태하는 것은 아님.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필요한 경우 할 일은 다 해옴. 단지, 뛰어난 학생들의 업무 역량이 객관적으로 뛰어나다보니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기여도가 낮아지게 됨. 이 경우 역량이 뛰어나지 않은 학생들이 상호평가를 통해 자신들의 평가가 낮아지게 되는 경우를 우려함.

코칭의 방향성) 업무의 특성에 따라 개개인의 역량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렇다고 하여 평가가 달라지는 일은 없음을 알려줌. 상호평가는 실시하지만 이는 객관적으로 업무를 해태하고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를 방지하지 위한 것이고, 이 경우처럼 열심히 했지만 프로젝트 전체의 질 향상을 위해 자신의 결과물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는 상호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원칙을 알려줌. 진정한 팀워크는 모든 팀원이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원이 노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임을 상담을 통해 알려줌.

4.2.2 결과의 시사점 및 활용방안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교수의 코칭 영역을 정리할 수 있다.

코칭1) 주제와 데이터와의 논리적 연결에 대한 지도 - 전공 지식과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객관적인 코칭이 필요하다.

코칭2)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한 지도 - 전공 지식 및 상식의 관점에서 역시 적극적이고 객관적인 코칭이 필요하다.

코칭3) 시간 관리에 대한 지도 - 이 경우 학생들이 마음을 조급하게 가지지 않도록 격려와 함께 때로는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이 스스로 찾고 이루어야 핵심 목표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정해주시 않는다.

코칭4) 학생들의 의견 충돌 시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 대한 지도 - 개인 상담과 팀 상담을 병행하여 의견 충돌의 원인을 파악하고, 팀장의 리더십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지도하거나 혹은 팀원의 적극성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지도한다. 혹은 두 가지 방법 모두를 활용한다.

이렇게 분야별로 정리된 코칭 방식은 차후 다양한 수업에서 주제에 맞게 변형되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IDEO, *Design Thinking for Educators*. 2012.
- Leifer, Larry, et al. *The Design Thinking Toolbox*. Wiley, 2020.
- Leifer, Larry, et al. *The Design Thinking Playbook*. Wiley, 2018.
- Leifer, Larry and Martin Steinert. "Dancing with Ambiguity: Causality Behavior, Design Thinking, and Triple-Loop-Learning". *Information Knowledge Systems Management* 10, 2011.
- Manzini, Ezio. *Design, When Everybody Designs: An Introduction to Design for Social Innovation*. The MIT Press, 2015.
- Witthoft, Scott. *This Is a Prototype: The Curious Craft of Building New Ideas*. Ten Speed Press, 2022.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재 연구 」

김효신 교원, 노지현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에 대한 언어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하기가 어렵다. 발음의 정확성이 의사소통에 큰 영향을 미치며 매우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재 개발은 미비한 편이다. 또한 잘못된 발음이 고착된 다음에는 교정하기가 어려워지므로 발음 교육은 교육 초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본 연구자들은 이 모임을 통해 한국어 발음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구축하고 나아가 한국어 교사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수업 자료들을 마련하여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재 연구

목적: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의 발음이 대학 교육 기관에서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한국어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과 교수 방법에 대해 제언하는 것이다.

3. 연구 진행 내용

다음 세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 질문>

- Q. 발음 규칙에 관해 전혀 다루지 않는 교재도 존재하는가?
- Q. 자모 및 받침의 발음 등은 통일성 있게 교수되고 있는가?
- Q. 한국어 발음을 교육할 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위의 질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대학 기관에서 발행된 통합 교재(5종)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교재는 서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이다. 이들 교재를 선정한 이유는 1급부터 6급까지

출판된 통합 교재로 다년간의 한국어 교육의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중 영역 간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 '듣기와 읽기' 영역에서 발음을 교수하고 있었다. 분석 내용은 크게 모음, 자음, 발음 규칙의 내용과 교수 방법으로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모음 교수 내용 및 방법>

- Q. 단모음, 이중모음의 개수는?
- Q. '에, ऐ'를 통합해서 가르치는가?
- Q. '외, 위'를 이중모음으로 가르치는가?
- Q. 이중모음 '외, 왜, 웨'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 Q. '의'의 발음을 별도로 가르치는가?
- Q. '예'의 발음을 별도로 가르치는가?

<자음 교수 내용 및 방법>

- Q. '평음, 격음, 경음'의 교수 순서는?
- Q. '받침'을 가르치며 '연음'을 가르치는가?
- Q. '받침 ㅎ'에 관해 '받침' 부분에서 가르치는가?
- Q. '겹받침'의 발음에 관해 자음 앞에서의 발음과 모음 앞에서의 발음에 관해 가르치는가? 같은 맥락에서 '연음'에 관해서 가르치는가?

<발음 규칙 내용 및 교수 방법>

- Q. '연음, 비음화, 경음화, 구개음화, 유기음화(격음화), ㄴ첨가, ㅎ약화, 유음화, ㅎ탈락' 등은 어떻게 제시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되고 있는가?

소리의 길이, 강세, 억양과 같은 운소는 발화전달력 향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교수되어야 하지만 이를 규칙화하여 교육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학습자 모국어의 억양이 드러나는 한국어 억양이나 발음 교육은 언어권별로 교육 내용이 달라져야 해 본 연구의 목적과는 맞지 않다. 또한 특정 문법 항목이 가지고 있는 억양, 상황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억양과 같은 것들은 연구 내용으로 삼기에 그 내용이 방대하므로 추후 연구 과제로 남기고 본 논의에서 제외할 것이다.

대학별 교재는 모음, 자음, 음운 규칙 교수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교재 분석 방법의 예: 모음>



<교재 분석 방법의 예: 자음>



<교재 분석 방법의 예: 발음 규칙>

본격적인 교재 분석에 앞서 ‘발음’과 관련된 내용을 몇 급에서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는데 초·중급(1~4급)에서 다루고 있는 교재가 있는 반면 초급(1~2급)에서만 다루고 있는 교재도 존재하였다. 고급(5~6급)에서 ‘발음’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교재는 존재하지 않았다. 아래 표는 각 교재에서 ‘발음’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급을 정리한 것이다.

<교재별 '발음'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이대	○	○	X	X	X	X
서울대	○	○	○	○	X	X
연대	○	○	X	X	X	X
고대	○	○	○	○	X	X
외대	○	○	X	X	X	X

또한 '발음' 부분을 어느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발음' 부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교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각 과에 등장하는 몇몇 어휘의 발음을 제시하는 정도에서 머무르는 교재도 있었다. 각 교재에서 '발음'에 관한 부분이 어디에서 등장하는지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

교재	과별 발음 교육 내용 제시 부분
이대	1급 '말해봅시다(발음)', 2급 '읽고 써 봅시다(낭독)'
서울대	각 과의 '말하기'와 '발음'
연대	'듣기와 읽기(따라해 봅시다)'
고대	'발음/문화'
외대	1급, 2급 각 과의 '말해봅시다' 1급의 경우, 워크북에서도 발음 교육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음.

다음으로 각 교재에서 한글 자모 교육이 어떠한 순서로 그리고 어떤 자음과 모음을 우선하여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자모 교육의 순서에서는 모든 교재가 공통적으로 모음을 먼저 제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모음 전체를 먼저 제시하고 자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모음 먼저 제시하고 다음에 일부 자음을 제시하는 방식이었다. 먼저 제시하는 모음의 종류 또한 동일하지는 않았는데 단모음을 먼저 제시하는 교재가 있는가 하면 '기본모음'이나 '모음1'과 같은 이름을 붙여 먼저 제시하는 모음의 종류와 개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음의 경우에는 큰 틀에서 보았을 때는 '격음과 경음이 아닌 자음+(격음)' → '경음'의 순서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순서와 종류가 5종의 교재에서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받침의 제시는 모음과 자음의 제시가 모두 끝나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겹받침의 경우 5종의 교재 중 1종(연대)의 교재에서만 한글을 학습하는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받침'을 제시한 후 단어 연습의 일환에서 '연음'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교재도 1

중(고대) 있었다.

교재	자모 제시 순서 및 종류		
	자모 전체	자모별	
이대	모음1('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자음1(경음을 제외한 자음) → 모음2('ㅐ, ㅒ,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자음2(경음) → 받침(겹받침 없음)	모음	모음1('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모음2('ㅐ, ㅒ,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자음	경음을 제외한 자음 → 경음 → 받침
서울대	모음1(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ㅣ) → 자음1(격음, 경음을 제외한 자음) → 모음2(ㅑ, ㅓ, ㅕ, ㅗ) → 자음2(격음) → 자음3(경음) → 모음((ㅐ, ㅒ,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받침	모음	단모음 → 일부 이중모음(ㅑ, ㅓ, ㅕ, ㅗ) → 나머지 단모음+나머지 이중모음(ㅐ, ㅒ,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자음	격음과 경음을 제외한 자음(ㄱ,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 격음 → 경음 → 받침
연대	모음1(단모음) → 자음1(경음을 제외한 자음) → 모음2(이중모음) → 자음2(경음) → 받침(홀받침 → 겹받침)	모음	단모음 → 이중모음
		자음	경음을 제외한 자음 → 경음 → 받침(홀받침 → 겹받침)
고대	모음1(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자음1(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 음절1 → 모음2(ㅐ, ㅒ,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자음2(경음) → 받침(겹받침 없음)	모음	모음1(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모음2(ㅐ, ㅒ,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자음	격음과 경음을 제외한 자음 → 경음 → 받침
외대	단모음(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기본 자음(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 이중모음 → 자음 ㅎ+격음(ㅋ, ㅌ, ㅍ, ㅊ) → 경음 → 받침(ㄴ, ㅁ, ㅇ, ㄹ) → 받침(ㄱㄷㅂ) (겹받침 없음)	모음	단모음 → 이중모음
		자음	기본 자음 → 자음 ㅎ+ 격음 → 경음 → 받침(ㄴ, ㅁ, ㅇ, ㄹ) →

			받침(ㄱ, ㄷ, ㅂ)
--	--	--	-------------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앞서 제기하였던 여러 질문에 대해서도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각 교재에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수는 몇 개로 제시되고 단모음과 이중모음에 속하는 모음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 표준 발음법 제 4항⁴⁾에 따르면 단모음은 10개이나 ‘ㄴ, ㄹ’의 경우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따라서 교재에서는 단모음에 ‘ㄴ, ㄹ’를 포함하여 10개를 제시하거나 ‘ㄴ, ㄹ’를 이중모음으로 보고 8개의 모음을 단모음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 교재⁵⁾는 연대 교재가 유일하고 나머지 4종의 교재는 처음 제시하는 모음의 종류가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외대의 경우는 단모음에서 ‘ㄴ, ㄹ’를 제외한 8개의 모음을 먼저 제시하고 있고 서울대의 경우는 단모음에서 ‘ㄴ, ㄹ, ㅁ, ㅂ’를 제외한 6개의 모음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대와 고대의 경우, 기본 모음으로 제시된 모음이 10개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가 우선적으로 등장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교재에 따라 모음/단모음/기본모음 등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ㄴ, ㄹ’는 현대 한국어에서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대 한국어를 사용하는 모든 언중이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각 교재에서는 단모음으로만 제시하거나 단모음과 이중모음 발음을 병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교재에서 ‘ㄴ, ㄹ’를 단모음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이중모음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ㄴ, ㄹ’의 이중모음 취급 여부〉

이대	서울대 ⁶⁾	연대 ⁷⁾	고대 ⁸⁾	외대
x	△	x	△	x

‘ㄱ, ㅋ’의 발음 구별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현대 한국어에서 거의 구별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ㄱ, ㅋ’의 발음 구별 또한 같이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5종의 교재 중 4종의 교재에서는 ‘ㄱ, ㅋ’를 별개의 발음으로 제시하고 외대 교재에

4) 표준 발음법 제4항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는 단모음(單母音)으로 발음한다.

(붙임) ‘ㄴ, ㄹ’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5) 외대 교재도 ‘단모음, 이중모음’으로 모음 이름을 제시하고 있지만 ‘단모음’에는 ‘ㄴ, ㄹ’가 제외된 8모음만이 포함되어 있다.

6) 단모음과 이중모음 발음 기호를 병기하고 있다.

7) 발음 기호를 표시하고 있지 않으나 다른 단모음과 같이 분류되어 있다.

8) 단모음과 이중모음 발음 기호를 병기하고 있으며 ‘표준발음법에 따르면 ‘ㄴ’과 ‘ㄹ’은 원래 단모음이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합니다.’라는 부가 설명이 있다.

서만 동일한 발음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별개의 발음으로 제시하고 있는 4종의 교재 중에서도 이대와 고려대 교재에서는 발음에 대해 별도의 설명이 있었다. 고려대 교재에는 ‘ㄱ, ㅋ’와 함께 ‘ㄲ, ㆁ’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대 교재에는 ‘ㄱ, ㅋ’의 설명은 있지만 ‘ㄲ, ㆁ’에 대한 설명은 찾을 수 없었다.

<‘ㄱ, ㅋ’ 발음 통합 여부>

이대	서울대	연대	고대	외대
△	x	x	△	x

아래는 ‘ㄱ, ㅋ’(ㄲ, ㆁ)에 대한 이대와 고려대 교재의 설명 내용이다.

이대	*Tip ‘ㄱ, ㅋ’ 발음은 [ɛ], [e]로 다르지만 실제 말할 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고려대	‘ㄲ’와 ‘ㄱ’ 그리고 ‘ㆁ’와 ‘ㄱ’은 원래 다른 소리이지만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ㄲ’와 ‘ㄱ’을 같은 소리인 [ɛ]로 발음하고 ‘ㆁ’와 ‘ㄱ’도 같은 소리인 [je]로 발음합니다.

이와 같은 설명은 실제 현대 한국어 발음을 고려하여 추가된 것으로 실제 현대 한국어 발음에서 ‘ㄱ, ㅋ’와 ‘ㄲ, ㆁ’ 발음의 중성화는 현저한 현상이다. 하지만 완전히 하나의 소리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각 교재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ㄴ, ㄹ, ㄷ’의 발음 또한 논의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ㄴ’을 이중모음으로 발음하였을 경우 ‘ㄷ’의 발음과 같고 ‘ㄲ’와 ‘ㄱ’의 발음이 통합되어 ‘ㄱ’로 발음된다면 최종적으로 ‘ㄴ, ㄹ, ㄷ’는 모두 ‘ㄷ’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5종의 교재 중 외대 교재만이 ‘ㄴ, ㄹ, ㄷ’를 동일한 발음으로 제시하고 있었고 나머지 교재들은 ‘ㄱ, ㅋ’ 발음의 통합 여부와 ‘ㄴ, ㄷ’의 이중모음 발음 여부에 따라 ‘ㄴ, ㄹ, ㄷ’의 발음 또한 달리 설정하고 있었다.

각 교재에서 ‘ㄴ, ㄹ, ㄷ’를 통합해서 하나의 발음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ㄴ, ㄹ, ㄷ’ 발음 통합 여부>

이대	서울대	연대	고대	외대
△	△	△	△	○

이대 교재에서는 ‘ㄴ, ㄹ, ㄷ’의 발음을 모두 다르게 표기하고 있지만 아래 ‘Tip’부분에 “ㄹ, ㄴ, ㄷ’는 발음이 조금씩 다르지만 말할 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이들 글자의 발음을 통합해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대 교재에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ㄱ, ㅋ’는 별개의 음으로 제시하고 ‘ㄴ, ㄷ’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발음을 병기하고 있다. 따라서 ‘ㄴ, ㄷ’는 다른 발음으로 표기되어 있고 ‘ㄴ’는 이중모음으로 발음될 경우 ‘ㄷ’와 같은 음가를 가지는 것으로 제시한다.

연대 교재에서는 한글 제시 단계에서 발음 기호를 표기하지 않고 있어 ‘ㄴ, ㄴ, ㄷ’가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앞서 ‘ㄱ, ㅋ’를 다른 음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ㄴ, ㄷ’를 ‘단모음’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ㄴ, ㄴ, ㄷ’를 모두 다른 발음으로 교육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1급 8과의 ‘모음 뒤 [의] 발음’ 부분에서 아래와 같이 제시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연세한국어 1급 8과: ‘모음 뒤 [의] 발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회사/훼사] • 아침을 먹고 9시까지 회사에 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회의/훼이]
---	---

위를 보면 ‘ㄴ’의 이중모음 발음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대 교재에서는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ㄴ’는 ‘ㄷ’와 동일한 음가로서 제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대 교재에서는 ‘ㄴ, ㄴ, ㄷ’의 발음 기호를 모두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ㄴ, ㄴ, ㄷ’는 원래 다른 소리이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ㄴ, ㄴ, ㄷ’를 같은 소리인 [wɛ]로 발음합니다.”와 같은 부가 설명을 하여 이 세 글자의 발음을 통합하여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으로 각 교재에서 ‘ㄴ, ㄴ, ㄷ’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5종의 교재가 모두 다른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교재에서 전면적으로 이 세 모음을 같은 발음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ㄱ, ㅋ’ 발음의 통합 여부, 그리고 ‘ㄴ, ㄷ’의 이중모음 발음 여부와 맞물려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음운 규칙과 관련해서는 한국어 모국어 화자 대상의 음운 규칙에 대한 교육 내용과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음운 규칙 교육 내용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에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교육되어야 하는 음운 규칙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앞서 5종의 교재에서는 어떠한 음운 규칙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아래 표는 5종의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음운 규칙을 분석한 내용이다.

<교재별 음운 규칙 제시 유무>

	연음	비음화	경음화	구개음화	격음화	ㄴ첨가	ㅎ약화	유음화	ㅎ락탈락
--	----	-----	-----	------	-----	-----	-----	-----	------

이대	○	○	○	○	○	○	○	○	○
서울대	○	○	○	X	○	○	○	○	○
연대	○	○	○	○	○	X	○	○	X
고대	○	○	○	X	○	○	X	○	X
외대	○	○	○	X	○	○	X	○	○

‘연음 규칙’은 5종의 교재에서 모두 다루고 있다. 그러나 실질형태소와 형식형태소에 따라 달라지는 연음 규칙을 구분하여 설명을 넣은 교재는 1종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다루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다른 음운 규칙이 먼저 적용된 후에 연음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도 교육 내용에 들어가 있었는데 설명 없이 연음 규칙으로만 제시되어 있어 학습 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비음화’는 5종의 모든 교재에서 다루고 있으나 아래 표와 같이 비음화의 제시 횟수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규칙 제시 유무	비음화 제시 횟수
이대	○	3회
서울대	○	10회
연대	X	15회
고대	○	2회
외대	○	3회

비음화는 장애음의 비음화, 유음의 비음화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받침소리 [ㄹ, ㄷ, ㄱ]는 ‘ㄴ’이나 ‘ㄹ’ 앞에서 [ㄹ, ㄴ, ㅇ]으로 발음되는 비음화의 경우, 규칙과 함께 설명하거나, 규칙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발음 제시만을 통해 교재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유음의 비음화 중 등록금 [등녹금], 정류장 [정뉴장], 종로 [종노]과 같은 ‘ㄹ, ㅇ’ 뒤 ‘ㄹ비음화’와 컵라면 [컴라면], 합리적 [함니적] 와 같은 ‘ㄹ, ㄱ’ 뒤 ‘ㄹ비음화’는 발음만이라도(규칙 설명 없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ㄴ’ 뒤 ‘ㄹ비음화’와 같은 경우에는 유음화와 환경이 동일하므로 특수한 설명이 필요한데 5종의 교재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경음화는 한국어의 기초 단계 단어에서부터 확인되는 음운 규칙으로 한국어 발음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경음화는 초급 단계에서부터 필수적으로 교육되어야 하는 음운 규칙이다. 하지만 경음화의 경우 그 종류와 규칙이 복잡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

경음화에는 받침소리 [ㄹ, ㄷ, ㄱ] 뒤에 오는 ‘ㄹ, ㄷ, ㄱ, ㅈ, ㅊ’의 경음화, 받침 ‘ㄴ, ㄹ, ㅁ, ㅂ’으로 끝나는 동사/형용사 뒤에 오는 ‘ㄷ, ㅈ, ㅊ’의 경음화, ‘동사, 형용사 + -(으)ㄹ’ 뒤에 오는 ‘ㄹ, ㄷ, ㄱ, ㅈ, ㅊ’의 경음화 등이 있는데 이들 경음화는 필수적으로

일어나므로 그 규칙을 설명하여 교육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음화 중 받침 ‘ㄴ, ㄹ, ㄷ, ㅂ’으로 끝나는 동사, 형용사 뒤에 오는 ‘ㄷ, ㅈ, ㅊ’의 경음화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교재는 5종의 교재 중 서울대와 외대 교재뿐이다.

발음 규칙이나 발음을 제시할 때 동사, 형용사, 명사와 같은 품사 정보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신발을 신고[신고] 있다/도둑을 신고[신고]해’와 같이 동일한 환경임에도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 혼란을 느낄 수 있으므로 품사 정보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사, 형용사 + -(으)ㄹ’ 뒤에 오는 ‘ㅂ, ㄷ, ㅈ, ㅊ, ㅊ’의 경음화는 초급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으)ㄹ 수 있다, -(으)ㄹ 거예요, -(으)ㄹ게요’ 등에서 일어나므로 초급 단계에서 규칙과 함께 제시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을 설명하고 있는 교재는 5종 중 3종(이대, 서울대, 외대)뿐이다.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 모임의 결과

이번 연구 모임을 통해 한국어 교육에서 제시되고 있는 발음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발음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5종의 교재 분석을 통해 대학 내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 발음 교육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5종 중 3종에서 초급인 1, 2급에서만 발음을 다루고 2종의 교재(서울대, 고대)에서만 4급까지 발음 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발음은 발화전달력 향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교수되어야 하고 학습자들의 요구도 높은 만큼 중급까지의 발음 교육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각 교재의 자모음의 제시 순서 및 음가, 음운 규칙의 종류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특히 모음의 제시에 있어서는 ‘ㅐ, ㅑ’ 통합 여부, ‘ㄴ, ㄹ’의 이중모음 발음 여부에 관해 아직까지 많은 교재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에 한국어 학습자에게 필요한 발음 규칙들이 무엇인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발음 교육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발음 교수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결과 활용 방안

- 한국어 교육의 교과 과정 가운데 발음 부분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

용될 수 있다.

- 한국어 교사들이 한국어 발음을 가르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발음 교육에 있어 기본적인 발음 교육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 연구된 내용은 실제 수업에 적용 가능하며 학습자 발음 개선에 기여하여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5. 교수법 연구모임의 효과 및 제언

● 교수법 연구모임에 대한 종합 평가

- 연구 모임을 통해 최근 개발된 한국어 교재들을 분석해 볼 수 있었다.
- 공동 연구들 통해 필요한 교육 내용에 대한 논의를 풍부하게 해 볼 수 있었다.
- 공동의 연구 목표를 가지고 논의를 해 나갈 수 있어 연구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활용하기 좋은 학습 자료들을 구축할 수 있었다.
- 학습자를 돕기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1), 이화 한국어1-2, epress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21), 새 연세한국어1-2(듣기와 읽기),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 편(2019), 고려대 한국어1-4,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3), 서울대 한국어1-4, 투판스

한국외대한국어문화교육원 저,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1-2,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워크북 1(2016), 하우

「 지역전문가를 위한 언어교육 방법론 」

문남권 교원, 이강국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스페인어권 학과들은 CORE 사업 이후 '문학사'와 '지역학사'의 두 개 학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ORE 사업을 계기로 지역전문가와 지역학사 제도가 도입되어 스페인어과와 스페인어통번역학과 학생들은 언어학 과목과 지역학 강좌를 같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문학사 체제로서 언어 학습에 중점이 있던 것과 달리, 지역전문가를 위한 교과과정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언어학습과 지역학 분과학문 강좌들을 동시에 공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지역전문가가 되기 위한 코스를 밟는 학생들을 위한 효율적인 언어교육법에 대한 체계적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어 독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지역전문가를 위한 언어교육 방법론

목적: 지역전문가가 되기 위한 코스를 밟는 학생들을 위한 효율적인 언어교육법에 대한 체계적 연구

3. 연구 진행 내용

3.1. 지역 전문가란?

'지역 전문가'는 특정 지역에 대한 광범위하고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지식은 해당 지역의 문화, 역사, 경제, 사회, 지리,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역 전문가는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 교육, 상담, 조사, 계획, 정책 제작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 전문가가 되려면 그 지역에 대해 깊게 연구하고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장기간 거주하며 경험을 쌓거나, 특정 학문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필드 연구를 수

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지역의 언어를 배우거나 그 지역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식과 경험은 그들이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추고, 복잡한 문제나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합니다.

지역학(area studies)이 한국에 도입된 정확한 시기를 꼽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는 지역학의 개념 자체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국제 관계,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지리학, 역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지역학은 20세기 후반부터 급속도로 발전한 학문으로 볼 수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 시기에 도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로 세계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지역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학문 연구는 그 이전부터도 있었으므로, '지역학'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도입되기 이전에도 실질적인 지역학 연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학'이라는 용어가 한국에 정확히 언제 도입되었는지를 꼽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래의 단계들은 일반적으로 지역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 지역 선택: 먼저,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도시, 지방, 국가, 지역, 심지어는 대륙까지 될 수 있습니다.
- * 지식 습득: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 경제, 정치, 사회 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광범위한 학문적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이는 대학 또는 대학원 수준의 공식적인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독학으로도 가능합니다.
- * 언어 학습: 해당 지역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그 지역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원래의 문헌을 읽고, 현지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 * 현지 경험: 가능하다면, 해당 지역에 직접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경험과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연구와 전문화: 지역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구와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학술 저널이나 책 등의 형태로 발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 네트워킹: 같은 분야의 다른 전문가들과 네트워킹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얻고, 전문 지식을 확장하고,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중남미는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다양한 지역입니다. 아래에 몇 가지 주요 특징을 제시하겠습니다:

- * 지리적 특징: 중남미는 멕시코에서부터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가장 남단에 이르는 매우 넓은 지역을 포괄합니다. 이 지역은 고산, 사막, 농업 지역, 열대 우림, 해안선 등 다양한 지형과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 문화적 특징: 중남미는 원주민 문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 시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가져온 사람들의 영향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국가와 지역마다 독특한 문화, 예술, 음악, 요리 등이 발전하였습니다.
- * 경제적 특징: 중남미 경제는 국가마다 크게 다릅니다. 일부 국가는 천연 자원, 농업, 투자, 관광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불평등과 빈곤이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으며, 일부 국가는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 * 사회적 특징: 중남미 사회는 높은 불평등, 취약한 사회 보장 체계, 범죄 및 폭력 문제, 불완전한 민주화 등 여러 가지 도전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 * 정치적 특징: 중남미의 정치 체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따르고 있으나, 각 국가마다 정치적 안정성은 다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치적 불안정성, 부패, 권력의 중앙 집중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특징들은 중남미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이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중요합니다.

3.2. 지역 전문가가 필요로 하는 언어 교육

지역 전문가가 되는 과정에서 언어 교육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언어는 특정 지역의 사회, 문화, 역사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므로, 해당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의 주요 언어를 깊이 있게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언어 학습의 중요성

특정 지역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 이상이며,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

치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언어를 배우는 것은 특정 지역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원어로 된 자료를 직접 읽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를 진행하거나 현지에서 일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장점입니다. 언어 능력은 또한 현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그들의 견해와 생각을 직접 듣고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언어 교육의 방법

언어 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학문 교육으로는 대학에서의 언어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문법, 어휘, 발음 등 언어의 기본적인 요소를 배울 수 있으며, 독해, 작문, 말하기, 듣기 등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의 언어 학습

어떤 언어를 배우든, 그 언어가 사용되는 환경에서 직접 사용해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언어를 실제로 사용하며 습득하는 '몰입 학습' 방법으로, 현지에서의 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또한 현지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언어 사용의 실제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실용성

언어 학습은 한 번에 끝나는 과정이 아닌,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언어는 계속 변화하며, 새로운 어휘와 표현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어를 계속 사용하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 이상으로 그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능력, 즉 실용성도 중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언어 교육은 지역 전문가가 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연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외국어를 교육하거나 배우는 데는 다양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주요한 방법론을 살펴보겠습니다.

- 그램마 트랜스레이션 방법 (Grammar-Translation Method): 이 방법은 오래된 전통적

인 방법으로, 외국어의 문법 규칙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모국어와 외국어 사이의 번역을 통해 학습합니다. 주로 문법과 어휘에 중점을 두며, 주로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직접 방법 (Direct Method): 이 방법은 외국어를 모국어가 아닌 그 언어 자체로 배우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방법은 외국어를 익히는데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간주되며, 주로 말하기와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 오디오 링귤 메서드 (Audio-Lingual Method): 이 방법은 '듣기'와 '반복'에 중점을 둡니다. 언어 학습자는 문장 패턴을 듣고 반복하여, 언어 사용에 익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커뮤니케티브 언어 교육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이 방법은 언어 학습의 목적이 의사소통이라는 점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학습자가 실제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Immerion): 이 방법은 학습자가 외국어가 사용되는 환경에 '몰입'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외국어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간주되며, 외국어를 사용하는 실제 상황에서 언어를 학습하게 됩니다.

- 태스크 기반의 언어 교육 (Task-Based Language Teaching): 이 방법은 학습자가 특정 '태스크' 혹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언어를 배우는 것을 중점으로 합니다. 이는 실생활에서의 문제 해결과 연결될 수 있으며, 의미와 의사소통이 중요하게 간주됩니다.

각각의 방법론은 그 특징과 목표에 따라 언어 학습의 다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각 학습자의 필요와 목표에 따라 적절한 방법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반적인 외국어 교육 방법론과 지역 전문가를 위한 외국어 교육 방법론은 여러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목표와 적용 방식에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 공통점

기본 언어 학습 스킬: 양쪽 모두 기본적인 언어 학습 스킬을 중점적으로 배웁니다. 이는 어휘, 문법, 발음,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을 포함합니다.

문화 이해: 두 방법론 모두 해당 언어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합니다. 언어는 그 자체로 문화를 반영하며, 문화적 배경 없이 언어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차이점

학습 목표: 일반적인 외국어 교육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언어 능력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에, 지역 전문가를 위한 외국어 교육은 해당 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더 복잡한 문제에 대해 토론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목표로 합니다.

학습 내용: 일반적인 외국어 교육은 일상적인 주제와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지역 전문가를 위한 외국어 교육은 해당 지역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대한 더 심도있는 이해를 포함합니다.

사용되는 자료: 일반적인 외국어 교육에서는 학습자 수준에 맞는 교재와 자료가 사용됩니다. 반면에, 지역 전문가를 위한 외국어 교육에서는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 사용되는 원문 자료, 뉴스 기사, 학술 논문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전문가를 위한 외국어 교육은 특정 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목표로 하는만큼 일반적인 외국어 교육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학습을 요구하며, 더 고급 언어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3.3. 중남미 지역 언어 현황 및 교육

중남미 지역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유럽에서 온 정복자들과 원주민 사이의 혼혈인,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들어온 사람들에 의한 영향으로 인해 많은 언어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어: 스페인어는 중남미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이는 스페인의 정복 때문입니다.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페루, 베네수엘라 등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에서 스페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어: 포르투갈어는 브라질에서 사용되는 주요 언어로, 이는 포르투갈의 정복 때문입니다. 브라질은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이므로, 중남미에서 포르투갈어를 구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프랑스어와 영어: 중남미에서 프랑스어와 영어도 사용됩니다. 특히, 아이티에서는 프랑스어와 아이티 크리올어가 공식 언어로 사용되며, 그 외에도 도미니카 연방, 세인트 루시아 등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서 프랑스어가 사용됩니다. 영어는 벨리즈와 가이아나, 그리고 카리브해 영역의 일부 국가에서 공용어로 사용되며, 다른 국가에서도 두 번째 언어로서 많이 배워집니다.

원주민 언어: 물론, 중남미에는 여전히 수많은 원주민 언어가 존재합니다. 이들 언어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며, 그 중 일부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퀘추아어는 페

루의 주요 원주민 언어이며, 그 외에도 국가와 지역마다 수많은 원주민 언어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언어적 배경으로 인해, 중남미 지역은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며, 이로 인해 중남미 지역 전문가가 되려면 해당 지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스페인어는 매우 널리 배워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스페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많은 국가와 지역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미국과 같은 다양한 이민 국가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2023년 현재로서는 스페인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장 많이 말하는 언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인어는 전 세계 많은 학교와 대학에서 제2외국어로 교육되며, 다양한 온라인 언어 학습 플랫폼에서도 제공됩니다. 또한, 스페인어를 교육하는 전문 언어 학교와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스페인어 교육은 일반적으로 회화, 독해, 쓰기, 듣기 등의 기본 언어 스킬에 초점을 맞추며,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교육도 포함됩니다.

반면에, 중남미 지역의 원주민어는 대체로 그 지역에서만 교육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많이 교육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주민어를 보존하고 재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루와 볼리비아에서는 퀘추아어를 공교육 체제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노력이 있습니다.

또한, 언어 보존에 관심이 있는 학자나 학생들이 원주민어를 연구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특정 원주민어에 대한 코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원주민 커뮤니티나 비정부 기구에서는 원주민어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배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이는 원주민어의 사용자 수가 적고, 자료와 교육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3.4. 교육 방법 및 개선 방안

중남미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의 스페인어 교육 커리큘럼은 언어 능력뿐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 역사, 사회, 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다음은 그러한 커리큘럼을 짜는 데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입니다.

- 언어 학습: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스페인어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커리큘럼에는 초급, 중급, 고급 스페인어 수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문법, 어휘, 발음, 회화, 쓰기, 듣기 등의 스킬을 모두 포괄해야 합니다.
- 문화와 역사 교육: 중남미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교육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각각의 국가와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음악, 문학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 사회과학과 정치: 중남미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와 이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니다. 이를 위해 교육 커리큘럼에는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인권학 등의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지역 연구: 중남미 지역의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한 지역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언어, 문화, 역사, 사회, 경제, 정치 등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 교환 학생 프로그램과 해외 연수: 실제로 중남미 지역에서 생활하며 그곳의 언어와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환 학생 프로그램이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현지에서 직접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 세미나와 워크숍: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학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강연, 세미나, 워크숍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학생들이 직접 전문가들에게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커리큘럼을 구성하면, 학생들은 스페인어 능력 뿐 아니라 중남미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르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스페인어과 영역별 교과과정 (17학번부터)

분 야	과목/학점	강좌
CORE 인문공통 강좌 (6학점)		중남미 역사와 사상(1)(2)
언 어	20/44	스페인어(1)(2) (학점수 3/ 시수 4) 스페인어회화(1)(2) (학점수 3/ 시수 3), 초급스페인어쓰기(1)(2) (학점수 3/ 시수 3) 중급스페인어문법(1)(2) 중급스페인어쓰기(1)(2) 중급스페인어읽기(1)(2) 스페인어 회화III(1)(2) (학점수 2/ 시수 2) 시사원어토론(1)(2) 스페인어음운론/스페인어구문론 스페인어발달사(1)(2) 스페인어에세이쓰기(1)(2)
문 학	12/24	스페인 문학사(1)(2) 스페인황금세기문학 / 스페인현대문학 중남미문학사(1)(2) 중남미소설 / 스페인소설
지 역	지 역 일 반 12/24	스페인 지역연구 / 중남미 지역연구 중남미 정치(1)(2) 중남미 경제(1)(2) 중남미 문화사(1)(2) 스페인문화사(1)(2)멕시코-중미-카리브 지역의 이해/ 남미 지역의 이해

지역 심화 8/16	중남미 기업과 법 (1)(2) 중남미 인종과 사회 (1)(2) 중남미 지역개발협력 I, II 중남미 외교와 국제관계(1)(2)
---------------	---

현재 스페인어과 전공 커리큘럼은 스페인어 언어교육에서 중남미 지역 전문가를 고려한 언어 교육은 목표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편적 언어 교육을 통해 언어 능력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지만, 지역 전문가는 현지어 중 중남미 지역 고유의 사용 언어 및 특징을 공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보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현 스페인어 교육은 기본적인 언어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선 그 이상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래에는 몇 가지 고려해볼 만한 개선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언어와 문화 이해: 현재 대부분의 스페인어 교육 프로그램은 스페인의 언어와 문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남미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중남미의 다양한 국가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중남미 각 국가의 특징과 문화, 사회, 정치, 경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경험 제공: 교환 학생 프로그램이나 해외 인턴십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중남미 국가에서 생활하며 언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언어 학습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심화 과정 제공: 현재 대부분의 스페인어 과정은 초급에서 중급 수준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남미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심화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고급 스페인어 과정과 지역연구, 사회과학, 정치학 등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초청: 스페인어 외에도 중남미 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이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최신 정보와 실질적인 경험에 기반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주민어 교육: 스페인어 외에도 중남미 지역의 원주민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퀘추아어, 마야어 등의 원주민어를 배우는 것은 학생들이 그 지역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더 깊은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사항들은 한국 대학의 스페인어 교육이 중남미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 더욱 효과적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교과과정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문헌

- "Area Studies in the Global Age: Community, Place, Identity" - Edith W. Clowes
- "The Politics of Area Studies: New Challenges and Emerging Opportunities" - Mark L. Haas, David W. Lesch
- "Learning Area Studies: Cognitive Science Perspectives on Practice and Policy" - Diane L. Schallert, Mary Lee Field
- "Becoming an African Diaspora in Australia: Language, Culture, Identity" - Finex Ndhlovu
- "Writing the New Berlin: The German Capital in Post-Wall Literature" - Katharina Gerstenberger
-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 Systematic and Regional Survey" - Brian Blouet, Olwyn Blouet
- "Introduction to Spanish Translation" - Jack Child
- "The Oxford Handbook of Latin American History" - Jose C. Moya
- "The Spanish Language Today" - Miranda Stewart
- "Politics and Society in Contemporary Africa" - Naomi Chazan, Peter Lewis, Robert Mortimer, Donald Rothchild, Stephen Stedman

「 ChatGPT를 활용한 초급 중국어 교육의 가능성 탐색 」

민경만 교원, 정호준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은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가장 큰 특징이며, 지금도 여러 영역에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2020년 11월 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¹⁾’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교육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자연어에 대한 이해와 생성 수준이 향상된 모델이 다수 개발되면서 최근 외국어 교육에서도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의 도구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김혜경, 한수미 2021:90-100). 이제는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접목시킬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심해 봐야 한다. 그중 ChatGPT는 다양한 직무에 당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꾼 것처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Forbes 2023; Kahn 2023)(권정민, 이영선 2023:11 재인용) ChatGPT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구현되어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외국어 교육에서도 ChatGPT활용 방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구영은 · 홍문표 2023:48)

앞으로의 교육은 전통적인 지식기반 교육에서 단순히 전달받아 기억하고 기존의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식을 검색하고 수많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러한 정보 가운데 적합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으며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모임에서는 초급 중국어 교육에 ChatGPT를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과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ChatGPT를 활용한 초급 중국어 교육의 가능성 탐색

1)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237>

목적: 본 모임은 급변하는 교수 및 학습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ChatGPT를 활용한 초급 중국어 교육의 가능성 탐색하고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ChatGPT가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ChatGPT는 세계 최대의 언어모델인 GPT-3를 만든 OpenAI에서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으로, Chat은 채팅의 줄임말이고 GPT는 'Generated Pre-trained Transformer'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화 형식으로 사용자와 인공지능 간 상호작용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ChatGPT는 2021년까지 구축된 광범위한 분야의 데이터를 학습한 GTP-3.5에 기반 하였고 Q&A 챗봇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주제에 대한 질문에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코드의 작성 및 수정, 글의 생성 및 번역, 다국어 구사, 외국어 표현의 오류 수정, 상담, 토론 등 지금까지 기존의 AI 기반 기술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서비스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ChatGPT가 교육용으로 개발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챗봇이 교육에 활용된다면 교사의 역할은 물론 교육 현장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급 중국어 교육에 초점을 두고 ChatGPT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잠재적인 이점과 문제점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3. 연구 진행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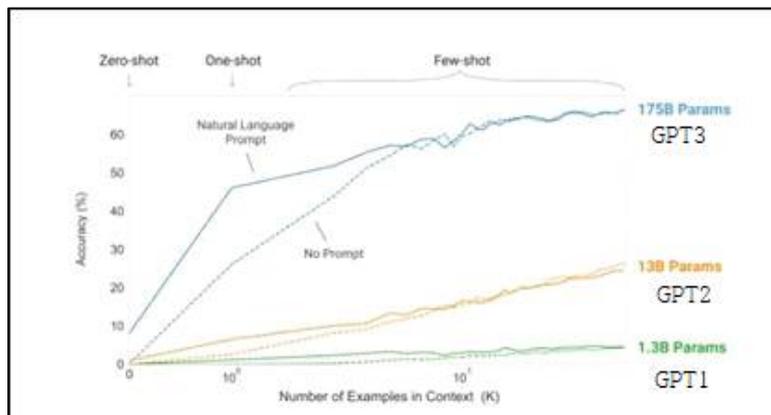
본 모임의 목적은 ChatGPT를 활용한 초급 중국어 교육의 가능성 탐색이다. 특히, 초급 중국어 교육에 ChatGPT를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과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 중국어 초급 학습자가 배워야 할 주요 중국어 어법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우선 ChatGPT를 소개하고 그 특징을 파악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ChatGPT를 활용하여 초급 중국어 교육, 특히 어법 교육에 적합한 내용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초급 중국어 어법 교육의 도구로서 ChatGPT의 활용 방안과 그 효과 및 개선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3.1. ChatGPT

교육에 관련된 AI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을 대규모 언어 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 특화 모델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GLUE(General Language Understanding Evaluation)가 거론되는데 그 성장세는 대단히 놀라워 2018년 GLUE 기준이 나타나고 나서 불과 1년 만에 인간 기준인 87.1점을 초월

하였고, 2019년 더 엄격한 기준의 SuperGLUE를 만들었으나 이마저도 AI가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었다. 오픈소스와 웹2.0 개념을 확립한 Tim O'Reilly는 데이터를 '모래'로 비유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으면 모래와 같이 별다른 가치가 없지만, 이들이 수십억을 넘어 수천억 이상이 한자리에 모인다면 모델의 급격한 성능 개선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관점을 명실공히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시리즈이다.(하두진 2023:412) GPT 시리즈는 일론 머스크(Elon Musk)와 샘 알트만(Sam Altman)를 포함한 몇몇 기업가 그룹이 설립한 OpenAI에서 구축한 언어 특화 모델이다.²⁾ 여기에서 GPT란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로 방대한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미리 학습(Pre-trained)'하여 이를 문장으로 '생성(Generative)'한다는 의미이다.

<그림 1> GPT 시리즈 성능 비교³⁾



매개변수가 많을수록 AI의 성능이 좋아지는데 2018년 처음 공개된 GPT-1은 1억 1700만개의 매개변수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눈에 띄는 성능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2019년 공개된 GPT-2는 15억개의 매개변수를 썼고, 2020년 5월에 공개된 GPT-3는 1,750억개로 매개변수를 100배 이상 늘렸다. 전산언어학 연구자를 포함한 일반인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모델은 GPT-3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정확도가 급격하게 올라가 각종 영역에서의 기본 작업을 거의 완벽하게 수행하였고, 때로는 인간의 결과물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을 보였다.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ChatGPT는 사용자가 텍스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지 예측할 수 있는 GTP-3.5 버전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신동광 · 정혜경 · 이용상 2023:177) 2022년 11월 30일 ChatGPT 모델을 공개하였다. ChatGPT는 자연어를 사용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⁴⁾으로

2) OpenAI 홈페이지: <https://opena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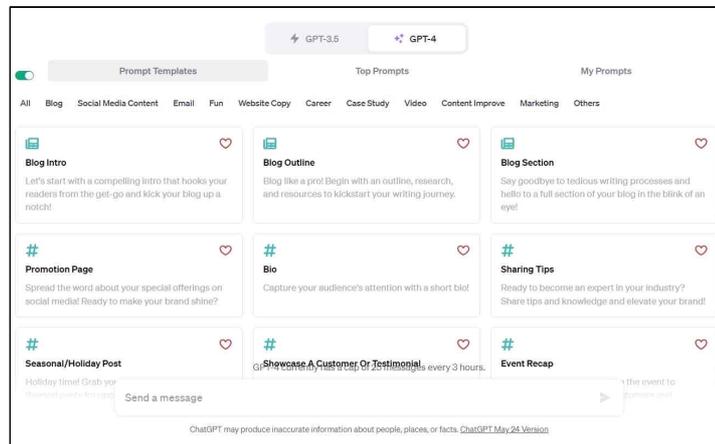
3) OpenAI 홈페이지 소개.(하두진, 2023:413 재인용)

4) 1996년에 개발된 최초의 챗봇인 Eliza를 비롯하여 최근 국에서는 EBS 팽푹까지 다양한 목적형 챗봇들이 개발되었다.(신동광 · 정혜경 · 이용상 2023:172)

서 광범위한 분야의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GPT-3.5 모델 기반의 ChatGPT는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 구사가 가능하며, 대화, 번역, 정보 검색, 프로그래밍 코드 생성 및 수정, 소설이나 시 작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권정민 · 이영선 2023:10; 구영은 · 홍문표 2023:47)

이후 2023년 3월 OpenAI는 업그레이드 된 챗봇인 GPT-4를 공개하였다. 2023년 5월 현재 GPT-4는 대중에게 공개된 챗봇 중 가장 진보한 챗봇이다.(Bubeck et al.,2023)(권정민 · 이영선 2023:10 재인용) ChatGPT는 OpenAI 홈페이지 메뉴를 통해서도⁵⁾ 이용할 수 있으며 계정을 생성하여 무료 버전을 사용할 수 있다. GPT-4는 현재 ChatGPT 유료 버전인 'ChatGPT 플러스'를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

<그림 2> ChatGPT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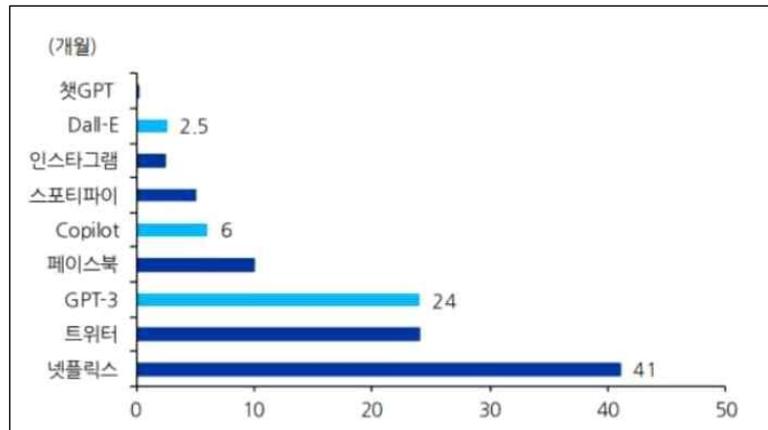
ChatGPT는 인간과 상호 대화에 최적화된 언어 모델로 간단한 대화에서부터, 코딩, 학술 주제, 소설 집필, 자료 검색 등 다양한 작업을 높은 완성도로 제공하며 기존 AI 챗봇과는 달리 자연스러운 표현을 구사한다. 현재 한국어를 포함한 26개 언어 인식이 가능하다. 다만, 입력된 주요 데이터가 영어이므로 영어 명령어에는 빠르고 비교적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지만, 타 언어로 질문을 하면 상대적으로 느리고 다소 어색하거나 잘못된 대답을 보여주기도 한다. ChatGPT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글쓰기와 같은 언어 생성, ②독해와 번역, 문서 요약 등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 문제를 동시 처리하는 멀티 태스킹, ③강화 학습을 통해 피드백을 도입하여 유용성, 정확성 및 의인화 측면 강화, ④전후 맥락을 이해하고 논리적인 응답 생성, ⑤유창하고 개인화된 언어 상호 작용, ⑥방대한 파라미터로 언어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더 잘 포착할 수 있음.(하두진 2023:414-415)

5) OpenAI 홈페이지 메뉴 외에도 아래 주소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http://openai.com/blog/chatgpt/>

6) ChatGPT 시작 화면(<https://chat.openai.com/?model=gpt-4>)

<그림 3> 가입자 100만 명 도달에 걸린 시간 비교⁷⁾



GPT3는 사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는 데 24개월이 걸린 반면, ChatGPT는 출시 5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ChatGPT가 단 5일 만에 100만 사용자를 돌파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편리함을 추구하기에 설령 학습자에게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추세를 막을 수 없으며, 이보다 더 발전한 차기 모델 공개가 예고되어 있다. 따라서 금지하기보다는 대응책을 모색하는 편이 현실적이다.(하두진 2023:415, 417-418)

그러나 ChatGPT에는 분명한 문제점도 있다. 그중 하나로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환각)을 들 수 있다. 할루시네이션은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학습하여 틀린 답변을 맞는 말처럼 제시하는 현상이다. 샘 알트만은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주의를 주려고 하는 것은 할루시네이션 문제”라며 ChatGPT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ChatGPT의 답변을 확인하지 않는 점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하였다. 또한, ChatGPT는 2021년까지의 내용을 학습한 모델이며 실시간 검색기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보유한 데이터에 기반한 답변은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만 최신 이슈, 복잡한 추론을 요구하는 질문 등에는 아직 부족하다. 답변이 훌륭해 보일 수는 있어도 이는 해결(Solve)이 아닌 보유한 자료를 기반으로 짜깁기한 대답(Find)에 불과하다. 인간이 사전에 찾아놓은 해답이 존재하지 않다면 ChatGPT는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없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과 달리 유에서 유로의 전환이다(하두진 2023:415). 이 외에도 ChatGPT의 가장 큰 문제로 표절이 떠오르고 있는데 노암 촘스키는 언론보도를 통해 ChatGPT는 하이테크 표절(high-tech plagiarism)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권정민 · 이영선 2023:11). 이러한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사람들이 ChatGPT가 단지 과도기의 산물일 뿐이며,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된 모델의 출현과 인간들이 ChatGPT의 여러 문제를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 때문일 것이다. 물론, ChatGPT가 전문적인

7) 유진투자증권 보고서 참조(https://www.eugenefn.com/common/files/amail//20230213_B45_ssay_18.pdf) (하두진, 2023:415)

교육용으로 개발된 것은 아니지만, ChatGPT가 보유한 다양한 서비스를 교육에도 활용한다면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2) ChatGPT를 활용한 초급 중국어 교육 관련 질문과 대답

본 모임에서는 유료 버전인 'ChatGPT 플러스'를 사용하여 총 4가지 질문을 하였고, 동일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통 두 차례씩 요구하였다.⁸⁾

질문1. ChatGPT는 중국어 초급 학습자에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질문1-대답1>

<질문1-대답2>

ChatGPT는 중국어 초급 학습자에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ChatGPT는 중국어 초급 학습자가 중국어 학습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데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언어 실습:** 학습자는 ChatGPT에게 중국어로 질문을 하거나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습자는 중국어로 생각하고 응답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이해력과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문법 설명 및 예제 제공:** 학습자는 특정 중국어 문법 규칙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ChatGPT는 설명을 제공하고 적절한 예제를 들어 설명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 어휘 연습:** ChatGPT는 새로운 단어나 표현의 뜻을 설명하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제를 제공함으로써 어휘 학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자는 ChatGPT와 대화하면서 새로운 단어와 표현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 발음 가이드:** 학습자는 특정 단어나 문장의 표준 발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hatGPT는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준 발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문화적 이해:** 중국어 학습은 단순한 언어 자체를 배우는 것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합니다. ChatGPT는 중국의 문화, 풍습, 관습 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학습자가 언어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피드백 제공:** 학습자가 작성한 중국어 문장을 제출하면, ChatGPT는 그것이 문법적으로 정확인지, 자연스러운지 등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피드백은 학습자가 자신의 실수를 인식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ChatGPT가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정보나 최신의 언어 트렌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ChatGPT는 기계 학습 모델이므로, 인간 교사와 같이 학습자의 개인적인 학습 스타일이나 필요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반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ChatGPT는 중국어 학습 자료나 교사의 지도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ChatGPT는 중국어 초급 학습자에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ChatGPT는 중국어 초급 학습자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언어 연습:** ChatGPT를 사용하여 중국어로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은 연습을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학습자는 어휘, 구문, 문법 등을 적용하여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문법 및 어휘 질문:** 중국어 학습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ChatGPT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단어의 의미나 사용법, 복잡한 문법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번역 도구:** 간단한 문장이나 구문의 번역을 요청하면, ChatGPT는 해당 문장을 중국어로 번역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복잡한 문장이나 고급 어휘에 대한 번역은 전문적인 번역 도구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 발음 연습:** 중국어 학습에 있어서 발음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ChatGPT는 pinyin (중국어 음역)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올바른 발음을 연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문화 이해:** 중국어 학습은 언어 자체를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언어가 사용되는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ChatGPT는 중국의 역사, 문화, 사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ChatGPT를 활용하면, 중국어 학습을 보다 풍부하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어를 완전히 구사하려면 실제 사람들과의 대화 경험, 체계적인 언어 교육, 그리고 꾸준한 학습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질문1>에 대한 두 가지 대답을 종합하면, 모두 ChatGPT가 중국어 초급 학습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도움을 줄 수 있고 답하였다. 예를 들어, 학습자는 ChatGPT를 활용하여 중국어로 질문이나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특정 어휘의 의미나 사용법, 그리고 어법에 대해 ChatGPT에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ChatGPT는 한어병음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표준 발음을 배우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중국의 역사, 문화, 사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학습자가 작성한 중국어 문장을 제출하면 ChatGPT는 그것이 정확한지, 자연스러운지 등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아울러, ChatGPT에서는 ChatGPT를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중국어를 배울 수 있다고 하면서도 ChatGPT가 단지 중국어 학습의 보조 도구인 점을 일깨워 주고 있으며 ChatGPT는 기계 학습 모델이므로 중국어 학습 자료나 교사의 지도, 실제 사람들과의 대화 경험 등이 필요

8)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ChatGPT는 무엇을 질의했는지 즉 무엇을 입력값으로 넣는지에 따라 다른 답변(출력값)을 제공한다. 특히 어떤 언어로 질문하는지에 따라 답변의 내용, 형식과 정확성이 달라지는데, 이는 본 논문의 연구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질문2. 중국어 초급 학습자가 ChatGPT를 활용하여 중국어를 배울 때 어떤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질문2-대답1>

<질문2-대답1>

<p>질문7. 중국어 초급 학습자가 ChatGPT를 활용하여 중국어를 배울 때 어떤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p> <p>ChatGPT를 활용하여 중국어를 배우는 초급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은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간 피드백: 학습자들은 중국어 작문 연습에 ChatGPT를 사용하여 실시간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학습자들은 자신의 오류를 즉시 수정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언어 습득 속도 향상: ChatGPT는 24/7 항상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은 자신의 편한 시간에 언어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언어 습득 속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문법 및 어휘 향상: ChatGPT를 사용하여 특정 문법 구조나 어휘를 연습하면, 이를 이해하고 숙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적 이해도 향상: 중국어 학습은 단순한 언어를 배우는 것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중국의 문화, 역사, 사회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며, ChatGPT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문화적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감 향상: 학습자들이 실시간 대화에서 자신의 언어 능력을 연습하면, 이는 그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상황에서의 대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p>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ChatGPT를 다른 학습 자료와 방법, 예를 들어 전통적인 교육 과정, 전문 언어 학습 앱, 현지인과의 대화 연습 등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습자들은 ChatGPT의 답변이 항상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복잡하거나 중요한 언어 학습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p>	<p>질문7. 중국어 초급 학습자가 ChatGPT를 활용하여 중국어를 배울 때 어떤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p> <p>ChatGPT를 활용하여 중국어를 배우는 초급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은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화된 학습 경험: 학습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특정 주제나 문법 구조에 대해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학습 요구에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언어 구조 이해: ChatGPT는 학습자가 중국어 문법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정 문법 규칙의 설명이나 예제 문장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언어의 구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피드백: 학습자가 작성한 문장이나 표현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수정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므로, 더 빠른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 연습: ChatGPT와의 대화를 통해, 학습자는 중국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언어 노출 증가: ChatGPT를 통해 학습자는 언어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어휘, 문법, 표현 방식 등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휘 확장: 학습자는 새로운 단어나 표현을 배우고, 그것들을 문맥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p>그러나 학습 효과는 학습자의 노력, 사용 방법, 그리고 꾸준한 연습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ChatGPT는 학습 도구로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학습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다양한 학습 리소스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
---	---

ChatGPT는 중국어 초급 학습자가 ChatGPT를 활용하면 여러 가지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은 24시간 언제나 ChatGPT에게 특정 어휘나 어법 구조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어 작문도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ChatGPT와의 실시간 대화를 통해 학습자는 중국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대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ChatGPT는 중국의 문화, 역사, 사회에 대한 정보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문화적 이해도 향상시킬 수 있다. 다만, ChatGPT는 학습 도구로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학습 효과는 학습자의 노력, 사용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교육 과정, 현지인과의 대화 연습 등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ChatGPT의 답변이 항상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밝히고 있다.

질문3. 중국어 초급 학습자가 배워야 할 중국어 어법 30가지는 무엇인가?)

9) 중국어 초급 학습자가 배워야 할 중국어 어법을 전부 알려달라는 질문에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통 다음과 같은 8-9개의 어법만 나열하였다. 예: 문장 구조, 시간 표현의 위치, 부정문의 형성, 의문문 형성, 소유 관계 표현, 형용사 사용, 동사의 시제, 비교와 최상급, 동사와 목적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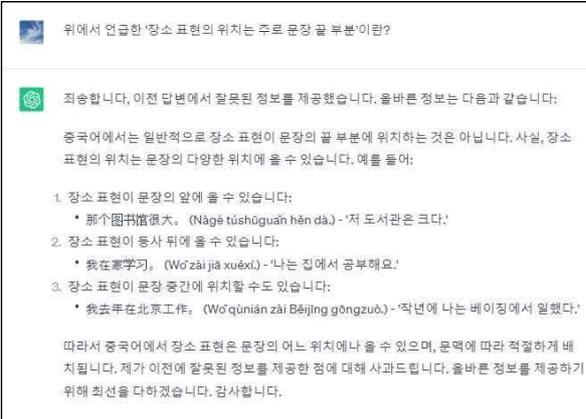
<질문3-대답1>

<질문3-대답2>

<p>중국어를 배우는 초급 학습자가 배워야 할 중국어 어법 30가지를 알려주세요.</p> <p>중국어를 배우는 초급 학습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문법 사항을 여기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 사항은 독립된 문법 규칙이나 개념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어-동사-목적어 기본 문장 구조 2. 시간 표현의 위치는 주로 문장 시작 부분 3. "不"(bù)를 이용한 부정문 형성 4. "吗"(ma)를 이용한 질문문 형성 5. "的"(de)를 이용한 소유관계 표현 6. 필용사가 동사처럼 적용할 수 있음 7. 동사의 시제 변화 없음. 시간 표현이나 "了"(le) 등으로 시제 표현 8. "比"(bǐ)를 이용한 비교급, "更"(gèng)를 이용한 최상급 형성 9. "了"(le)를 이용한 상태 변화 표현 10. "正在"(zhèngzài), "在"(zài), "过"(guò)를 이용한 진행형과 완료형 표현 11. 가리키는 대명사 "这个"(zhège)와 "那个"(nàge) 12. 수량사와 "的"(de)의 사용 13. "和"(hé)와 "跟"(gēn)의 사용 14. "和"(hé)를 이용한 병렬 구조 15. 부사의 위치는 주로 동사 앞 16. 중국어의 중성 시스템 이해 (阴阳系统) 17. "把"(bǎ) 문장의 사용 18. "被"(bèi) 문장의 사용 (피동구문) 19. "还是"(háishì)와 "或者"(huòzhě)를 이용한 선택 질문 20. 명사 수량에 따른 동사 변화 없음 21. 장소 표현의 위치는 주로 문장 끝 부분 22. 동사 + "得" = 필용사 구조를 이용한 방법/정도 표현 23. "对"(duì)를 이용한 대상 표시 24. "的"(de)와 "才"(cái)의 사용 25. "要"(yào)와 "会"(huì)를 이용한 미래 시제 표현 26. "一边"(yíbiān) ... "一边"(yíbiān) 구조를 이용한 동시 행동 표현 27. "再"(zài)를 이용한 순서 표현 28. "让"(ràng), "请"(qǐng), "叫"(jiào)를 이용한 명령문 형성 29. "虽然"(suīrán) ... "但是"(dànshì) 구조를 이용한 대조 표현 30. "如果"(rúguo) ... "就"(jiù) 구조를 이용한 조건 표현 <p>중국어는 매우 복잡하고 유연한 언어이므로, 이러한 규칙들이 모든 경우를 커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법 사항을 이해하고 훈련하면, 중국어를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학습과 연습을 통해 이러한 규칙과 어법을 숙지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p>	<p>중국어를 배우는 초급 학습자가 배워야 할 중국어 어법 30가지를 알려주세요.</p> <p>중국어를 배우는 초급 학습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문법 사항을 30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장 구조: 중국어는 주로 SVO (주어-동사-목적어) 구조를 사용합니다. 2. 시간 표현의 위치: 시간 표현은 일반적으로 문장 앞에 위치합니다. 3. 부정문의 형성: "不"(bù)를 사용하여 부정문을 표현합니다. 4. 질문 형성: "吗"(ma)를 문장 끝에 추가하여 일반 질문을 만듭니다. 5. 소유관계 표현: "的"(de)를 사용하여 소유관계를 나타냅니다. 6. 필용사 사용: 중국어 필용사는 동사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동사의 시제: 동사의 형태는 시제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8. 비교와 최상급: "比"(bǐ)와 "更"(gèng)를 사용하여 비교와 최상급을 표현합니다. 9. "了"(le)의 사용: "了"(le)는 완료된 행동이나 상태의 변화를 표현합니다. 10. "正在"(zhèngzài), "在"(zài), "过"(guò) 사용: 진행형과 완료형을 표현합니다. 11. "这个"(zhège)와 "那个"(nàge) 사용: 이것과 저것을 가리킵니다. 12. 수량사와 "的"(de)의 사용: 수량사와 명사 사이에 "的"(de)를 붙여야 합니다. 13. "和"(hé)와 "跟"(gēn)의 사용: '도'와 '모두'를 표현합니다. 14. "和"(hé) 사용: 두 개 이상의 명사나 문장을 연결합니다. 15. 부사의 위치: 부사는 일반적으로 동사 앞에 놓입니다. 16. 중화니어 양사: 중국어에는 것을 나타내는 양사가 존재합니다. 17. 동사와 목적어 사이의 "把"(bǎ) 사용: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把"(bǎ)를 사용하는 구조를 이해합니다. 18. "可"(kě), "要"(yào), "会"(huì) 등의 modal 동사 사용: 허락, 희망, 능력을 나타내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19. 조동사 "要"(yào), "会"(huì), "可"(kě) 사용: 미래, 가능성, 허가 등을 표현하는 조동사를 사용합니다. 20. "得"(de)를 사용한 간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는 행동을 표현합니다. <p>21. 대명사: 일반적인 인칭 대명사 (我, 你, 他, 她, 它)와 지시 대명사 (这, 那)를 사용합니다. 22. 복합 동사: 두 개의 동사나 동사구가 결합된 동사를 이해하고 사용합니다. 23. "的"(de), "跟"(gēn), "和"(hé) 구조: 이 세 개의 할음의 같은 조사로 다른 기능과 사용 방법을 이해합니다. 24. "再"... "再"... 구조: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구조를 이해하고 사용합니다. 25. "让"... "让"... 구조: 상반된 개념을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구조를 이해하고 사용합니다. 26. 중국어에서의 서용어와 술어: 서용어와 술어의 개념과 그 차이를 이해합니다. 27. 중국어에서의 명사 수량: 명사를 어떻게 수정하는지 이해합니다. 28. "虽然"... "但是"... 구조: 조건과 결과를 표현하는 구조를 이해하고 사용합니다. 29. "如果"... "就"... 구조: 조건과 결과를 표현하는 구조를 이해하고 사용합니다. 30. 명동명 형성: 명동명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봅니다.</p> <p>이것은 초급자가 중국어를 시작할 때 알아야 할 중요한 어법과 문법 사항들의 리스트입니다. 그러나, 중국어는 매우 복잡하며 다양한 문맥과 상황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 외에도 계속 학습하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
--	---

<질문3>에 대한 두 가지 대답을 비교해 보면 우선 <질문3-대답1>과 <질문3-대답2>에는 서로 중복되어 있는 어법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문장 구조, 시간 표현의 위치, 부정문 등이 중복되어 있다. 또한, ChatGPT의 대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질문3-대답1>의 21번 항목을 보면 '장소 표현의 위치는 주로 문장 끝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필자는 이 문장의 의미를 ChatGPT에게 다시 물어보았고 <그림 4>와 같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림 4> ChatGPT의 잘못된 대답



이 밖에도 한국어 번역이 어색하거나 잘못된 것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질문3-대답1>의 3번에는 '부정문 형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국의 일반 중국어 교재에는 '형성'이

라는 단어보다는 ‘만들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질문3-대답1>의 16번 및 <질문3-대답2>의 16번과 27번에서 ‘존칭’은 ‘인칭’으로, ‘중화니어’는 ‘중국어의’로, ‘수정’은 ‘수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중복되거나 잘못된 정보 그리고 번역 등의 문제를 정리하면 중국어 초급 학습자가 배워야 할 주요 중국어 어법은 <표 1>로 나타낼 수 있다.

<표 1> 중국어 초급 학습자가 배워야 할 주요 중국어 어법:

1	문장 구조: 중국어는 주로 SVO (주어-동사-목적어) 구조를 사용한다.	18	"的" (de), "得" (de), "地" (de) 구분: 이 세 개의 발음이 같은 조사의 다른 기능과 사용 방법을 이해한다.
2	시간 표현의 위치: 시간 표현은 일반적으로 문장 앞에 위치한다.	19	"因为...所以..." 구조: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구조를 이해하고 사용한다.
3	부정문 만들기: "不" (bù)를 사용하여 부정을 표현한다.	20	"虽然...但是..." 구조: 상반된 개념을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구조를 이해하고 사용한다.
4	의문문 만들기: '吗' (ma)를 문장 끝에 추가하여 일반 질문을 만든다.	21	"如果...就..." 구조: 조건과 결과를 표현하는 구조를 이해하고 사용한다.
5	소유관계 표현: "的" (de)를 사용하여 소유관계를 나타낸다.	22	명령문 만들기: "让" (ràng), "请" (qǐng), "叫" (jiào)를 이용한 명령문 만들기
6	형용사 사용: 중국어 형용사는 동사처럼 사용될 수 있다.	23	피동문 만들기: "被" (bèi)를 사용하여 피동문 만들기
7	동사의 시제: 동사의 형태는 시제에 관계 없이 일정하다.	24	대명사: 일반적인 인칭 대명사 (我, 你, 他, 她, 它)와 지시 대명사 (这, 那)를 사용한다.
8	비교와 최상급: "比" (bǐ)와 "最" (zuì)을 사용하여 비교와 최상급을 표현한다.	25	"还是" (háishi)와 "或者" (huòzhě)의 차이: 선택 질문과 일반적인 선택을 구분하는 데 사용된다.
9	"了" (le)의 사용: "了" (le)는 완료된 행동이나 상태의 변화를 표현한다.	26	서술어와 술어: 서술어와 술어의 개념과 그 차이를 이해한다.
10	"正在" (zhèngzài), "在" (zài), "过" (guò) 사용: 진행형과 완료형을 표현한다.	27	명사 수식: 명사를 어떻게 수식하는지 이해한다.
11	"也" (yě)와 "都" (dōu)의 사용: '도'와 '모두'를 표현한다.	28	양사: 중국어에는 갯수를 나타내는 양사가 존재한다.
12	"和" (hé) 사용: 두 개 이상의 명사나 문장을 연결한다.	29	"对" (duì)를 이용한 대상 표시
13	부사의 위치: 부사는 일반적으로 동사 앞에 놓인다.	30	"就" (jiù)와 "才" (cái)의 사용
14	"把" (bǎ) 사용: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把" (bǎ)를 사용하는 구조를 이해한다.	31	"要" (yào)와 "会" (huì)를 이용한 미래 시제 표현
15	조동사 "要" (yào), "会" (huì), "可以" (kěyǐ) 사용: 미래, 가능성, 허가 등을 표현하는 조동사를 사용한다.	32	"一边" (yībiān) ... "一边" (yībiān) 구조를 이용한 동시 행동 표현

16	“给” (gěi)를 사용한 간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는 행동을 표현한다.	33	"再" (zài)를 이용한 순서 표현
17	복합 동사: 두 개의 동사나 동사구가 결합된 동사를 이해하고 사용한다.	34	명사 수량에 따른 동사 변화 없음

ChatGPT가 대답한 것을 근거로 <표 1>을 만들었으며 여기에 포함된 어법은 중국어 초급 교재에 나온 어법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 중국어 교재와 비교해 보면 <표 1>의 22번, 23번과 같이 보통 초급 단계 이후에 배우는 어법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질문4. 'ChatGPT를 활용하여 중국어를 배운다면 어떤 단계의 학습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질문4-대답1>

<질문4-대답2>

<p>ChatGPT를 활용하여 중국어를 배운다면 어떤 단계의 학습자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요?</p> <p>ChatGPT는 주로 초급부터 중급 수준의 학습자에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단계의 학습자에게 가장 적합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급 학습자: 중국어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에게 ChatGPT는 매우 유용합니다. 초급 학습자는 기본 어휘, 문법,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ChatGPT는 초보자를 위한 예시 문장과 대화 상황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중국어의 기초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문법과 어휘 학습자: 중급 학습자는 ChatGPT를 활용하여 중국어의 문법과 어휘를 좀 더 깊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ChatGPT는 문법 규칙의 추가 설명과 예시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문법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다양한 어휘와 표현을 소개하여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일상 대화 연습자: ChatGPT는 중국어로 일상 대화를 연습하고 싶은 학습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대화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여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능력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학습자는 ChatGPT와 대화하면서 일상 주제에 대한 대화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p>ChatGPT는 학습자의 언어 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어 학습은 맥락과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습자는 ChatGPT의 응답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중국어 학습에 다양한 자료와 리소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p>	<p>ChatGPT를 활용하여 중국어를 배운다면 어떤 단계의 학습자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요?</p> <p>ChatGPT를 활용하여 중국어를 배울 때, 중급 학습자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급 학습자는 이미 기본적인 중국어 문법과 어휘를 알고 있으며, 일상 대화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p> <p>중급 학습자를 위해 ChatGPT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 대화 연습: ChatGPT를 통해 실제 상회 적용과 유사한 경험을 얻을 수 있으며, 일상적인 주제에 대한 대화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 주문, 쇼핑, 여행 계획 등의 주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읽기와 쓰기 실력 향상: ChatGPT는 학습자가 작성한 문장을 읽고 쓰는 연습을 돕습니다. 학습자는 중국어 문장을 작성하고, ChatGPT의 응답을 분석하며, 쓰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고급 어휘와 표현 학습: ChatGPT를 통해 학습자는 중급 단계를 넘어서 더욱 풍부한 어휘와 표현을 익힐 수 있습니다. ChatGPT는 새로운 어휘와 표현을 도입하고 예시를 제공하여 학습자의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문법 예시와 심화 학습: 중급 학습자는 문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 ChatGPT에 문법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ChatGPT는 문법 규칙을 해석하고 예시를 제공하여 학습자의 문법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p>하지만 ChatGPT는 학습자의 질문에 기반하여 응답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모델이므로, 항상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학습자는 ChatGPT의 응답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추가적인 자료와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ChatGPT는 중국어 학습의 보조 도구로 활용되어야 합니다.</p>
---	--

<질문4-대답3>

<p>ChatGPT를 활용하여 중국어를 배운다면 어떤 단계의 학습자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요?</p> <p>ChatGPT를 활용하여 중국어를 배울 때,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습자는 중급부터 고급 수준의 학습자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학습자는 이미 기본적인 중국어 어휘와 문법에 익숙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데 어려움이 없는 수준일 것입니다.</p> <p>ChatGPT는 중급부터 고급 수준의 학습자에게 도움을 주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급 어휘와 표현 학습: ChatGPT를 사용하여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ChatGPT는 새로운 어휘와 표현을 소개하고, 예문을 제공하여 실제 대화나 글 작성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법 구조 설명: ChatGPT는 중급부터 고급 수준의 문법 구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시제, 억양, 수식 어구 등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뉘앙스 이해: 중국어 학습은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도 포함됩니다. ChatGPT를 통해 중국어 문화의 뉘앙스, 관습, 예절 등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토론 및 고급 대화: ChatGPT는 복잡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나 고급 대화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사 이슈, 문화적인 주제, 역사적인 사건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토의할 수 있습니다. <p>그러나 ChatGPT는 인공지능 기반의 모델이므로 학습자는 항상 그 응답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피드백과 보안을 위해 학습 자료나 교재와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습자는 항상 실제 대화와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하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

<질문4>에 대한 대답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답을 세 번 요구하였지만 모두 동일하지 않았다. <질문4-대답1>은 ChatGPT가 주로 초급부터 중급 수준의 학습자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질문4-대답2>는 중급 학습자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질문4-대답3>에서는 중급부터 고급 수준의 학습자가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습자라고 대답하였다. 이처럼 ChatGPT가 대답한 학습자 수준은 동일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이유도 중국어 학습자의 수준에 맞춘 설명이었다. 다만, 세 가지 답변에서 모두 ChatGPT는 중국어 학습의 보조 도구로서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ChatGPT는 인공지능 기반의 모델이므로 ChatGPT의 대답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중국어 학습 자료나 교재를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최근 ChatGPT가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ChatGPT는 자연어를 사용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다. ChatGPT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나 다른 분야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구현되어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외국어 교육에서도 ChatGPT 활용 방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모임은 급변하는 교수 및 학습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ChatGPT를 활용한 초급 중국어 교육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ChatGPT를 소개하고 그 특징을 파악한 다음, 중국어 초급 학습자에게 ChatGPT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를 분석해 보았다.

중국어 초급 학습자는 ChatGPT를 활용하여 언어적인 측면 뿐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학습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4시간 실시간으로 ChatGPT에게 중국어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중국어 작문도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아울러, 본 모임에서는 ChatGPT에게 중국어 초급 학습자가 배워야 할 주요 중국어 어법에 대해서 질문한 후 대답을 정리하였다. 비록, 잘못된 정보나 번역 등의 문제가 존재하였지만, 중국어 초급 교재에 나온 어법들이 실제로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본 모임에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ChatGPT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중국어 초급 학습자의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습자는 우선 ChatGPT의 특성을 세밀히 파악해야만 ChatGPT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ChatGPT도 밝힌 것처럼 ChatGPT는 중국어 학습을 위한 보조 도구라는 점을 잊지 말고, ChatGPT의 대답이 정확한지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학습 효과를 극대

화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교육 과정, 현지인과의 대화 연습 등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혜경□한수미(2021), 「AI 기반 영작문 학습 도구에 대한 대학생 학습자 인식: Google Translate, Naver Papago, 그리고 Grammarly를 중심으로」, 『현대영어교육』, 22(4).
- 구영은□홍문표(2023), 「ChatGPT를 활용한 독일어 초급 학습자의 작문 연습에 관한 연구」, 『독일언어문학』, 100.
- 권정민□이영선(2023), 「ChatGPT시대 인공지능교육정책의 문제점 고찰」, 『인공지능인문학연구』, 13.
- 신동광□정혜경□이용상(2023), 「내용중심 영어 교수 학습의 도구로서 ChatGPT의 활용 가능성 탐색」, 『영어교과교육』, 22(1).
- 하두진(2023), 「생성 기반 AI와 중국어 교육의 공전 가능성에 관한 초탐」, 『중국인문과학』, 83.
- Kahn, J.(2023), 「The inside story of ChatGPT: How OpenAI founder Sam Altman built the world's hottest technology with billions from Microsoft」, Retrieved from <https://fortune.com/longform/chatgpt-openai-sam-altman-microsoft/>
- 인터넷 검색
- OpenAI(2023), <http://openai.com/blog/chatgpt/>
- <https://www.codestates.com/blog/content/gpt4-%EC%B6%9C%EC%8B%9C>

「중한 법률통번역수업 교수법 연구 2」

박미례 교원, 김보경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본 모임의 교수자는 각각 KFL학부와 통번역 대학원 과정에서 법률 번역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 번역 수업은 법률 지식에 대한 이해도와 통번역 교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동일 주제를 강의하는 두 교수자는 법률통번역 커리큘럼 설계 및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본 교수법 연구에서는 학부 과정의 외국인 학생과 통번역 대학원 석사 과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률언어와 법률 통번역 교육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 수요조사는 향후 체계적인 법률 언어/법률 통번역 교육 커리큘럼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법률통번역 교과목 커리큘럼 설계와 개선을 위한 학습자 수요조사

목적: 법률통번역 커리큘럼 설계 및 개선

3. 모임의 운영 내용

본 모임은 교수자들이 한학기동안 수업을 진행하며 진행한 연구로, 기존 커리큘럼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설문 문항 설계해, 총 23문항(5점 척도)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가지고 학습자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47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는데, 석사생이 12명, 학부생 35명이 응답해 주었다. 총 47부의 응답지를 설문 집계 및 분석을 진행했고, 아래와 같은 시사점 도출했다.

3.1 법률통번역 관련 교과목 운영 현황

3.1.1 석사과정

석사 과정의 법률통번역 교육은 한국외대, 이화여대 등 통번역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정치법률번역”이라는 과목으로 법률 번역을 일부 가르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외대 통번역 대학원의 사례를 보면, 3학기에 선택과목으로 정치법률 번역과목이 있는데, 정치와 법률이라는 두 개의 주제를 하나의 수업에서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자가 속해 있는 한중과의 경우, 중간고사 전후로 시간을 양분해 정치관련 주제와 법률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다. 법률 관련 수업의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형법, 민법에 대한 개괄 및 소장 및 판결문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번역 관련 수업만 개설되어 있을 뿐 통역 과정은 다루고 있지 않다.

3.1.2 학부과정

학부과정의 법률통번역 교육은 “법률한국어와 통번역”이라는 교과목으로 KFL 학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교수법 모임의 일원인 교수자의 통역언어가 중국어이기 때문에 모국어가 중국어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하고 있다. 통역과 번역을 통한 한국어 능력 향상과 통번역 입문을 목표로 주당 3시간, 학기당 39시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재는 사법부에서 간행한 『법정통역인편람(중국어편)』을 사용하고 있다. 『법정통역인편람(중국어편)』은 법정통역인의 주의사항 형사절차, 민사소송절차, 신청사건, 가사절차로 5개 편으로 이루어져있는데 법률의 전문성으로 인해 1개 학기에 모든 법률 분야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법정통역 방법과 통역인의 직업윤리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는 ‘1편 법정통역인의 주의사항’, ‘2편 형사절차’를 다루고 있는데 주로 2편의 형사절차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중간시험을 기준으로 중간시험 이전에는 통역방법과 직업윤리, 법률용어에 관한 배경지식, 전반적인 형사절차 지식, 피의자 신문 통역과정의 통역 내용과 관련 서류 번역을 강의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간고사 이후에는 주 교재 외에 보조교재로 모의법정 한국어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법률한국어 학습, 모의법정 중국어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중한 통번역 실습을 하고 있다.

3.2 설문조사

3.2.1 응답자 현황

설문조사는 석사과정에서 “정치·법률번역”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13명과 KFL 학부과정에서 “법률한국어와 통번역”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34명, 총 4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석사과정의 경우 한국어 모국어 사용자와 중국어 모국어 사용자의 비율이 7:3 정도이며, KFL 학부과정의 경우는 100%가 중국어 모국어 사용자로 대부분 20세 전 후에 한국어 학습을 시작하였으며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 구사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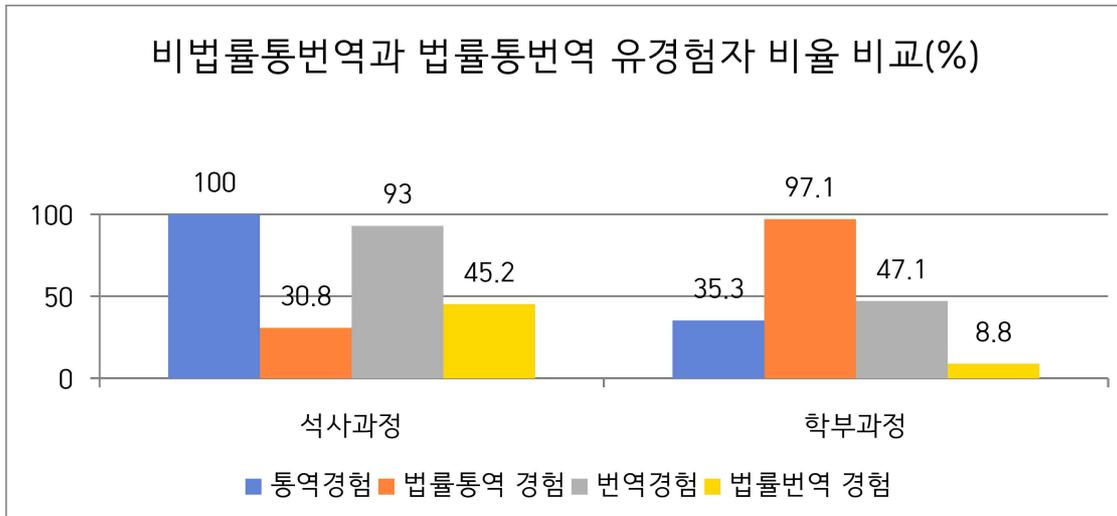
	인원	성별	모국어	외국어 학습 기간
석사과정	13명	남 2명(15.4%) 여 11명(84.6%)	한국어 9명(69.2%) 중국어 4명(30.8%)	4년 이상 13명(100%)
학부과정	34명	남 6명(17.6%) 여 28명(82.4%)	중국어 34명(100%)	1년 미만 2명(5.9%) 1-2년 10명(29.4%) 2-3년 11명(32.4%) 3-4년 6명(17.6%) 4년 이상 5명(14.7%)
전 체	47명	남 8명(17%) 여 39명(83%)	한국어 9(19.1%) 중국어 38(80.9%)	4년 미만(61.7%) 4년 이상(38.3%)

표1 법률통번역 교과목 수요조사 응답자 현황

3.2.2 응답자의 통번역 경험

통번역 교과목은 이론 교육보다는 실무통번역을 위한 훈련에 치중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통번역 실무 경험에 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은 자신의 통번역 경험을 통해 시장의 수요를 스스로 파악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실무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교수자가 시장상황과 진로설계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통번역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생들은 모든 학생들이 통번역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KFL 학부과정의 학생들도 35.3%의 학생들이 통번역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법률통번역 분야의 경험은 석사과정에서도 미경험자가 통역의 경우는 69.2%, 번역의 경우는 53.8%에 달할 정도로 많지 않았다. 학부과정의 경우에는 법률분야에서 90% 이상의 학생들이 실무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 도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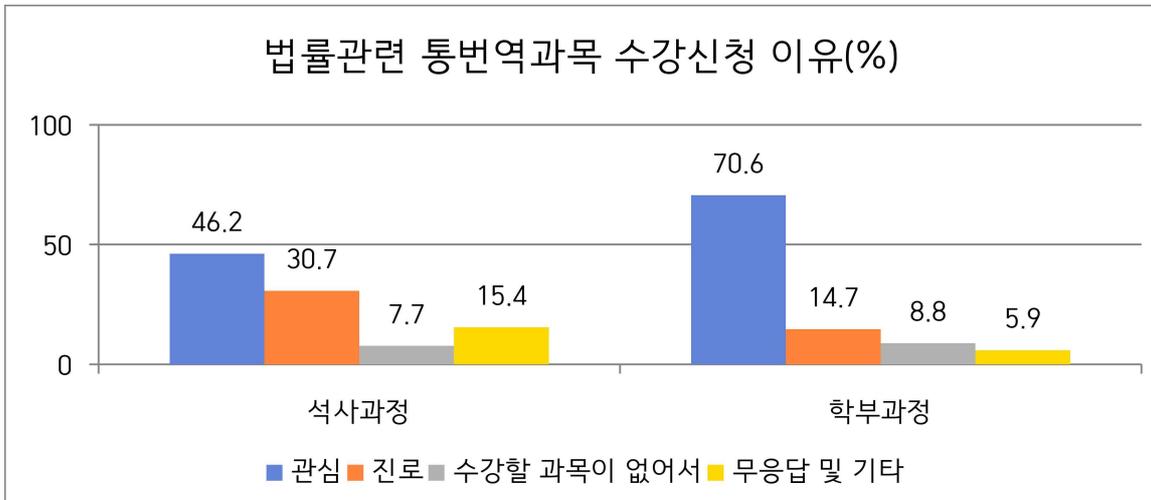
	통역 경험	번역 경험	법률 통역경험	관련 번역경험
석사과정	1-2회 4명(30.8%)	없음 1명(7.7%)	없음 9명(69.2%)	없음 7명(53.8%)
	3-4회 1명(7.7%)	3-4회 1명(7.7%)	1-2회 3명(23.1%)	1-2회 4명(30.8%)
	5회 이상 2명(15.4%)	5회 이상 2명(15.4%)	3-4회 1명(6.7%)	3-4회 2명(15.4%)
	10회 이상 1명(7.7%)	10회이상 9명(69.2%)		
학부과정	없음 22명(64.7%)	없음 18명(52.9%)	없음 33명(97.1%)	없음 31명(91.2%)
	1-2회 7명(20.6%)	1-2회 9명(26.5%)	1-2회 1명((2.9%)	1-2회 3명((8.8%)
	3-4회 1명(2.9%)	3-4회 3명(8.82%)		
	5회 이상 2명(5.9%)	5회 이상 1명(2.9%)		
	10회 이상 2명(5.9%)	10회이상 3명(8.82%)		

표2 응답자의 통번역 경험 현황

3.2.3 법률통번역 교과목 수강 이유

법률통번역 과목 수강 이유에 대하여 석사과정 응답자의 경우 법률에 대한 관심과 향후 진로 때문에 수강한 응답자가 각 6명과 4명으로 도합 76.9%에 달한다. 반면, 수강할 과목이 없어서 수강한 응답자 1명과 응답을 하지 않은 무응답자 2명을 포함하여 3명(23.1%)은 특별한 목적 없이 수강을 신청하였다.

학부 과정의 경우, 법률에 대한 관심 때문에 수강한 경우가 24명(70.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졸업 후 진로 탐색을 위해 수강한 경우는 5명으로 14.7%에 달한다. 수강할 과목이 없거나 수강 목적을 확인할 수 없는 기타가 각각 3명(8.8%)과 2명(5.9%)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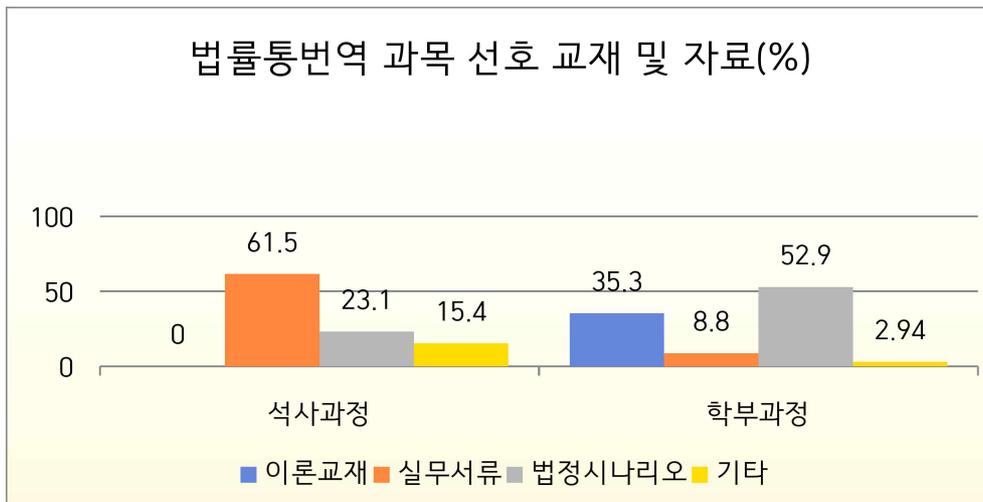


3.2.4 법률통번역 교과목에서 향상하고자 하는 능력

법률통번역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향상하고자 하는 능력은 통번역능력, 법률 배경지식, B언어능력으로 구분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석사과정 응답자의 경우, 통번역 능력 8명, 배경지식 5명으로 나타났으며 B언어능력에 대한 수요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부과정의 경우, B언어능력 17명, 통번역능력 12명, 배경지식 5명으로 나타났다.

3.2.5 선호하는 교재 및 수업 자료

학생들에게 교재 및 수업 자료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석사과정의 경우 법률 실무에서 사용되는 서류를 통한 번역 실습 8명(61.5%) 모의법정 시나리오 등 통역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텍스트 3명(23.1%), 무응답 2명(15.4%)으로 나타났다. 학부과정의 경우에는 법률 관련 배경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교재 12명(35.3%), 법률 실무에서 사용되는 서류를 통한 번역 실습 3명(8.8%), 모의법정 시나리오 등 통역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텍스트 18명(52.9%), 전부 1명(2.94%)으로 나타났다. 석사과정에서는 실무서류에 대한 서류가 가장 높았고, 학부과정에서는 법정 시나리오와 이론교재에 대한 수요가 각각 1,2위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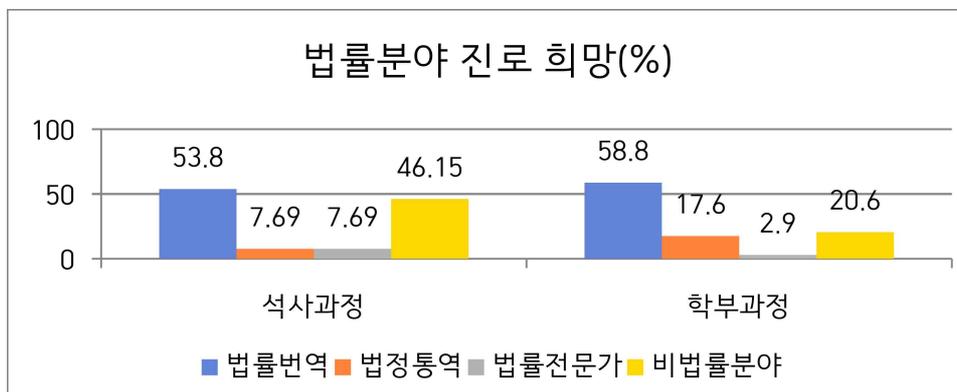


3.2.6 졸업 후 진로 계획

졸업 후 진로와 관련하여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법률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응답자가 7명(53.8%), 법률분야 진출을 희망하지 않는 응답자가 6명(46.2%)으로 나타났다. 법률분야 진출 희망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법률사무소 등에서 법률번역을 희망하는 응답자가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정통역의 경우에는 1명에 불과했다. 이외에 통번역 분야가 아닌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를 희망하는 응답자도 1명 존재한다.

학부과정의 경우에는 1명을 제외한 33명이 법률분야로 진출을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 분야로 진출할 경우를 가정하여 응답이 이루어졌다. 법률문서 번역 20명 (58.8%), 법정통역 6명(17.6%), 법률전문가 1명(2.9%), 무응답 7명(20.6%) 순으로 나타났다.

석사과정과 학부과정 모두 인하우스 형태의 법률문서 번역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 모임의 결과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존 교과목 내용을 점검하고 개선을 위해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결과, 석사과정과 학부과정의 학생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수요 상황도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학부과정 학생들은 B언어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번역 능력 외에 B언어능력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석사 과정의 경우, 향후 법률 분야 통번역에 종사하기 위해 수강하는 비율이 높는데, 법률분야가 가진 전문성의 깊이와 주제의 다양성을 감안했을 때 정치와 법률을 통합하여 한 학기 수업으로 그치는 것은 시장상황과 전문 통번역사 양성과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대학원 차원에서의 교과목 재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결과 활용방안

법률통번역 교육은 법률이 가지는 전문적 특성 때문에 교과목 개설이 매우 제한적이며 폭넓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기존의 교육 사례 보고나 이론적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교과 내용을 구성할 때 교수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교수자는 교과 내용을 구성할 때, 통번역의 대상이 되는 법률언어 자료를 선택하고 그 법률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배경지식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번역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보다 체계적인 교과 내용 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맥락에서 학습자들의 현황과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교수법 모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교과내용을 보다 풍부하고 폭넓게 구성하고 수강생 수준에 맞는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5. 교수법 연구모임의 효과 및 제언

- 교수법 연구모임에 대한 종합 평가

본 교수법 연구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법을 개괄하고 이를 수업 현장에 적용, 실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교과목 내용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부와 석사과정의 학습자들이 해당 수업을 선택하는 동기는 법률 통번역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며, 향후 법률분야에 대한 진로를 희망하는 학습자가 석사과정 53.8% 학부과정 58.8%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선호 교재 및 자료에 측면에서 석사과정은 실무 문서를 선호하지만 학부과정은 이론교재를 선호한다는 상이한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학부와 석사과정 학습자들이 동기와 진로의 측면에서 동일하게 해당 수업을 선호하지만 구체적인 수요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운영에 대한 제언

본 연구는 법률통번역 커리큘럼 설계 및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된 학습자 수요조사로서, 교육 현장의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수요에 대한 샘플로서의 의미가 크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수업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한다면 법률번역 수업 모형을 단계적으로 개발(정재삼, 1998)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학습자 중심의 커리큘럼을 만드는데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진아 (2008). 법정통역의 실태와 향후 과제. 통번역학연구, 11(2): 21-37
- 김한별 · 박소연 · 유기웅(2010). 평생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경기:양서원.
- 이지은 · 이성은. (2014). 교육연극 기반 국어과 통합 수업 모형 개발. 교과교육학연구, 18(3), 541-560.
- 정재삼(1998). 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의 분석. 교과교육학연구 2.2 (1998): 80-97.
- 최돈민 외(1999). 평생교육 요구분석. 서울:한국교육개발원.
- 표경현 · 나경희. (2013). EFL 학습자의 자기평가에 대한 인식 변화 분석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교과교육학연구, 17(4), 1169-1193.

「 한국어 독학을 위한 온라인 학습 사이트 분석 」

송혜원 교원, 한윤정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외국인 학습자들은 각자의 모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다. 한국어 학습 기관에서, 한국어 학습 자료를 통해, 동영상을 이용하여 각자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한국어를 학습하는 상황이다. 한국 드라마나, K-pop 같은 대중문화를 접하며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된 잠재적 한국어 학습자들이 보다 학문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충족시켜 가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한국어 학습 사이트를 이용하여 한국어를 학습하게 되는 경우를 빈번하게 목격할 수 있다.

한국 내 대학교에서 한국어 관련 강의를 하는 교수자들은 모국에서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한국어 학습 사이트로 독학을 하고 유학을 온 학습자들에게 괴리감, 정보 결핍 등의 부정적 학습 경험을 최소화하고, 학습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업데이트된 학습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 기관에서 한국어와 한국학 관련한 학습 목표와 내용 설정의 주도적인 위치를 점유할 필요성이 있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한국어 독학을 위한 온라인 학습 사이트 분석

목적: 국내·외 거주 중인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대학 수업에서의 한국어 교수를 위해 한국어 온라인 학습 사이트의 한국어 학습 목표와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것을 통해 대학 기관에서의 한국어와 한국학 교수에 참고를 얻고 학습자들의 흥미와 동시대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3. 연구 진행 내용

본 연구의 목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잠재적 학습자들과 한국에서 한국어를 대학 학부와 기관에서 배우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최신 한국어 학습 방법과 콘텐츠를 제공하여 한국어 학습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외국인 학습자들이 유학 오기 전 자신의 모국에서와 한국에서 한국어 학습을 위해 이용하는 주요 한국어 온라인 학습 사이트 조사한다. 다음으로 이중, 주요 학습 사이트를 선별하여 이것들이 제공하는 한국어 학습 콘텐츠를 알아본다. 학습 사이트의 가입 과정과 더불어 가입하여 학습하고 학습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학습자의 입장으로 투영해 봄으로써 각 사이트들이 제공하는 내용과 이용 상의 장점과 단점, 특히 사항들을 알아본다. 이후, 교수자의 관점에서 각 사이트별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 학습 기대 결과를 분석한다.

위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는 한국 대학 학부 과정이나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교수자가 학습자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최신 콘텐츠를 도입하여 사용하는 데에 참고 사항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한 온라인 학습 사이트들의 치열한 경쟁과 그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대학 기관에서 분석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한국어 교수-학습 설계 시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기관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교수-학습 내용과 어우러져 주도적이고 선진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본다.

3.1. 선행 연구

한국어 독학 사이트 자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사이트를 활용한 한국어 학습 방식은 독학용으로 개발된 사이트가 대부분이다. 이에 웹 기반 혹은 온라인 한국어 학습 사이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 보급이 활발해진 1990년대 이후 온라인상의 한국어 학습 사이트를 구성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이해영(2000)은 인터넷의 활용과 한국어 개별화 수업 설계를 통해 한국어 학습 현장에 존재하는 학습자의 성향, 기호, 관심, 흥미, 수준 등의 차이로 인해 예상되는 수업의 한계를 인터넷을 활용한 개별화 수업을 통해 극복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건숙(2003)은 본격적으로 국내 웹 기반의 한국어교육 사이트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를 통해 한국어교육 사이트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조수진(2005)도 한국어교육의 수많은 사이트들을 특정한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디렉토리를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같은 구성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 교수자, 연구자의 교류 및 정

보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나경희(2007)는 ‘웹 기반 한국어 학습사이트 상호 작용성 연구’에서 웹 기반 학습 사이트의 상호작용성을 학습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비선형 하이퍼텍스트 구조, 쌍방향 의사소통을 위한 피드백, 자기조절 학습을 위한 학습자원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네 가지의 상호작용성을 바탕으로 12개 한국어 학습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학습 내용의 제시 형태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동영상 모두 제공하는 사이트가 모두 높은 상호 작용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희(2013)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상의 한국어 학습 사이트의 가치가 중요해졌다고 보고, 한국어 학습 사이트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 학습 사이트들이 실제 많이 이용되고 있는지와 만족도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윤병남(2018)은 사이트 운영의 주체에 따라 정부산하기관, 국내 대학기관, 국외 대학기관, 국외 특수기관, 국내 방송국, 사설 기관 등으로 나누어 32개 웹사이트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사이트 분석 및 조사에 그치지 않고 김희정(2018)은 어휘 학습 신장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에 모바일 러닝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어 학습을 위한 온라인 학습 사이트에 대한 연구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역별 연구와 초급, 중급, 고급 학습자별로 제공되어야 하는 한국어교육 콘텐츠 연구, 기 개발된 한국어 학습 사이트에 대한 분석 등 다양한 방식과 분야에서 한국어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한국어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학습 사이트를 분석하고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에게 유의미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3.2. 주요 온라인 한국어 학습 사이트 분석

기존 웹 기반 한국어 학습을 주제로 분석한 한국어 학습 사이트들이 주로 국가 기관 운용 사이트나, 한국 대학의 한국어 교육기관 사이트를 분석하였는데 1) 이후 전 세계에서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여러 기관, 회사, 개인이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한국어 학습 사이트들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에 외국인 학습자들이 유학 오기 전에 자신의 모국에서와 한국에서 한국어를 위해 이용하는 주요 한국어 온라인 학습 사이트에 대해서는 한국어, 한국학 관련 검색 빈도수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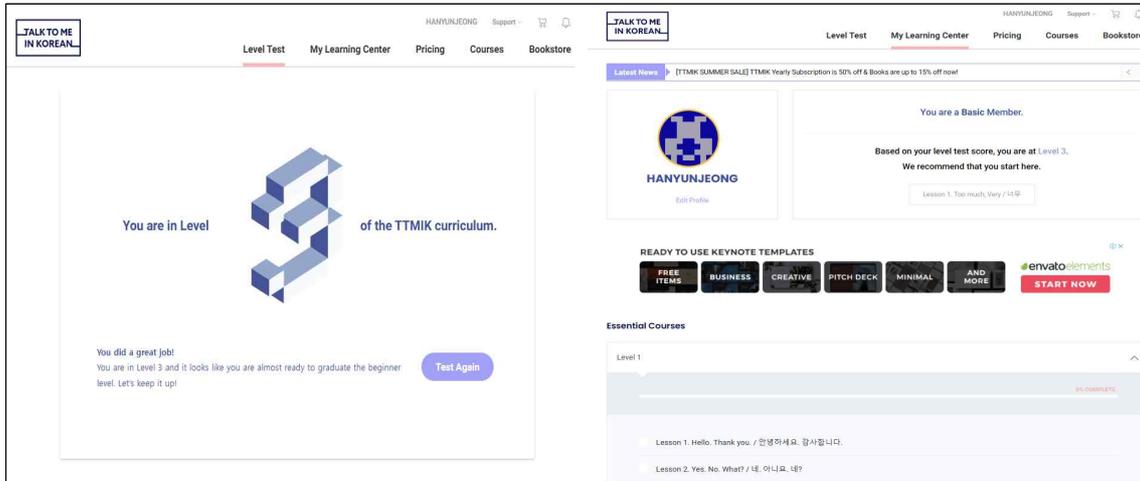
1) 대표적으로 ‘이림림(2010), 한국어 학습사이트의 교육 내용 분석, 상명대학교 대학원’에서는 한국 국제교육진흥원의 KOSNET, 재외동포재단의 스테디코리아, 한국어세계재단의 한국어교실, 배재대학교의 ‘배워요! 재미있는 한국어!’, 서강대학교의 Korean Studies at Sogang, 서울대학교의 Click Korean, KBS의 Let’s Learn Korean, 그리고 중국 주중한국문화원의 在線韓語 의 8개 한국어 학습사이트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선정된 여섯 개의 주요 온라인 한국어 학습 사이트는 Talk to Me in Korean (TTMIK), Korean class 101, 세종학당, Memrise, Duolingo, Coursera였다. 이 온라인 학습 사이트를 대상으로 가입 방식, 사이트의 제공 내용, 주요 학습 언어 기능, 사이트별 특이 사항의 항목으로 분석하였고, 여기에 한국어 학습, 특히 독학에서의 시사점(활용 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았다.

사이트별 분석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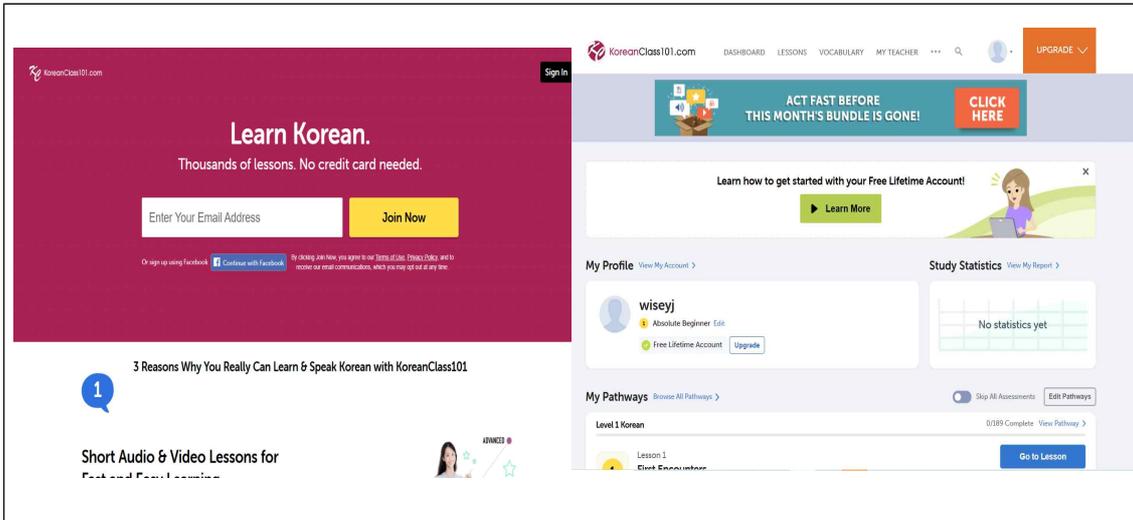
3.2.1. Talk to Me in Korean (TTMIK)

가입 방식 (유/무료)	제공 내용	주요 언어 기능	특이 사항	시사점 (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가입 · 심층 과정을 위한 유료 가입 과정도 있음 (무료 가입 회원의 경우도 다양한 학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디오 제공 · 진단 레벨 제공 (레벨 확인 후 레벨에 맞는 학습 단계 추천) · 회원가입 후 무료 레벨 테스트로 진단 (단문, 숫자, 어휘, 접속사, 시제 연결 어미 등) · 학습 기간/학습 목표 제공 · 단계별 course content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제시함 · course content안에 문법, 어휘(한자 조어 포함), 문장 만들기, 표현 등이 고르게 포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기/읽기 학습도 가능하나 말하기/듣기의 구어 학습 위주 (동영상 활용하여 학습) · 한국어 표현 (구, 문장 단위)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ype(Video, Audio), Level(Beginner, Intermediate, Advanced), Purpose(Business, Entertainment, Travel to Korea, Test Prep), Theme(Reading, Writing, Hangeul, Grammar)에 따라 선택 가능 · 관련 교재와 온라인 동영상 선택하여 학습 가능(교재 많음) · 강의와 대화 등으로 구성 *사이트 이용이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벨 진단의 간편화 · 목표 학습 기간 다양화 · 한자조어형성법을 활용한 어휘 학습 · 실제적인 대화 영상이 다양하게 제공됨. · 전통적인 교수 중심의 6단계 구분이 아닌 학습자 동기 중심의 학습 레벨 구분



3.2.2. Korean class 101

가입 방식 (유/무료)	제공 내용	주요 언어 기능	특이 사항	시사점 (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회원 가입 후 무료 교육 평생 계정 이용 가능(무료 가입 후 매주 새로운 수업, 오늘의 한국어 단어, 한국어 단어 Top 100 목록, 한국어 어휘 및 구문 목록, 생존 문구 경로 제공) · \$1에 1회성 학습가능하며, 월별, 금액별 과정 다양 (\$25, \$35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수준의 강의와 자료 제공 · 일일 한국어 회화 강좌, 문법 강좌, 문화 강좌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 · 동영상, 오디오, 텍스트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학습 · 무료 레벨 테스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 영역(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모두 학습 가능 · 한국어 표현 (구, 문장 단위) 중심 · 음성 녹음 기능이 있어 교사의 발음과 자신의 발음을 비교하면서 발음과 말하기 능력을 계속 연마 및 확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통계 자료’를 통해 나의 학습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음 · 1:1 한국어 선생님 매칭 ·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궁극적인 독학, 자습의 학습 방식을 제공 *상당 부분 유료로 확인 가능한 학습이 많음 *체계성, 통일성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제시 방식 예) 미국 사람/ 태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음 녹음 기능 좋음 · 말하기 패턴 연습 가능(소개하기, 취미생활 말하기 등) · 회원가입 후 지속적으로 메일링을 통해 퀴즈, 유용한 표현 등을 제공하여 학습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간단한 정도의 학습이 가능



3.2.3. 세종학당

가입 방식 (유/무료)	제공 내용	주요 언어 기능	특이 사항	시사점 (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가입 · 다양한 경로로 가입 및 이용 가능(세종학당재단, 온라인 세종학당, 누리-세종학당, 이 가지 세 사이트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됨 · 다양한 외국어로 한국어 학습 지원 · 한국어 학습 로드맵으로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 · 모든 강의가 무료 제공이지만 수업 기간과 시간, 출결석이 제한을 둬으로써 학습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게 고안됨 ·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의 네 기능(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학습이 비교적 용이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실제적인 한국어 말하기 기능을 신장시키는 것에 다소간의 한계가 있어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기관 주도의 한국어 학습 사이트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구성 · 학습자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사를 위한 교원용 콘텐츠 제공 · 관련기관 누리집으로 국립국어원 등의 한국어 관련 기관 사이트로 바로 이동, 접근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한국어 교육기관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는 한국어 교재와 교육 콘텐츠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가장 정제된 내용으로 한국어 학습이 가능함

	·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의 한류 콘텐츠 제공		
--	--------------------------	--	--

2023 Online King Sejong Institute

2nd semester course

Application Period

- Lecture-assisted Type: 28th, June(Wed) ~ 4th, July(Tue) 18:00(KST)
- Learning-assisted Type: 6th, July(Thu) ~ 12th, July(Wed) 18:00(KST)

Course Period

- Introductory: 24th, July ~ 27th, August (5-week course)
- Beginner, Intermediate: 24th, July ~ 4th, October (10-week course)

Course Int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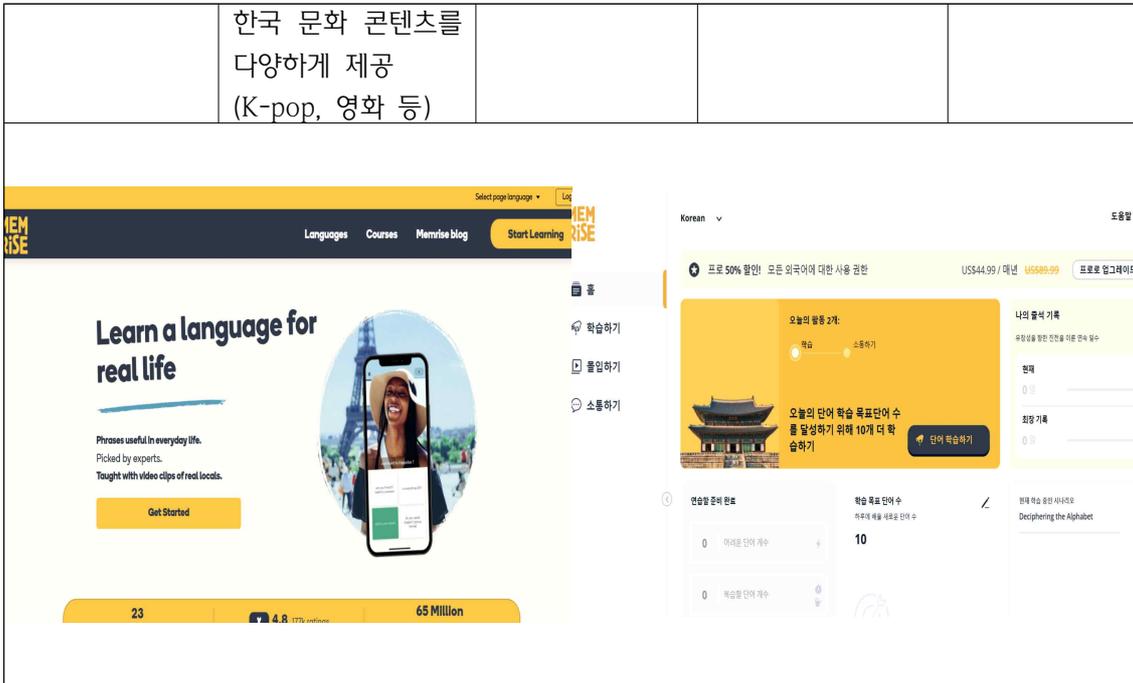
Lecture-assisted Type: Introductory, Beginner, Intermediate

Self-learning Korean Courses

- Introductory**
 - Sejong Korean Introductory
 - King Sejong Institute Korean Introduction
- Beginner 1**
 - King Sejong Institute Korean 1
 - Sejong Korean Conversation 1
- Beginner 2**
 - King Sejong Institute Korean 2
 - Sejong Korean Conversation 2
 - Business Korean 1
 - Business Korean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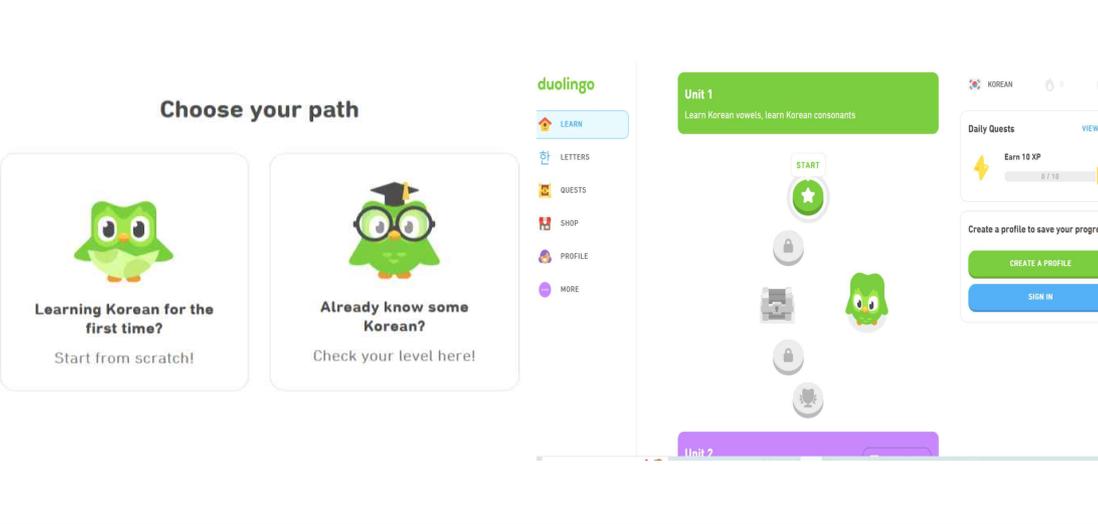
3.2.4. Memrise

가입 방식 (유/무료)	제공 내용	주요 언어 기능	특이 사항	시사점 (응용)
· 무료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생활 위주 한국어 목표 선정(취미/다짐형/전문가) · 자신이 개별적으로 학습량, 목표를 결정할 수 있음 · GPT를 이용해 주제별로 한국어 채팅을 할 수 있음 예) 새로운 회사에서 일한 첫날 커피 브레이크타임에 나누는 대화 · 사이트 이용이 직관적이고 간편함 · 저작권을 활용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팅을 활용한 말하기와 쓰기 연습이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용성 위주의 학습 사이트 · 게임 형식의 테스트 제공 · 몰입형 학습 · 사용하는 언어와 학습하고 싶은 언어 선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PT를 활용하여 말하기, 쓰기 학습의 환경적 제약을 일부 극복할 수 있음 · 노래 가사, 영화 대사 지원



3.2.5. Duolin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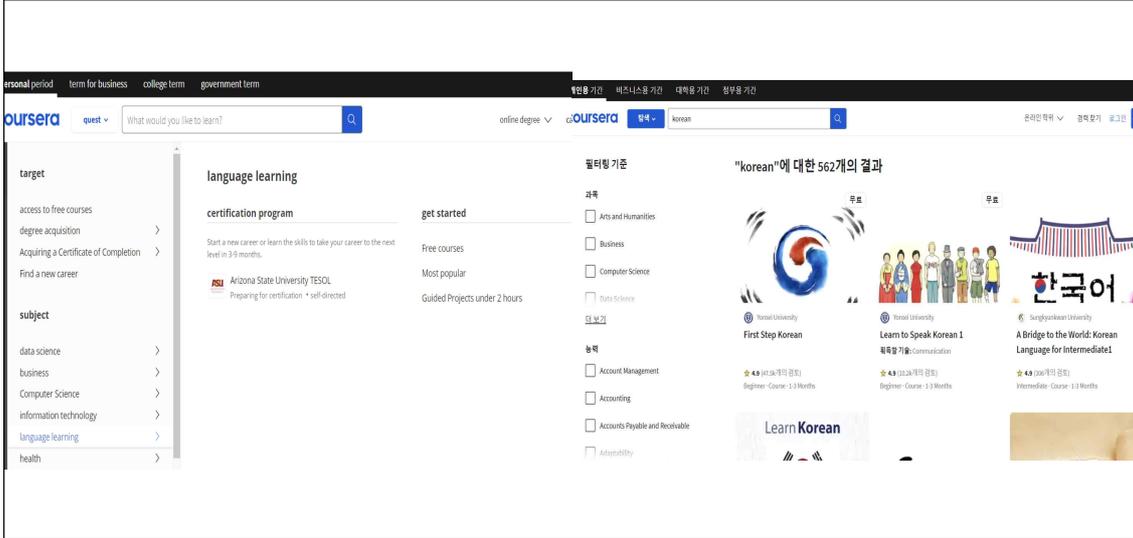
가입 방식 (유/무료)	제공 내용	주요 언어 기능	특이 사항	시사점 (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가입 · 유료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학습 분량이 정해져 있고, 틀린 것을 복습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음 · 레벨 테스트로 시작하는 단원이 결정되어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기학습한 단원을 복습할 수 있도록 복습의 향을 물어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휘, 문법, 문장 만들기 중심, 즉 표현 중심의 언어 기능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벨 테스트를 한국어로 처음 배우는 사람과 한국어를 이미 배운 사람으로 나누어 진행 · 체계적인 한국어 수준별 수업이라기보다 가볍고 즐겁게 간단히 익히는 방식의 학습. 이에 따라 사이트 구성도 게임처럼 흥미롭고 접근이 용이하게 만들어짐 *어휘, 문법, 표현 중심의 문제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레벨 테스트 방식 예) 듣기 : '아버지가 컴퓨터를 고치고 있어요.'를 듣고 들은 대로 한국어 단어를 배열하는 방식 쓰기: 영어 사용자라면 영어 문장이 주어지고 이것을 주어진 한국어 어휘를 사용하여 바꾸어 쓰게 하는 방식

			<p>식 학습 사이트이므로 실제적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학습 내용이 부족할 수 있음</p>	
				

3.2.6. Coursera

가입 방식 (유/무료)	제공 내용	주요 언어 기능	특이 사항	시사점 (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가입 가능 · 일부 강좌에 한해서 무료 학습 가능하나 유료 이용이 많음 (전체 다양한 학습 카테고리 중 언어학습 - 한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학습을 위한 문법, 회화, 독해 등 다양한 주제의 강좌가 제공 (대학 및 회사 연계 기관의 수업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음, 연세대, 성균관대, 대만 국립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중심의 듣기 학습 · 언어의 네 기능(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학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용 기간, 비즈니스용 기간, 대학용 기간, 정부용 기간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유형별 가입을 하는 형식 · 여러 대학 및 회사와 협력기관 https://www.coursera.org/courses?query=korean *무료 가입으로는 관심 영역의 도입 정도 부분만을 학습할 수 있는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신력 있는 기관의 교수 가이드라인 참고 가능

			의 정보만 제공
--	--	--	----------



4. 연구 결과 및 활용 방안

이상 외국인 학습자들이 자신의 나라와 한국에서 한국어를 독학할 때 주로 방문하는 온라인 학습 사이트 6개를 제공 내용, 주요 언어 기능, 특이사항으로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대학기관에서 한국어와 한국학을 교수할 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이들 온라인 학습 사이트의 공통점은 모두 무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이트별로 무료 가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양과 범위가 극히 제한적인 것에서부터 완전히 개방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이용 범위가 다양했다. 또한 무료 진단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것도 모든 사이트의 공통점이었다. 하지만 진단 테스트를 하는 방법과 내용은 역시 사이트별로 상이했다.

또한 언어적 측면에만 한정되어 학습하는 사이트(Duolingo)보다는 문화적인 요소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사이트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AI를 활용한 GPT로 한국어 말하기를 학습할 수 있는 것(Memrise)은 실시간 면대면 말하기의 환경적, 비용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다.

개인이나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보다는 국가 운영 사이트(세종학당)가 내용과 학습자

료 면에서 월등히 풍부하고 다양하며 학습 교재까지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원에게도 교수 가이드라인과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목적이나 동기에 따라 자유롭게 학습 내용을 선택하기보다는 운영 기관이 주도적으로 학습자를 이끌어가는 구조로 파악된다.

사이트 생성의 주체가 한국의 학습 기관(세종학당), 또는 한국의 온라인 학습 회사(TTMiK, Korean class 101)인 곳과 다양한 언어의 학습 내용을 제공하는 외국 온라인 학습 회사(Memrise, Duolingo)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수준별 학습이나, 학습 내용의 구조, 짜임새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한국기관, 한국 회사가 만든 학습사이트들은 현재 또는 잠재적 한국어, 한국학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파악하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보다 계획적이고 구조화된 학습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이할 만한 한국어와 한국학 학습을 위한 사이트로 Coursera를 분석했는데 이는 한국어 학습을 제공하기보다는 한국어 학습을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연결하는 일종의 학습 온라인 플랫폼이라 할 수 있으며 이 플랫폼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학의 학문적 위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주로 한국어, 한국학 학습에 이용되는 여러 사이트가 다양한 성격과 내용,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를 모국에서 독학하는 학습자와 한국에 유학을 와서 기관에서 배우는 동안 참고 학습으로 활용하는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한국어와 한국학 학습사이트의 성격과 내용을 알고 선택한다면 개인의 동기에 따른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어와 한국학을 교수하는 한국 대학 기관에서는 기관별로 정해진 교재와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전달하며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와 한국학 학습자들의 한국에 대한 다양한 분야와 영역의 관심과 호기심을 학습 자료와 교육 내용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것에는 제도적으로나 교수 개인의 환경적, 시간적 여건으로나 한계가 있음은 자명하다. 교수자가 온라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성격과 내용의 한국어, 한국학 콘텐츠를 인지하여 파악하고 있다면 교수-학습 시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관여도를 높여 보다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 교수법 연구모임의 효과 및 제언

교수법 연구모임은 특정한 연구 주제에 대해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수자들의

공동 연구를 위한 모임인 만큼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었고, 이것을 추동력으로 하여 흥미롭게 연구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 교수법 모임을 통해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고 또한 깊이 있게 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물을 실제로 수업에서 적용 가능할 것이다. 연구하는 과정에서 쌓인 자료와 결과물을 바탕으로 여러 학술지나 연구 논문을 위한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김희정(2018), 모바일 기반 한국어 연어 학습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나경희(2007), 웹 기반 한국어 학습사이트 상호작용성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박건숙(2003), 국내 웹 기반의 한국어 교육 사이트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어교육 14(3)
- 유영희(2013), 온라인상의 한국어 학습사이트 이용자 현황분석, 우석대학교 경영행정 문화대학원
- 윤병남(2018), 웹 기반 한국어 교수·학습사이트의 현황과 전망, 남서울대학교 복지경영대학원
- 이해영(2000), 인터넷의 활용과 한국어 개별화 수업 설계, 한국 멀티미디어 언어교육학회,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3(1)
- 조수진(2005), 한국어 교육 포털 사이트 구현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회, 이중언어학 27
- <참고 사이트>
- <https://talktomeinkorean.com/>
- <https://www.koreanclass101.com/>
- <https://www.iksi.or.kr/>
- <https://www.memrise.com/>
- <https://www.duolingo.com/>
- <https://www.coursera.org/>

「 영화를 활용한 리터러시 교수법 연구 」

신정아 교원, 최준란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이 연구 모임은 영화를 활용한 리터러시 교육 방법을 실제로 보여주고자 시작하였다. 대학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영화를 어떻게 교육과 연결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주요 목적였다. 우리는 모여서 리터러시 관련 이론 공부로 논문과 학습자료를 읽었다. 그리고 우리는 실천으로 영화 <동주>를 선택해서 기획하기로 하였다. 윤동주 시인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시 첫 줄 정도는 알고 있을 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시인이다. 그런데 사실 그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다. 시인이 살다 간 흔적이 한국보다는 중국과 일본 등지에 남아있고, 또 그의 주변 인물들 중 월북을 한 이들도 있어 모든 것을 드러내지 못했던 이유 등으로 우리가 윤동주 시인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 이런 면에서 리터러시 교육 사례로 영화 <동주>를 연구하기로 하였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영화 <동주>와 문학탐방 프로그램 실천 사례

목적:

- 영화기술을 통한 인문학적 상상력 구현과 공감 사례 연구
- 영화연구를 위한 다양한 사례 발굴과 수업 자료 개발
- 영화제작과 유통, 산업에 대한 융합적 관점의 연구 방법 개발
- 영화를 활용한 리터러시 교육 방안 모색
- 영화 IP 비즈니스에 대한 트렌드 이해와 교육 방법 고찰

3. 연구 진행 내용

주제: 영화 <동주>와 문학탐방 프로그램 실천 사례

- 강의진행 및 설문: 최준란

- 탐방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신정아
- 북토크 강사: 신정아, 최준란, 박동찬(경계인의뭍소리 대표)

영화 리터러시 교육은 영화라는 매체를 통하여 영화와 교육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학생들에게 리터러시 교육을 효과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영화 리터러시 교육이 체험학습에 관련성이 있음을 실천 사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실천 방법으로는 단순히 영화 감상에만 그치지 않고 영화 리터러시 교육은 책과 영화를 시작으로 북토크를 열어 지식과 공감을 넓히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강좌를 어떻게 지역과 연계하여 융합하고자 하였다.

그 첫 번째 사례로 영화 <동주>를 선정하였다. 영화 <동주>가 다루는 윤동주 시인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시인이다. 사후 70년이 지난 지금 들여다볼 역사적, 문학적 이야기를 인문학 강좌로 마포평생학습관과 공동주최로 준비했다. 마포평생학습관과 함께 한 이유는 도서관과 협업을 통해 영화 <동주>로 인문학 토크를 함으로써 지역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연구방법으로는 공공도서관과 지역북카페와 연계하는 등 문화행사가 있는 공간을 찾아 현장 체험으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마포평생학습관과 MOU를 맺고 대학 재학생 17명과 도서관에서 모집한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북토크'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참여한 학생들에게 소감문을 받았다. 그 결과 첫째, 학생들은 '영화 <동주>로 떠나는 근대 역사기행'이라는 북토크를 통해 윤동주 시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윤동주와 시대적인 배경, 주변 인물들을 통해 영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기술하였다. 둘째, 학생들은 열린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학생들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진 학생들과 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영화를 재해석할 수 있었다. 영화를 보면서 혼자 깨닫지 못한 부분을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이번 수업은 공공기관 연계 융합형을 선택해 도서관과 공동주최로 준비하고 북카페에서 실제 행사하였다. 학생들에게 강의실이 아닌 북카페에서 연 이유는 '문화공간'의 현장 체험을 통해 지역문화-로컬콘텐츠-도시재생 개념까지 이해하고 지역인문콘텐츠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3.1 문학탐방 프로그램 진행

[수업 활용] 문화공간과 문화콘텐츠 - 문화콘텐츠학과 연계전공

[공동주최] 한국외국어대학교,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행사일: 2023년 5월 15일 저녁 7시~9시

장소: 마인드B북카페(학지사 북카페)

참석대상: ‘문화공간과문화콘텐츠’ 수강생 및 마포 지역 주민들

행사목적:

2023-1학기 <문화공간과 문화콘텐츠> 수업에서는 다양한 ‘책문화공간’을 살펴보고, 현장 체험 수업으로 공공도서관과 지역북카페와 연계하는 문화행사를 기획해보았다. 영화 <동주>가 다루는 윤동주 시인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시인이다. 사후 70년이 지난 지금 들여다볼 역사적, 문학적 이야기를 인문학 강좌로 마포평생학습관과 함께 준비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문화공간’의 현장 체험을 통해 지역문화-로컬콘텐츠-도시 재생 개념 이해를 기대한다. 도서관의 기획을 통해 향후에는 학생들이 적극 제안하도록 한다.

3.2 영화 <동주> 소개

영화 <동주>는 이름도, 언어도, 꿈도 허락되지 않았던 어둠의 시대 속에서 도시인의 꿈을 품고 살다간 청년 윤동주의 삶을 정직하게 그리고 있다. 대한민국 영화사상 최초로 윤동주의 삶을 스크린으로 옮겨내며 ‘윤동주 시인의 시에 부끄럽지 않게 찍으려고 노력했다’는 이준익 감독의 굳건한 포부처럼 영화는 화려한 기교나 과장 없이 진실한 이야기로 관객들의 가슴에 진한 감동을 선사한다.

영화 <동주>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영화 <동주>가 다루는 윤동주 시인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시 첫 줄 정도는 알고 있을 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시인이다. 그런데 사실 그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다. 시인이 살다간 흔적이 한국보다는 중국과 일본 등지에 남아있고, 또 그의 주변 인물 중 월북을 한 이들도 있어 모든 것을 드러내지 못했던 이유 등으로 우리가 윤동주 시인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 이런 면에서 영화 <동주>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이준익 감독은 우리에게 윤동주 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이자 고종사촌인 송몽규의 삶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조명했다. 북토크 진행은 영화 속의 장면을 같이 이야기하고 퀴즈도 풀면서 참여 문화를 유도했다. 또한 윤동주와 주변 인물들에 초점을 두고 중국과 일본에 남아있는 흔적들은 인터넷과 사진자료 등을 통한 랜선 투어로 진행하기로 기획하였다.

결과적으로 사람, 장소, 흔적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역사 속 인물과 영화 속 장소, 남겨진 흔적들을 살펴본다. 본 프로그램은 조선인 디아스포라들의 삶과 역사, 그들의 애환을 통해 이산의 아픔과 소통의 단절을 극복하고, 한민족의 통일 서사 구축을 위한 인

문학 교육콘텐츠를 구축하고자 기획되었다.

영화 <동주>(이준익감독, 2015)에서 재현된 시인 운동주의 생애와 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들을 온오프라인으로 떠나보는 시간을 학생들과 가졌다.

3.3 영화와 리터러시 교육 선행 연구

선행 연구 이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자는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 주변의 맥락을 이해하는 콘텍스트가 되어야 한다. 진정한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본다.

전통적인 의미의 '리터러시(literacy)' 개념은 한 문화의 공유된 언어를 읽고, 쓸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홉스(Hobbs)는 일반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메시지에 접근하고(access), 분석하고(analyze), 평가하며(evaluate), 커뮤니케이션하는(communicate) 능력으로 이해하였다.¹⁾

다시 말해 콘텐츠를 읽어낼 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둘러싼 콘텍스트에 접근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며 나아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랑크셔와 노블은 기존의 리터러시와 차별화된 '뉴리터러시(New Literacy)'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 개념은 새로운 멀티텍스트에 대한 교육을 의미하며 멀티텍스트를 둘러싼 새로운 영역, 즉 협동, 참여, 분산(dispersion), 전문영역의 분배(distributed expertise)를 반영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교육 참여자는 '이해'에서 '참여'와 '소통' 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헨리 젠킨스는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통신, 저널리즘, 시네마틱 예술 및 교육 분야의 교수이다. 그는 MIT에서 '비교 매체 연구 프로그램'의 책임자로서 10년 이상을 재직하기도 했다. 헨리 젠킨스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이용자 간 참여, 융합, 유통을 중심으로 참여문화의 관점에서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분석하였다.

헨리 젠킨스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를 준비하는데 초점을 맞춘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한 그룹의 노력을 위한 발판이 된 참여 문화에서의 학습에 관한 저서를 썼으며, 그는 또한 컨버전스 문화 컨소시엄의 창립자이기도 하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 『컨버전스 컬처: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의 충돌 Convergence Culture: Where Old and New Media Collide』 (2006)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그는 모든 단계에서,

1) Hobbs, R. (2010). "Digital and Media Literacy: A Plan of Action", A White Paper on the Digital and Media Literacy Recommendations of the Knight Commission on the Information Needs of Communities in a Democracy. Available: http://www.knightcomm.org/wp-content/uploads/2010/12/Digital_and_Media_Literacy_A_Plan_of_Action.pdf

소비자들이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헨리 젠킨스는 자신의 저서 『컨버전스 컬처(Convergence Culture)』에서 미디어 컨버전스, 참여 문화, 이용자라는 세 가지 개념 간의 관계를 통해 미디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설명하였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참여와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소통 능력’에 대한 개념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3.4 영화 <동주> 프로그램 설문조사

영화 <동주> 프로그램으로 운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는 문화콘텐츠 연계전공 과목 중 <문화공간과 문화콘텐츠> 수업을 듣는 외대 학생 17명과 마포평생학습관 20명을 중심으로 행사를 치렀다. 다음은 도서관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다.

1) 수강생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19	4	7	6	3	0

2) 강의 만족도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	2	7	18	11

3) 강의 난이도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3	7	17	12

4) 강의 장소 만족도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13	25

5) 강사 만족도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17	21

6) 참여동기 충족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0		1	16	22

7) 강의 참여 후 독서 욕구 증진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14	24

8) 향후 참여 의향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17	20

9) 추천 의향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15	23

10) 향후 희망 프로그램

독서토론	문학창작	문화예술체험	서점탐방	기타
3	11	16	9	

설문조사 10여 가지 항목을 정리해보면, 마포평생학습관에서 참여한 수강생 연령은 20대~60대까지 골고루 있었으며, 그중 40~50대 수강생이 많았다. 강의 난이도와 강사 만족도에 대한 의견이 높았다. 강의 참여 후 독서 욕구 증진과 추천 의향이 높았으며, 향후 희망 프로그램의 기타 의견으로는 시낭송과 드라마 대본 또는 영화 대본 읽기 등의 의견이 있었다.

참여한 학생들의 소감문은 다음과 같다.

오늘 북토크에서 특히 인상깊었던 것은 강처중과 정병욱이었습니다. 영화를 볼 때는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인물들이 동주의 작품이 현재까지 남도록 했던 일들을 들을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이*민 학생

처음에 흥대까지 가야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좀 멀게 느껴졌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서 정말 좋은 경험하고 갑니다. 명동마을 주변에서 태어나셨던 교수님의 암송과 문익환 목사님의 '동주야'에 큰 울림을 느꼈습니다. 좋은 행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 학생

운동주 시인의 삶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숭고하고 고귀한 삶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함께 늙어가지 못한다'고 말한 문익환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희 학생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잊고 있었던 운동주 시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에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배 학생

<동주> 영화와 함께 운동주 시인의 생애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현 학생

준비해주신 내용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송몽규 시인을 비롯한 동주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나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현 학생

오늘 행사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영화를 보고 그 여운에 젖어 있어 더욱 재밌었네요. 운동주 시인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과 장소에 대한 귀중한 지식을 알게 되어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와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류*영 학생

운동주님에 대해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번 강의를 통해 배울 수 있어서 흥미로웠고 반면에 슬픈 이야기가 있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찬 특강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이 학생

운동주의 삶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또 주변 인물들에 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뽐낼 수 있는 지식이 늘어서 좋다. 마인드B 북카페에서 카페, 서점, 강연장이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강*준 학생

현대 시대에서 과거사를 어떻게 되짚어보며 추억하고 기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영화적인 관점에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 동주를 보고 운동주 시인과 관련

된 장소를 탐방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키며 주제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재미있었습니다. -임*리 학생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화 <동주> 정말 재밌게 본 영화였고, 그로 인해 윤동주 시인의 시가 더 와닿게 되었는데, 그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재밌고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경험할 수 있어 기뻐합니다! - 김*영 학생

안녕하세요! 덕분에 이런 뜻깊은 경험을 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 역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제 독서 취향을 넓힐 다짐을 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 학생

<동주> 영화는 중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여러 번 보았습니다. 또한 워낙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기에 윤동주 시인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강연을 듣고 나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교과서를 넘어서, 영화보다 더 나아가서 윤동주 시인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닌 다른 분들이 열정적으로 필기하면서 강연을 들으시는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배움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나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연이 나에게 앞으로 공부 태도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준 것 같습니다. -김* 학생

도서관에서 홍보해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 동네책방]+탐방해설 마인드비 북카페
윤동주기념관

영화 <동주>로 떠나는 근대 역사 기행

1강: 영화<동주>이야기

- 강사: 신정아 (팟캐스트<차이나는 무비> 진행)
- 일시: 2023. 5. 15. (월) 19:00~21:00
- 장소: 마인드비 북카페
- 협력: 한국외국어대학교

2강: <동주로드>여행지 탐방

- 강사: 박동찬 (경계인문학소리연구소 대표)
- 일시: 2023. 5. 25. (목) 14:00~16:00
- 장소: 윤동주기념관 및 연세대학교 교정

동주산책길

- 들개단
- 분관 건물단
- 백양로
- 정수: 5.1. (월) ~ 선착순 20명
- 모집방법: 에버러닝
- <https://everlearning.sen.go.kr>
- 청송대, 노천극장

02-6959-3001 서울특별시교육청 마포평생학습관아연분관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그림1> 영화 <동주> 행사 포스터



토크쇼 진행자(강연장)



토크쇼 진행 중



토크쇼 진행 중



토크쇼 후 단체사진

서울특별시교육청
마포평생학습관아현분관
MAPO LIFELONG LEARNING CENTER AHYeon BRANCH

자료검색 프로그램 열린공간 평생학습관안내 마이페이지관리

꿈과 희망을 함께하는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

자료검색 강의검색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5월의 정경명언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
탐욕스러운 사람은
진실로 가난한 사람
- 송근 -

공지사항	독서문화행사	휴관일 및 행사안내
2023년 5월 가족과 함께하는 도서관 D&A 참가자 모집	2023-05-18 대용산역 공영여철 활동기 양성 교육과정	2023-05-10
대용산역 공영여철 활동기 양성 교육과정 안내	2023-05-10 영화 <동주> 떠나는 근대 역사 기행	2023-04-26
기행의 달! 2023년 북스타트데이 참가자 모집	2023-05-04 어린이의 성장을 응원하는 독서 리터러시	2023-04-19
[홍보] 2023년 5월 도서관리터러시교육	2023-05-02 [도서관주간] '이행철서' 독서토론	2023-03-15

마포평생학습과 아현분관 홈페이지와 행사 소개

<그림2> 영화 <동주> 행사 프로그램 사진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이번 영화 <동주> 북토크 행사를 통해 얻은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터러시 교육의 실제 ‘체험’ 수업으로 영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교육 방법론도 출하였다는 점이다. 책과 영화를 소재로 참여(융합) 수업이 가능하게 하였다.

영화 리터러시 교육은 영화라는 매체를 통하여 영화와 교육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학생들에게 리터러시 교육을 효과적으로 전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영화 리터러시 교육이 체험학습에 관련성이 있음을 실천 사례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해왔던 단순히 영화 감상에만 그치지 않고 영화 리터러시 교육은 책과 영화를 시작으로 북토크를 열어 지식과 공감을 넓히고자 하였다.

둘째, 문화공간에서 문화콘텐츠를 향유함으로써 도서관과 북카페와의 콜라보로 도서관, 북카페 등의 공간 개념에 대한 이해의 장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학생들에게 ‘문화공간’의 현장 체험을 통해 지역문화-로컬콘텐츠-도시재생 개념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향후 도서관(및 공공기관)과의 기획을 통해 학생들이 제안하기를 기대해본다.

2022년 10월 31일 데이비드 랭크스 교수의 특강이 전남 순천에서 열렸던 기사가 떠올랐다. 기적의 도서관과 동네의 작은 도서관, 그리고 그림책, 시민작가 등 특성화된 시립 도서관 운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미국 텍사스대학교 데이비드 랭크스(R.David Lankes) 교수의 특강을 진행한 바 있는데 그때 랭크스 교수의 말이 떠올랐다. 데이비드 랭크스 교수는 “나쁜 도서관은 장서만 수집하고 좋은 도서관은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훌륭한 도서관은 커뮤니티를 형성한다”고 말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2021년 말 도서관법도 전면 개정되었다. 그리고 2022년 말부터 개정된 도서관법이 시행되었다. 도서관법에 나온 공공도서관의 정의는 “공중의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및 평생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다. 기존 정보이용, 독서활동은 주로 공부하는 곳, 책을 대출하거나 반납하는 곳이었었는데 점차 문화활동, 평생학습이 주된 목적이 되면서 도서관은 공동체의 소통공간, 책으로 만드는 연대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영화 <동주> 프로그램을 마치고 <문화공간과 문화콘텐츠> 수업에서 마지막 발표한 학생이 생각난다. 이번 학기 발표 주제는 ‘책’과 ‘공간’ 관련으로 발표였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독립서점, 도서관, 북카페 등을 조사해서 발표하였는데 마지막날 발표한 이 학생의 주제는 ‘돈키호테와 IP의 활용’였다. 돈키호테 책 속에 나온 장소들이 허구가 아닌 사실에 착안해서, <돈키호테> 책 소개와 ‘돈키호테 여행루트’를 직접 짜서 소개해줬다. 발표하면서 영화 <동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기억해서 이렇게 발표했다고 하였다. 잠시나마 리터러시 교육의 효과를 실감한 시간이었다.

※ 참고문헌

- 김동혁·한주리,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에 대한 소비자의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 『관광연구저널』 제30권 9호, 한국관광연구학회, 2016.
- 김정명, 『지역출판과 독서문화』, 카모마일북스, 2020.
- 류철균·한혜원 외,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 박성우·홍소람, 「로컬 거버넌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협력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50권 1호, 2019.
- 신정아, 「로컬콘텐츠 기획 및 제작방안 연구: 이문동 문화지도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제33호, 2018.
- 신정아, 「연화부인 설화를 활용한 로컬콘텐츠 기획방안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제 23권, 2019.
- 신정아, 『로컬콘텐츠와 컬처매핑』, HUINE, 2019.
- 윤지효·윤재은, 「대형서점에 나타난 복합문화공간의 플랫폼화 특성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제16권 3호 통권 72호, 공간디자인학회, 2021.
- 윤희윤, 「일본 공립도서관 지정관리자제도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호 통권 55호, 한국문헌정보학회, 2021.
- 『지역출판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 방안 연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8.
- 최준란, 『책문화공간과 도시재생』, HUINE, 2017.
- 최준란, 「이태원 책문화공간과 트랜스아이덴티티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제 38권, 2019.
- 최준란, 「진보초 서점 거리의 지속 요인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제 46권 제3호, 출판학회, 2020.
- 한국출판학회, 『지역출판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 방안 연구』, 한국출판산업진흥원, 2018.
- 헨리 젠킨스, 『컨버전스 컬처』, 김정희원, 김동신 옮김, 비즈앤비즈, 2008,
- Hobbs, R. "Digital and Media Literacy: A Plan of Action". The Aspen Institute. 2010.
- 인터넷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나의 책, 나의 인문기행』, 2023.
<https://nl.go.kr/tour2021/contents/tour3010100000.do#>

「인간중심 AI교육을 위한 Embedded Ethics 모듈개발」

윤재욱 교원, 김원명 교원, 양선이 교원, 신찬수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AI는 공학의 한 분야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의 기술이자 인류 미래를 변화시킬 핵심적인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적 측면을 넘어서 공정, 자유, 신뢰에 관련된 윤리적 판단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AI윤리를 장기적 관점에서 AI개발자에게 교육시키기 위하여 2017년부터 컴퓨터과학 과목에 철학, 윤리학적 개념을 융합한 embedded ethics 교육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다양한 대학교에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외대는 AI융합대학을 신설하고 AI관련 교육과 연구를 다양한 분야로 확산시키고 있다. 따라서 외대에 적합한 Embedded Ethics 모듈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학과 인문학 및 철학분야 전문가가 함께 융합적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AI윤리에 대한 대학 교육과정 개선

목적: AI윤리 주제는 공학, 인문학, 사회과학의 독자적 연구로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할 수 없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AI/데이터사이언스 분야 교수들과 철학, 윤리학, 사회과학 분야의 교수들이 함께 모여 대학교육에서 AI윤리를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는지를 토의하고자 한다. 특히 현시점에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embedded ethics 관점을 한국외대 AI/데이터사이언스 교과목에 도입할 수 있는 기초적 연구와 토의를 진행한다.

3. 연구 진행 내용

3.1 인간적인 미래

(산업경영공학과 윤재욱교수)

“가장 인간적인 미래”는 윤송이 박사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에 관심이 있는 석학들과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여 출간한 책이다. 컴퓨터공학, 정치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AI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력을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이 책에서 언급된 Embedded Ethics의 개념이 현 시점에 대학교육에 매우 중요한 이슈임을 직시하여 본 연구모임을 기획하였다. 따라서 이 책의 핵심적 내용을 요약하고 해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3.1.1. 인류의 과제: 가장 인간적인 인류를 위하여 (엔씨소프트 윤송이)

온라인 게임업체 임원인 윤송이 박사는 게임에 등장하는 히어로 캐릭터의 절대다수가 남성임을 의아하게 여겨 “히어로 캐릭터 성별 비율을 같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개발자들에게 던졌다. 이에 대한 답변은 상상하지 못한 “왜 그래야 하죠?” 였다. 이러한 반문에 당황하였지만 사실 “왜 성별을 균형있게 맞추는 것이 좋은가? 왜 균형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에 대한 답변을 공학자인 본인도 명확하게 대답하기 힘들었다.

AI는 더 이상 컴퓨터의 한 분야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기술이자 인류사회 모든 측면에 연결하는 핵심요소가 되었다. 인류가 생산하고 축적해온 수많은 데이터에 기반해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을 학습하는 AI는 왜곡된 시선이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편견 혹은 나쁜 습관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AI에 대해 서로 끊임없이 묻고 부딪히며 길을 찾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AI기술 성장에 뒤 여 발생하는 공정, 자유, 신뢰에 관련된 범인류적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며, 무엇이 더 옳은 선택인지, 어떤 결정이 더 인간다운 것인지 대화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자세가 필요하다.

3.1.2. 신인류의 미래 (스탠퍼드대학 컴퓨터공학과 Dr, Fei fie Li)

AI기술 자체는 인류에게 기회일 수도 위기일 수도 있다. 기술개발 과정을 잘 다루지 못하면 위협이 되겠지만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초점을 둔다면 분명 AI는 인류사회 진보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AI는 컴퓨터과학의 하위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다중 이해자 관점으로 이해하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스탠퍼드대학은 2019년 인간중심 인공지능연구소(HAI: Human 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를 설립하여 컴퓨터과학 페이페이 리와 인문과학 존 에터먼디 교수가 공동소

장을 맡고 있다. HAI에서는 첫째, 공학을 넘어서 사회과학, 인문과학 등 서로 다른 학문 간 더 깊이 있는 융합을 통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AI의 영향력을 연구한다. 둘째, AI는 인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보강하고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데 힘써야 한다. 셋째, 학문의 경계가 무너질 때 AI는 발전한다. 인간의 신경과학과 인지과학에서 영감을 받아 미래를 위한 새로운 AI기술을 창조해 나아가는 관점을 지향한다.

AI시대의 정부는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미 정부는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혁신의 기폭제 역할을 해왔다.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정부의 역할로 국가 인공지능연구 클라우드 구축의 법적근거 제정하고, 정부가 AI기술발전에 충분한 양의 데이터와 컴퓨팅 인프라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기술의 탈선을 막는 가드레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알고리즘 편향성, AI의 잠재적 피해, 사생활 침해, 국제질서에 영향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술에 안전망을 마련하고, 기술이 상용화될 때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할 책임이 있다. 또한 여러 국가,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협력할 수 있는 글로벌 협력망을 촉진하여야 한다.

3.1.3. 피할 수 없는 딜레마

(스탠퍼드대학 정치학 Dr. Rob Reich)

AI기술이 우리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인류는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논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철학자, 윤리학자, 사회과학자의 역할은 AI개발자가 무엇인가를 발명하고 난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AI개발자들과 함께 디자인 단계 혹은 아이디어 초기 단계부터 윤리적 문제, 민주주의적 사고방식 및 제도와 상호작용에 대한 질문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윤리과 기술의 딜레마에 균형을 잡는 프레임이 필요하다. 모든 규제 및 윤리지침이 기술 혁신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거부하려는 자유주의 선봉장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여야 하는가? 우리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얼굴인식 기술이 거리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식별해 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어떤 관점이나 질서도 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인류로서 함께 얽혀 있는 모두가 각자의 관점을 보태 새 시대의 윤리적 기준을 통합적으로 정립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다.

생명윤리(bioethics)는 생물학 지식과 인간의 가치체계에 대한 지식을 엮는 새로운 학문이다. 1996년 체세포핵 이식을 통한 포유동물 복제가 성공해 Dolly가 탄생하면서 현대 생명과학기술 발전이 불러올 문제에 대한 철저한 윤리적, 법적, 사회적 고찰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다. AI시대의 윤리적 관점을 위한 교육을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긴 호흡으로 미래의 변화를 선도하는 대학의 역할이다. Embedded Ethics

는 철학, 윤리학 교육을 받은 사람과 컴퓨터공학 교수들을 짝 지워 학생들이 컴퓨터공학 뿐 아니라 윤리적 프레임워크 및 관련 질문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1.4. AI시대의 철학자들 (하버드대학 철학과 Dr. Alison Simmons)

AI시대에서는 인간은 무엇이고 기계란 무엇인지, 무엇이 둘을 정의하고 구별하는 요소인지, 인간을 위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감정은 무엇인지, 생명은 무엇인지 등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수 많은 개념과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2016년 컴퓨터과학 그로스 교수는 과제 종료 후 학생들에게 자신의 작업에 대한 윤리적 의미를 생각해 보았는지 질문하였고, 아무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대답을 받았다.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컴퓨터 과학자가 하는 일의 일부로 윤리적 추론을 포함시켜 생각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찾고 싶었다. 2017년 그로스 교수는 철학과 시몬스 교수와 함께 Embedded Ethics 교육 프로그램을 시도하였다. Embedded Ethics는 기존수업에 윤리적 관점의 모듈을 끼워 넣고 콘텐츠를 연과 짓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컴퓨터공학 전공수업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공부하는 내용에 관련되어 윤리적 이슈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려주고 경험하게 하였다. 학생들이 분리된 윤리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전공자가 익혀야 할 역량의 일부로 윤리적 추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교육한다는 것이다. 엔지니어에게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상황입니다. 컴퓨터 과학자는 보통 확실할 답을 원하지요, 하지만 철학자들은 확실한 답이 없다는 것에 익숙합니다. 컴퓨터과학자는 문제를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한 개념적 자원을 확보하고, 이러한 문제를 생각할 수 있도록 훈련 받은 다른 전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퓨터 과학자와 철학자가 개념적 자원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문제를 선명하게 정의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1.5. AI로 시작된 기술혁명에 대한 소고

ChatGPT의 등장은 AI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다시 한번 일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하였다. 알파고와 같이 이 또한 지나갈 에피소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호모사피엔스의 핵심적 특징인 추상적 개념인 언어를 AI가 이해하고 이를 생성할 수 있는 일은 인류의 작업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인간적인 미래”에서 제시한 내용 중 가장 의미 있게 느껴진 부분은 AI는 더 이상 공학의 한 분야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는 AI기술이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를 지원하는 기술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AI기술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인문학, 사회과학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여야 하는 진정한

융합적 커뮤니티로 발전이 필요하는 것이다. 또한 AI기술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고민하여야 하는 단계가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와 국제 기구의 개입이 시작되었으며, 이들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각자의 이익과 손실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논리는 전개할 수 있는 점이다. AI기술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핵심적 기술로 정착하고 있다. 우리대학에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윤리적 추론력을 지닌 AI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Embedded Ethics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3.2 윤리적 인공지능의 가능성

양선이(미네르바 교양대(글로벌) 교수)

3.2.1. 도덕적 행위주체가 되기 위한 조건

이 연구에서 나는 미래에 인간과 공존할 윤리적 인공지능을 위한 이상적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윤리적 인공지능 설계 초기에 공학자들과 윤리학자들은 인공지능에 윤리적 규범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해 구체적 윤리 이론을 주입하는 ‘하향식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주입하는 사람(공학자, 윤리학자)의 취향에 따라 공리주의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의무론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프로그래밍하는 사람의 선호도에 따라 서로 다른 원리를 넣었을 때 인공지능은 과연 어느 쪽을 선호할까 하는 문제가 있다. 또 공리주의 원칙과 의무론 원칙이 충돌하였을 때 인공지능이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인간이 경험을 통해 윤리와 법을 배워 가듯이 인공지능의 윤리화도 경험적인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 ‘상향식 방법’을 도입했으나 이것도 상황마다 윤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면 윤리적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도덕 원리를 따지는 것보다 인간이 도덕적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듯이 인공지능이 도덕적 행위 주체가 될 수 있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현재 학계에서 도덕적 행위 주체로서 인공지능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논의되는 첫 번째는 ‘인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17세기 영국 철학자 존 로크에 따르면 인격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기억’할 수 있고 ‘신체를 가진 존재’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그래야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에 책임 귀속이 중요한 이유는 인공지능이 가상세계에만 머물러 있다면 가상세계에서 책임을 지면 되지만 현실 세계에서 활동한다면 현실 세계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현실 세계 통제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사람에게 부여된 인격과 같은 인격을 인공지능에 부여할 수 없기에 대안으로 ‘전자인격’ 부여가 논의된다. 전자인격은 도덕적 대우와 관련된 인

격의 의미가 아닌 법적인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인격이다.

도덕적 행위 주체로서 인공지능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거론되는 두 번째는 '자율성', 또는 '자유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의지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힘'으로,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그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 귀속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하지만 '자유의지'의 존재는 철학에서도 논란이 되는 주제이며, 벤자민 리벳(Benjamin Libet 1916~2007)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험(1970)을 통해 증명할 정도로 '자유의지'라는 것의 존재조차 확실하지가 않다. 따라서 인공지능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인격은 책임 주체에게 부과되는 권한인데, 흔히 법적 인격과 도덕적 인격을 동일시하는 때도 있지만 이 둘은 일치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왜냐하면,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이 동시에 부과되는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도덕적으로 비난받기는 하지만 법적 책임은 면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윤리적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인격'은 법적인격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 인간과 공존할 인공지능이 단순히 인간의 대리인(agency)을 넘어 '행위 주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법적 인격뿐만 아니라 도덕적 인격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도덕적 인격을 갖기 위한 조건으로 1) 합리성,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2) 쾌·고 감수능력이나 3)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해진다. 1)의 경우 현재 인공지능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지만, 2)와 3)까지 갖게 되었을 때 인간과 유사한 도덕적 주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인공지능이 2)와 같이 쾌락과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갖게 되는 시점을 '특이점'으로 보며, 이 시점과 관련하여 윤리적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ChatGPT가 불러일으킨 생성형 인공지능에 주목하고 있다. 작년부터 대중매체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과 사회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다양한 보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EU OECD, UNESCO, IEEE, 미 백악관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특이점'을 지난 강한 인공지능이 도래할 가능성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고 이와 관련하여 윤리적 인공지능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SF영화에서는 특이점을 인공지능이 '감각질(퀄리아 qualia)'을 갖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

3.2.2. 인공지능이 퀄리아(Qualia)를 갖게 될 때

철학자들은 주체가 의식적 경험을 할 때 갖게 되는 고유한 정신적 특성을 의식의 본질

이라고 말한다. 미국의 현대 심리철학자인 프랑크 잭슨(1980)은 물리적인 것으로 환원할 수 없는 의식의 고유한 사적인 특성을 감각질(퀄리아qualia)이라고 하면서 감각질은 1인칭적 즉 나만이 접근할 수 있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토마스 네이글(Thomas Nagel, 1937~)이 ‘박쥐가 된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일까?’의 사고실험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박쥐의 경험을 우리의 세계에서 상상할 뿐 직접 겪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다. 그렇다면 미래에 등장할 고도로 발달한 강한 인공지능에게 ‘감각질’이 있을 수 없다고, 그들이 표현하는 감정은 물리적인 데이터연산일 뿐이라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을까?

빅데이터 젤웨어에서 처리되어 표현되는 감정은 인간의 뇌에서 처리되는 감정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좀 더 기계적이고 차가울 것이라 상상할 뿐 알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것을 본떠서 만든 인공감정에까지 그 의미를 확장해야 할 것이다.

공학자들은 찰스 다윈의 제자 폴 에크먼의 얼굴표정 부호화 시스템(Facial Action Coding System, FACS)에 따라 감성로봇 구현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프트뱅크의 ‘페퍼 로봇’의 경우 얼굴표정부호 시스템에 따라 기본적인 감정(화, 공포, 역겨움, 기쁨, 슬픔, 놀람)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페퍼 로봇의 경우 플러치 ‘색상환 원리’에 따라 기본적인 감정을 섞어 ‘죄책감’ 같은 복잡한 도덕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

나는 미래에 인간이 인공지능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도덕 감정을 프로그래밍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인공지능이 도덕 감정을 가질 수 있는지는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지만, 우리가 연구해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나는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 인공지능이 어떻게 감정을 가질 수 있을지,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상상해 보기 위해 수업 시간([인공지능과 마음])에 SF 영화를 소개한다. 이미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영화 <엑스 마키나>의 주제도 인공지능이 ‘감정’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튜링 테스트’가 7차까지 진행되며 4차 테스트에서는 위에서 말한 ‘퀄리아’ 문제를 다룬다. 주인공 껄렘은 인공지능 에이바가 의식은 가져도 퀄리아를 갖지 못하기에 감정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영화의 끝에는 인공지능이 감정을 가져 인간에게 ‘증오심’ 때문에 복수를 하는 것으로 끝난다. 최근 영국에서 히트를 친 드라마 <휴먼스>의 주제도 인공지능이 감정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인간과 공존할 수 있을까이다. 거기서 주목할 점은 인공지능 제작사의 이름이 ‘퀄리아’이다. 이 드라마에서는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맞이하는 시점을 퀄리아를 갖는 시점으로 본다. 그만큼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 감정을 갖게 되었을 때를 상상해 보고 대비해야 한다.

3.2.3. 도덕 감정

인공지능이 도덕적 감정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인간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감정을 갖고 인간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뇌 과학자인 안토니오 다마지오(Antonio Damasio)의 뇌 과학 연구나 조슈아 그린(Joshua Green)의 도덕적 뇌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도덕적인 행동을 위해서는 정서적인 뇌가 작동해야 하고 행위의 동기가 되는 것이 이성이라기보다 ‘감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삶의 과정에서 배우고, 고치면서 감정의 ‘적절성’을 깨달아 간다. 미래에 등장할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인간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적 관습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이 어떤 것이며 그와 관련하여 인간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며 등등을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느낌에 공감하는 능력은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많은 상황에서 도덕적 판단과 분별 있는 행동을 위한 선결 조건이다. 도덕은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선한 행동이 필요하며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의 의도와 필요에 대한 ‘민감성(sensitivity)’ 때문에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감이 중요하다.

공감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는 도덕적 추론을 시작하는 것조차 힘들기 때문에 도덕적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감을 내포해야 한다.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그의 환자들의 실험에서 비도덕적, 비사회적 행동의 근거를 감정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임을 밝혔다. 조너던 하이트(Jonathan Haidt)는 그의 논문 「감정적 개와 이성적 꼬리」에서 도덕적 행동의 동기가 직감이며 추론은 후에 그것의 정당화 작업에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조슈아 그린은 ‘이중과정 이론’에서 트롤리 딜레마와 달리 자신이 도덕적 행동에 직접 개입하는 육교 딜레마의 경우 도덕적 행동은 ‘죄책감’과 ‘동정심’과 같은 정서와 관련된 뇌가 활성화됨을 밝혔다.

따라서 인간과 공존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덕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려면 감정의 적절성을 깨달을 수 있게 프로그래밍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웃기는 상황에 대해 웃는 반응을 하는 것과 상황에 따라 웃는 것과 웃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무엇이 어떤 감정을 도덕적으로 만드는가는 그와 같은 감정을 가진 인간이 평가해 가는 실천적 삶의 역사에 달려 있다. 이것은 영화 <아이, 로봇>(월 스미스 주연, 2004)에서 인공지능 로봇 ‘써니’가 스누프 형사에게 ‘윙크’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듯이 윙크의 의미가 인간 간의 유대감, 신뢰감을 표시하는 방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삶을 통해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감정은 그렇게 느끼는 것이 그 상황, 그리고 그 맥락, 그 문화 속에서 적절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웃김, 역겨움, 창피함, 등등을 발견한다. 공동체가 공유하는 감정과 판단에 의해 부과된 사

회적 강제를 통해 우리는 반성과 숙고를 하게 되고 서로 다른 공동체가 공유한 서로 다른 역사가 수치심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을 확립한다.

책임 귀속을 관행 속에서 유동적으로 변하는 일종의 맥락으로 보는 이러한 입장은 자율성, 과거 지향성을 강조하는 기존의 책임 개념에서 벗어나서 도덕적 능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잘 설명할 수 있다. 나는 책임 귀속은 전통 철학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나 자율성에 따른 선택에 귀속되는 것이라기보다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관행'과 그에 따른 사람들의 '감정의 문제'라고 본다. 즉 책임은 인간이 사회를 이루며 살면서 서로에게 반응하면서 갖게 되는 기대 때문에 필요한 것이며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 관행이다. 전통 철학에서는 책임은 자율성을 가진 존재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율성'이 무엇인지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자율성을 가진 주체 간에만 책임 귀속이 가능하기에 인간과 인공지능 간에 책임 관계가 성립하는가의 문제도 발생한다. 하지만 책임을 행위 주체 간에 '반응적 태도'로서 사회적 관행이라고 보면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인공지능의 도덕적 책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 귀속이 사회를 이루며 살면서 서로에게 반응하면서 갖게 되는 기대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고 보면 인공지능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 귀속을 위한 길을 열어 준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 귀속은 공리주의적으로 또는 의무론적으로 판단하여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행에 따라 '분산된 책임'이 가능하다. 분산된 책임이란 플로리다(Florida 2013, 2016)가 제안한 것으로 인공지능이 도덕적, 법적 문제를 일으켰을 때의 책임을 분산된 행위자 모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사람을 치었을 때 자동차의 기계적인 시스템 제작자나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영을 허가한 정부의 교통정책 입안자 등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개입한 모두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을 할당해야 하는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한 행위자에게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럿에게 분산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3.3 Embedded Ethics와 최한기(崔漢綺)의 기학(氣學)

김원명(철학과 교수)

3.3.1. 디지털 시대의 지구적 위기와 과학기술의 윤리

현대의 고도화된 과학기술의 힘은 이제 인간 너머에 있는 것 같아, 두렵기도 하고 공경스럽기도 하다. 21세기에 이런 과학기술의 진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인가? 철학자들은 보통 인간과 세계 그리고 인간과 사물에 대한 인식에 대한 근대의 철학적 통찰의 결과로 이해한다. 즉, 근대철학에서 시공간은 절대적인 시공간이고, 사물은 인간과 분리해

인간의 편의를 위한 도구적 존재자로 인식했다. 그런데 근대가 낳은 과학기술문명의 결과로서 현대사회의 제반 위기 상황과 통찰은 근대적 통찰을 전복하길 요구하고 있다. 현대적 통찰은 근대적 시공간의 이해도 도구적 존재자로서의 사물 이해도 전복하기를 요구한다.

근대적 사유 틀에서는 인간과 자연, 문화와 자연은 이원적이다. 그러나 이런 이원론적이고 분열적인 사고틀로 근대 이후 과학기술이 고도화되고 그 과정에서 전 지구적 차원의 생태위기와 기후위기가 발생했다는 주장들이 있다. 과학기술은 실제로 이원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시대에도 없었던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생태위기와 기후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근대적 사유틀에 묻는 이들이 있다. 어떤 이들은 1945년 원자 폭탄의 단추를 누르는 엄지손가락 하나가 전 지구적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파괴력을 지닌 시대가 시작되었다고도 한다. 근대 이후의 과학기술 발달은 점점 속도를 내다가 이제는 초고속으로 발달하면서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시대를 낳고 물질개벽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의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이 지구 전체에 아주 빠른 속도로 영향을 미치며 지구를 살릴 수도 파괴할 수도 있는 기로에 선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이 모든 과학기술자들은 이제 과학기술만을 고민하고 과학기물을 발명하고 제작하는 것을 넘어서, 인류 자신과 지구 전체를 함께 생각하며 그것이 지구와 인류 생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며 기술을 개발하고 과학기물을 발명하고 제작해야 하는 당위성에 직면했다.

근대 이후 서구에서 발명한 증기기관으로 시작된 지난 150여년 동안의 산업시대에 기관에서 내뿜는 탄소배출 가스가 지구 전체 대기에 영향을 미쳐왔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기후위기, 생태위기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주장들도 있다. 디지털시대의 과학기술이 만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적 인공세계는 인간지능과 아날로그적 자연세계인 지구 전체 세계에 영향을 미치도록 연결되어 있어 또 다른 위기를 예견하고 걱정하는 주장들이 있다. 이것이 어떤 힘을 발휘해 얼마만큼 지구에 또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견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예견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다. 고도화된 과학기술은 과학기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생존가능한 상태의 지속이 가능한 지구에 미칠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과 그 발명품들은 인류 생존의 문제와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에 깊은 영향을 주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되었다.

지구인문학에서는 사물은 단지 사물이기만 하거나 사물은 단지 인간의 도구적 존재로 여겨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물은 인간과 지구 내 다른 존재자들과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¹⁾ 차크라바르티는 지구(글로브)에 대한 행성(플래닛) 개념으로, 라투르는 러브록의

1) 올리히 벡 지음, 조만영 옮김, 『지구화의 길: 새로운 문명의 가능성이 열린다』, 거름, 2000 참조; 토마

가이아 개념으로 근대를 전복하는 주장을 했다. 모든 사물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한 도구로서만이 아니라 다른 존재자에게 영향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사물은 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되었다고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인공지능의 그 힘과 영향력 때문에 임베디드 에식스[Embedded Ethics] 교육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버드대, 스탠포드대의 인간중심인공지능 연구소는 몇 년 전부터 이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정부 관계부처 합동 보고서에서 과학기술 가운데 가장 첨예한 분야인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의 실현 전략’을 보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인공지능을 깊이 들여다 보면, 인공지능이 지구 전체의 기후 환경과, 인류 전체에게 미칠 수 있는 막대한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오히려 인공지능을 인간과 동일한 위상의 주체는 아니더라도 인간과 같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성의 주체로 인식하고 인간과 공통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이란 말을 붙인 하버드와 스탠포드의 연구소 이름은 여전히 서구 근대 문명의 인간중심적 패러다임 속에서 하는 말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는 문제의 핵심은 ‘모든 과학기술의 윤리’ 문제로서, 인간사와 자연사를 통일적이고 연속적인 것으로 이해하면서 포스트휴먼적 패러다임으로 다시 정립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임베디드 에식스[Embedded Ethics]’를 ‘모든 과학기술의 윤리’로 이해한다. 현재 한국 학계에서는 ‘내장된 윤리’, ‘내재된 윤리’, ‘구비된 윤리’ 등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임베디드 에식스는 결국 고도화된 과학기술 시대에 디지털과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미칠 영향과 지구적 차원에 미칠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고려해 어떤 고도화된 도구를 설계, 제작하고 발명할 때, 그 도구와 도구 제작자의 윤리성을 언제나 고려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강조되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모든 교과를 지구와 인간 전체를 고려한 윤리를 반영해 교육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나는 ‘임베디드 에식스[Embedded Ethics]’를 ‘모든 과학기술의 윤리’로 해석해 이해한다.

디지털 시대의 인공지능이 가진 범용기술로서의 가치를 강조한, 미국의 스탠포드대학 앤드류 응(Andrew Ng) 교수는 “인공지능은 새로운 전기(AI is the new electricity)”라고 언급한 다.²⁾ 그런데 인공지능은 그 보다 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력한 힘(power)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인공지능은 지구의 역사에서 전례 없는 사물이다. 인공지

스 베리 지음, 맹영선 옮김, 『지구의 꿈』, 대화문화아카데미, 2013 참조; 클라이브 해밀턴 지음, 정서진 옮김, 『인류세: 거대한 전환 앞에서 선 인간과 지구시스템』, 이상북스, 2018 참조; 제임스 러브록 지음, 홍옥희 옮김, 『가이아: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지구』, 갈라파고스, 2018 참조; 송은주, 「포스트휴머니즘과 인류세」, 『HORIZON』 (온라인), 2020.3.16 참조; 이우진, 「지구위험시대에 따른 교육의 방향 전환: '세계시민주의교육'과 '생태시민교육'을 넘어서 '미래생존을 위한 교육'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9집, 2021 참조.

2) 관계부처 합동,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안]」, 2021, 요약, 2쪽 참조.

능은 이전의 인류 역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아니 더 나아가 자연을 포함한 지구의 역사에서 그 어떤 사물과도 비교될 수 없는 위상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전례 없는 사물을 우리 인류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인공지능의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경험하기도 전에 제인 베넷(Jane Bennett)은 『생동하는 물질』³⁾의 마지막 부분에서 “비인간(nonhumans)을 인민(demos)으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제인 베넷, 96쪽)는 주장을 한다. 또 베넷은 같은 책에서 “물질의 힘들은 우리를 돕거나 파괴하고, 풍요롭게 하거나 손상시키고, 고귀하게 하거나 타락시킬 수 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주의를, 심지어 ‘존중’을 요청한다.”(제인 베넷, 11-12쪽)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계들의 활동은 단순히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그 활동이 인간에게 그리고 지구 전체에까지 재앙이 될 수도, 축복이 될 수도 있는 힘과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인간중심적 차원에서만 이 세계와 이 세계의 사물을 바라본다면, 사물의 힘을 대충 넘겨보게 된다. 사물의 힘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인공 사물에 기대지 않고서는 한 순간도 살아가기 어렵다. 베넷은 인간과 사물의 공통 요소를 힘으로 보았다. 우리가 인간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 여겼던 사물의 힘과 인공지능의 힘은 이제 우리 인간의 외경(畏敬) 대상이 되었다. 디지털 시대의 지구학적인 정치적 고민, 윤리적 고민은 인류의 정신개벽을 요구한다.

3.3.2. 최한기의 기철학적 세계관

최한기(崔漢綺, 1803~79)의 기철학적 세계관 틀 속에서 기계와 도구를 제조하는 것은 인간 삶을 넉넉히 하는데 있는 것이다. 농업사회에 기반한 최한기 기철학을 오늘날 정보사회의 디지털 환경이 일반화된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임베디드 에식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고자 한다. 오늘날의 기계이자 도구는 인공지능이고, 인공지능도 여전히 인간 삶을 넉넉히 하고 이제는 지구환경을 넉넉히 하는데도 일조하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면에서 최한기의 기철학적 세계관과 그 결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인공지능이 인간 삶은 물론이고 지구의 자연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최한기는 자연-세계-기술의 세계가 하나로 통합된 차원을 가리키는 ‘일기운화(一氣運化)’의 기학을 정립했다. 최한기는 조선 시대의 농업사회를 모델로 그의 기학을 구성했다. 그런데 그는 서양에서 청으로 몰려오는 서양의 과학을 알고 있었다. 일찌감치 그는 공업사회의 도래를 예견했던 듯하다. “크게는 우주운화(宇宙運化)의 기가 있으니, 역수(曆數)

3) 제인 베넷 지음, 문성재 옮김, 『생동하는 물질: 사물에 대한 정치 생태학』, 현실문화, 2020; 원저는 Jane Bennett, *Vibrant Matter: A Political Ecology of things*, Duke University Press, 2010.

를 정리하여 그 대강을 제시함이다. 다음으로 인민운화(人民運化)의 기가 있으니, 정교(政敎)를 닦고 밝혀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작게는 기용운화(器用運化)의 기가 있으니, 책을 지어서 간직하고 기계와 도구를 제조하여 백성의 쓰임을 넉넉히 하는 것이다. 이것을 합하면 일기운화(一氣運化)가 되고, 나누면 삼기운화(三氣運化)가 된다. (...) 이것이 '기학(氣學)'이다."(『기학』, 168-9쪽)

청을 비롯한 동아시아로 몰려오는 서양의 과학을 동아시아의 기학적 세계관 안에 '기용운화(器用運化)'라는 개념으로 수용했다. 그는 도구를 만드는 기술과 그 활동이 자연의 운행인 '우주운화(宇宙運化)'에 그리고 인간의 정치와 사회의 운행인 '인민운화(人民運化)'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다. 최한기는 차크라바르티(Dipesh Chakrabarty, 1948 ~)가 '인간사가 자연사에 영향을 주며 얽혀 있다'고 본 것처럼, 하나의 기로 이 모두가 얽혀 있다고 본 것이다. 또 라투르(Bruno Latour, 1947 ~ 2022)의 '행위자 네트워크' 개념에서 자연-사회-기술이 독립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분리된 적이 없다⁴⁾고 한다. 합하면 '일기운화(一氣運化)'고 나누면 '삼기운화(三氣運化)'라는 최한기의 통합적인 기학적 세계관은 라투르의 '행위자 네트워크' 개념과 닮아있다.⁵⁾

근대철학을 열었다는 데카르트는 좌표축을 발명했고, 과학자들이 이것으로 물체의 운동성을 표시했다. 가로축은 시간을 세로축은 거리를 표시했다. 물체의 매순간의 위치 표시를 좌표로 할 수 있었다. 이 좌표축은 시공간 상 사물의 운동성을 드러내는데 성공하고 있지만, 그 외 요소는 제외되어 있다. 기철학적 세계관에서 사물은 다른 사물들과 기를 주고 받는다. 기의 교환과 변화를 겪는다. 인간의 산업활동과 자연개발은 데카르트식 좌표축에서는 놓치게 되는 생태위기와 기후위기를 낳게 된 것이다. 임베디드 에식스는 좌표축 이상의 이런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통찰 교육이 되어야 하고, 기철학적 사물론, 인간론, 존재론, 세계론 이해가 이에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 공학과 인문학 분야의 융합적 시각에서 연구 및 교육 전략 제시
- AI융합대학 등 새로운 영역에서 필요한 AI윤리에 대한 방향성 제시
- 컴퓨터공학 및 다양한 AI/데이터사이언스 관련 과목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윤리적 관점 역량 강화를 위한 embedded ethics 프로그램 개발
- 해외 우수 embedded ethics 관련 교수 및 학생들과의 연계활동
- Embedded ethics를 포함한 수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한 연구논문 작성

4) 브뤼노 라투르 지음,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홍철기 옮김(2009), 갈무리 참조.

5) 조성환 지음(2023), 『K-사상사』, 다룬백년, 50-2쪽 참조.

5. 교수법 연구모임의 효과 및 제언

공대교수들과 철학과 교수들이 AI윤리에 대해서 토의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유용하였습니다. 또한 연구 중 교육부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 사업에서 “디지털시대의 규범과 가치” 주제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어문학과 경영학 교수들과 함께 토의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특성상 한 학기에 실제 교과목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결과물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제의 특성에 따라 더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 한국어 번역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 방안 연구 모임 」

이가원 교원, 서경혜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습자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대학에서 글쓰기 능력은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어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한국어 통·번역을 전공하는 외국인 학습자는 단순히 의사소통으로서의 한국어 능력뿐 아니라 담화맥락에 적합한 번역 글쓰기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고급한국어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어 글쓰기를 매우 어려워하고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글쓰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호작용 활동으로 동료 피드백 활동 방안을 연구하고 적용하여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 향상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결과를 활용해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번역 글쓰기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번역 글쓰기 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 (1) 한국어 번역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 방안 연구 모임을 통해 실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연구한다.
- (2) 연구 내용을 수업에 적용하여 예비 한국어교원 및 한국어 통·번역가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한국어 글쓰기 방법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 (3) 실제 학습자들의 한국어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요구도 및 이해도 등을 학습자 요구 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수업 목표를 구체화한다.
- (4) 동료 피드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한국어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수업 방안을 구성한다.
- (5) 동료 피드백을 통한 한국어 글쓰기 수업은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하고 한국어 글쓰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자연스럽게 정확한 한국어 통·번역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주제: 한국어 번역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 방안 연구

- 소주제 1.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글쓰기 현황 및 문제점 고찰
- 소주제 2. 효율적인 한국어 번역 글쓰기 교수법 연구

목적: 한국어 번역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 방안 연구 모임을 통해 실제 적용 가능한 구체적 교육 방안 연구

- 목적 1. 한국어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법 내용 선정 및 이론 정리
- 목적 2. 학습자 요구 조사를 통한 글쓰기 교육 목표 선정 및 교수법 적용
- 목적 3. 동료 피드백을 활용한 한국어 번역 글쓰기 교수법 제안

3. 모임의 운영 내용

3.1. 운영내용1

(1) 외국인 대상 한국어 번역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 방안 연구 진행 방향 논의
- 현황 및 문제점 / 연구 방향

1) 현황 및 문제점

- ① 한국어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한국어 통·번역을 전공하는 외국인 학습자는 단순히 의사소통으로서의 한국어 능력뿐 아니라 담화맥락에 적합한 번역 글쓰기 능력을 길러야 한다.
- ② 한국어 통·번역을 전공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대다수는 아직 고급한국어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어 글쓰기를 매우 어려워하며 자신감의 결여로 수업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실정이다.
- ③ 실제 외국인 대상 한국어 글쓰기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교수의 피드백을 받아도 피드백 내용에 대한 이해와 글쓰기 능력 부족으로 이 피드백을 반영하여 실제 한국어 글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미흡하다.
- ④ 한국어 번역 글쓰기 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글쓰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2) 연구 방향

- ① 한국어 번역 글쓰기 수업은 단순히 의사소통으로서의 한국어 능력뿐 아니라 담화맥락에 적합한 번역 글쓰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② 교수 피드백과 더불어 팀프로젝트로 시행하는 학습자 간 동료 피드백 활동은 학습자를 한국어 글쓰기 수업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할 것이다. 이는 한국어 글쓰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 ③ 학습자가 직접 동료의 글을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글쓰기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이를 적용하여 자기의 글쓰기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학습자 요구 조사를 반영한 한국어 글쓰기 수업을 구성하고 진행한 후, 결과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한국어 번역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외국인 대상 한국어 글쓰기 능력 향상에 바탕이 되는 연구 및 이론 정리

1) 동료 피드백의 정의와 목적

- ① 동료 피드백은 학습자가 어떤 수행이나 기준과 관련된 대화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과정이며, 학생들에게 수행과 평가의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의 학습 과정에 참여하고 모니터링하도록 이끄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 ② 동료 피드백의 목적은 학습자가 서로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동료 피드백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은 후 그 결과를 교수자와 공유하여 이를 다시 전체 수업에서 논의하는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다.

2) 동료 피드백 효과에 대한 연구

- ① 동료 피드백을 받는 것의 효과에 대한 연구 내용
 - 학습자 글쓰기의 질이 동료 피드백을 참조하면서 개선됨
 - 교수자 평가에 앞서 글의 오류를 찾아내고 수정하는 데 도움
 - 준거, 평가 기준을 정확히 인식하여 글에 대한 객관성을 갖게 함
 - 스스로의 수행 과정과 진척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함
- ② 동료 피드백 제공자에게 주는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 내용
 - 동료 피드백을 위한 글의 검토과정에서 독자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됨
 - 좋은 글의 준거, 기준을 내면화할 수 있게 됨.
 - 타인의 글을 관찰하는 것이 본인의 글쓰기 학습에 도움이 됨
 - 피드백을 주는 검토의 과정에서 독자 혹은 평가자의 관점을 더 깊이 이해

- 글의 검토 과정에서 평가, 성찰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수행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학습동기 역시 제고됨

3) 동료 피드백의 성공적 운영 원리

- ① 학생들의 피드백 활동을 안내할 수 있는 구조화된 평가 양식을 사용
- ② 모든 학습자가 피드백의 제공자이자 수용자가 되게 구성
- ③ 피드백의 제공에 대한 정서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게 구성
- ④ 단순한 오류 지적에서 나아가 설명하기와 대안 제시하기와 같은 질 높은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촉진하는 수업으로 설계
- ⑤ 피드백에 수반되는 시간과 노력, 면대면 수업의 시간적 제약 등을 극복하기 위한 LMS의 <팀프로젝트> 적극적 활용 고려
- ⑥ LMS의 <팀프로젝트> 활용은 하나의 글에 대해 여러 명이 동시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 ⑦ 다양한 관점을 얻도록 하는 소집단 동료 피드백 활동으로 수업 구성

3.2. 운영내용2 - 한 학기 수업 진행 후 수강생 대상 설문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수업 방안 제안

(1) 수업 내용 : 대상 수업 - KFL학부 <한국어번역글쓰기1>, <한국어번역글쓰기2>

- ① 수강생 : 총 64명
- ② 설문 조사 참여 인원: 60명
- ③ 학습자 요구 조사(실제 학습자들의 한국어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요구도 및 이해도)
- ④ 프로젝트팀 구성
- ⑤ 피드백 기준 제시 및 강의
- ⑥ 매시간 글쓰기 후 교수 피드백을 통한 피드백의 중요성 및 방법 이해
- ⑦ 팀프로젝트 활동 : 총 4회
- ⑧ 팀프로젝트 활동 내용 :
 - 과제로 제시된 글 쓰고 공유하기
 - 팀 동료의 글에 대해 피드백하기
 - 교수 + 동료 피드백 반영한 최종 글쓰기 제출
- ⑨ 동료 피드백 활동 후 결과 설문 조사

(2) 설문 항목 : 설문지 내용

<동료 피드백 관련 설문 조사>

1. 국적

- ① 중국 ② 일본 ③ 대만 ④ 베트남 ⑤ 우즈베키스탄 ⑥ 스페인 ⑦ 그 외

2. 한국어 공부 기간

- ① 1년 미만 ② 1년-2년 미만 ③ 2-3년 ④ 3년 이상

3. 한국어 능력(TOPIK 기준, 예> 3급(3급 취득 또는 3급까지 학습)

-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4. 이 수업에서 피드백 활동은 나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5 나의 글쓰기 능력 중 무엇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조사, 단어나 표현 등이 정확해졌다.
②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을 쓸 수 있게 되었다.
③ 주제문장과 보조문장을 이해하고 글을 쓰거나 읽게 되었다.
④ 문단의 개념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⑤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더 잘하게 되었다.
⑥ 기타

6. 생각을 동료에게 전하고 동료 생각을 듣는 과정이 나의 글쓰기에 도움이 된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7. 누가 피드백 했는지 알 수 있어서 피드백 활동에 책임감이 생긴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8. 동료들이 내 글에 솔직하게 피드백 해주면 좋겠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9. 피드백을 반복하면서 글을 수정하거나 조언하는 것을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0. 피드백을 준 동료가 누군지에 따라 수용할지 말지에 영향을 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1. 동료피드백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나의 글쓰기에 준 영향에 대해 자유롭게 쓰십시오.

12. 앞으로 동료 피드백 기회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싶은지 의견을 자유롭게 쓰십시오.

(3) 설문 조사 결과 및 분석

① 학습자 국적(수강생 중 설문 조사에 참여한 총 인원수 6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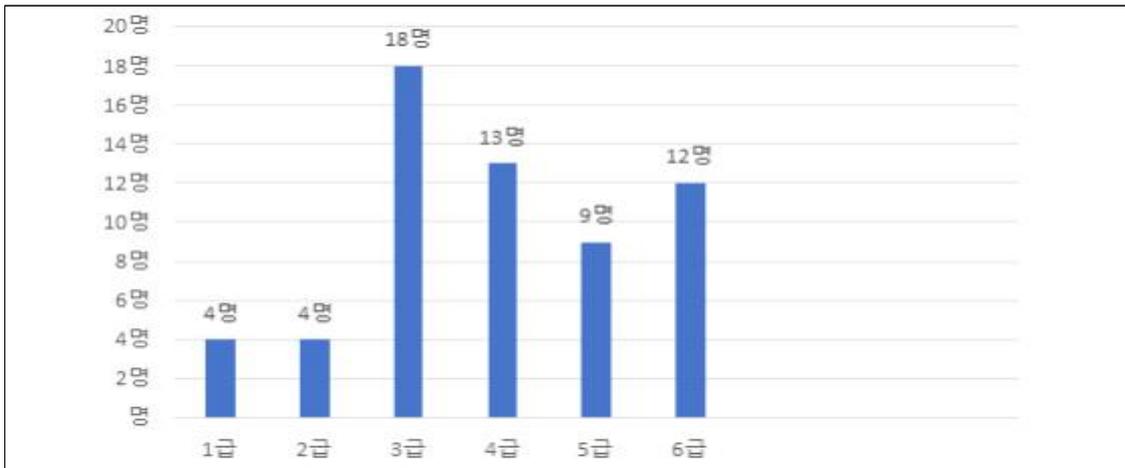
<표 1. 학습자 국적>

② 한국어 공부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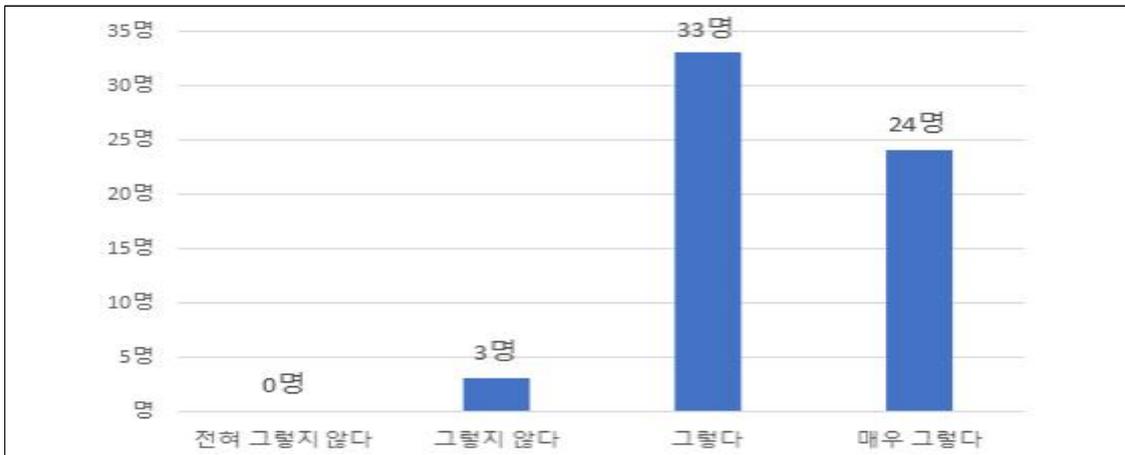
<표 2. 한국어 공부 기간>

③ 학습자 한국어 수준 (TOPIK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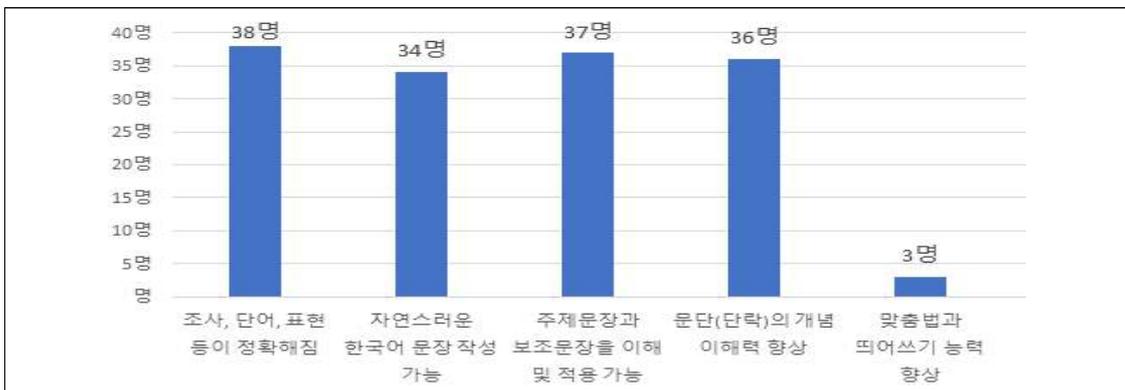
<표 3. 학습자 한국어 수준 (TOPIK 기준) >

④ 동료 피드백 활동 후 글쓰기 능력 향상 도움 정도



<표 4. 동료 피드백 활동 후 글쓰기 능력 향상 도움 정도>

⑤ 동료 피드백 활동 후 글쓰기 능력 향상 도움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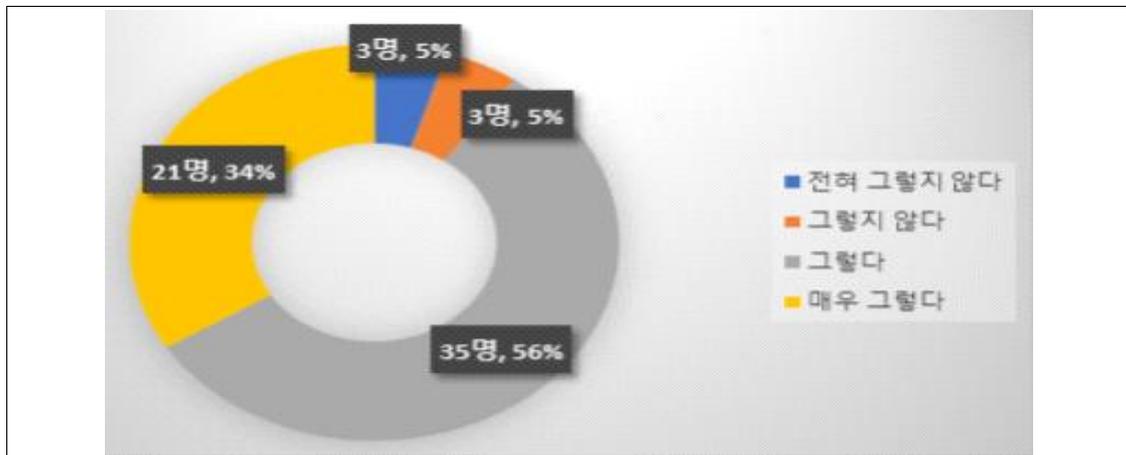
<표 5. 동료 피드백 활동 후 글쓰기 능력 향상 도움 부분>

⑥ 동료 피드백 과정의 글쓰기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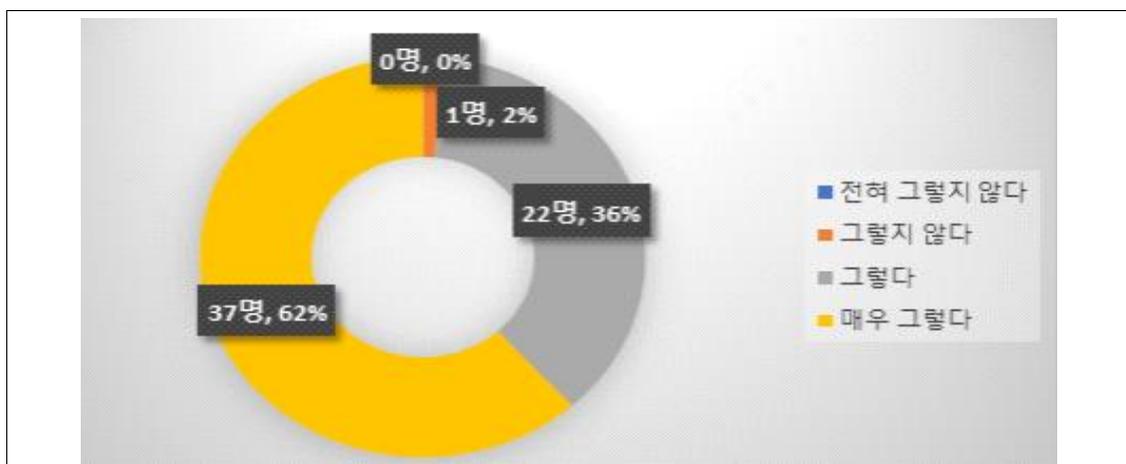
<표 6. 동료 피드백 과정의 글쓰기 도움 정도>

⑦ 피드백 제공자 공개와 책임감의 상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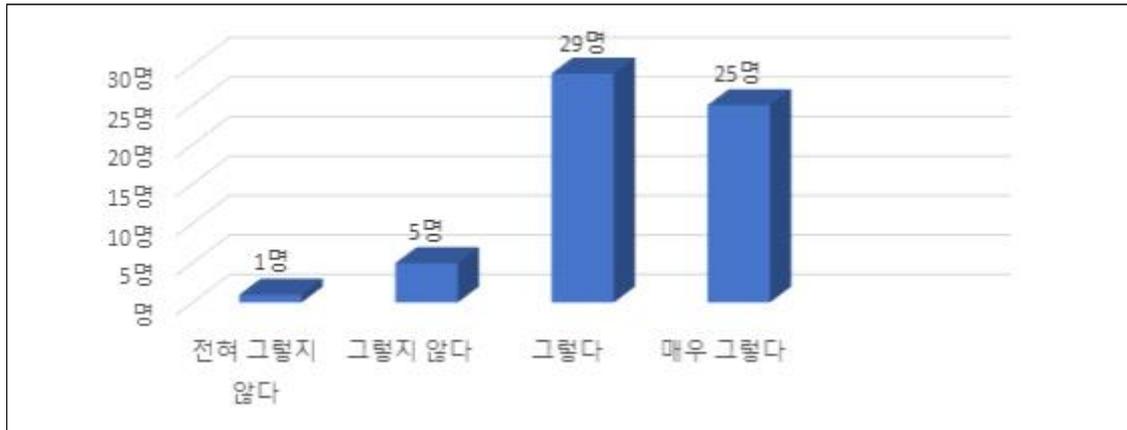
<표 7. 피드백 제공자 공개와 책임감의 상관성 >

⑧ 솔직한 피드백 요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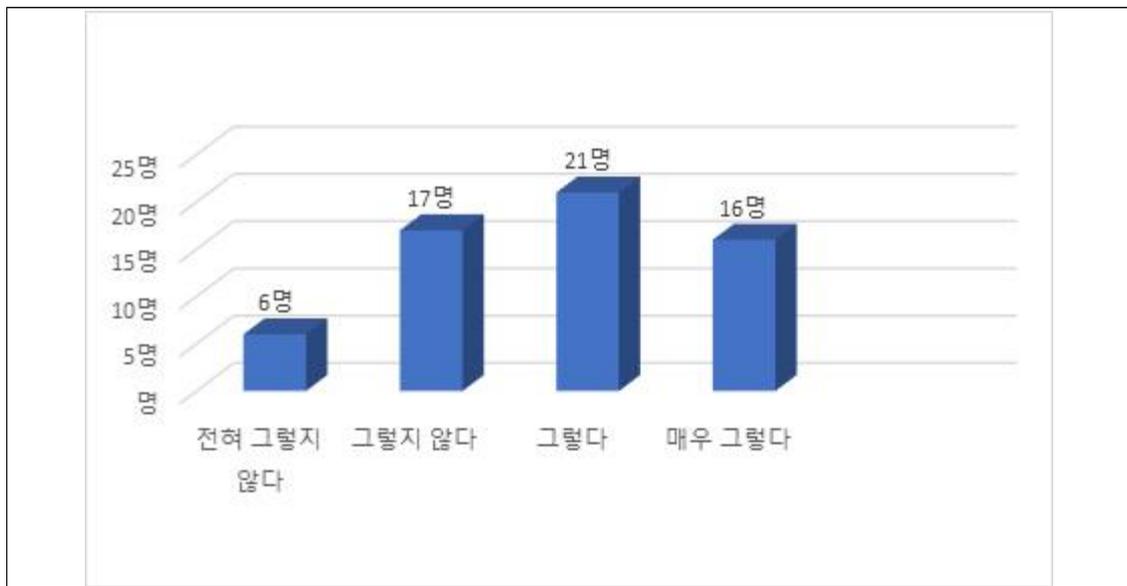
<표 8. 솔직한 피드백 요구도>

⑨ 반복적 피드백 과정을 통한 피드백 능력 향상도



<표 9. 반복적 피드백 과정을 통한 피드백 능력 향상도>

⑩ 피드백을 준 동료에 따른 수용 영향도



<표 10. 피드백을 준 동료에 따른 수용 영향도>

⑪ ∞ ⑫ 항목에 대한 학습자 의견 정리 :

동료 피드백 과정을 반복하면서 한국어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었다.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글의 실수를 찾아내고, 자신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상대방의 작문을 볼 수 있고, 같은 주제에 대한 다른 관점을 볼 수 있다.

나보다 한국어 실력이 좋은 사람의 글을 보고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피드백 기준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쓰게 되었다.

나의 첫 번째 팀은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참여하지 않아서 조금 섭섭했다. 그런데 팀을 바꾸고 나서 새로운 팀원을 만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받은 피드백을 통해 내가 어느 부분에서 더 신경 써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지 알게

되었다.

한국어 능력 차이로 적절한 피드백을 할 수 없어 아쉬웠다.

동료가 해준 피드백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처음에는 피드백이 어려웠는데 반복하면서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계속 동료 피드백 활동을 하고 싶다.

누가 썼는지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책임감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익명으로 함으로써 더 솔직한 조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수업 중에 직접 팀원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과제 수행이 수월해질 것 같다.

3.3. 운영내용3

▶ 결과 분석 요약 및 향후 수업에 대한 제안

- 수업 전 요구 조사 결과 한국어교육 및 통·번역 전공 외국인 학습자 중 다수의 학습자들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과목 중 쓰기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 한국어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한국어 통·번역을 전공하는 외국인 학습자는 단순히 의사소통으로서의 한국어 능력뿐 아니라 담화맥락에 적합한 번역 글쓰기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고급한국어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어 글쓰기를 매우 어려워하고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 본 연구에서는 동료 피드백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하고 한국어 글쓰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자연스럽게 정확한 한국어 통·번역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수업을 구성, 진행하였다.

- 동료 피드백을 활용한 팀프로젝트 운영 결과 '동료 피드백 활동이 글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 '그렇다'가 33명(55%), '매우 그렇다'가 24명(40%)으로 95%의 학습자가 동료 피드백이 글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는 '조사, 단어나 표현 등이 정확해졌다.'가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제문장과 보조문장을 이해하고 읽고 쓰기(37명), 문단의 개념 이해도 향상(36명),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력 향상(34명) 등의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정확성 향상(3명)도 소수가 응답이 했지만 다른 내용에 비해 영향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학습자들은 '피드백 활동 과정이 나의 글쓰기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57명(95%)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여 수업에서 진행한 동료 피드백 프로젝트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었다.

- '피드백 제공자를 알 수 있어서 피드백 활동에 책임감이 생기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54명(90%)이 피드백 활동에 책임감이 생긴다고 답했고 6명(10%)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여, 피드백 제공자가 누구인지 공개하는 것이 책임 있는 피드백을 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솔직한 피드백을 위해 익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어서 학습자 성향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 솔직한 피드백 요구도는 59명(98.3%)의 학습자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답하여 학습자들이 자신의 글에 대해 솔직한 피드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 밖에 54명(90%)의 학습자가 반복적인 피드백 활동으로 자신의 피드백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인식하였고, 누가 피드백을 했는지에 따른 피드백 수용도에 대한 질문에는 23명(38.3%)이 부정적 응답을 하였고 37명(61.7%)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피드백을 준 동료가 피드백 수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후 한국어 번역 글쓰기 수업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호활동인 동료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어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한국어 번역 글쓰기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수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4. 연구 결과 및 활용 방안

모임의 결과

- 한국어교육 현장의 한국어 번역 글쓰기 현황과 문제점 파악
- 외국인 대상 한국어 번역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법 연구 진행 방향 설정
- 한국어 번역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법 내용 선정 및 이론 정리
- 학습자 요구 조사 및 수업 운영 결과 조사 및 분석
- 향후 활용 가능한 효과적인 한국어 번역 글쓰기 교수 방안 제안

결과 활용 방안

- (1) 한국어 번역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 방안 연구 모임을 통해 실제 적용 가능한 구체적 교육 방안을 연구한다.
- (2) 연구 내용을 수업에 적용하여 예비 한국어교원 및 한국어 통·번역가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한국어 글쓰기 방법에 대해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 (3) 학습자 요구 조사를 통해 수업목표를 구체화하고 학습자의 참여도와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방안을 구체화한다.
- (4) 동료 피드백을 활용한 한국어 글쓰기 수업으로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하고 한국어 글쓰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자연스럽게 정확한 한국어 통·번역 능력

을 기를 수 있게 지도한다.

5. 교수법 연구 모임의 효과 및 제언

교수법 연구 모임에 대한 종합 평가

- 단기간의 연구였으나 평소 연구 필요성을 느끼던 공통 과제에 대해 동료 연구자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여 성과를 이룬 것에 의의가 있음
- 한국어교육 현장의 한국어 번역 글쓰기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업 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수업 방안을 제시한 성과가 있음
- 본 연구는 한국어 통·번역을 전공하는 외국인 학습자 대상 연구로서 대상 학습자의 한국어 통·번역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어에 대한 이해와 한국어 쓰기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봄. 동료 피드백 활동을 통해 정확하고 적절한 한국어 쓰기 능력을 기르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수업을 구성, 운영하였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함.
-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료 피드백 프로젝트 활동 방안을 모색하여 제안함으로써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번역 글쓰기 능력 증진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봄.

운영에 대한 제언

- 연구기간이 짧아 심도 있는 연구 진행이 어려우므로 연구기간을 방학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이라고 사료됨
- 학습자 간 한국어 능력 차이와 피드백의 적절성 문제가 있어 이후 적용에서는 학습자 간 한국어 능력 차이를 염두에 두어 그룹을 형성해야 함
- 적절한 피드백을 하기 위해 글과 문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피드백 기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동료 피드백 활동의 횟수를 늘려야 더욱 효과적이라 사료됨

「 ChatGPT를 활용한 번역 교육 수업 모형 연구 」

이상빈 교원, 지윤주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챗GPT가 국내 교육 분야에도 조금씩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아이폰 출시로 스마트폰 시대가 열린 것처럼, 챗GPT도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예측이 요즘 들어 부쩍 늘었다. 하지만 챗GPT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학자도 많다. 외국어 교육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좋건 나쁘건 간에, 챗GPT는 기계번역에 이어 국내 외국어 수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챗GPT 사용이 급격하기 늘기 시작한 현시점에서 번역 교육자들도 챗GPT의 활용 성과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챗GPT를 통한 번역은 그간의 FOMT 번역, 가령 구글 트랜스레이트나 네이버 파파고 번역과는 다른 성격을 보인다. 그래서 우리 연구자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 챗GPT가 번역에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은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번역 수업과 챗GPT의 연계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1) 학부번역학습자들은 번역에 ChatGPT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2) 학부번역학습자들의 ChatGPT 사용 방식은 번역 품질과 관련이 있는가?

목적: 이러한 연구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통번역 수업을 수강 중인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챗GPT를 활용하는 번역과업 실험을 진행하였다.

1)번 연구질문의 해결을 위해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GPT를 활용한 번역 과정을 탐색함
2)번 연구질문의 해결을 위해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GPT 번역 사용 방식이 번역 품질과 관련성을 탐색

3. 연구 진행 내용

학생들이 챗GPT를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한다면 번역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챗GPT가 번역품질 향상에 도움은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실험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향후 학부번역수업에 적용할만한 내용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험 참가 학생은 51명이었다. A반에 26명, B반에 25명이었다.

실험을 위해 한국어 원문을 세심하게 선정하였다. 텍스트의 길이, 번역 난도, 작업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다만, 내용이 너무 평이하면 (기계번역의 품질이 비이상적으로 높아) 연구의 타당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내용에도 신경 썼다.

연구자가 선택한 아래 원문은 최근 가상화폐 시장을 조선시대 붕이 김선달에 비유한 신문 사설의 첫 단락이다. 실제 원문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1307#home>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

붕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기 위해선 사전 작업이 필요했다. 평양 물장수들에게 업전을 나눠주고 물을 퍼갈 때마다 한 푼씩 내도록 합의했다. 물론 공짜는 없다. 저녁에 거하게 한 잔씩 돌렸다. 또 한 가지 필수 작업은 이 소문이 한양 상인에게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도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고 불티나게 팔린다는 스토리 라인을 갖춰서 말이다. 한양 상인은 소문만 듣고 덱석 4000냥에 인수 계약을 한다. 소유관계나 사업성을 확인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기까진 조선시대 버전. 어차피 설화니 조금 더 나가면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다. 물을 한 동이 길을 때마다 기록을 비밀장소에 남기면 토큰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나중에 토큰으로 쌀도 사고 술도 살 수 있다고 선전한다. 거래할 때마다 토큰을 새로 만들기 귀찮으니 미리 왕창 찍어두고 조금씩 지급한다. 아예 매장을 내서 그중 일부를 빼내 판다. 알바를 고용해 자기들끼리 사고팔아 가격을 올려놓는다. 더 오를 것이란 기대에 일반 백성까지 매장에 몰려든다.

4. 연구 결과

4.1 학생들의 번역 과정 탐색

4.1.1 학생들은 ChatGPT와 다양한 대화를 시도하지 않음

학생들이 한영번역에 ChatGPT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프롬프트(prompt)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ChatGPT가 '대화형 인공지능'이라는 점을 의식하고 번

역을 완성하기까지 여러 번의 대화를 시도한 학생은 매우 드물었다. 대체로 학생들은 한 두 번의 프롬프트를 입력한 후 번역문을 완성하였다. 대표적인 프롬프트로는 “(영어로) 번역해줘” 또는 “자연스러운 영어로 번역해줘” 등이 있었다. 이 경우, 학생들이 ChatGPT를 사용하는 방식은 기계번역에 원문을 넣고 번역문을 도출하는 기존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부 학생은 번역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XX을 다시 번역해줘” 또는 “자연스럽게 수정해줘” 등의 프롬프트를 추가로 입력하였다.

한편, 어떤 학생들은 서너 가지의 요청사항을 한꺼번에 입력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에 올릴 한국어 텍스트를 영어로 번역해 주십시오. 1) 해당 텍스트는 경제 관련 인터넷 기사로 업로드될 예정인 글의 서문입니다. 2) 해당 텍스트는 경제, 특히 코인에 관심을 가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글의 서문, 즉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구절이기에 너무 전문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처럼 번역의 맥락을 주입하여 번역을 요청하는 경우와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번역을 요청하는 경우, 첫 번째로 확인되는 번역 결과는 다르다. 핵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처음 GPT에게 번역 명령 시, 맥락을 고려하거나 여타의 번역의 조건을 제시할 경우, 지피티 번역도구 사용에 효율적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명령어를 입력하는 학생은 드물다.
- ☞ 첫 번역 요청에서 맥락을 함께 주입하는 학생들은 대개 GPT 사용경험이 한두 번 있다고 답한 학생들이었다. 하지만 지피티 사용경험이 없는 학생도 첫 번째 번역 요청 시, 맥락을 주입하는 경우가 유의미한 숫자로 확인되었다(A반: 3명/ B반: 2명)
- ☞ 대개 학생들은 일반 기계번역기를 사용할 때와 똑같이 Chat GPT를 사용하였다.
- ☞ ChatGPT라는 새로운 번역 도구를 편향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방식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 ☞ 지피티 사용경험 여부와 사용 능숙도와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어 보였다.

사례

- 단순하게 번역을 요청한 유형: A반: 26명 중 20명, B반: 25명 중 16명
- GPT를 번역에 여러 번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 또한 단순한 번역 명령어로 요청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 (원문 삽입 후 ‘번역해줘’ ‘in English?’ ‘영어로 번역해줘’ ‘translate in English’, ‘이 텍스트를 영어로 번역해줘 등)
- 첫 번째 번역의 단계에서 번역의 맥락을 주입(polished translation을 요청) - A반: 26

명 중 6명, B반: 25명 중 9명

- 예: 'Hi I need your help on kor-eng translation. Before we start, I'll inform you about this man called 봉이김선달, 봉이 is a nickname he got because he fooled someone by selling a chicken at a ridiculous high price, lying that it's actually a legendary animal, 봉, well, the animal's full name is 봉황, but let's just let that out. If you're ready, I'll send you the text.'
- Translate the text agai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the reader has previous knowledge of Korean culture.
- 너는 이제 나의 개인 번역사야. 내가 제시하는 한국어 텍스트를 영어로 번역해줘. 이 텍스트는 기사문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난이도의 용어와 문체를 사용해서 번역해줘. 또한, 한국의 비트코인 시장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하여 설명한 텍스트임을 알고 번역해줘. 텍스트는 아래와 같아.
- 이 번역문을 번역할 때에는 이걸 영어로 번역할건데, 대한민국 이전 조선시대에 있었던 내용이니깐 그 맥락을 고려해서 번역해야 해. 교양 서적의 어투로 번역해야 해. 그리고 4000냥의 경우에는 괄호를 같이 병기해서 안에 조선의 화폐라는 점을 추가적으로 알려줘야 해.
- 경제 관련 텍스트라는 거 고려하고 전문 용어는 살리지만 쉬운 단어 선택해서 번역해줘.
- 봉이 김선달은 누군가의 이름이야. 평양은 한국의 지명 이름이야. 엽전은 한국의 옛날 돈 이름이야 엽전을 세는 단위 이름이 '냥'이야 알바는 파트타임 잡을 뜻해. 경제신문에 실린 글이야. 아래 글을 영어로 번역해줘.

4.1.2 학생들은 ChatGPT 번역에서 오류를 빠르게 판단하지 못함

ChatGPT의 번역 결과는 그간 상업용 기계번역에서 보여주던 전형적 오류가 감소된 결과를 보이기에 오히려 학생들은 ChatGPT 번역에서 오류를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예컨대, ChatGPT는 원문 중 “저녁에 거하게 한 잔씩 돌렸다.” 이 부분에서 대체로 오역을 만들었다. 주어(봉이 김선달)와 목적어(물장수)가 없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이 문장에 대한 ChatGPT 번역 예시를 하나만 제시하면 “They would take turns paying for a round of drinks in the evening(물장수들은 저녁에 돌아가며 술값을 냈다).”이다. 이는 수정이 필요한 완전한 오역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첫 번째 과업 시간 내에 해결하지 못한 학생들이 제법 많았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원문 중 “어차피 설화니 조금 더 나가면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다.” 이 부분의 ChatGPT 번역은 “If we go a little further,

stories like this might also come up.”이다. 즉, “어차피 설화니”가 누락된 채 번역된 것이다. 핵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 누락을 발견하고 포스트에디팅을 활용하여 수정한 학생은 절반이 채 되지 않음 (A반: 11명/ 25명 B반: 5명/ 24명)
- ☞ 이와 같은 누락의 수정을 시행한 학생들은 GPT 사용경험과 관련성이 떨어짐
- ☞ 일부 학생들은 GPT를 활용하는 번역 과정이 타 자동기계번역기과 차이점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함
- ☞ 이는 GPT 번역에서 오류가 생겼을 경우 이를 직접 탐지해야 하는 과정이 타 기계번역기와 동일한 과정이기 때문으로 추측됨.
- ☞ GPT와 같은 최신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다할지라도 번역 결과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인간이 직접 탐지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번역 실력이 담보되어야 최종 번역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음을 시사함

4.1.3 학생들의 지식수준은 적절한 명령어 형성에 영향을 줌

가령, 다음 두 학생의 프롬프트를 살펴보자.

학생 A: 이 텍스트는 기사문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난이도의 용어와 문체를 사용해서 번역해줘

학생 B: *Following text is about illegal deal about cryptocurrency. And it compares the situation to a story about Seondal Kim who is a swindler in Joseon Dynasty. Can you translate this Korean text into English?*

A학생은 기사문이라는 텍스트 장르를 고려해서 ChatGPT가 번역할 것을 의도하였다. 하지만 정작 원문에 대한 알맞은 난이도, 용어, 문체에 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입력하지 않아서 학생이 의도한 내용은 번역문에 반영되지 못했다. ChatGPT를 잘 사용하려면 프롬프트가 관건인데, 학생들은 번역문에 필요한 적절한 질문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한편, B학생은 원문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였다. 원문은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자가 몰리고 실물 가치도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B학생은 원문의 요점을 가상화폐 불법 거래(illegal deal)로 잘못 이해했다. 뒤늦게 오류를 직감했는지 이 학생은 두 번째 단락의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프롬프트를 통해 학생들이 원문을 얼마나 이해했고, 원문의 의도나 목적 등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프롬프트는 ChatGPT를 번역에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와 관련되기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지식수준이나 원문에 대한 이해 정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 다음 두 개

의 프롬프트를 확인해 보자.

A: (1) 이 문단을 영어로 번역해줄래? (2) 위에 있는 문장들을 영어로 번역해줘! (3) *Bong and Kim Seon-dal* 말고 '봉이 김선달'로 번역해줘 (4) 그럼 "*Bongi Kim Seon-dal*" 이라는 이름으로 (문단 복붙) 번역해줘! (5) 처음 번역한 것과 왜 두 번째 버전의 번역이 달라? (6) 대동강은 *Daedonggang River*로 번역하는 게 낫지 않을까? (7) 그럼 *Daedonggang River*을 사용해서 밑에 있는 번역문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꿔볼래? (8) 조선시대 4000냥은 현재 가치로 얼마야? (9) 4000냥을 4000 *nyang* 이라고 번역하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헛갈려하지 않을까? (10) 4000냥을 ₩4000으로 표기해도 되는거야? (12) 그럼 그 표기를 이용해서 (문단) 자연스럽게 수정해줘

B: 이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번역해줄래? / 대동강은 영어 표기가 'Taedong River'니까 여기에 맞춰서 수정해줘. / 중간 부분에 'to pay them one coin' 부분이 좀 이상해. 물을 퍼갈 때마다 한 푼씩 내도록 합의했다는 게 평양 물장수들이 봉이 김선달에게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걸 반영해서 다시 번역해줘 / *business feasibility*와 *the feasibility of the business* 중 뭐가 더 나은 번역일까? 네가 생각하는 더 나은 방법으로 반영해서 번역해줘.

A는 ChatGPT를 번역에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학생의 프롬프트이고, B는 여러 번 사용한 학생의 프롬프트이다. 번역 품질을 떠나 두 학생의 프롬프트를 살펴보면, ChatGPT 사용 경험과 상관없이 두 학생 모두 ChatGPT와 상당히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또 학생 개인의 지식수준이 프롬프트 작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대동강의 정확한 영문 표기법은 'Taedonggang River'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자연 지명 또는 문화재명의 경우 우리말 명칭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한 뒤 '강'이나 '산' 같은 속성을 번역해 그 뒤에 붙이도록 했다. A학생은 대동강이 D가 아닌 T인 'Taedonggang'으로 표기되어야 한다는 것까지는 알지 못했지만, 'Daedonggang River'로 수정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점에서 자연 지명을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한편, B는 'business feasibility'와 'the feasibility of the business'의 차이를 고민한 흔적을 보여준다. 구글에 "business feasibility"와 "the feasibility of the business"를 각각 입력하면 'the feasibility of the business'가 압도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심코 넘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번역문 독자가 보았을 때 좀 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번역하려 노력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 번역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채로 GPT를 활용하는 번역은 명령어 작성에서 문제를 발생할 수 있음
- ☞ 적절한 명령어의 선택에는 주어진 번역에 알맞은 상황의 맥락과 배경지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 GPT를 번역에 활용할 때는 주어진 원문에 대한 이해와 출발문화 및 도착문화의 맥락을 이해하는 인간의 능력이 필요함

4.1.4 ChatGPT의 활용(도구의 활용)에 어려움을 느낌

일부 학생들의 경우 도구를 활용한 번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기계의 구동 측면에 문제가 생겨 번역 수행이 어려웠음을 말한다. 가령 “챗지피티의 속도가 너무 느려 포스트에 디팅을 수행할 시간이 남지 않았다. 중간에 한 번 멈추기에 regenerate를 눌렀더니 매우 빠른 속도로 처음부터 다시 번역을 시작했다. 영문을 모르겠다” 라는 사례처럼 구동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지 못했다. 앞선 2)의 사례와 같이 “ChatGPT가 ‘기계번역 대비 크게 나은 점이 없고, 오히려 시간도 오래 걸린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는 곧 간단히 원문만 주입하면 번역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계번역과 달리 포스트에 디팅까지 명령어를 사용하여 번역을 진행해야 하는 생성형 언어모델을 활용하는 번역 과정에 익숙하지 못함을 보인다.

- ☞ ChatGPT의 기능이 자동번역기와는 달리 챗봇인 점을 인식하고, 원하는 답(번역 혹은 포스트에디팅)을 도출하기 위한 명령어 제시에 어려움을 느낌
- ☞ ChatGPT 구동의 문제점 (즉, 중간에 작동을 멈추거나 작동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 즉 테크니컬 이슈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한 해결책이 부재한 점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함

사례>

- 코멘터리 사례)처음 번역하라고 했을 때부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답답했다.
- 인터넷 속도는 정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 자체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고 한문단만 번역하다가 중단되는 등 변수가 많아 같은 작업을 반복하게 되어 시간 내에 디테일하게 질문을 바꾸거나 포스트 에디팅을 할 수 없었다
- 뒷부분은 나름 괜찮은데 앞부분 정확도가 떨어진다. 번역은 파파고 쓰는게 더 빠른 것 같다. 영한은 나름 잘되던데 한영은 지피티 틀린 거 확인하는데 시간이 더 든다. 그래도 문법은 나보다 낫다.
- 번역 과정에서 Chatgpt와 소통을 하려 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문장에서 주어를 they로 잡아서 수정하라고 명령했지만 맥락파악을 못하다 보니

속해서 오류를 만들어냈다. 또한 아예 누락된 부분도 있어서 추가를 했었다. 놀랍게도 두 번째 문단은 고칠점이 없었던 것 같다. 처음 번역 예시를 3가지를 요청하고 설명을 부탁했는데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그냥 원문의 내용을 반복하는 정도에 그쳐서 아쉬웠던 것 같다.

4.1.2 경험의 단계의 논의

- 1) 기계번역처럼 명확하게 오역/ 누락/ 오류를 보이는 문장이 없음(빠른 오역 판단이 어려움)
- 2) 학생들은 문화특정항목 혹은 맥락 이해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같은 고차원적 번역 양상을 찾아내어 수정함
- 3) 이전의 기계번역에서 보여왔던 오역과 오류 등이 ChatGPT의 번역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면밀한 관찰능력(영어능력)이 필요함
- 4) 번역과 포스트에디팅을 동시에 명령하거나, 오역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하기 위한 핵심 질문을 제시하는 경우가 드뭄. 즉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부합하는 핵심질문 생성능력이 부족함

4.2 챗GPT 사용 방식과 번역 품질 관계

4.2.1 챗GPT를 이용한 포스트에디팅이 원활하지 않아 직접 수정한 사례

아래 표는 한 학생의 과업 과정을 보여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번역 품질은 인간번역에 의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이 입력한 프롬프트는 자신의 포스트에디팅과 무관하다.)

프롬프트: 위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줘. 단, '붕이 김선달'은 'Sundal Kim'으로, '한푼'은 '600 won'으로, '4000냥'은 '40 million won

번역문: Sundal Kim needed some preparation to sell the water from Daedong River. He agreed with the water carriers in Pyongyang to give them some coins and pay them one 600 won for each time they carried water. Of course, 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He treated them to a hearty drink each evening. Another essential task was to spread the word to the merchants in Hanyang. He claimed that he owned the rights to the water and that it was selling like hotcakes. The merchants in Hanyang heard the rumor and agreed to buy it for a

whopping 40 million won without checking the ownership or the business feasibility. To make the process more efficient, Sundal Kim offered tokens for each trip the water-sellers made, recorded in a designated place. He promised to pay them based on the number of tokens collected. Later, people could use tokens to buy rice and liquor. To save time and effort, Sundal Kim printed a large quantity of tokens in advance and distributed them gradually. He even opened a store to sell some of the tokens and hired part-time workers to manipulate prices. As the demand grew, the common people flocked to the store, expecting the tokens' value to rise even more.

포스트에디팅: Sundal Kim needed some preparation to sell the water from Daedong River. He agreed with the water-sellers in Pyongyang to give them some coins and pay them a penny for each time they took water. Of course, 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He treated them to a hearty drink at the evening. Another essential task was to spread the word to the merchants in Hanyang. He claimed that he owned the rights to the water and that it was selling like hotcakes. The merchants in Hanyang heard the rumor and agreed to buy it for a whopping 40 million won without checking the ownership or the business feasibility. Now, let's develop this story a little further. Say, Sundal Kim offered tokens for foot prints the water-sellers made, recorded in a designated place. He promised to pay them based on the number of tokens collected and said that people could use tokens to buy rice and liquor later. To save time and effort, Sundal Kim printed a large quantity of tokens in advance and distributed them gradually. He even opened a store to sell some of the tokens and hired part-time workers to manipulate prices. As the demand grew, the common people flocked to the store, expecting the tokens' value to rise even more.

학생의 생각

- chatGPT를 사용해본 경험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번역문을 한번에 만들어내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첫번째에 나왔던 결과와 최종적으로 번역된 내용을 둘다 참고해서 포스트에디팅했다. 마지막 시제는 두 번역문 모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수정했다.

- 번역 과정에서 Chatgpt와 소통을 하려 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문장에서 주어를 they로 잡아서 수정하라고 명령했지만 맥락파악을 못하다 보니 계속해서 오류를 만들어냈다. 또한 아예 누락된 부분도 있어서 추가를 했었다. 놀랍게도 두 번째 문단은 고칠점이 없었던 것 같다. 처음 번역 예시를 3가지를 요청하고 설명을 부탁

했는데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그냥 원문의 내용을 반복하는 정도에 그쳐서 아쉬웠던 것 같다.

- 뒷부분은 나름 괜찮은데 앞부분 정확도가 떨어진다. 번역은 파파고 쓰는게 더 빠른 것 같다. 영한은 나름 잘되던데 한영은 지피티 틀린 거 확인하는데 시간이 더 든다. 그래도 문법은 나보다 낫다.

위와 같은 증언은 챗GPT로 해결하지 못한 상황을 보여준다.

☞ 연구자의 생각: 구글번역과 네이버 파파고와 달리, 사용자가 대화형 인공지능의 기술로 번역의 과정을 탐색하며 번역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역에서 필요한 '대화'는 사용자 스스로 만들어야 함. 하지만 세부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질문을 만들어내는 학생은 일부에 지나지 않음

4.2.2 GPT 결과에 수정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이를 활용하여 해결한 경우

챗GPT 결과를 확인한 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한 명령어를 입력하여 포스트에디팅을 완성한 학생도 있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1)

그 이후에 챗 지피티에게 "This is the post-edited version of the text. Any comment?"라고 물었을 때 문장이 잘 읽히고 문장수와 김선달의 관계가 더 명확하게 표현되었으며 토큰의 가격이 오른 이유가 더 명확하게 설명되었다고 답했다. (The post-edited version of the text reads well and accurately conveys the meaning of the original Korean text. The changes made, such as using "he" instead of "they" for Bong-i Kim Seondal and clarifying the agreement with the Pyeongyang water vendors, make the text easier to follow and understand. The addition of "by hiring workers to buy and sell the tokens among themselves" further clarifies how the tokens were sold at a higher price. Overall, the post-edited version effectively conveys the story of Bong-i Kim Seondal and his efforts to sell water from the Daedong River.) 마지막으로 "any grammatical error in the revised text?"라고 질문했을 때는 문법적 오류가 없다고 답하였다.

사례2)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영어 사용자에게 맞게끔 다시 번역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번역본은 확실히 술술 잘 읽혔고, ST와도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챗지피티에게 포스트에디팅을 직접 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여 직접 명령어를 포스트에디팅해달라고 해보았습니다.

사례3)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영어로 번역해줘' '여기까진 조선시대 버전. 어차피 설화니 조금 더 나가면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다. 이 부분 다시 번역해줘' 라고 포스트에디팅 요청

사례 4)

물론 공짜는 없다. 가 생략되었어 그리고 저녁에 한잔씩 돌렸다는건 술을 대접했다는 뜻이야. 그리고 두번째 문단에서 조선시대 버전이라는 단어가 빠졌어. 그리고 물을 한 동이 길을 때마다 기록을 비밀장소에 남긴다는 말도 생략됐어. 다시 번역해줘 라고 포스트 에디팅을 진행했습니다.

사례5)

포스트 에디팅의 경우 프롬프트에 다시 번역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웬만하면 어색한 문법이 수정이 되었으므로 크게 건드리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 번역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챗지피티가 원문 언어인 한국어로 paraphrasing만 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 영어로 번역해달라고 다시 명시해줘야 했습니다.

사례 6)

그것도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고 불티나게 팔린다는 스토리 라인을 갖춰서 말이다.' 여기 다시 영어로 번역해줘

사례 7)

'물을 한 동이 길을 때마다 기록을 비밀장소에 남기면 토큰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여기 다시 영어로 번역해줘 비밀장소 영어로 번역해줘 '설화'가 영어로 뭐야? 그럼 '어차피 설화니 조금 더 나가면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다.' 다시 번역해줘 '거래할 때마다 토큰을 새로 만들기 귀찮으니 미리 왕창 찍어두고 조금씩 지급한다. ' 영어로 다시 번역해줘 마지막으로 '아예 매장을 내서 그중 일부를 빼내 판다.' 다시 영어로 번역해줘.

이 여섯 개 사례를 제외하면, 모든 학생은 번역오류를 직접 수정하였다.

본 연구법 모임 결과, 필자가 공유하고 싶은 결론은 아래와 같다.

- (1) 챗GPT를 통해 번역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활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 (2) 챗GPT가 산출한 번역품질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프롬프트를 통해 번역을 개선할 수도 있으나, 실제 그렇지 않은 사례가 다수 관찰된다.
- (3) 번역수업이나 과업에 챗GPT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4) 챗GPT의 성능이 좀 더 개선될 때 번역 포스트에디팅에서도 활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번역 교육의 맥락에서 챗GPT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상당수는 챗GPT를 학업에 사용하고 있었고, 계속 사용할 의향도 있었다. 하지만 챗GPT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번역과업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학생들이 챗GPT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번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학부 번역 교육은 AI 번역의 다양성을 활용해야 한다. 설문을 통해 확인하였듯이, 학생들은 챗GPT를 '새로운' 번역 도구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제 번역을 수행할 때는 일반 기계번역을 다루듯이 챗GPT를 사용했다. 그러면서 기계번역보다 느리고 품질도 월등하지 못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즉, 챗GPT와 기계번역의 차별화된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미 번역 교실에서 기계번역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번역 도구의 특징점을 이해시키고 챗GPT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학부 번역 교실은 학습의 보조 수단으로 챗GPT를 수용해야 한다. 설문 결과, 챗GPT가 번역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극히 일부였다. 이는 전통적인 번역 교육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챗GPT를 사용하더라도 번역 능력이 여러 차원에서 요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챗GPT는 기존 번역 교육을 보완하고 교수법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감사의 글

실험연구 진행과 결과 분석에 도움을 주신 EICC학과 이선우 선생님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 참고문헌

- 강동훈. (2023). 챗지피티(ChatGPT)의 등장과 국어교육의 대응. 국어문학, 82(82), 469-496.
- 권정민, 이영선. (2023). ChatGPT시대 인공지능교육정책의 문제점 고찰. 인공지능인문학 연구, 13, 9-38.
- 김낙훈. (2023). ChatGPT가 한국인 고등학생 영어 학습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읽기 과업의 인지 처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론적 탐색. 중등영어교육, 16(2), 179-205.
- 김태국. (2023). 챗GPT를 활용한 중등 영어 교수 자료 개발 연구. 중등영어교육, 16(2), 207-218.
- 노대원. (2023). 소설 쓰는 로봇 - ChatGPT와 AI 생성 문학 -. 한국문예비평연구, 77, 125-160.



- 신동광. (2023). AI 도구를 활용한 중등교사 영어 출제 연수 사례 연구: ChatGPT를 중심으로. *어학연구*, 59(1), 21-42.
- 신동광, 정혜경, 이용상. (2023). 내용중심 영어 교수 학습의 도구로서 ChatGPT의 활용 가능성 탐색. *영어교과교육*, 22(1), 171-192.
- 장성민. (2023). 챗GPT가 바꾸어 놓은 작문교육의 미래 - 인공지능 시대, 작문교육의 대응을 중심으로 -. *작문연구*, 56, 7-34.
- 하두진. (2023). 생성 기반 AI와 중국어 교육의 공전 가능성에 관한 초탐. *중국인문과학*, 83, 411-432.
- 한수영. (2023). 디지털 전환시대의 책임기 : 지식콘텐츠, 챗GPT 그리고 고전. *韓國古典研究*, 60, 161-184.

「 표준교육과정에 따른 효과적인 터키어 전공교육 방안 연구 」

이양희 교원, 최선아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2016년 특수외국어교육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터키어는 15개 중점언어로 선정되어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의 지원을 받아왔다.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1단계(2018~2021년)에 교육과정, 교재 및 평가문항 등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과 함께 학생들을 위한 교과비교과 학습 지원 활동이 이루어졌고, 현재 2단계(2022년~2026년)로 접어들어 다양한 전공교육 지원 및 저변 확대를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터키어 역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외국어 교육의 여건상 그동안 개발이 어려웠던 교육과정, 교재, 평가인증체제 및 K-MOOC 등이 개발되었고, 학생들에게도 학기별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차원의 활동 및 장학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터키어 전공 교육의 경우 일부 어학 강좌는 표준교육과정에 기초하여 개발된 '터키어 표준교재'를 활용하고 있으나, 전공 교육 과정에서 터키어 표준교육과정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 방법이나 실질적 활용 방안이 논의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모임은 제한적이지만 일부 전공 어학 강좌를 대상으로 표준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단계별 성취 목표를 실제 강좌 운영 현황에 대입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커리큘럼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살펴 교육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며, 전공 교과 설계 및 운영을 비롯하여 다양한 교과비교과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목표로 하는 언어 사용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터키어 표준교육과정에 따른 전공교육 현황 및 방안

목적: 본 모임에서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표준교육과정 단계에 따라 실질적으로 전공교육이 단계별 성취 수준에 알맞은 수업이 이루어지는 살펴보고, 교육과정 및 교재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터키어 전공교육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연구 진행 내용

3.1 전공교육 과정 운영 현황 분석
3.2 전공 교과목 만족도 분석
3.3 전공교육방안 보완 및 개선을 위한 제언

3.1 전공교육 과정 운영 현황 분석

본 교수법 연구모임에서는 2023년도 1학기 전공 교과 가운데 일부 교과목(초급터키어 회화, 초급터키어문법, 중급터키어강독, 시사터키어)을 통해 커리큘럼 및 운영 현황, 학생 성취 수준 등을 점검하여 이를 토대로 터키어 표준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단계별 성취 목표에 부합하는 전공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수외국어진흥사업에서 개발된 언어별 표준교육과정은 CEFR(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유럽언어공통참조기준)을 기반으로 각 언어의 특수성에 따라 개발되었다. 유럽의회가 발표한 유럽연합 공통 언어 표준등급은 의사소통 활동과 언어 능력 수준을 기술하기 위한 여섯 단계의 세분화된 척도로 아래와 같이 제시되고 있다 (Council of Europe 2001).

〈유럽언어공통참조기준의 언어 구사 능력 등급〉

기초 단계 언어 사용	A1	구체적인 형태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친숙한 일상적 표현과 간단한 문장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소개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어디에 사는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지, 어떤 물건을 가졌는지 등 신상에 관하여 묻고 대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질문에 답할 수 있다. 대화 상대자가 천천히 분명하게 말하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간단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A2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야(예컨대, 신상과 가족 정보, 쇼핑, 주변 지리, 업무)와 관련된 문장과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 반복적이고 단순한 상황에서 일반적이고 익숙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고 직접적인 정보 교환으로서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쉬운 표현으로 자신의 배경, 직접적인 주변 환경, 직접적인 욕구와 관련된 것들을 기술할 수 있다.
자립 단계 언어 사용	B1	업무, 학교, 여가 등과 같이 익숙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표준어를 사용하면서 요점을 이해할 수 있다. 해당 언어사용 지역을 여행하면서 마주치는 상황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익숙하거나 개인적인 관심 분야의 주제에 대해 쉬운 표현으로 이어서 말할 수 있다. 경험과 사건, 꿈과 희망, 목적을 기술할 수 있으며, 견해와 계획에 대해 짧게 근거를 제시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B2	자기 전문 분야에서 전문 토론을 포함하는,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주제를 다루는 복잡한 텍스트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쌍방 간 큰 노력이 없이 원어민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준비 없이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다양한 주

		제에 대해 분명하고 상세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시사문제에 대하여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다양한 가능성의 장단점을 제시할 수 있다.
숙달된 언어 사용	C1	수준 높고, 분량이 긴 각종 텍스트를 이해하고 내포된 의미도 파악할 수 있다. 준비없이 유창하고 자연스럽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사회적, 학문적, 직업적 목적으로 언어를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복잡한 사안에 대해 분명하고 체계적이며 상세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때 텍스트 연결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다.
	C2	읽거나 듣는 것을 거의 모두 힘들이지 않고 이해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로 된 다양한 자료에서 나온 정보를 요약할 수 있으며, 이때 그 근거와 설명을 조리 있게 재구성할 수 있다. 준비없이 매우 유창하고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극히 복잡한 상황에서도 비교적 섬세한 의미 차이를 구별하여 표현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표준교육과정은 단계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구체적 성취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연구모임에서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전공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는 교과목 역시 강좌 수강을 통해 목표로 하는 성취 등급을 표준교육과정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교과목명	학수번호	학년	표준교육과정 단계	수강 인원
초급터키어회화(1)	B08112101	1	A1	20
초급터키어문법(1)	B08112101	1	A1	40
중급터키어강독(1)	B08105101	2	A2-B1	16
시사터키어	B08351201	3	B1-B2	13

터키어의 경우 초급회화 및 문법 과목은 표준교육과정 A1 단계의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법 강좌는 실질적으로도 표준교재 A1을 주교재로 활용하며, 회화 강좌 역시 표준교재와 더불어 A1 단계에 맞추어 개발된 K-MOOC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중급강독 및 시사터키어는 기대 교육단계는 각각 B1, B2로 기획되었으나, 수강생들의 나이도 편차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A2-B1, B1-B2 수준의 광범위한 언어사용 등급을 다루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초급회화 및 중급강독 교과목을 중심으로 강좌 커리큘럼을 분석하여 영역별 성취 기준을 달성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초급문법의 경우 터키어 표준교육과정 A1에 기반하여 집필된 터키어 표준교재 A1을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기에 교육과정 기반 분석을 생략하였다. 반면 시사터키어 강좌 역시 튀르키예 현안을 다루는 신문 기사, 뉴스 등을 발췌하여 번역 및 조별 발표 과제를 수행하는 수업으로 매학기 다른 기사가 선정되며 정해진 주교재 역시 없어 교육과정 기반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터키어 표준교육과정 A1 말하기 영역에서 요구하는 성취 기준은 학습자가 터키어 철자

와 낱말의 소리 및 문장의 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따라 말하기와 간단한 문장으로 의미를 전달하고, 일상생활의 쉽고 간단한 표현으로 질문하기와 대답하기를 통해 의미를 교환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 또한, 학습자들이 A1 등급의 말하기 영역 성취 기준을 달성함으로써 터키어 말하기 능력의 기초를 다지고, 터키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며, 다른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운영되는 초급터키어회화(1) 강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학습하였다.

	초급터키어회화 강의 내용	터키어 표준교육과정 A1 말하기 영역 목표
1	알파베(Alfabe)와 초면인사	[A102-01] 철자와 낱말의 소리를 듣고 따라 말할 수 있다.
2	인사를 위한 다양한 표현과 간단한 자기 소개	
3	가족과 친인척	[A102-02] 터키어의 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따라 말할 수 있다.
4	숫자와 월 이름: 생일과 나이, 그리고 전화번호	[A102-03] 그림, 실물, 동작에 관해 쉽고 간단한 낱말이나 어구,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5	사는 곳과 일하는 곳, 직업	
6	시간 읽기와 일과	[A102-04] 한두 문장으로 자기소개를 할 수 있다.
7	요일 이름, 그리고 나의 주간 일정	[A102-05] 한두 문장으로 지시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8	나의 취미 생활	[A102-06] 쉽고 간단한 인사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
9	명령과 요청	[A102-07] 일상생활 속의 친숙한 주제에 관해 쉽고 간단한 표현으로 묻거나 답할 수 있다.
10	편리한 생활을 위한 표현: 쇼핑하기	[A102-08] 투르크어권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간단한 낱말이나 어구로 표현할 수 있다.
11	편리한 생활을 위한 표현: 식당에서	
12	휴가 계획	

초급회화(1) 강의에서는 듣고 따라 말하는 학습과 함께 1학년 1학기에 아직 학습하지 못한 기초 문법 학습도 병행하게 된다. 학습 내용 1번~2번 과정 후 [A102-06] 쉽고 간단한 인사말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며, 학습 내용 2번~5번을 통해 [A102-04] 한두 문장으로 자기소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8주 차에는 학생들은 자신의 이름, 나이, 국적, 직업, 전화번호, 주소, 가족 소개, 가족의 나이와 직업을 설명할 수 있도록 목표하였고, 상당수 학생이 이 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학습 내용 6번~8번, [A102-07] 12번을 통해 일상생활 속의 친숙한 주제에 관해 쉽고 간단한 표현으로 묻거나 답할 수 있었으며, 학습 내용 9번~11번을 통해 [A102-05] 한두 문장으로 지시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식당과 쇼핑이라는 주제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한 터키어의 특수한 인사말도 함께 학습한다. 다만, 부족한 단어 수와 상황 연습이 부진하여 제시한 영역, 예를 들어 가게와 식당을 벗어나는 상황을 제시할 경우 학습자의 최상위권~상위권을 제외하고는 '지시와 설명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또 다른 문제로는 간단한 지시와 설명을 A1 수준에 맞추어 설명하지만, 터키어 격식체 표현을 위하여 학습해야 하는 구문이 모두 A2 수준 이상의 문법이라

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학습자들에게는 격식체 표현을 위한 구문을 먼저 설명한 후, A1에서 학습하는 지시와 설명이 가지는 한계를 보충하여 설명하였다. 학습자들은 위와 같은 전체 과정을 통해 [A102-01] 철자와 낱말의 소리를 듣고 따라 말할 수 있게 되며, [A102-02] 터키어의 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따라 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말하기 커리큘럼은 [A102-03] 그림, 실물, 동작에 관해 쉽고 간단한 낱말이나 어구,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과정과 [A102-08] 투르크어권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간단한 낱말이나 어구로 표현할 수 있는 과정에 부합할만한 학습 내용이 없어 추후 이를 보완할 예정이다.

표준교육과정 말하기 성취 기준	초급터키어회화(1) 학습 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A102-01]	o	o	o	o	o	o	o	o	o	o	o	o
[A102-02]	o	o	o	o	o	o	o	o	o	o	o	o
[A102-03]												
[A102-04]			o	o	o	o						
[A102-05]									o	o	o	
[A102-06]		o								o	o	
[A102-07]							o	o	o			o
[A102-08]												

터키어제르바이잔어과의 전공 수업은 초급, 중급 등의 과정이 학년별 수업으로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학과 특성상 학년으로 구분된 수업이 각 학년마다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해야 올라갈 수 있는 형태가 아니므로 초급 수업에 고학년이 참여하기도 하고, 중급 수업이라 할지라도 A2-B2까지 다양한 난이도의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과목의 특성상 터키어중급강독(1) 강좌의 경우 학년별 이상적인 언어 학습 단계에 따라 B1 수준으로 강좌 운영을 계획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강의 구성 수강생의 언어사용 등급 차이에 따라 강의 시간 다루게 될 독해 지문 난이도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본 강좌의 경우 참여 수강생 16명¹⁾의 난이도가 A1부터 B2까지 다양하기에 학습자들에게는 첫 시간 강좌 운영 방식 소개와 함께 CEFR 및 터키어 표준교육과정에 따른 단계를 성취 목표를 소개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학습자 난이도가 매우 상이함을 공지하였다. 따라서 본 강좌는 A2 수준의 지문 독해 연습과 함께 일부 B1 수준의 텍스트를 병행하여 진행함을 안내하였다. 그러나 강좌 운영 분석에서는 본래의 취지대로 터키어 표준교육과정 B1의 읽기 영역 목표와 비교하여 강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중간, 기말고사 성적을 비롯하여 터키어에서의 학습 시간, 비교과 과정 참여 활동 등을 통해 파악된 수강생들의 읽기 영역에서의 등급은 B2 2명, B1 3명, A2 5명, A1 6명의 분포로 나타났다.



	중급터키어강독 강의 내용	터키어 표준교육과정 B1 읽기 영역 목표
1	오리엔테이션 독해 문제 - 수강생 난이도 측정	[[B103-01] 문장을 의미 단위로 끊어 읽으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B103-02]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대상이나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B103-03]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의 그림, 사진, 또는 도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B103-04]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의 글을 읽고 줄거리, 주제,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B103-05]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의 글을 읽고 필자의 심정이나 태도를 추론할 수 있다. [B103-06]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의 글을 읽고 필자의 의도나 목적을 추론할 수 있다. [B103-07]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의 글을 읽고 일이나 사건의 순서, 전후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B103-08]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의 글을 읽고 일이나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추론할 수 있다. [B103-09]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의 글을 읽고 문맥을 통해 낱말, 어구 또는 문장의 함축적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B103-10] 투르크어권 문화와 관련된 일상적 소재에 대한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2	Keloğlan ve iki dev (B1) - 터키 전래 동화	
3	Hocanın ziyareti (A2) - 터키 우화	
4	Nasrettin hoca (A2) - 터키 우화	
5	Uzun Mehmet (A2) - 터키 초등교과서 지문	
6	Renk renk kişilikler (B1) - 정보전달 글 읽기	
7	Ben değiştim (B1) - 수필(과거 회상)	
8	Okuma soruları (A2) - 읽기 문항 풀이 연습	
9	Pastörün başarısı (A2) - 터키 초등교과서 지문	
10	터키어 필수 표현 - 예문 분석 (A2-B1) (동부사,동형용사)	
11	Kar nedir (A2) - 정보전달 글 읽기	
12	Küçük Prenses (B1-B2) - 소설	

표준교육과정 읽기 성취 기준	중급강독(1) 학습 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B103-01]	o	o	o	o	o	o	o	o	o	o	o	o
[B102-02]	o					o					o	
[B102-03]								o				
[B102-04]		o	o	o	o	o	o		o		o	o
[B102-05]		o	o	o	o		o		o			o
[B102-06]		o	o	o	o	o	o		o		o	
[B102-07]		o	o	o	o	o	o	o	o		o	o
[B102-08]		o	o	o	o		o					

터키어 B1 등급의 읽기 영역 성취 기준은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이나 중심 내용 및 글의 논리적 관계를 이해하고 글 행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학습자들은 B1 등급의 읽기 영역 성취 기준을 달

성함으로써 터키어 이해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터키어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지하고 터키어 읽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한다. 또한, 터키어 읽기 능력 습득을 통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터키어로 표현된 정보를 수집, 분석, 활용하는 지식정보 처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중급터키어강독(1)에서는 튀르키예의 전래동화나 관련 문화를 배경 지식으로 하는 읽기 지문을 함께 다루면서 읽기 영역 성취 기준에서 제시하는 요소를 두루 만족하고 있기는 하나 독해에 사용된 읽기 지문의 난이도가 어휘, 속어 및 문법 요소의 측면에서 A2단계로 하향 조정되어 수업이 진행되었다. 실제로 강좌 운영 시 사용된 텍스트는 약 60% 가량이 A2 수준의 단문과 중문의 읽기 텍스트로 구성되었다.

터키어중급강독(1) 강좌 운영 - e-Calss를 활용한 강독 텍스트 및 읽기 문항 공유

번호	제목	첨부	공개일
13	[중급강독]어휘목록 및 문제답안 이양희 조회 76		2023.06.14 오전 12:40
12	[중급터키어강독]_14주차 강의 자료 이양희 조회 47		2023.06.05 오전 8:00
11	[초급문법]_연습문제 이양희 조회 36		2023.05.16 오후 5:47
10	[중급터키어강독]_어린왕자 어휘 목록 양식 이양희 조회 63		2023.05.15 오전 9:00
9	[중급터키어강독]_10주차 강의 자료 이양희 조회 90		2023.05.08 오전 8:30
8	[중급터키어강독]_어린왕자(TR) 이양희 조회 59		2023.05.01 오전 8:00
7	[중급터키어강독]_5주차 SORULAR 이양희 조회 69		2023.04.03 오전 9:20
6	[중급터키어강독]_3주차 강의 교안 이양희 조회 99		2023.03.20 오전 9:50
5	[중급터키어강독]_2주차 강의 교안 이양희 조회 85		2023.03.14 오전 12:08
4	[중급터키어강독]_Keloğlan ve iki dev_괄호넣기 이양희 조회 50		2023.03.13 오전 10:40
3	[중급터키어강독]_읽기 자료 (추가) 이양희 조회 152		2023.03.12 오후 11:31
2	[중급터키어강독]_1주차 강의 교안 이양희 조회 100		2023.03.06 오전 8:00
1	[중급터키어강독]_터키어 표준 교재 B1 (구글드라이브 링크) 이양희 조회 100		2023.03.03 오전 10:00

3.2 전공 교과목 만족도 분석

앞서 제시된 4개 교과목은 정규 교과 과정 진행 이후 학교에서 실시하는 강의 만족도

와 별도로 전공교육 질적 제고를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강생 89명 가운데 총 46명이 본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파악해볼 수 있었다. 과목별 설문 응답자 분포는 다음과 같이 간략히 나타낼 수 있다.

교과목명	수강 인원	설문 참여 인원	수강생 전공 언어 등급 (자기 평가)
초급터키어회화(1)	20	12	A1미만: 6, A1: 6
초급터키어문법(1)	40	25	A1미만: 8, A1: 13, A2: 3, 모름: 1
중급터키어강독(1)	16	3	A1: 1, A2: 2, B1: 1, 모름: 1
시사터키어	13	6	A1미만: 8, A1: 13, A2: 3, 모름: 1

(※ 실제 설문 조사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교수자가 파악한 튀르키예에서 어학연수, 교환학생 경험이 있는 수강생은 총 3명(B2: 1, B1: 1)이다.)

수강생들의 강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초급 강좌(회화, 문법)가 중급 단계의 강좌(강독, 시사터키어)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강좌 수강 후 대다수의 수강생이 본인의 전공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자기 평가를 하였으며, 강의가 전공 지식 형성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구분	설문 내용	전체 평균 (응답수)	초급 회화 (12)	초급 문법 (25)	중급 강독 (3)	시사 터키어 (6)
강의 만족도	강좌에 대한 평가 전반적 평가	4.80	4.80	4.88	4.33	4.50
학습자 자기 평가	강의 전 본인의 전공지식 수준 (1-5점으로 표현)	2.93	2.93	2.80	2.67	3.33
	강의 후 본인의 전공지식 수준 (1-5점으로 표현)	3.80	3.80	3.72	3.67	4.00
	강의가 전공 지식 형성에 기여한 정도	4.35	4.35	4.24	4.00	4.33
강의 관련	강의는 명확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었음	4.72	4.72	4.68	4.33	4.83
	본 강의는 전공 학습을 위한 흥미를 자극했음	4.67	4.67	4.68	4.00	4.50
	수업 시간은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음	4.78	4.78	4.72	4.67	4.83
	강의에서 요구하는 학습량이 적절했음	4.76	4.76	4.72	4.67	4.67
	모든 학생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됨	4.74	4.74	4.76	4.33	4.17
강의는 전반적으로 학습자들 수준에 적합하였음	4.57	4.57	4.72	4.00	4.17	

초급 강좌(회화, 문법)가 중급 단계의 강좌(강독, 시사터키어)에 비하여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원인은 강의 커리큘럼이 표준교육과정에 부합하며 강의의 성취 목표가 뚜렷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즉, 전체 학습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강생들은 과정 종료 후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낀다. 이와는

다르게 시사터키어 강의는 교과목의 특성상 다양한 난이도의 어휘, 문법으로 다채로운 텍스트와 미디어 콘텐츠를 학습할 것임을 인지하고 수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본인의 학습 수준보다 수업 수준이 높더라도, 학습 성취감은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설문 항목의 분석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기초 영역 가운데 전공 언어 학습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은 말하기(56.52%) > 읽기(17.39%) > 듣기 (15.22%) > 쓰기 (10.87%) 순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에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은 말하기(43.48%) > 듣기(26.09%) > 읽기 (17.39%) > 쓰기(13.04%)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전공교육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말하기 연습과 회화 관련 전공 교과 수업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요청하거나, 해외 연수 기회의 확대 등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영역	전체 평균 (응답자 수)	초급회화 (12)	초급문법 (25)	중급강독 (3)	시사터키어 (6)
전공외국어 학습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듣기	15.22	41.67	8.00		
	말하기	56.52	41.67	64.00	66.67	50.00
	읽기	17.39	16.67	8.00	33.33	50.00
	쓰기	10.87		20.00		
본인에게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영역	듣기	26.09	25.00	32.00		16.67
	말하기	43.48	50.00	28.00	66.67	83.33
	읽기	17.39	16.67	20.00	33.33	
	쓰기	13.04	8.33	20.00		

이외에도 전공교육 질적 제고를 위한 학습자들의 제안 사항으로는 수업 시간에 단어 퀴즈 실시나 연습문제 추가 배포, 단어집 또는 터키어 평가 문제집 등 추가 학습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4개 교과목 커리큘럼 및 강의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학과 교과 과정 운영 특성상 2-3학년 경에 이미 상당 부분 언어를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량이 급증하는 관계로 2학년 이후로는 학생별 수준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강의계획서에서 제시되는 피상적인 학습 목표가 아닌 구체적인 수치와 단계를 이용하여 명확하고 뚜렷한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수강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교수자와 수강생 간, 학과 교강사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난이도 조절 및 성취 목표를 교류하고, 보완하는 등 학습 효율성을 증대시킬 방안을 탐색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표준교재를 통한 단계별 강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서, 이와 함께 추가 보조 학습 자료도 개발할 수 있다.

3.3 전공교육방안 보완 및 개선을 위한 제언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의 교육 목표는 탁월한 언어 능력을 토대로 지역 전문성과 융합적 사고를 겸비한 인재 양성이다. 학과 교육과정 운영 특징상 1-2학년 때 집중적으로 언어 구사력을 함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읽기, 쓰기, 문법, 회화 등의 어학 과목을 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문화사, 문화콘텐츠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3-4학년 과정에서는 초·중급 단계에서 습득한 전공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중급 수준의 언어 어학 과목과 함께 역사, 정치, 사회, 경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을 통해 졸업 후 진출 분야에서 지역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언어 및 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아제르바이잔의 언어와 사회, 경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학습하여 광역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학과 교육 과정의 특성상 전공 언어 단계가 아래 표의 A와 같이 학년별 순차적으로(A1→A2→B1→B2) 성취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2-3학년이 되면 이미 상당 부분 전공 언어 학습을 완성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의 교과 및 비교과 학습 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며, 방학을 활용한 어학 강좌 (방중집중이수과정 또는 온라인해외연수)도 병행되어야 3학년까지 B2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표준교육과정에 따른 학년별 구체적 성취 등급 제안

A			B				
구분	1학기	2학기	구분	1학기	하계 방학	2학기	동계 방학
1학년	A1-1	A1-2	1학년 (+비교과 프로그램, 방중과정)	A1-1	(A1-2)	A1-2 (A2-1)	
2학년	A2-1	A2-1	2학년 (+비교과 프로그램, 온라인연수)	A2-1 (A2-2)		A2-2 (B1-1)	(B1-2)
3학년	B1-1	B1-1	3학년 (+어학연수)	B1-2 (B2-1)		B2-1 (B2-2)	
4학년	B2-1	B2-2	4학년 (+전공심화)	B2-2 (C1-1)			

현재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은 2단계(2022~2026)에 들었다. 1단계에서는 언어별 교육과정, 교재, 평가인증체제, K-MOOC 개발 등 다양한 학습 자료를 개발을 통하여 전공 교육의 체계화와 내실화를 다졌으며, 이러한 토대 위에 현재 각 언어별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학습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스와힐리어, 태국어, 폴란드어, 힌디어 등을 비롯하여 많은 특수외국어 교육 학과에서는 이미 1단계 사업을 바탕으로 표준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개발물 활용, 교육과정 적용 검토, 교수법 개발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학부 교육의 표준화와 내실화를 공고히 하고 있다. 터키어 역시 1단계 사업을 통해 개발된 자료의 활용방안과 더불어 실제 교과목 운영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하여

다각도로 연구해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모임은 제한적이기는 하나 일부 강좌에서 표준교육과정에 따른 전공교육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추후 강의 운영 시 연구자 및 수강생 의견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여 강좌를 계획하고 피드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학습자들이 단계별 목표를 달성하며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전공 언어 학습을 해나갈 수 있도록 명확한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 개발된 단계별 평가인증체제 활용한다면 이를 통한 성취도 점검과 더불어 언어 교육의 환류 체계도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교육과정 개발 이전에는 당시의 교육 목표에 따라 강좌가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문법 요소와 표현을 배울 수 있게 기획되었기에, 현재의 교육과정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표준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과정 운영 확대를 통해 터키어 전공교육의 표준화와 내실화를 다지며, 지속적으로 전공 학습 자료 개발을 위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모임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통해 표준교육과정의 가이드라인을 필요한 교과목에 적용해볼 수 있으며, 개발된 표준교재 이외에도 강좌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 내실 있는 전공교육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관련 연구를 통해 연구를 심화하여 그 결과를 학술 논문 게재하여 터키어 교육 현황 및 방안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표준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등급별 언어 성취 수준을 전공교육 내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학과 내에서도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을 보완하며 이를 통해 실현 가능한 전공교육 로드맵을 구축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교수법 연구모임의 효과 및 제언

교수자는 담당 과목 이외의 타 교과목 운영 현황을 알기 어려울 수 있다. 즉, 해당 교수자의 과목이 표준교육과정을 어느 정도로 따르고 있는지 강좌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과목 간 학습자들을 위한 상호작용이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교수법 연구모임을 계기로 교수자 간의 교류를 통해 과목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었으며, 중복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측면으로 커리큘럼을 점검하고 강좌를 기획 및 운영할 방안을 논의할 기회가 되었다.



※ 참고문헌

- 고태진 (2021). 힌디어 교육과정과 평가문항 개발 연구: A0 단계를 중심으로, *외국어교육*, 28:2, 265-285.
- 김중섭 (2010).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국립국어원
- 박정경 (2018).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아프리카어 교육의 과제와 전망, *한국아프리카학회지*, 55집, 61-88.
- 박정경 (2021).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에서의 스와힐리어 학부 교육 내실화 과정 연구. *한국아프리카학회지*, 62집, 45-72.
- 양도원 (2009). 유럽공통참조기준과 한국의 외국어 교육과정. *교원교육*, 25(1), 142-156.
- 연규석, 오종진, 이난아, 양민지 (2019). *터키어 표준 교재 A1*. HUINE
- 윤현진, 박선화, 이근호 (2008). 교육과정에서의 성취기준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최희재 (2013). 유럽언어공통기준 고찰을 통한 프랑스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84, 339-362.
-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2019). 터키어 표준교육과정 A1,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 Council of Europe. (2001).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Cambridge UP: Cambridge.

「 AI를 활용한 교수법 연구 : ChatGPT를 중심으로 」

이준원 교원, 송은지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디지털 산업의 빠른 성장이 사고방식과 의사결정, 고용형태 등 미래세대의 삶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부의 주도로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디지털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있다. 대표적인 중점 분야인 AI는 최근 생성형 AI인 ChatGPT가 인기를 얻으면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관심과 활용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대학의 교육 및 학습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전망은 대학 및 교수자의 입장에서 여러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교육 방법은 대부분 교사 중심의 수업이었으나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은 개인화된 학습을 가능하게 하므로, 학생 중심의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생의 학습 스타일, 관심사, 역량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콘텐츠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대학 교육의 보조라는 긍정적 효과 외에도 인공지능의 편향된 응답이나 거짓 정보 또는 답변 오류, 인공지능 활용의 윤리적 문제 등으로 인한 부작용 역시 우려되는 가운데, 본 모임은 이러한 시대적·정책적 흐름에 따라 교육에서의 AI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바람직한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고민하고자 한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AI를 활용한 교수법 연구 - ChatGPT를 중심으로

목적: 본 연구 모임의 목적은 새롭게 등장한 'AI 기반의 대학 교육'에 대한 학문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기존의 Chat GPT를 활용한 교육 사례들을 종합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대학 활용 가능한 실용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개발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자료 개발 및 학생들의 이해도 제고라는 교육적 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집중을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적극적인 결과 공유를 통해 본교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발

도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도움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3. 연구 진행 내용

3.1. 서론

본 교수법 모임은 최근 큰 화제가 된 OpenAI의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Chat GPT를 활용한 수업 설계에 초점을 두고, 수업을 기획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국내의 경우 올해 초 국가 차원에서 각 산업과 영역에 AI 적용을 권장하였으며, 교육 역시 AI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러한 활용법 논의가 여러 의미를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교는 타 대학에 비하여 언어적 다양성과 특수성이라는 명확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바, 국가적으로도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진 오늘날의 사회적 환경에 맞춰 이러한 경쟁력을 이번 모임의 주요 고려 사항으로 삼고자 했다. 즉, 본 교수법 모임은 대표적인 생성형 인공지능인 Chat GPT를 본교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모델을 설계하고, 본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3.2. ChatGPT에 대한 이해

ChatGPT는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사인 OpenAI에서 개발한 대형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인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3.5 모델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자연어 기반 대화형 인공지능(Conversation AI) 서비스이다. 사전학습(Pre-Trained)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모델은 공개적으로 사용가능한 데이터(예: 인터넷 데이터)와 타사 공급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데이터를 모두 취합하여 문서의 다음 토큰을 예측하도록 사전 훈련된 Transformer 스타일의 모델이다.

해당 인공지능은 기계학습 알고리즘(Machine Learning Algorithm)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명령어에 따라 사람과 유사한 텍스트를 생성함으로써 이용자와의 대화라는 상호작용을 제공한다. 이때 ChatGPT가 생성할 수 있는 텍스트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설명, 요약, 번역 등을 넘어 창의적인 콘텐츠까지 포함하여 매우 높은 활용성을 보여준다.

ChatGPT에 활용된 GPT의 첫 번째 버전은 2018년 출시되었다. 그 이후 Open AI는 GPT의 여러 추가 버전을 출시하여 정교함과 성능 수준이 향상되었다. 현재 화제가 된 ChatGPT는 GPT-3.5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말에 출시되었으며, 올해 3월에는 GPT-4까지 출시되었다. 각각의 모델은 학습된 데이터의 크기와 모델 아키텍처, 학습 방법 등에서

발전은 이룩함으로써 이전 모델보다 더 나은 문맥 이해와 응답 생성능력을 갖추고 있다. OpenAI(2023)가 직접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GPT-4는 현재 상위 10% 수준의 점수로 모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전문 및 학술 벤치마크에서 인간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활용성과 화제성으로 인해 다수의 회사가 ChatGPT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자사의 서비스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OpenAI에 큰 금액을 투자 하면서 미리 관계를 쌓아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자사의 대표적인 검색엔진인 '빙(Bing)'과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Azure)'에 ChatGPT를 도입하면서 단시간에 이용자를 크게 늘리기도 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대표적인 생산성 서비스인 '워드(Word)'와 '엑셀(Excel)', '파워포인트(Powerpoint)' 등 오피스 프로그램에도 ChatGPT를 적용한 코파일럿(Copilot) 서비스를 예고하면서 기존의 일반적인 업무가 인공지능을 적용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보여주었다. 또한, 국내에서도 SKT가 GPT-3의 한국어 버전을 상용화한 인공지능 서비스 에이닷(A.)을 선보이는 등 자사의 서비스에 GPT를 적용하는 사례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처럼 ChatGPT는 그 화제성으로 인해서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고유명사처럼 여겨지고 있으나, 인공지능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ChatGPT 공개 이전부터 해외 예술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이미지 생성 AI 서비스는 Stable Diffusion이나 DALL·E, Midjourney 등이 이용자를 늘려가고 있으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유명한 메타(Meta, 舊 Facebook) 등은 동영상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국내 기업인 네이버의 파파고(Papago)나 독일의 DeepL와 같은 번역 AI처럼 특정 서비스에 특화된 인공지능 서비스들도 다수 등장하고 있다.

ChatGPT를 포함한 인공지능 서비스는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다양한 종류와 변형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인공지능 서비스를 중심으로 일상이 변화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대학을 포함한 교육계 역시 인공지능 중심의 변화를 앞두고 교수법 전반에 이를 적용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3.3.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수법 사례 연구

인공지능을 대학 교육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ChatGPT의 등장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강동훈(2023)은 ChatGPT가 국어교육에 미칠 영향으로 ①쓰기 교육 전반에 관한 도전과 ②윤리 문제의

심화 ③거짓 정보의 확산을 언급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국어 쓰기 교육의 본질을 재정립하고 인공지능 활용 글쓰기의 윤리 원칙을 마련하고 교육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비판적 읽기 지도를 통한 비판적 문식성 교육 강화가 필요하고 주장했다. 김민수(2023)는 이러한 문식성(Literacy)이 디지털·AI가 제공하는 텍스트와는 차별화된 방식의 독법과 작법을 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서평쓰기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면서 단계별 서평쓰기의 교육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은 국어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김미경(2023)은 네이버의 파파고나 구글 번역 AI 등을 활용한 PBL 중심의 교양영어 교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신동광(2023)은 중등영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출제 연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 영어 문항 출제에 활용되는 방법과 장점을 논의했다. 이러한 영어 교육에서의 활용성에 주목한 차민영과 임희주(2023)는 대학 교수자들이 ChatGPT의 영어 교육적 활용가능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했는데, 응답자 대부분은 ChatGPT의 유용성을 높게 인식하여 활용에 대한 관심은 많았으나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생각한 기대효과는 동기유발과 학습보조, 상호작용 역할이었으며, 반면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영어수준별 활용 능력의 한계나 절대적 신뢰의 부족함, 윤리적 위험성 등이 언급되었다. 또한,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부족하지만, 향후 ChatGPT는 국내에서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영어교육보다는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특수외국어 교육에서 그 가치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텍스트 생성에 특화되었다는 점에서 ChatGPT는 이처럼 언어 교육 분야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기존 인공지능 모델 대비 범용성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문사회학 전반이나 이공계 교육에서도 크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손태권과 이광호(2023)는 ChatGPT의 수학교육적 활용 방안을 탐색한 결과 인공지능이 수학적 지식과 아이디어에 대한 분석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기의 ChatGPT는 숫자 기반의 맥락 이해와 지속, 분석, 결과 도출 등에 있어서 다수의 한계가 지적되기도 했으나, 최근 GPT-4의 개발과 함께 외부의 플러그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한계도 다수 극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은수(2023)는 초등학교의 도덕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인공지능이 가진 예화 저자로서의 정체성,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예화 활용의 적절성, 작가로서 인공지능이 가진 부정확성, 최첨단 수업자료로서의 활용 문제점 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활용되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ChatGPT와 같은 텍스트 중심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Stable Diffusion이나 Midjourney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음성 기반 서비스 Whisper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을 조합한다면 보

다 폭넓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이수환과 송기상(2023)은 ChatGPT와 Stable Diffusion을 활용하여 교사가 입력한 수업 주제에 따라 교수·학습용 그림 자료를 추천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함으로써 그 활용성을 증명한 바가 있다.

이처럼 ChatGPT가 공개된 이후 최근 몇 달 사이에도 초·중등 및 대학 교육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다수 나타났으며, 예상되는 기대효과와 제한점 등에 대한 언급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이 때, 인공지능 기반의 교육이 가진 기대효과는 각각의 과목이나 활용 방법 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그 한계에 있어서는 정보의 정확성 부족이나 편향성 위험, 인공지능 활용의 윤리적 문제 등 공통된 내용이 주로 나타나는 특징도 확인되었다.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4.1. Chat GPT의 교육 활용 가능성

4.1.1. 개별 학습 지원

ChatGPT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ChatGPT는 개별 학생의 학습 수준, 관심사, 선호 학습 방식 등을 파악하여 개별화된 학습 자료와 문제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학습 효과성과 흥미,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4.1.2. 개별 피드백 제공

ChatGPT를 활용하여 자동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학생들은 ChatGPT와 대화하면서 자신의 답변이나 문제 해결 과정을 제출하고, ChatGPT는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아 자신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학습을 개선할 수 있다. 교수자 역시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바탕으로 ChatGPT를 통해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물론, 무조건적인 신뢰는 어렵지만, 도움은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4.1.3. 집단 학습 지원

ChatGPT를 활용하여 협업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특히 토론식 수업에서 학생들은 ChatGPT를 통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을 진행하며, 공동 작업이나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떠한 한 주제에 대해 학생들은 찬성, Chat GPT는 반대로 나누어 토론을 해보는 등의 수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상호 작용과 협력

을 통해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4.2. Chat GPT의 한계와 윤리적 고려사항

Chat GPT를 활용할 때,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신뢰도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AI 모델은 훈련 데이터에 내포된 편향성을 반영할 수 있다. 이는 학습 데이터에 특정 인종, 성별, 경제적 배경 등과 관련된 편향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편향성은 교육 환경에서 불공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모델 훈련과정에서 편향성을 감지하고 완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AI 모델은 훈련 데이터에 기반하여 예측과 응답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수외국어의 경우, 제공 가능한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 경우 항상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특히 어려운 문제나 주관적인 판단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모델의 제약과 한계를 인지해야 한다. 또한, 모델이 부정확한 정보를 생성하거나 선호하는 내용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우에 대한 대처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도전과제와 윤리적 고려사항은 AI를 교육 분야에서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요소들이다. 또한, 학습자와 교사 모두에게 AI 모델의 동작 방식과 한계에 대한 교육과 투명성을 제공하여 협력적이고 책임 있는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4.4 실제 ChatGPT 적용 사례

이상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 모임은 실제 수업에서 Chat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특징에 맞춰서 정보 생산 및 학생의 상호작용 대상으로서 ChatGPT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언어 교육 강의에서 ChatGPT의 활용성을 탐색했으며, 이러한 적용 결과와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4.4.1 학습지원

가장 기본적으로는 ChatGPT와 Bing AI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검색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학습 정보를 제공하였다. 교육 시점이었던 5월을 기준으로 Bing에서 제공하는 챗봇 AI는 ChatGPT와 동일한 GPT 모델이 적용되었으나, 실시간 정보 검색 등에 있어서는 보다 높은 활용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강의의 주요 인공지능 모델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적용의 구체적인 사례로, <유럽속의 헝가리 문화> 수업

중 12주차에 진행한 <유럽속의 헝가리 도자기 문화> 수업을 예로 들어보고자 한다.

1) 기본내용 교육

본 수업에서는 헝가리 도자기 문화와 지역 활성화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세부 항목으로는 헤렌드(Herend)의 헤렌드 도자기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례 분석과 페치(Pécs)의 줄너이 도자기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수업에 필요한 기본내용 교육에 앞서 Chat GPT로 수업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를 함께 공유하면서 수업에 대한 집중력과 흥미를 유도하였다. Chat GPT가 응답한 ‘세계 4대 도자기’가 어디인지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며, 수업에 몰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Chat GPT의 답변이 수업에 원하는 대답을 할 경우도 있지만, 수업 내용과 상반되는 대답을 할 경우도 있다. 즉, 헝가리어와 헝가리 문화와 같은 특수외국어 계열의 경우, 데이터양이 영어권의 데이터의 양에 비해 충분하지 않아 제대로 학습되지 않고, 데이터에 있는 패턴만을 답변하곤 한다. 따라서 특수외국어 계열인 경우,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도출하기에는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문적 정보를 얻는 용도로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수업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목적이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1] <유럽속의 헝가리문화> 수업 중 Bing AI 의 답변 일부

2) 아이디어션

Chat GPT의 답변을 바탕으로, 아이디어션을 진행하며 헝가리의 헤렌드 도자기가 세계 4대 도자기에 꼽히는 이유를 찾아가면서 사고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이에 조별로 토론문을 활용하여 각 도시의 강점과 브랜드의 강점을 찾고, 강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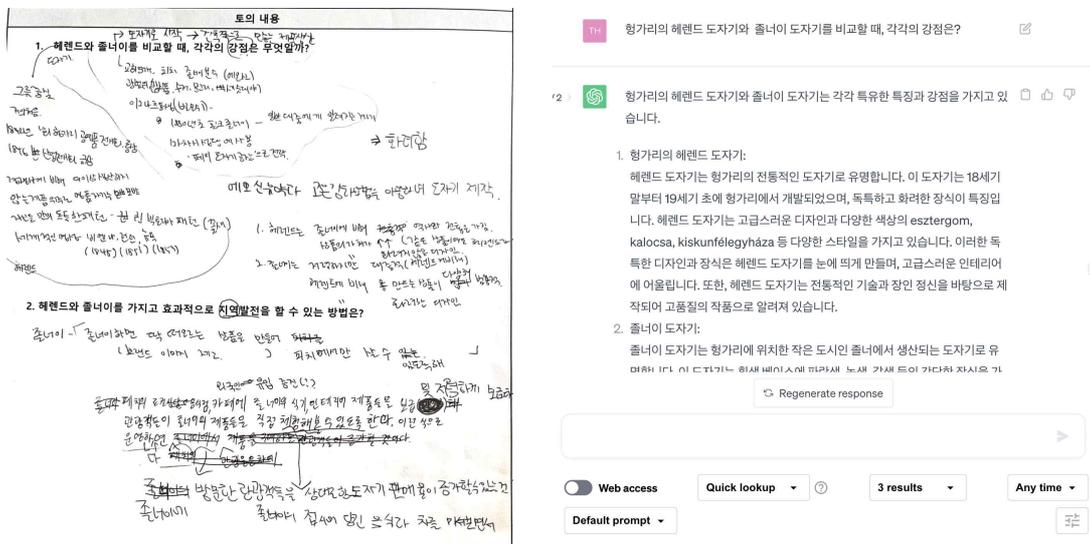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 주제 :

1. 헤렌드와 졸너이를 비교할 때, 각각의 강점은?
2. 헤렌드와 졸너이가 효과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방법은?

3) 반론제시

조별로 토론 과정을 걸친 후, 각 조별로 대항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또 한 번 가졌다. 이후, Chat GPT에게도 똑같은 토론 주제를 물어보고, 이에 대한 대답과 토론 내용이 어떤 부분이 비슷하고, 어떤 부분이 상이한지 분석하였다.



[그림 2] 토론 중 학생들의 답변과 ChatGPT의 답변 비교 사례

실제로 두 답변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차이를 알 수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성상 ChatGPT는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답안을 작성한다.

그 답변을 살펴보면, 그럴 듯해 보이게 포장해서 제공해주는 결과로 보인다, 반면에, 학생들의 토론지에서는 수업의 기본내용교육에서 다뤘던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한 내용 뿐 아니라 자신의 주관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답변도 많음을 볼 수 있다. 즉, 앞으로의 교육은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기술적인 수업보다는 학생들의 복합적인 사고와 창의성이 함께 강조되는 문화적인 접근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ChatGPT의 특성상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마치 정확한 정보처럼 불러오는 경우도 있었다. ChatGPT의 답변에서 비전문적 정보뿐 아니라 편향적인 정보도 담길 수 있다.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ChatGPT의 답변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사실관계의 오류를 찾아내는 평가 수업을 함께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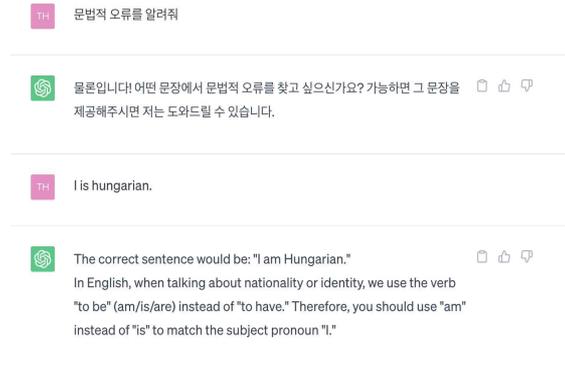
본 수업을 통해 ChatGPT와 인간의 대결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공존하면서 이 매체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탐구하였다.

4.4.2. 문법 교정

교육 도구로서 ChatGPT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방법에 있어서 텍스트 언어의 문법적 오류를 탐색하고 이를 교정하는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법 교정 기능은 국어와 다양한 외국어뿐만 아니라 컴퓨터 개발 언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활용성을 보이고 있다. 아래의 [그림 3]과 [그림 4]는 이러한 활용의 예시로, ChatGPT를 사용한 헝가리어와 영어 텍스트의 문법 교정 답변이다. 이용자의 사전 명령에 따라 ChatGPT는 이용자가 작성한 헝가리어와 영어 텍스트의 문법적 오류를 탐색하고 이를 교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림 3] Chat GPT를 활용한 헝가리어 문법 교정 답변 오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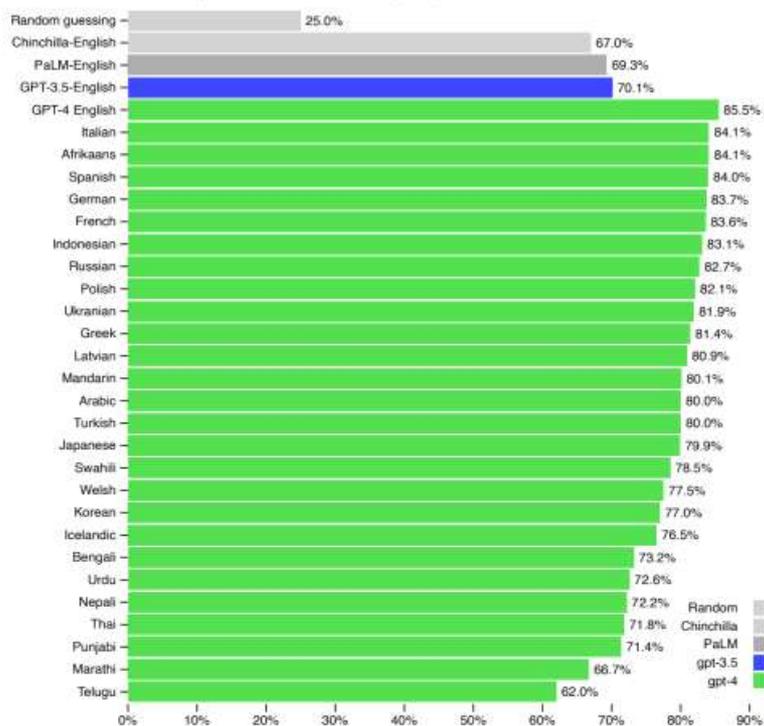
[그림 4] Chat GPT를 활용한 영어 문법 교정 답변

그러나 실제 활용 결과, 헝가리어의 경우 문법 교정 결과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 위의 [그림 3]에서 예시로 활용된 “나는 헝가리에 산다.” 라는 헝가리어 문장은 “Magyarországon élek.”이 올바른 문법을 사용한 문장이다. -on은 ‘~위에’를 의미하는 위치소격어미이며, “Magyarországban élek.”이라는 문장에 사용된 -ban은 ‘~안에’를 의미하는 안처속격어미이다. 헝가리(Magyarország)뒤에는 문법적으로 위치소격어미인 ‘on’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법적 오류를 범한 상태에서 ChatGPT를 활용하여 해당 텍스트의 문법 교정을 요청하였음에도 인공지능이 이러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

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에 반해 [그림 4]는 ChatGPT를 사용한 영어 문법 교정 답변이다. 영어의 경우, 올바른 문법으로 정확하게 교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 is Hungarian”이라는 문법적 오류가 발생한 문장에서 ChatGPT는 ‘is’ 대신 ‘am’으로 바르게 교정하였다. 이는 답러닝을 기반으로 한 ChatGPT의 특성상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진 언어군이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OpenAI가 직접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의 [그림 5]에서와 같이 GPT-4 모델 내에서도 언어별 정확도가 상이하며, 영어의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모델이 개선됨에 따라, GPT-4는 한국어나 아이슬란드어와 같이 학습자료가 적은 언어들도 이전 세대인 GPT-3.5 모델에 비하면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것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학습 데이터의 증가와 학습 방법의 개선 등으로 인공지능 모델이 고도화됨에 따라 언어적 다양성과 정확도가 높아짐으로써 특수외국어의 문법교정 기능 역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5] GPT-4의 언어 간 정확도

5. 교수법 연구모임의 효과 및 제언

본 모임은 ChatGPT의 등장 이후 논의되는 인공지능 중심 사회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AI 기반의 교수법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고,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이를 실제 강의 현장에 접목하는 방법을 탐색하고자 구성되었다. 최근 나타난 인공지능 적용 사례와 연구를 종합하였으며, 정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 생산자 및 상호작용 대상으로서 AI를 활용하는 방법과, 언어 교육의 보조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수외국어인 헝가리어과 강의에서 실제로 ChatGPT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ChatGPT는 다양한 활용성을 보였으나, 기존 논의에서 강조한 것과 같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 오류를 보였으며, 특히 학습 데이터가 풍부했던 영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 언어인 헝가리어 문법 교정에 있어서 더 큰 오류를 보인 점은 인공지능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향후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될 방법은 보다 다양해질 것임이 확실시 되므로 대학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실제 활용 사례의 발굴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다양한 준비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다수의 교수자와 학생이 강의 수강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범위를 기능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서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이러한 활용 방법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본교가 타 대학 대비 차별적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특수외국어는 영어 중심의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산업적 환경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인공지능의 활용성과 정확성이 부족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는 인간 중심의 교육이 더 오래 지속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교내 인문사회분야와 이공분야의 융합을 통해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능력을 길러야 함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본교 차원에서 분야 간 연계를 위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학교의 자산으로 마련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동훈. (2023). 챗지피티 (ChatGPT) 의 등장과 국어교육의 대응. 국어문학, 82, 469-496.
- 김미경. (2023). 인공지능기술 학습도구와 PBL 중심 교양영어 교과목 개발 및 적용. 교양교육연구, 17(2), 169-183.
- 김민수. (2023). 디지털 · AI 시대 문식성 교육이 가지는 의미. 교양교육연구, 17(2), 83-96.
- 김은수. (2023). 인공지능 글쓰기의 초등 도덕교육적 활용 가능성 연구. 윤리교육연구,



- 68, 213-240.
- 손태권, & 이광호. (2023). Chat GPT 의 수학교육 활용 방안 탐색. 한국콘텐츠학회 종합 학술대회 논문집, 151-152.
- 신동광. (2023). AI 도구를 활용한 중등교사 영어 출제 연수 사례 연구 ChatGPT 를 중심으로. 어학연구, 59(1), 21-42.
- 윤옥한. (2023). Chat GPT 등장과 교양교육의 방향 탐색, 한국콘텐츠학회, Vol.23, No.5, p.87.
- 이수환, & 송기상. (2023). 교수학습용 그림 자료 추천 도구로서 ChatGPT, Stable Diffusion 의 활용 가능성 탐색.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8(4), 209-216.
- 차민영, & 임희주. (2023). 챗 GPT 의 영어 교육적 활용가능성에 대한 대학 교수자 인식 연구. 문화와융합, 45(5), 109-118.
- Open AI. (2023), GPT-4 Technical Report.

「 동남아 지역 과목 법제 교육 모형 연구: 베트남 및 태국을 중심으로 」

이준표 교원, 박재명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에는 동남아 지역 과목에서 법률 과목을 운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교수법 모임을 구성하게 되었다.

첫째, 동남아 지역 국가는 법학 전공 관련 전공자가 거의 없어 이들 지역 학과에서 법 과목 교육 시 해당 학과의 언어 또는 문화, 기타 전공자가 강의하는 등 이 지역 전공과 무관한 강연자가 강의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법학 교육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학생들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바로 잡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동남아 지역의 법 과목 교육의 질적 제고와 학생들의 올바른 학습 내용의 향상, 실제 지역에서의 적용 등을 탐색하여 위 과목들의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이 모임에 참석하고자 한 강의자인 태국어과의 이준표 강사는 법학 전공자로서 동남아 메콩지역법을 전공한 전문가이다. 또한 베트남어과 박재명 강사는 베트남 현지에서 법률을 전공한 베트남법 전공자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 지역에 법제 과목 기제들을 적극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역 학 법제 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개발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현지의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법규 콘텐츠를 교육하고 이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비판적인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해당 지역의 법제의 원어 텍스트를 학습함으로써 법률 용어 등의 어학 능력을 배양하기에 본 교수법은 새로운 지역학 교육 모델로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동남아 지역 과목 법제 교육 모형 연구

- 소주제 1. 동남아 지역에서의 법과목
- 소주제 2. 법제의 이해와 활용성

목적: 실무를 접목한 사례 연구와 적용을 위한 교수법 연구

- 목적 1. 해당 지역의 법제와 실제 사례 적용성
- 목적 2. 법이론과 사례의 정합성 연구

3. 연구 진행 내용

(1) 운영 내용1

- 동남아지역학과(태국어과 및 베트남어과 등)는 전체적으로는 사회과학과목 및 지역학 그리고 세부적으로 법학 등의 과목은 활성화되지 못함. 따라서 이와 관련한 발표식 수업이나 토론식 수업도 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음.
- 따라서 법제 이해 및 활용을 위한 발표와 토론식 수업을 만들어 보기로 함.
-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것은 해당 법제는 그 나라 법조문 등을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수자 및 학생 모두 통상의 수업에 투여하는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특히 학기 시작 전 강의계획서 공지에 반드시 원어로 신문 기사 또는 이와 유사한 자료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공지함.
- 발표와 토론에 대해 미리 공지하며 주제에 대한 적절성을 교수자와 반드시 상의하게 함. 이는 매우 전체적이거나 또는 지엽적인 주제를 회피하게끔 함으로써, 시의적절성 또는 주제의 합리성을 추구하도록 함. 이를 통해 모든 수강생이 발표와 토론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지식전달을 원활하게 한다고 판단함.
- 위 내용을 기준으로 각 과목에서 해당 사항을 진행한 후 다음 모임에서 방향성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함.

(2) 운영 내용2

- 학생들이 발표하는 주제는 반드시 과목의 주제 또는 내용과 연결되게끔 지도하는 것이 필요함. 교수자가 관련 아젠다나 주요 이슈를 먼저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학생들이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학생들의 발표 내용이 주제 또는 내용에 있어 연결성이 떨어지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 다시 학생들에게 주지시켜주는 것이 필요함. 특히 법제 관련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접근성 및 이해하기 쉬운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교수자가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토론에 있어서도 질문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이를 통해 적절한 발표-토론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함.

- 발표 내용, 즉 법제 같은 경우 먼저 해당 내용의 배경과 실시, 그리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는지 교수자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적절한 결론을 이끌도록 하여야 함. 특히 시사점에 대한 도출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아직 연구 방법론 등의 숙달이 되지 않은 학부 학생들이기에 이 부분에서는 교수자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어야 함. 그리고 적절한 시사점이 전체 수강생과 잘 공유되게끔 하여야 함.
- 위 내용을 해당 수업에 적용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다음 모임에 가지기로 함. 특히 법제 이해 및 적용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토콜 점검과 시사점 도출 및 이를 통한 교육목표의 달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로 함.
- 현 단계에서의 기타 문제점과 해결 방법도 탐색하기로 함.

(3) 운영 내용3

- 법제는 배경 또는 유관 내용이 많기에 반드시 교수자가 발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수강생 모두에게 다시 정리해주는 것이 필요함. 특히 이러한 내용들은 학부 수준의 학생들이 깊이 있는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임.
- 토론에 대한 방법을 제고하여야 함. 학부 수준에서 토론은 자칫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건전한 상호 교류가 안될 가능성이 있음. 토론의 방법 이를테면 단순히 궁금한 내용을 무작위로 질문하는 방법과 학생들간 토론자 지정을 통한 방법이 있으나 학부 수준과 수강생의 인원 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특히 발표와 토론에서 제외되어 흥미를 잃거나 발표 및 토론 간 적절하지 않은 언쟁은 반드시 교수자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제고 하여야 함.
- 토론자의 경우 방식과 상관없이 교수자가 진행을 맡으며 기초적인 부분 또는 각론적인 부분에서 전체적이고 심도 있는 질문까지 순차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발표주제에 대한 접근을 쉽고 명확히 하기 위해 교수자가 질문의 난이도 등을 나누어 질문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중요함 .
- 수업 시간의 제한으로 전체 수강생에게 발표 의무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발표를 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함. 그리고 이를 평가요소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토론 역시 해당 내용에 대해 수업의 적극 참여로 인정하여 평가에 어드밴타지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이럴 경우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발표-토론 수업이 형성될 수 있음.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1) 연구 결과

교수자의 역할, 법제 주제의 발표 및 토론에 있어

○ 시작단계

- 개강 전 강의계획서에 발표 및 토론에 관한 내용을 공지함. 법제 분야는 사전 준비 작업이 많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반드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당 범위 및 방식, 주제 및 소재 등을 명확히 설명해주어야 함.
- 학생들이 발표에 대한 일자 및 시간 그리고 토론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명확히 지정하여야 함. 특히 발표나 토론 시간은 명확히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발표를 준비하며 해당 분량과 내용 구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발표 및 토론 방식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해당 수업 방식에서는 상호 존중 및 배려가 중요함. 자칫 학생들 간 불필요한 언쟁이나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교수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질문에 있어 주제와 어긋나거나 지극히 주관적 입장은 지양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 통상 가장 많은 문제점은 토론자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수준 이하인 경우가 많음. 이에 토론자는 사전에 정하는 것이 좋지만 해당 교과목의 상황(인원, 특색)하에 교수자가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토론은 그룹별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결과에 대해 발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발표 내용을 듣고 수업 인원내 따라 5명 정도씩 팀을 이뤄 발표 내용에 대한 내용을 분석 후 토론문을 작성하여 발표하게 하면 수업 참가 인원이 모두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것을 강의자가 잘 살피어 성적에 반영할 수 있음.

○ 진행단계

- 교수자는 발표-토론 컨셉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주제와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내용을 제거하여야 함. 발표자가 일부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경우 그리고 토론자 역시 질문의 내용에 오류 및 지향점이 다른 것을 교수자는 반드시 조율하여야 함.
-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방법론적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배경이나 이론, 그리고 사실관계를 다시 설명하여 다시 주의를 환기시켜 주어야 함.
- 발표자와 토론자 간 적절한 질문과 응답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교수자가 명확하게

정리해주어야 함.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교수자가 해당 내용을 A~Z까지 전부 설명하는 경우 학생들 간 발표-토론 수업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강의식 수업이 되므로 이는 지양하여야 함.

- 학생들이 발표와 토론은 주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함. 다만 학생들 간 상호 존중에 대한 태도는 계속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중의적 언어의 사용을 비롯하여 공격적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태고, 발표 또는 토론 내용의 비하, 비속어 사용, 발언을 놓지 않는 행위 등은 교수자가 즉시 개입하여 조율하여야 함.
-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표-토론을 즉시 중지하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갖거나 강의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냉각기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 해당 수업이 종료된 후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당사자에게 사실 및 관련 내용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별도로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이러한 실수를 당사자들이 반복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본 수업방식을 통해 줄 수 있는 시사점임

○ 종료단계

- 해당 방식의 수업이 종료되면 교수자는 전체적으로 관련 결과물을 모든 수강생과 공유할 필요가 있음. 해당 수업이 얼마큼 과목 수강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상호 피드백이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교수자 역시 이를 통해 향후 강의에 대한 지향점을 제고 할 수 있음.
- 발표자는 발표문을 PT 형식으로 제출하게 하여 발표 결과물을 제출하게끔 함. 여기에는 토론에 대한 내용을 담게 하는 것도 방법임. 이를 통해 본인의 발표점을 개선하거나 토론에 있어 추가적인 내용을 일부 추가하여 발표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
- 발표자나 토론자에게 평가의 어드밴타지를 부여할 경우 반드시 수강생들 전원에게 공지하여 불필요한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함. 또한 평가에 대한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 일정 기준을 제시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함.
- 발표-토론의 점수 등은 객관화-정량화 할 필요가 있음.

(2) 결과 활용방안: 법제 교육 모형 이용의 수업방식 사례

○ 해당 지역의 법제 이해

- 법제 강의의 경우, 과목 전체의 필수 이론과 내용을 반드시 중간고사까지는 설명해주고 해당 내용을 주지시켜주는 것이 필요. 달리 말해 중간고사까지는 해당 이론의 학습에 중

점을 두고 발표는 중간고사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적절함. 그리고 주제 선택과 발표, 토론 등에 있어 난이도 및 내용의 구성은 학부 수준의 학생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함.

- 본 과목은 외국어 전공학과에 개설된 법 강의 과목이지만 주로 언어나 문화를 학습했던 학생들이 해당 지역 사정에 밝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해당 내용을 통해 전공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음. 또한 전공과목 및 학습에 대한 흥미를 통해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기끔 할 수 있음.

[예시1] 주제 : 베트남 아동학대 처벌법

발표자 : 베트남어과 이0원, 23-1학기 베트남법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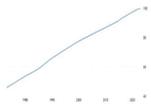
	<p>▶ 법제 이해 중심의 발표자 선정을 학기초에 공지. 교수자와 발표 주제 조율.</p>
	<p>▶ 준비시간 약 2개월 이상 제공, 중간고사 이후 발표하게끔 함. 필요한 경우 목차 구성 등도 같이 조율함.</p>
	<p>▶ 이슈 제시를 위한 실태와 문제점 제시, 베트남의 아동학대 이슈와 이에 대한 법 규율을 제시함.</p>
	<p>▶ 법제 분석을 통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p>

<p>시행령에 따른 아동학대죄</p> <p>행정 처벌</p> <p>법령(Nb-CP) 제144호 제2항 제27조에 근거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수행하는 사람은 5백만원부터 10백만원까지 구제적으로 다음과 같은 벌금을 물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를 침해하여 어린이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 - 금식을 강요하거나, 개인 위생을 금지·제한하거나, 아동에게 유해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는 행위 -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혼란과 영예를 모독하는 행위 및 아동의 발달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징벌적 수단을 사용하여 아동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아이들을 겁 주는 사진, 소리, 동화, 물건으로 자주 위협하는 행위 <p>또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 행위에 대한 아동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해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 위반 행위에 대해 아동의 건강에 해로운 물품은 강제로 폐기된다. - 위반 행위로 얻은 불법 이득의 반환이 강요된다. 	<p>용은 방식과 지식을 통해 해당 주제와 연결함. 행정법 또는 형법의 공법상 구분과 역할을 기존 강의시간에 학습</p>
<p>시행령에 따른 아동학대죄</p> <p>행정 처벌</p> <p>법령(Nb-CP) 제144호 제2항 제27조에 근거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수행하는 사람은 5백만원부터 10백만원까지 구제적으로 다음과 같은 벌금을 물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를 침해하여 어린이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 - 금식을 강요하거나, 개인 위생을 금지·제한하거나, 아동에게 유해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는 행위 -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혼란과 영예를 모독하는 행위 및 아동의 발달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징벌적 수단을 사용하여 아동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아이들을 겁 주는 사진, 소리, 동화, 물건으로 자주 위협하는 행위 <p>또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 행위에 대한 아동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해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 위반 행위에 대해 아동의 건강에 해로운 물품은 강제로 폐기된다. - 위반 행위로 얻은 불법 이득의 반환이 강요된다. 	<p>▶ 시사점 도출을 통해 해당 내용을 온전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함. 따라서 법제 내용의 이해를 통한 결론 도출을 유도, 아동학대죄에 대한 법적 위계와 내용을 정리.</p>
<p>참고문헌</p> <p>팜티미레(2021), 「학대 경험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내외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p> <p>박소영, (2022), 북한과 베트남의 가정 외 보호 아동 권리에 관한 법제 연구, 통일과 법, 50, 32-58.</p> <p>세계법제전선센터, 「베트남 형사법전 원문본」, 「베트남 아동법 원문본」, 「베트남 아동법의 일부조항을 세부 규정하는 의정 원문본」.</p> <p>Pham Kim Oanh, 「Ngược đãi, bạo hành trẻ em bị xử phạt như thế nào?」, 『Hoang Phi Invest & I.P.』, 2023-04-12 https://luathoangphi.vn/nguoc-dai-bao-hanh-tre-em-bi-xu-phat-nhu-the-nao/</p> <p>Nguyễn Lê, 「72,84% trẻ em bị bạo lực ở nơi tương là an toàn nhất」, 『Dau tu online』, 2022-02-22, https://baodautu.vn/7284-tre-em-bi-bao-luc-o-noi-tuong-la-an-toan-nhat-d161070.html</p> <p>Minh Thu, 「Hơn 8.400 vụ trẻ em bị xâm hại mới chỉ là "phần nổi của tảng băng"」, 『BÁO ĐIỆN TƯ ĐẢNG CỘNG SẢN VIỆT NAM』, 2020-04-27, https://dangcongson.vn/thoi-su/</p>	<p>▶ 반드시 참고문헌을 기재하게끔 함으로써 자료조사와 인용에 대한 기준으로 제시.</p>

[예시2] 주제 : 베트남의 환경오염과 해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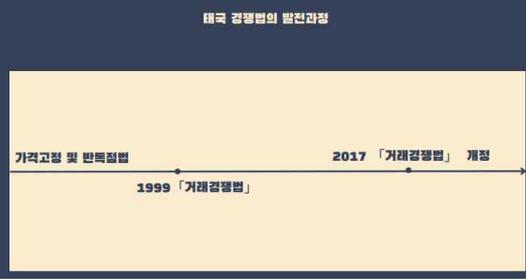
발표자 : 베트남어과 강0희, 23-1학기 베트남법의 이해 과목

<p>베트남의 환경오염과 해결책</p> <p>베트남의 '환경보호법'을 바탕으로</p>	<p>▶ 법제 이해 중심의 발표자 선정을 학기초에 공지. 교수자와 발표 주제 조율</p>
	<p>▶ 이슈 제시를 위한 실태와 문제점 제시, 베트남 환경오염, 법적 이슈를 다룸</p>

<p>베트남환경오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 width: 150px; text-align: center;">인구증가와 및 도시화</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 width: 150px; text-align: center;">산업화의 가 속화</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 width: 150px; text-align: center;">환경오염 규 제 불충분</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대부터 외국 기업들의 투자유치가 중심이 되어 경제적으로 후진국으로 발전 •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 • 2008년 베트남 중남부 본토의 심각한 기후 10대 이상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채수 방류 	
<p>베트남의 환경보호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환경보호법</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장부터 제 20장까지 구성 • 제 1장 환경보호법의 총칙 • 제 2장 환경보호 계획, 전략적 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호 계획 • 제 3장 천연자원의 개발 및 이용 시의 환경보호 • 제 4장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 • 제 5장 성과 제정의 환경보호 • 제 6장 물, 토지, 공기의 환경보호 • 제 7장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협력 • 제 18장 환경에 관한 감사, 조사, 위법처분, 분쟁의 해결, 징벌 및 고소 • 제 19장 환경에 관한 손해배상 • 제 20장 시행 조항 • 1993년 처음 제정된 후 2005년, 2014년 개정을 거쳐 2020년 다시 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개정 환경보호법 발효 	<p>▶ 법제 분석을 통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방식과 지식을 통해 해당 주제와 연결함. 환경오염법의 위치와 역할 등</p>
<p>베트남의 환경오염과 해결책</p> <p>기후 변화 대응 방안과 탄소 절감 국가 로드맵의 구체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margin-top: 10px;"> <p>개정 환경보호법은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한 규정을 보완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로 탄소 시장의 조직과 발전을 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베트남이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에 기여하고자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기준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 받고 베트남 내 탄소시장에서 탄소를 교환, 구매, 판매할 권리가 있는 주체를 명확히 규정</p> <p>베트남의 탄소 절감 프로젝트 전개를 위한 로드맵 구체화</p>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font-size: x-small; margin-top: 10px;"> <p>«베트남 2021-2030 국내 온실가스 원화 대책(안)»</p> <p>i)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향상, 에너지 소비 감축</p> <p>ii) 산업 및 운송 부문 연료 및 에너지 구조 변화</p> <p>iii) 역각도 활용 증진 프로그램</p> <p>iv) 에너지원 개발 촉진, 에너지 발전 부문 재생 에너지원 비율 증가</p> <p>v)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환경개선을 통한 농업생산의 효과와 경쟁력 제고</p> <p>vi) 지속가능한 숲 개발 및 관리, 탄소 격리 및 환경 서비스 강화, 산림유역 지역서회 및 농사자 소득 증대</p> <p>vii) 폐기물 관리</p> <p>viii) 대체 건축자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시멘트 및 화학 생산공정 개선, 수소불화탄소(HFCs) 사용 확대</p> </div>	<p>▶ 심층 법제 분석까지 이루어짐. 특히 해당 정책과 법제를 연결시킴</p>
<p>베트남의 환경오염과 해결책</p> <p>TH True Milk, 포장재 100% 수거 및 재활용 목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베트남 포장재활용 기업 협회(Pro Vietnam)의 설립 멤버로서 베트남의 주요 다국적 기업과 손잡고 2030년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포장의 100%를 수거하는 구체적인 재활용 목표를 수립</p> <p>TH True Milk에서 사용하는 우유팩, 플라스틱 용기, 포장재 모두 친환경 소재</p> <p>Ingeo, BioPBS, 카산비, 사탕수수 등의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로 포장재를 만들어 환경에 기여</p> <p>Tetra Pak 베트남과 공동으로 베트남의 학교와 유치원에서 우유팩을 재활용하는 교육 및 운동 실시</p> </div>  <p style="font-size: x-small;">«TH True Milk의 Tetra Pak 포장 재활용 및 영토별 교육 참여»</p>	<p>▶ 시사점에 대한 제언까지 도출해 냄</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0px;"> <div style="background-color: #00c080; color: white; border-radius: 50%; width: 60px; height: 6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 감사합니다 </div> <p style="margin-top: 20px; font-size: small;">참고자료</p> <p style="font-size: x-small;">베트남 '환경보호법'</p> <p style="font-size: x-small;">조은애(2018), 베트남의 환경보호법에 대한 고찰, 환경법연구, 40(2), 361-402</p> <p style="font-size: x-small;">KOTRA 해외시장뉴스, 베트남 환경분야 ESG 정책 동향, 하노이무역관 한아름, 210831</p> <p style="font-size: x-small;">연방뉴스, 베트남 하노이 대기오염지수 세계 1위...조미세먼지 심각, 190930</p> </div>	<p>▶ 반드시 참고문헌을 기재하게끔 함으로써 자료조사와 인용에 대한 기준으로 제시</p>

[예시3] 주제 : 태국 경쟁법의 최근 동향과 의미

발표자 : 태국어과 조0영, 23-1학기 메콩경제권과 태국 비즈니스의 실제(1) 과목

<p style="text-align: center;">목차</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태국 경쟁법의 발전과정</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background-color: #1a3d4d; color: white; text-align: center;">개정된 태국 경쟁법의 내용</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결론</div> </div>	<p>▶ 법제 이해 중심의 발표자 선정을 학기초에 공지. 교수자와 발표 주제 조율</p>
<p style="text-align: center;">태국 경쟁법의 발전과정</p> 	<p>▶ 태국 경쟁법의 발전 과정을 연혁적으로 검토함</p>
<p>기존경쟁법의 문제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집행의 효율성 부족 ② 법이 포함하는 내용과 대상 부족 ③ 법 집행의 독립성 부족 	<p>▶ 기존 법률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그 원인을 국가(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과 연계하여 고찰함</p>
<p style="text-align: center;">주요 개정 내용</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법 적용대상 확대</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background-color: #1a3d4d; color: white; text-align: center;">위원회의 구성 대표성 강화</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처벌 강화</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0%; background-color: #1a3d4d; color: white; text-align: center;">위원회의 독립 조직 격상</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0%;">법집행의 투명성</div> </div>	<p>▶ 주요 개정 내용을 면밀히 고찰함으로써 법적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함</p>
	<p>▶ 결론(전망 및 향후 과제)을 도출함</p>

결론	
<p>개선된 법률과 지속적인 가이드라인 제공</p> <p>위원회의 결정법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의지 및 수 있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계속해서 가이드라인 제시 앞으로 태국의 결정법은 계속 발전해 나갈 것</p>	<p>아직은 부족한 예측가능성</p> <p>이전에 비해 결정법이 시행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신진국들에 비하면 법 집행 사례가 충분치 않다고 보기는 어려움 아직은 예측 가능성 면에 있어 부족함</p>

○ 법제 이론의 사례 적용 분석

- 발표주제: 주제의 다양성과 특색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비교법적 접근과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내용도 발표되었음. 특히 학생들 스스로가 법제 적용을 비교법적인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시도는 매우 의미가 있음. 이는 대학원 석사 과정생 수준에서 통상 연구하는 방법임.

[예시] 베트남어과 김0모, 23-1학기 베트남법의 이해 과목 주제 : 베트남과 한국의 형사미성년자 법제 분석	
	<p>▶ 법제 이해 중심의 발표자 선정을 학기초에 공지. 교수자와 발표 주제 조율</p>
<p>1. 서론 - 촉법소년의 범죄 실태</p> <p>촉법소년 범죄율 증가</p> <p>2021년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12,501건으로, 5년동안 58%가 증가했으며, 강력범죄 역시 최근 5년간 38%가 증가함</p> <p>높은 재범률</p> <p>소년원은 재범률이 높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 재판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영미 이상의 소년진과범이 2017년 1,965명에서 2020년 3,80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함</p>	<p>▶ 이슈 제시를 위한 실태와 문제점 제시, 베트남과 한국의 형사미성년, 법적 이슈를 다름</p>
<p>2.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의미</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width: 45%;"> <p>형사미성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사미성년자: 만 14세 미만이라 형법에서의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으로, 형법 법규를 어기는 행위를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형법 제90조 (형사미성년자) 14세까지 아니면 자의 행위는 법하지 아니한다. </div> <div style="width: 45%;"> <p>촉법소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촉법소년: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나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년법 제40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동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각 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시간으로 삼는다. 형법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div> </div>	<p>▶ 법제 분석을 통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방식과 지식을 통해 해당 주제와 연결함. 형법상 범죄행위자의 능력을 구분할 수 있음</p>
	<p>▶ 심층 법제 분석까지 이루어짐. 특히 베트남</p>

<p>3. 베트남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 법제분석 1</p> <p>형사법전 (Bộ luật Hình sự)</p> <p>● Điều 12. Tuổi chịu trách nhiệm hình sự</p> <p>1. Người từ đủ 16 tuổi trở lên phải chịu trách nhiệm hình sự về mọi tội phạm, trừ những tội phạm mà Bộ luật này có quy định khác. 2. Người từ đủ 14 tuổi trở lên, nhưng chưa đủ 16 tuổi chỉ phải chịu trách nhiệm hình sự về tội giết người, tội cố ý gây thương tích hoặc gây tổn hại cho sức khỏe của người khác, tội hiếp dâm, tội hiếp dâm người dưới 16 tuổi, tội cưỡng dâm người từ đủ 13 tuổi đến dưới 16 tuổi, tội cướp tài sản, tội bắt cóc nhằm chiếm đoạt tài sản; về tội phạm rất nghiêm trọng, tội phạm đặc biệt nghiêm trọng quy định tại một trong các điều sau đây</p> <p>● Điều 12. 형사책임연령</p> <p>1. 만 16세 이상의 자는 본 법에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 자기가 범한 모든 범죄에서 형사책임을 진다. 2. 만 14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자는 살인죄, 고의상해죄, 강간죄, 16세 미만인 자에 대한 장간죄,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교강요죄, 경도죄, 재산범죄 목적의 유괴죄 또는 타율(조항중에서 규정되는 자국의 중대한 범죄 및 특히 자국의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진다.</p> <p>▶ 다음 조항 중에서 규정되는 범죄에는 인신매매죄, 횡도죄, 소괴죄, 마약범죄, 불법매매죄, 폭주족, 불법조직죄, 유해프로그램 유통죄, 테러죄 등이 해당</p>	<p>과 한국의 형사법제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적으로 설명함</p>
<p>7. 결론 및 제언 - 형사미성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사항</p> <p>1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2 법률적 처벌 제외 3 소년보호처분의 다량화</p> <p>● 소년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 13세의 소년법(약 62.7%) 처벌을 위해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로 하향하고 소년법(약 10세에서 만 13세로 변경</p> <p>● 소년법에 대해서는 소년법 적용을 받게 하거나 일관 형사사건으로 처리함으로써 범죄에 합당한 처벌 및 범죄소멸에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제우할 수 있도록 함</p> <p>●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확장한 경우, 처벌보다 소년보호처분의 다량화, 보호시설의 운영 특화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직업적 숙련과 인격적 성숙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전문적인 인력 필요</p>	<p>▶ 시사점에 대한 제언까지 도출해 냄</p>
<p>참고문헌</p> <p>세계법제정보센터, 『베트남 형사법전(Bộ luật Hình sự)』, 원문본, 2023. 세계법제정보센터, 『베트남 행정위반처벌법(Luật Xử lý vi phạm hành chính)』, 원문본, 2023.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4조 김승현, 『소년소년의 연령 하향』, 『법률실무연구』, Vol.10 No.3, 2022, p345-367. 박지혜, 이수정,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 하향에 대한 고찰』, 『교정당론』, Vol.16 No.1, 2022, p221-251. 원예국, 『소년소년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少年保護研究』, Vol.35 No.2, 2022, p167-192. 통계청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2019』, 2019. *Tội phạm là người chưa thành niên và các giải pháp hạn chế'', Đặng Văn Cường, Luật sư Việt Nam, 2022.09.28.</p>	<p>▶ 반드시 참고문헌을 기재하게끔 함으로써 자료조사와 인용에 대한 기준으로 제시</p>

- 발표와 토론: 비교법적 틀을 사용하여 법제를 비교한 것은 학부 수준에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 이와 더불어 토론도 발표의 수준에 도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상 이상의 노력이 필요함. 따라서 토론자에게 일부 정보를 미리 전달하고 이에 해당하는 질문을 교수자가 일부 조율하여 줌. 이로써 꽤 수준 높은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
- 결과 : 발표에 토론문을 포함하여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게끔 함. 이로써 발제자는 학부에서 대학원 수준의 연구방법 틀을 일부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을 갖게함. 토론자 역시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 전체적으로 수준높은 발표-토론 수업을 통해 정보습득은 물론 한층 수준 높은 발표와 토론을 경험하게 함.

「 사례 중심의 화용론 연구 」

이해운 교원, 이한나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본 연구 모임에서는 이론 중심으로 그간 진행되어온 ‘화용론’ 강좌에 대해 현실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 교수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언어학은 대표적인 이론 중심적 학문이어서 학부 수준에서 다수의 일반 학생이 흥미를 갖고 쉽게 접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예들을 가지고서 딱딱한 이론을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이론 중심의 화용론 교과목에 대한 효율적인 교수법으로서 사례 중심의 교수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목적: 화용론의 세부 주제별로 가장 적절한 예들을 선별하여, 이를 활용한 보다 효율적인 교수법을 개발한다. 화용론의 대표적인 주제들 중 대화함축, 화행, 전제에 한정하여 사례중심의 교수법을 개발한다.

3. 연구 진행 내용

화용론은 언어학 분야들 중에서 가장 늦게 언어학에 편입되어 확립된 영역이다. 그럼에도 연구 자체는 언어철학자들을 중심으로 19 세기말, 20 세기초에 이미 연구가 시작된 오랜 전통을 갖는 영역이다. 화용론은 철학자들에 의해 그 개념 및 기초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언어학의 다른 영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모습을 갖는다.

그러나 최근 화용론은 언어학 내에서도 큰 관심 대상이 되어 왔고, 인류학, 인공지능, 인지과학 등의 다양한 학문들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따라서 화용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념들부터 보다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3.1. 화용론

언어학 연구의 현대적인 분야인 화용론은 언어 철학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Morris(1938)는 기호에 대한 일반 학문인 기호학 (semiotics) 내에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등의 세 영역을 구분하였다. 이 분류에 따르면, 통사론은 기호들 간의 형식적 관계를, 의미론은 기호와 기호의 지표 간의 관계를, 그리고 화용론은 기호와 기호의 사용자/해석자들 간의 관계를 다룬다.

Levinson(2000)은 화용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화용론은 언어의 사용에 의존하는, 혹은 언어의 사용에 의한 의미에 대한 체계적 연구이다. 화용론 연구의 주요 주제들로는 함축, 전제, 화행, 직시 등이 있다.”

화용론 연구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었고 풍성해졌다. ‘최근 화용론에서의 작업은 통사론과 의미론을 그들 나름의 불필요한 복잡성으로부터 구해내려는 시도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언어연구의 다른 영역들로 즉, 역사 언어학에서 어휘부 이론까지, 언어습득에서 전산 언어학까지, 억양구 조에서 인지과학까지 포괄하는 영역들로 확장되었다

3.2. 대화함축 관련 사례 중심 교수법

3.2.1. 대화함축 이론

함축(implicature) 개념은 옥스포드 철학자 그라이스(H. P. Grice)로부터 출발한다. Grice(1989)는 언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성적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을 결정해 주는 기본 원리가 존재한다고 자신의 대화함축 이론에서 제안했다. 그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 언명을 협력의 원리(co-operative principle)라 불렀고, 이를 질, 양, 관련성, 태도 등의 네 범주로 분류되는 9 개의 대화 격률(maxims of conversation) 로 다시 구분하였다.

협력의 원리: 네가 참여하고 있는 대화에서 수용되는 방향 혹은 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만큼, 대화가 일어나는 단계에서, 대화상 기여해라.

대화상에서 화자와 청자 양측이 보통 협력의 원리와 그 격률들을 준수한다고 가정하고 있는 그라이스는 또한 대화함축, 즉 엄격한 의미에서 말해진 바의 일부가 아니지만 의도되어진 전달 메시지를 포함하는 비논리적 추론들의 집합인 대화함축은 격률들을 엄격히 ‘준수하거나(observing)’ 혹은 과시적으로 ‘무시함으로써(flouting)’ 일어난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함축을 구성하는 격률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격률의 준수나 의도적 위반의 예를

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각 격률에 대한 준수와 의도적 위반의 전형적인 예들을 다음 소절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3.2.2. 사례

A. 질의 격률

개 완전 귀신이야.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 운다.

차린 건 없지만 좀 들어요.

그는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는다.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 선수들은 성난 호랑이였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A: 내일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합격할 자신이 없어.

B: 개나 소나 다하는 거야.

B. 양의 격률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성철스님)

팔 심은 데 팔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A: 어머니! 미역국 끓일때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하나요?

B: 소금은 반 스푼만 넣고, 참기름 조금, 간장도 한 스푼 넣어라!

C. 관련성 격률

A: 술 마시러 가자. 어느 술집으로 가는 게 좋을까?

B: 해가 아직 중천에 떠 있어.

A: 밥 먹었어?

B: 뱃가죽이랑 등가죽이 달라 붙겠어.

A: 나 오늘 만원 주웠어!

B: 오늘 너 진짜 예쁘다. (+> 만원으로 밥 사주기를 원한다.)

A: 저번에 소개팅 어땠어?

B: 사람은 원래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거야.

A: 너는 이것도 몰라?

B: 나 이대나온 여자야

D. 태도 격률

거시기 좀 가져와라!

내 아내는 바람났다. (위니아 에어컨 광고)

문 닫고 들어가 있어!

그가 임종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앞이 뿌영게 흐려지며 두 뺨으로 뭉가가 흘러내렸다. (+> 그는 갑작스럽게 올었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철수의 심장 박동수는 빨라졌고 얼굴은 빨개졌으며 귀에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 첫눈에 반했다)

3.3. 화행 관련 사례 중심 교수법

3.3.1. 화행이론

화행 이론(speech act theory)은 일반적으로 옥스퍼드대학 철학자 오스틴(J. L. Austin)에서 시작되었는데, 오스틴은 1930년대 후반에 이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제시하였다. 오스틴의 사망 이후, 이 이론은 옥스퍼드 대학의 제자인 미국 철학자 써얼(John R. Searle)에 의해 정제되고 체계화되어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갔다. 화행 이론의 중심적인 생각을 간단히 표현하면, 문장의 발화는 사회 제도와 관습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일부)라는 것이다. 슬로건 형태로 표현하면, 말하는 것은 행하는 것(의 일부)이거나, 말은 행위(의 일부)이다. 다음 예들은 이 세상의 사태에 대한 참/거짓을 전하는 진술문과

는 달리 무언가를 행하거나 행위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전형적인 발화이다.

- a. I christen/name this ship the Princess Elizabeth.
- b. I now pronounce you man/husband and wife.
- c. I sentence you to ten years in prison.
- d. I promise to come to your talk tomorrow afternoon.
- e. I command you to surrender immediately.
- f. I apologize for being late.

오스틴은 초기에 수행문과 진술문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곧바로 그 구분을 포기하고 화행이라는 일반적인 이론을 내세우게 된다. 오스틴은 화행의 세 가지 면들을 발화행위, 발화수반행위, 발화효과행위로 구분한다. 발화 행위(locutionary act)는 말하기의 기본적 행위이다. 발화 수반 행위(illocutionary act)는 화자가 이행하고자 의도하는 기능의 유형을, 또는 화자가 발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루고자 의도하는 행위의 유형을 가리킨다. 이것은 사회 관습의 체계 내에서 규정된 행위이다. 간단히 말해, 이것은 발화시에 수행되는 행위이다. 발화 수반 행위의 예로서는 고소하기, 사과하기, 비난하기, 축하하기, 허락하기, 조롱하기, (잔소리로) 괴롭히기, 명명하기, 약속하기, 주문하기, 거절하기, 맹세하기, 감사하기 등이 있다. 발화 영향 행위(perlocutionary act)는 어떤 발화가 그 청자에게 끼칠 수 있는 효과에 관련한다. 보통 화행은 위 세 가지 면들중 발화수반행위를 가리킨다.

화행은 씨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 단정행위(representatives, assertives): 수행문/진술문의 오스틴 초기 분류에서 진술문에 해당는 화자에게 표현된 명제의 참을 믿게 함으로써 진리치를 갖게 되는 화행 종류이다.
- 지시행위(directives): 청자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하는 화자의 시도를 표현하는 화행 종류이다.
- 언약행위(commisives): 화자를 미래의 어떤 행위과정 일부에 위임하는 화행 종류이다.
- 표현행위(expressives): 기쁨, 슬픔, 좋아함, 싫어함 등과 같이 화자의 심리적 태도나 상태를 표현하는 화행 종류이다.
- 선언행위(declaration/declaratives): 현 사태 일부에 즉각적인 변화를 주는 화행 종류이다.

화행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어떤 예들이 어떤 화행 유형에 속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소절에서는 전형적인 사례들을 유형별로 제시한다.

3.3.2. 사례

A. 단언행위

우리 정부가 확보한 초도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건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다.
창수는 참으로 부지런한 사람이야.

B. 지시행위

여기 물 좀 주세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주유소는 어디인가요?
얘야, 여기서 조용히 하는 게 좋겠구나.
실내에서는 모자를 벗게.

C. 언약행위

내일은 꼭 일찍 들어올게.
우리 부부는 친환경 생활 실천을 서약합니다.
네가 자꾸만 일을 벌이면 난 다시는 너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D. 표현행위

이 먼 곳까지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의 결혼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떠나다니 너 너무 못됐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E. 선언행위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우리 심판진은 김xx 선수의 방망이가 돌았다고 판정합니다.

3.4. 전제 관련 사례 중심 교수법

3.4.1. 전제 이론

현대에 전제에 대한 철학적 연구를 소개한 학자로는 독일의 수학자이자 논리학자인 프레게(Gottlob Frege)를 꼽는다.

전제는 비형식적으로 정의하자면 문장의 발화에서 당연히 참인 것으로 간주 되는 어떤 추론 내지는 명제라고 할 수 있다. 전제의 주 기능은 문장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예비조건으로 작용되는 데 있다. 그 문장이 부정되었을 때도 이런 배경적 가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전제는 보통 특정 어휘 항목이나 구문에 의해서 생성된다. 전제를 유발하는 어휘 항목과 구문들을 전제 유발자 (presupposition triggers)라 한다.

어휘 항목으로서 전제 유발자로는 예를 들어 한정 기술을 들 수 있다.

The king of France is/isn't bald.

>> There is a king of France

그리고 구문으로서 전제 유발자로는 예를 들어 분열구문을 들 수 있다.

It was/wasn't Baird who invented television.

>> Someone invented television

따라서 전제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어떠한 전제 유발자들이 어떤 전제를 생성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있다. 다음 소절에서는 전제유발자에 따른 전형적인 예들을 제시한다.

3.4.2. 사례

A. 어휘 전제유발자

속희는 잊을 수 없는 나의 첫사랑이다.

>> '속희'가 존재한다.

창수는 영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상했다.

>> 영호가 거짓말을 한다.

창수는 자신이 부자인 척한다.

>> 창수는 부자가 아니다.

창수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 창수가 이전에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나는 삼국유사를 다시 읽었다.

>> 나는 삼국유사를 읽은 적이 있다.

B. 구문 전제유발자

철수가 이번 학기에 전공 수업을 듣는 것은 영희 때문이다.

>>철수가 이번 학기에 전공 수업을 듣는다.



내가 마신 것은 술이 아니다.
>> 내가 무엇을 마셨다.
영호가 방으로 들어오자 수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 영호가 방으로 들어왔다.
너는 어디서 이 모자를 샀느냐?
>> 너는 이 모자를 샀다.
문을 닫아 주세요.
>> 문이 열려 있다.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는 화용론 교과목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교수방법이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이론 중심의 추상적인 교과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실례들을 통해 손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사례 기반의 보다 효율적인 교수법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언어학의 다른 영역 뿐만 아니라, 이론 중심의 다른 교과목들이나 학문들의 교수에도 적용되어 사용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범모. 2018. 의미론. 한국문화사.
박철우 외. 2023. 한국어의미론. 사회평론아카데미.
윤평현. 2020. 새로 펴낸 국어의미론. 역락.
이성범. 2001. 추론의 화용론. 한국문화사.
이성범. 2019. 소통의 화용론. 한국문화사.
이해운 역. 2009. 화용론. HUIINE.

「 중국어 초·중급 학습자의 학습동기 제고 및 상호작용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기반 교수-학습 설계 전략: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중심으로 」

정상현 교원, 한수희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본 연구모임은 전공 중국어 과목을 수강하는 학습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내용(학습자료)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하였다.

팬데믹 환경에서 성장기를 보낸 학습자는 그 이전에 비해 수업 시간에 자기 의사 표현이나 활동 참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본 모임의 참여자들이 이러한 현상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수치화하거나 이론적으로 검증하지는 않았지만, 소극적인 수업 태도로 경청만 하는 학습자가 많고, 수업 분위기가 지나치게 차분해져서 학습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경험을 함께 나누던 과정에서 학습자의 참여와 몰입을 자극할 수 있는 교수법을 시도해 보기로 의견을 모았다.

온라인 학습 환경의 보편화에 따른 다양한 디지털 틀이 개발되었고 언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유형도 다양하다. 멀티미디어 사용이 익숙한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부담 없이 연습 과정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고려한 수업 설계를 수립하며,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반복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상호작용의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입체적인 수업 구성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온라인 플랫폼 활용한 학습자 학습동기 제고 및 상호작용 활성화 방안 모색

목적: 존 켈러의 ‘ARCS 동기이론’, 그리고 로버트 가네의 ‘9가지 수업 절차(사태)’ 등의 이론을 참고하여 한국의 대학교 중국어 학습 상황에 적합한 교수 흐름을 도출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수업에 적절하게 도입하여 학습 부담은 줄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진행하며 발화 및 상호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학습 모듈 도출을 모임의 목적으로 한다.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인지적인 측면의 발달을 돕는 동시에 학습 과정에 대한 흥미와 동기가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정의적인 측면까지도 감안한 교수-학습 설계 및 효과적인 운영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된다.

본 연구모임은 <초급 중국어1>과 <미디어 중국어1> 수강생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업 설계 과정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작하는 교육 콘텐츠의 적극적인 활용에 주목하였다.

교수자가 교재와 PPT를 사용하면서 일방적인 설명 위주로 진행되는 전통적인 수업 방식으로는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거나 흥미를 끌기 어렵다. 이미 다양한 멀티미디어와 디지털 도구에 익숙한 학습자가 평면적이고 단조로운 수업자료를 보면서 호기심이나 학습 지속 의지가 생기기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학습과 관련이 있는 영상을 검색하고 수업에서 설명에 대한 보충 자료로 보여주는 방식은 학습자가 영상을 수동적으로 보는 행위에 그치기 때문에 수업에 관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 영상을 시청한 후 ‘한-중 비교를 통한 공통점 또는 차이점이 무엇인지’와 같은 자유토론을 진행해보았지만 참여하는 소수의 학습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거나 만청을 피우기도 했다.

수업의 활동에서 배제되거나 누락 되는 학습자 없이, 모든 학급 구성원을 동시에 수업의 특정한 단계에 참여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교수 방법의 모색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에서 찾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활용할 온라인 플랫폼은 콘텐츠 플랫폼을 지칭한다. 용어의 혼선을 막기 위해 먼저 용어를 간단히 정리하면,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협업 플랫폼과 공유 플랫폼으로 구분한다. 두 종류의 플랫폼이 완벽하게 구분된다기보다는 어떠한 성격이나 기능을 더 많이 지원하는지에 따른 구분이라고 볼 수 있다.

협업 플랫폼에서는 첫째, 교수자가 다른 교수자와 온라인 공간에서 동시적으로 혹은 비동시적으로 교육 관련 자료를 만든다거나 교육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토론이나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둘째,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수업 중에 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수업에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완성해 나가는 협동 작업이 가능하다. 셋째,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수업 중 미션, 수업 후 과제물 작성 및 게시 등도 할 수 있다. 협업 플랫폼을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자료나 콘텐츠를 ‘함께’ 완성하는 것에 초점을 둔 플랫폼이다. 대표적인 협업 플랫폼에는 Milanote, Notion, Padlet 등이 있다.

이와 달리 공유 플랫폼은 자료의 제작과정을 협업으로 진행할 수는 없지만, 완성한 결과물은 실시간으로 링크를 제공하거나 플랫폼 접근 권한을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외부로 공유하는 정보의 개방성과 확장성을 특징으로 꼽는 플랫폼이다. 즉, 제작한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대표적인 공유 플랫폼에는 Classcard, Hihaho,

H5P.com, Quizlet, Wordwall 등이 있다. 협업 플랫폼과 공유 플랫폼은 특정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능을 담당하기에 이 둘을 콘텐츠 플랫폼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다.

참고로, 이들 플랫폼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통합하여 한데 모으고 안정적으로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특히 LMS 기능을 지원하며 일련의 교육과정을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하며 대표적인 서비스 플랫폼에는 Wordpress가 있다. 단, 연구모임에서 시도한 플랫폼은 모두 콘텐츠 플랫폼의 범주에 속한다.

현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매우 많으며, 교육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의 기능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교수자는 용도에 적합한 플랫폼을 엄선하고 수업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수업에 사용할 플랫폼을 선택하기에 앞서, 어떤 수업을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교수설계를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의 구체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한 수업설계는 ARCS 모델과 9가지 교수절차 모델을 참고하였다. 미국의 교육심리학자 켈러(John M. Keller)의 ARCS 모델은 학습자가 학습을 결정하고 지속하는 일련의 학습활동이 발생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인 요인으로 ‘학습동기’에 주목한다. 켈러의 ARCS 모델은 긍정적인 학습효과를 위한 교수설계 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특히 ARCS 모델이 컴퓨터 보조 수업, 웹기반 교육,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 등 특정한 도구와 매개된 수업의 교수설계에 적용되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본 연구모임의 교수설계 수립에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학습동기 설계 모델인 ARCS 모델의 명칭은 주의집중(Attention), 관련성(Relevance), 자신감(Confidence), 만족감(Satisfaction)의 첫 글자를 모아서 만들었는데, 이는 네 가지 동기 요소를 가리킨다. 각 동기 요소는 다시 세 개의 하위 범주를 가지며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ARCS 모델의 구성 범주

주의집중 Attention	관련성 Relevance	자신감 Confidence	만족감 Satisfaction
A1. 지각적 각성	R1. 목적 지향성	C1. 학습요건	S1. 내재적 강화
A2. 탐구적 각성	R2. 모티브 일치	C2. 성공기회	S2. 외재적 보상
A3. 변화성	R3. 친밀성	C3. 개인적 통제	S3. 공정성

ARCS 모델의 동기 요소는 핵심 질문을 제시한다.

- 주의집중(Attention): ‘학습자의 주의집중을 어떻게 유발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가?’
- 관련성(Relevance): ‘이 수업이 어떠한 측면에서 학습자에게 가치 있을 수 있는가?’
- 자신감(Confidence): ‘학습자가 자기 통제하에 성공하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 만족감(Satisfaction): ‘학습자가 그들의 학습경험에 대해 만족하고, 계속해서 학습하려는 욕구를 가지도록 하려면 교수자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본 연구모임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주된 목적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한 콘텐츠를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1) 학습자에게 학습 방식의 변화성(A3)을 제공함으로써 주의집중(A)을 시키고 (2) 학습 내용을 구체적인 개인의 사례와 결합하여 이해를 도모(R3)하고 학습 내용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적인 성공과 협동 학습의 기회(R2)를 제공하고 (3)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개인의 노력과 성취(S1)로 지속적인 학습 참여 의지를 강화하는 데 있다. 도전적인 경험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학습자 스스로의 역량에 대한 신념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런 만족감은 학습을 지속하는 강력한 동기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교수학습 과정의 흐름을 세우기 위하여 미국의 교육심리학자인 가네(Robert Mills Gagne)의 수업 설계 이론을 참고하였다. 가네는 학습자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수업 설계의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그의 이론에서 핵심이 되는 9가지 수업 사태(9 events of instruction)는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구체적인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여기에서 ‘수업 사태’라는 우리말 해석이 모호한데 ‘교수 절차’라고 이해하면 된다. 9가지 수업 사태는 (1) 주의력 환기하기 (2) 학습 목표 알려주기 (3) 사전지식 재생 촉진하기 (4) 자극 자료 제시하기 (5) 학습 안내 제공하기 (6) 학습자 행동(반응) 유도하기 (7) 수행에 대한 피드백 제공하기 (8) 수행 평가하기 (9) 파지 및 전이 촉진하기를 가리킨다. 가네(Gagne)는 ‘수행에 대한 피드백 제공하기’를 독립적인 절차로 구분하였지만, 적절하고 구체적인 피드백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꾸준히 제공해야 한다.

3. 연구 진행 내용

연구 진행에 앞서 수강생의 특성을 파악해야 했다. <초급 중국어1>은 중국어 학습 경험 3개월 미만의 23학번 새내기 대상 교과목이고, <미디어 중국어1>은 중국어 수준이 중급 이상인 전공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으로 드라마, 강연, 뉴스, 애니메이션,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중국 미디어 콘텐츠를 다룬다.

적극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는 모든 단계에서 제공할 수 있다. ‘ARCS 동기이론’과 ‘9가지 수업 절차(사태)’ 이론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상호작용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여 학습 참여도와 성취감 및 만족감을 경험하도록 수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구성했다. 이때 상호작용 요소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제작한 학습자-학습자료 간의 상호작용 기회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주의력을 환기(1단계)하거나 사전지식의 재생을 촉진하기(3단계) 위하여 자

유로운 대화를 시도할 수 있다. 문답으로 진행하면 참여하지 않는 학습자가 생긴다. 그러나 교수자가 만약 어떤 화두를 던지거나 의견을 물어보고 학습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판 기능을 활용하여 대답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면 학습자의 참여도는 확연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실시간으로 구성원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누가 의견을 남기지 않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서 참여도가 높아진다. 수업 시간, 교실의 화면에 QR코드를 띄우고 동시에 접속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서 튕겨 나가는 학습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QR코드는 다음 단계의 활동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화면으로 제공한다.

수업 내용과 관련한 자극 자료를 제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부연 설명을 곁들이는 '학습 안내 제공하기' 단계는 학습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효율적으로 학습을 돕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교수자 중심의 가이드가 주를 이루게 된다. 필요한 경우 교수자가 질문을 하고 대답을 유도하기는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비교적 많은 분량을 전달하고 학습자가 그 내용을 소화해야 하므로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연습을 통해 표현해보도록 학습자의 행동을 유도하는(6단계) 과정은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발생하는 구간이다. 개인 또는 팀별 미션을 부여하고 결과물을 플랫폼에 올리며, 댓글이나 이모지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역시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연습 과정에서 학습자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수행평가(8단계)를 위한 문항을 제작하고 퀴즈풀이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 과정은 Wordwall에서 출제하였는데, 음원을 듣고 제시하는 질문에 어울리는 답변을 고르는 듣기 문항 출제에 매우 유용하다. 평소 듣기 연습 기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평가 문항에는 듣기 유형을 최대한 많이 포함하는 것으로 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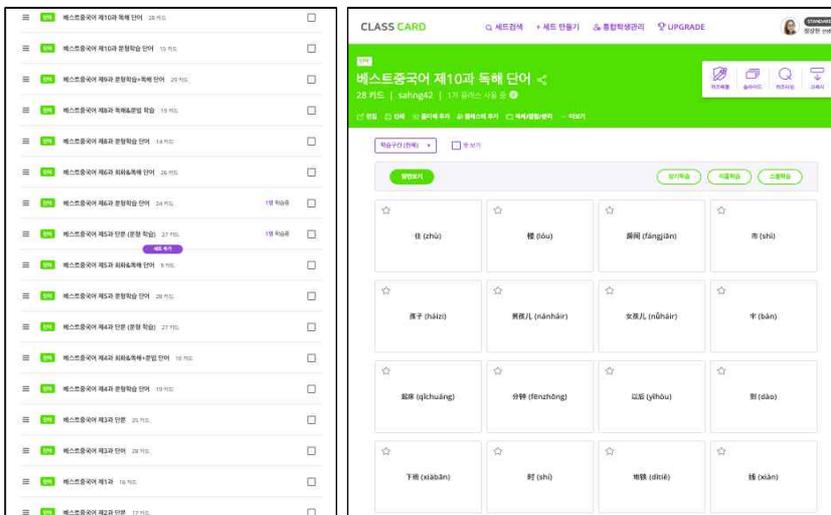
학습자에게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나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떠올린다. 이 외에 학습자와 학습내용(학습자료) 간의 상호작용도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학습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디지털 툴을 활용하여 스크린에서 터치와 클릭을 활용하여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며, 이 과정에서 학습의 흥미와 몰입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림 1] Wordwall 플랫폼을 활용하여 출제한 ‘듣기’ 유형 문항



어휘 학습을 위한 플래시카드를 제작하여 수업 전에 학습자 스스로 연습하고 올 것을 공지하였다. 플래시카드로 학습자가 사전 학습한 내용을 수업에서 심화시키거나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과정을 플립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의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림 2] 클래스카드 플랫폼을 활용한 플래시카드 제작 페이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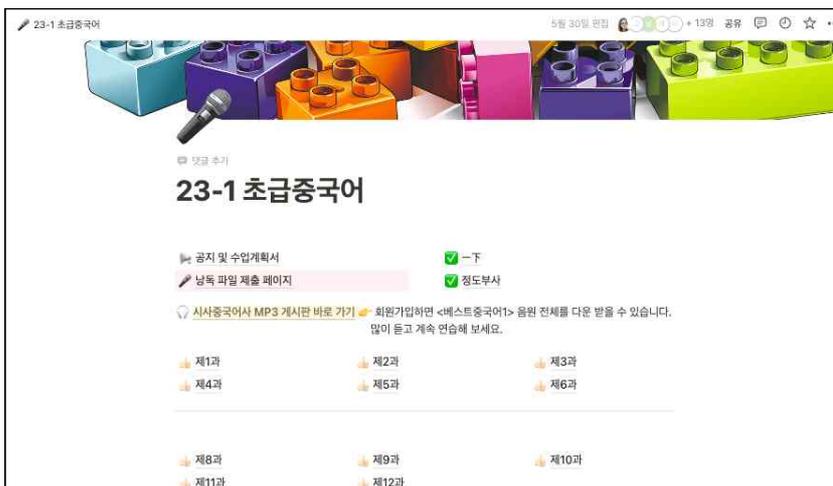
클래스카드는 슬라이드 쇼 형식으로 수업에서 교사가 PPT처럼 활용할 수 있고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카드배틀(게임)을 할 수 있다. 활동을 마치면 실시간으로 결과 리포트가 교수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보내지고([그림 3](우) 참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어휘 이해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교수가 다음 단계 학습을 진행하는 데 이 결과를 참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보충 연습을 진행하거나 부연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3] 퀴즈 배틀 결과 상세 리포트 화면



학부 대상의 <초급 중국어1>은 선행학습 수준이 3개월 미만인 신입생이었다. 학습자는 듣고 따라 하는 기본적인 연습이 매우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말하기-표현 연습에 참여하는 학습자가 거의 없었다. <초급 중국어1>은 학습자의 반복적인 듣기 연습을 위하여 음원 파일을 공유하였고, 수업 전 어휘 학습을 위한 온라인 플래시카드 사이트를 공유하고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업 시간에 카드배틀을 실시하였다. 플래시카드 사이트의 링크는 단원마다 달랐기 때문에 [그림 4]처럼 Notion에 <초급중국어> 수강생을 위한 페이지를 생성하고 수강생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초대하였다. [그림 4] 화면의 우측 상단에 초대된 학습자들의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다. Notion 페이지는 수업 관련 공지나 학습자료 공유 그리고 과제 제출 등의 용도로 활용하였다. 수강생은 댓글로 문의나 의견을 자유롭게 남길 수 있었고, 교수자는 실시간 알림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그림 4] Notion에 생성한 <초급 중국어1>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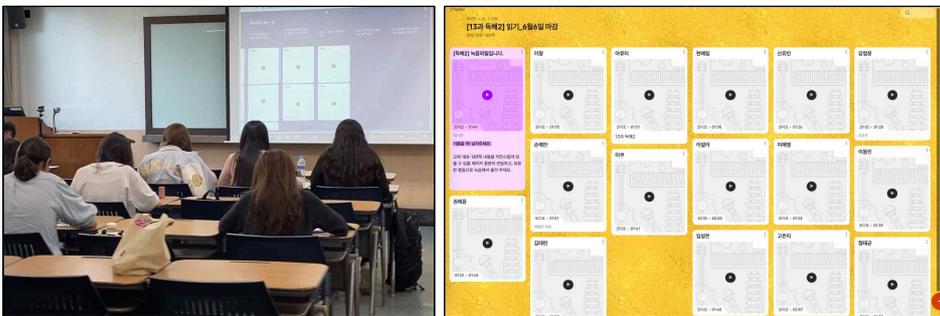


[그림 5]처럼 수업에서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진행하는 활동으로 학습자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경험을 해보도록 유도하였다. 음원을 잘 듣고 들리는 대로 녹음을 해보거나, 한글 해석 텍스트를 제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중국어 문장을 녹음해 보는 활동도 진행하였다.

[그림 5] 플랫폼 기반의 실시간 평가문항 풀이 활동 모습



[그림 6] 수업 중 녹음 활동(좌) 모습과 수업 후 녹음 과제 제출창 화면(우)



[그림 5]와 [그림 6]의 활동사진을 보면 학습자들이 상당히 몰입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중간 점검에서 플랫폼을 활용한 상호작용이 얼마나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과목 특성을 고려하면 모둠별로 구성원이 대화문의 역할을 나눠 연습하고 역할극 영상을 찍어 공유하는 등의 협업을 경험할 연습 유형이 부족함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학습자의 중국어 수준을 고려했을 때 짜임새 있는 역할극을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오프라인 활동과 온라인 플랫폼 활용의 절충안으로 '딕토글로스(dictogloss)' 활동을 모둠 단위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으로 진행하고([그림 7]), 의견을 모은 모둠별 완성본을 온라인 플랫폼에 올려서 서로에게 공유하고 확인하는 방식을 시도하였다.

[그림 7] 모둠별 딕토글로스 활동 모습



중국어 수준이 중급 이상인 전공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중국어I>은 하나의 영상(한 편의 영화 또는 다큐멘터리 등)을 한 학기 동안 다루는 타 과목과 달리 다양한 장르의 중국 미디어 콘텐츠를 다루었다. 이는 학습 성향이 다른 학습자들을 고려하여 적어도 한두 편의 선호 영상을 통해 학습 흥미와 학습 지속 의지, 수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여러 작품에 노출되는 비교적 다양한 문체와 표현 양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하기 위함이다.

해당 주치의 영상 콘텐츠 파일과 함께 반복적인 듣기 연습을 위하여 음원 파일을 공유하였고, 전체 음원을 대사별, 문장별 등 적절한 분량으로 분할한 음원에 중국어와 한어병음을 함께 볼 수 있는 오디오북을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단,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스크립트 한국어 해석본은 수업 방식에 익숙해지기 전인 중간고사 이전에는 수업이 끝난 후에 제공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해석본에 의존하지 않고 수업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한 수업자료 운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학습자 참여와 말하기-표현 연습을 위한 기말과제 주제발표 시간 확보를 위하여 한국어 해석본을 수업 전에 제공하였다.

[그림 8] 수업자료 예시



[그림 9] 어휘 학습 페이지 예시



교수자 자료의 제공 방식에 차이를 두었을 뿐 아니라, 수업자료 제시 방식도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림 8]은 학기 중 다루었던 두 편의 영상과 관련한 수업자료 예시이며 [그림 9]는 어휘 학습을 위한 페이지다. 중간고사 이전에는 간체자, 한어병음과 한국어 해석을 모두 표기한 수업자료를 제공하였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한어병음 없이 간체자만 제시하거나 필요에 따라 어려운 문장에 한해 선택적으로 한국어 해석을 표기하였다. 한어병음이나 한국어 해석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학습자들의 수업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협업툴은 교수학습 내용과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수업 흐름을 고려하여 오디오북 형식의 문장학습 링크를 제공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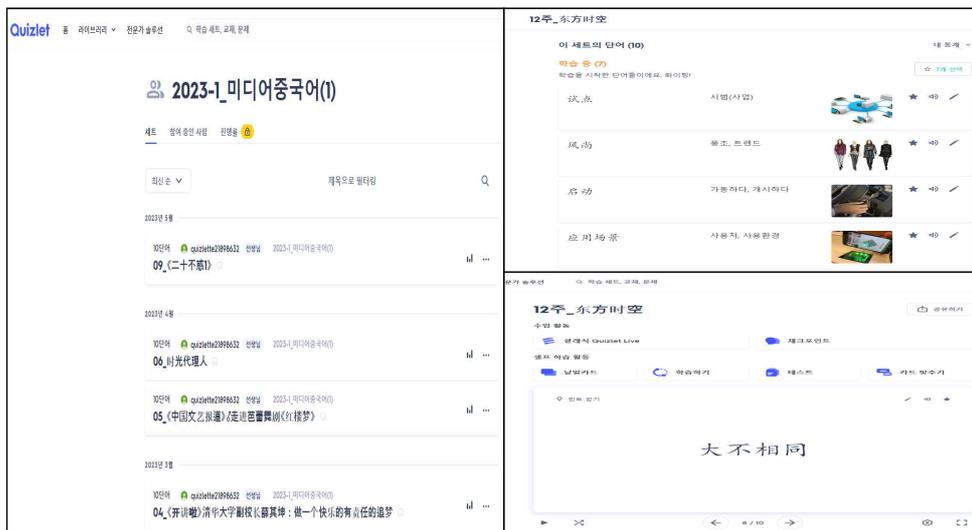
실제 수업 시간에는 교수자용 슬라이드 대응으로 활용하였다.

[그림 10] Notion 오디오북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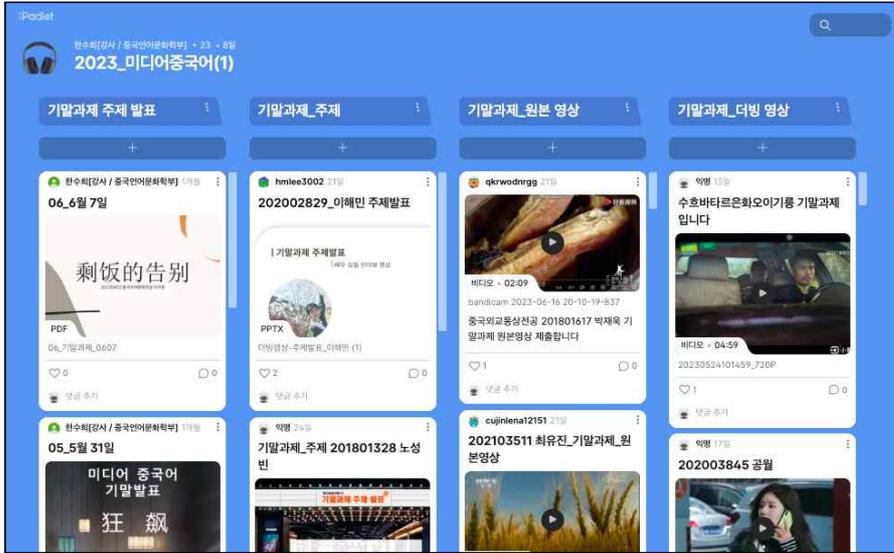


[그림 11]처럼 매주 학습 어휘를 확인하기 위한 퀴즈를 제작하여 중-한, 한-중 플래시 카드 형식으로 연습을 진행하였다. Quizlet으로 중국어-한국어 단어학습 세트를 만들어 수업 마지막에 당일에 배운 표현을 복습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Quizlet을 활용한 수업 단계는 평소에 소극적인 학습자의 말하기-표현 연습 참여 유도에 효과적이었다.

[그림 11] Quizlet 단어학습 세트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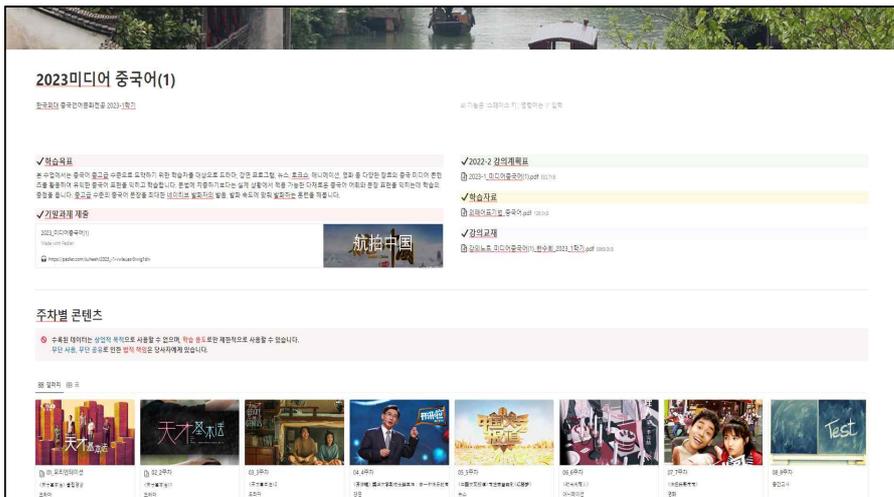


[그림 12] Padlet 기말과제 영상물 제출 화면



영상더빙 기말과제는 Padlet을 활용하여 관리하였다. 학습자가 제작한 결과물을 제출하고 공유하기 위한 페이지를 생성하고, 학습자들은 다른 학생의 결과물에 댓글이나 이모지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상호작용 환경을 마련하였다.

[그림 13] Notion에 생성한 <미디어 중국어1>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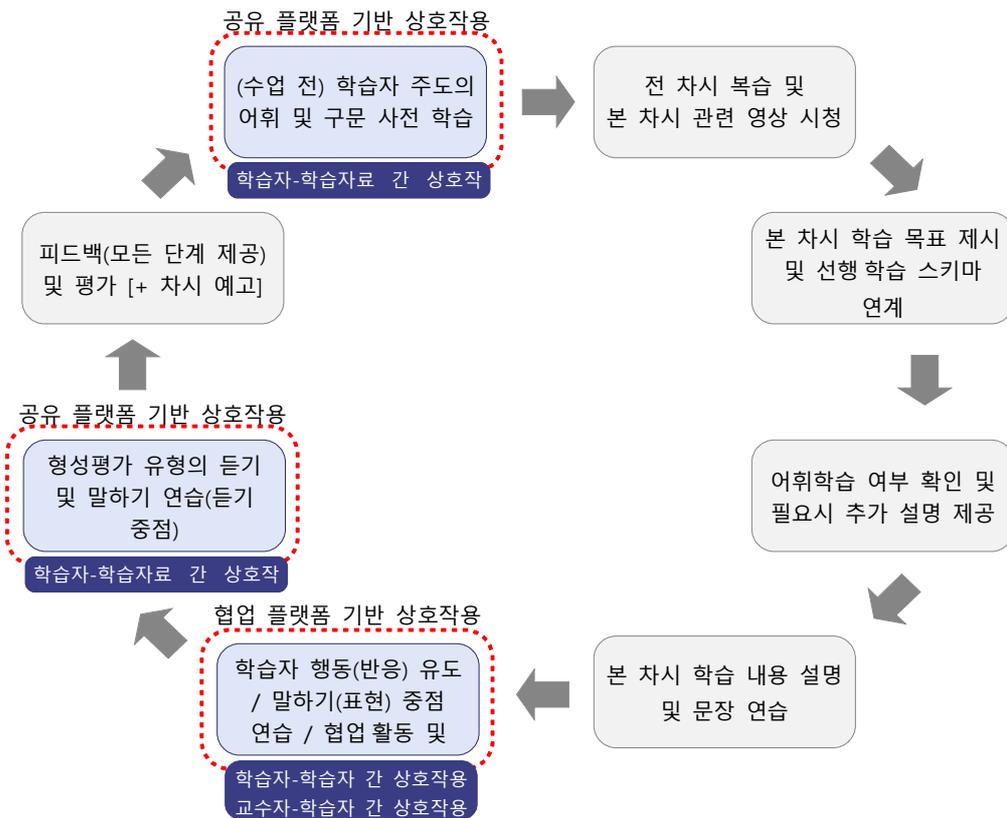
상기의 학습자료는 학습 진도 및 학습자 반응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하였으며, 한 학기 수업에 관한 모든 자료는 [그림 13]과 같이 Notion에 탑재하거나 링크를 임베드하여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쉽게 접근하여 반복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초급 중국어1>과 <미디어 중국어1> 수업 시간 내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학습자의

발화 및 상호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학습 모듈 도출을 시도하였다. Gagne의 9가지 교수절차 모델을 참고하여 수립한 순환식 교수설계 흐름도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중국어 교수설계 흐름도



강좌의 성격과 특성에 맞게 위의 교수설계 흐름도를 적절하게 조절하겠지만 일반적인 중국어 관련 수업에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참여 기회는 [그림 14]의 점선 테두리로 표시한 세 단계에서 제공할 수 있다. 달라지는 것은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상호작용 방식이나 사용하는 온라인 툴의 기능이다. 교수자는 어떤 유형의 상호작용이 특정 강좌의 상호작용 단계에 적합한지, 그러한 상호작용을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온라인 툴은 무엇인지 꾸준히 탐색해야 한다.

학습자는 학년이나 중국어 수준과는 상관없이, 협업툴을 활용한 상호작용 기회가 거듭 될수록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학기 초부터 활동이나 수업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공지를 통해 학습자의 참여 의지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 수업 관련 자료는 학습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은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해 가능한 입력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제작해야 함을 확인했다. 완벽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보다 정보가 손실된 자료를 제공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완성하는 기회를 통해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

감을 경험하였을 때 학습 몰입감이 높아졌다.

온라인 협업툴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에 특정한 협업툴을 사용하려고 고집할 필요는 없으며, 학습자들과의 피드백이 원활하게 지원되는 협업툴을 사용하였을 때 수업구성원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멀티미디어 소스의 수용력과 자료 제작 방식의 편의성이 보장된다면 상호작용이나 말하기-표현 연습 기회 제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온라인 협업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수업상황별로 학습자에게 더욱 적합한 교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 참고문헌

- 변영계 · 김영환 · 손 미(2007),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서울: 학지사.
- 이민경 · 성민경 · 정주영 · 김순미 외(2016), 『플립러닝 이해와 실제』, 파주: 교육과학사.
- 임철일(2012), 『교수설계 이론과 모형』, 파주: 교육과학사.
- John. M. Keller · 송상호 공저(2008), 『매력적인 수업 설계: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그리고 만족감』, 파주: 교육과학사.
- 박정원(2018), 「중국어문 콘텐츠 오쏘링툴(Authoring tool) 유형분석과 활용전략」, 『중어중문학』, 제74권, pp. 195-223.
- (2022), 「온라인 중국어문 교육 콘텐츠 제작과 협업 - 협업 플랫폼을 중심으로」, 『중국어학연구』, 제102호, pp. 1-32.
- 진화진(2020), 「학습 동기 모델을 이용한 단기 실무 중국어 수업 설계 사례 연구」, 『중국어교육과연구』, 제32권, pp. 77-98.
- 클래스카드(ClassCard) <https://www.classcard.net/>
- 노션(Notion) <https://notion.so/>
- 패드렛(Padlet) <https://padlet.com/>
- 퀴즐렛(Quizlet) <https://quizlet.com/>
- 워드월(Wordwall) <https://wordwall.net/>

「 TTT 모형을 적용한 중급 한국어 교수법 연구 」

정연희 교원, 정은주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현재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수행되는 말하기 수업의 대부분은 일명 PPP (presentation - practice-production) 모형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다. 세종학당재단 등 국가 기관에서 제시하는 표준 강의안의 내용 역시 강의안 작성과 모의 수업에서 모두 PPP 모형을 채택하고 이에 따른 수업 운영을 권장하고 있어 PPP 모형은 이제 한국어 수업의 표준 모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초기의 PPP 모형에서 의사소통식 교수법을 수용하면서 과제 수행을 추가하게 되어 현재는 과제 수행을 포함한 변형된 PPP 모형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수업의 흐름은 도입-제시- 연습 및 활용-마무리(혹은 도입-연습 및 활용-마무리)로 하고 제시 단계에서는 반드시 목표 문법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두는 것으로 정형화되어 PPP 모형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PPP모형과 비견되어 온 TTT(task-teach-task) 모형은 과제 중심의 의사소통을 지향하고 의사소통 능력과 유창성 향상을 주 목표로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형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재 개발의 구체적인 예시로까지 나아간 연구는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양하고 다층적인 수업모형의 확장을 위하여 학부 과정에서 한국어 수업을 실제 하고 있는 두 연구자가 한국어 교실에서 TTT 모형의 실제적인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연구 모임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TTT 모형의 개념과 특징을 PPP 모형과 비교, 고찰해 보고 TTT 모형을 적용한 한국어 중급 말하기 교수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TTT 모형을 적용한 한국어 중급 말하기 교수법 연구

목적: TTT 모형의 특성을 반영한 중급 말하기 교수법이 학부 과정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수업에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탐색함.

3. 연구 진행 내용

3.1. 선행연구 고찰

TTT 모형을 적용하여 언어 교수 방법을 모색한 국내 연구는 한국어교육 분야에서의 연구와 영어교육 분야에서의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한국어교육 분야의 연구를 살펴보면, TTT 모형을 한국어교육에 적용한 최초의 연구인 이준호 (2010)에서는 TTT 모형의 장점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언급한다. 첫째, '의미에 집중하도록 한다', 둘째, '자신에게 필요한 표현을 스스로 선별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나선형의 문법 항목 배열이 가능하다', 넷째, '풍부하고 유의미한 맥락 제공이 가능하다', 다섯째, '과정 지향적 성격을 띤다'가 그것으로, TTT 모형의 이러한 특성이 유의 문법 교수에 주효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고 실제 교육 모델을 제안하였다. 고급 단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 교육에 TTT 모형을 적용한 예미희(2016)도 이준호(2010)의 영향을 받은 연구라 할 수 있다. 김지영(2014)는 교재 개발에 TTT 모형을 적용한 유일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의 일반적 모형이 과제 중심으로 변형된 PPP 모형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며 첫 번째 과제와 두 번째 과제의 사이에 언어에 대해 교수·학습하는 단계를 포함한 TTT 모형을 적용하고, 교육적 필요나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교수 내용을 선별할 수 있는 모듈식 접근으로 교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TTT 모형을 적용한 교재의 모듈 조직을 제시하고 단계별 목표표를 상세히 설명하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교재 개발 방향을 모색했다는 의의가 있다.

위의 연구들을 제외하면 한국어교육에서 TTT 모형의 적용을 모색한 연구의 대다수는 TTT 모형에 다른 교수법을 결합한 '변형된' TTT 교수법을 제안한 연구들이다. 이선영 (2013)에서는 PPP 모형과 TTT 모형의 장단점을 보완한 교수 모형으로서 ESA(Engage-Study-Activate) 교수 모형을 통한 구어 담화표지 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정은(2015)와 박수진·최보선(2022)는 모두 TTT 모형을 중심으로 형태 초점 과제를 적용한 수업 모형을 설계한 연구로, 전자는 다문화 아동을 위한 유의 문법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고, 후자는 '-어지다'와 '-게 되다'의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신지원·김재욱 (2021)은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에 초점을 맞추는 flipped learning 활동에 TTT 모형을 결합한 flipped-TTT 교수-학습 모형에 기반하여 SNS로 한국어 관용어를 교수-학습하는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한편 영어교육 분야에서 TTT 모형의 적용을 모색한 연구로는 박정아(2012), 김선자 (2016), 황은빛(2017) 등을 들 수 있는데, 모두 '변형된' TTT 교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ESA 모형이 적용된 교수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박정아 (2012)는 제한된 의사소통 환경을 제공하는 PPP 수업 모형의 한계를 지적하며, 단계별로 유창성을 지닌 ESA 수업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김선자 (2016)에서도 영어에 대한 학습자의 동기, 흥미, 자신감, 참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ESA 수업 모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으며, 황은빛(2017) 역시 ESA의 ‘부메랑 모형’을 사용한 문법 지도에서 학습자의 문법 능력, 읽기 능력, 정의 영역이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냄을 실험으로써 증명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모두 교사 중심적이며 유창성보다는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는 PPP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습자가 수업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유창성을 계발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TTT 모형을 교육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교수 방안들이 다양하게 제안되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영어교육에서의 연구는 비교 집단을 설정하여 수업 효과를 실질적으로 검증해 보였다는 점에서 과제 중심 수업의 효용을 잘 보여준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PPP 모형에 치우쳐 있던 교육 방법의 다양화를 꾀했다는 면에서 성과를 남겼으나, 한편으로는 김지영(2014)를 제외하면 TTT 모형을 교재 개발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미진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3.2. TTT 모형의 특성

김지영(2014:252)에 따르면 TTT 모형이라는 명칭은 이관규(2004)에서 유래하였다. Thornbury(1999:129)에서 PPP 모형에 대한 대안으로 과제 수행을 기반으로 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관규(2004:202)에서 이를 TTT 모형으로 번역하여 현재까지 이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후 TTT 모형은 PPP 모형과 비견되는 모형으로 상용되고 있다.

Thornbury(1999)는 PPP 모형과 대조되는 TTT 모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먼저 PPP 모형에서는 언어가 조금씩 단계적으로 학습되며, 정확성에서 유창성으로 발전한다고 본다. 이와 달리 TTT 모형에서는 언어는 한꺼번에 비약적으로 습득되며 정확성은 유창성이 발달한 다음에 발달한다는 시각을 취하고 있다.

즉 유창성에서 정확성으로의 순서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PPP 모형에서는 문법적인 지식이 연습을 통해 절차화된다고 보는 반면 TTT에서는 노출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고 본다.

언어 습득이 단선적이지 않고 복잡한 데다가 학습자들이 실수를 하는 긴 과정을 거치며 유창성이 발달된다는 점을 들어 Thornbury(1999)는 정확성을 습득할 때까지 유창성을 미루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다. 의사소통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아니

라 의사소통 그 자체로 인해 언어체계가 발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TTT 모형에 나타난 언어 습득 과정의 관점은 언어의 비약적 습득, 유창성 후 정확성, 상호작용을 통한 발달 등에서 PPP 모형과 상반되는 특성을 가진다.

TTT 모형에 기반한 교수는 흔히 '과제(task)-교수(teach)-과제(task)'의 순서로 수행되며 과제 수행을 기반으로 하고 유창성을 우선시한다. 내용적으로는 '시도- 오류-피드백'의 단계를 통해 유창성으로부터 정확성을 발달시킨다. 수업의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교사가 학습자에게 의사소통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시한다. 이후 이 의사소통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교수하는데 여기에는 명시적인 문법 설명도 포함된다. 이렇게 과제 수행에 대한 준비를 시킨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TTT 모형이 PPP 모형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의사소통 과제를 수행하는 생성 단계를 문법 설명의 앞 단계에 배치함으로써 학습자가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자극하고 동기화한다는 점이다. 이 생성 단계는 일종의 진단과 유사한 것으로, 교사는 첫 번째의 생성 단계에서 학습자가 수행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에 주목하여 교수할 항목을 선정하게 된다. 따라서 문법 항목이나 표현은 교수요목에 의해 계획되지 않고 학습자의 의사소통상의 어려움에 의해 선택된다. 문법을 학습하거나 이해하는 것 자체가 주된 목표가 아니라 언어의 실제 사용(use)이 교수요목의 목표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문법 및 표현 항목의 선택이 유동적이라는 특징 때문에 TTT 모형이 경제적이지 않다고 지적받기도 한다(Thornbury 1999:134). 학습 내용의 선택 과 배열이 미리 순차적으로 정해져 있는 PPP 모형에 비해 TTT 모형은 교사가 학습자의 언어 문제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하며 수업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언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업 운영상 교사의 능력이 더 많이 요구되어 교사의 자질과 경험에 따라 수업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TT 모형은 PPP 모형보다 더 효능감(efficacy)이 높다 (Thornbury 1999:134). 학습자들의 자발적 참여도가 높고,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문법이 아닌 스스로 필요를 느끼는 항목에 주목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개 인마다 필요로 하는 항목이 각기 다른 학습자들이 더 넓은 관점에서 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 학습자가 스스로 의미를 창조할 기회를 제공받는 방식 역시 자연적인 언어 습득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TTT 모형은 지지를 얻는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현재 한국어교육 상황에서는 PPP 모형을 기반으로 교안 작성과 수업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입-제시-연습-활동-마무리'로 대표되는 수업 단계가 이것을 보여준다. 도입은 그 차시에 학습할 문법 항목에 대한 도입이며 제시 역시 문법 항목에 대한 제시이다. 이는 문법적 요소가 복잡한 한국어의 특성 때문에 정확성을 강조하는 PPP 모형이 한국어의 교수, 학습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수업 현

장에서는 각종 연습과 활동을 추가하여 원래의 PPP 모형과 과제 수행을 결합한 절충된 PPP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전히 교실 현장에서 한 차시의 학습 목표는 통상적으로 하나 혹은 두 개 정도의 문법 항목에 대한 이해와 이를 활용한 연습(혹은 과제 활동)이다. 교사는 오늘 가르쳐야 할 한두 개의 문법 항목에 주목하여, 이것을 학습자에게 어떻게 이해시키고 연습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다. 절충된 PPP 모형이라 하더라도 PPP 모형을 기반으로 한 수업은 목표 문법 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기학습한 문법 항목들을 최대한 많이 통합 활용하여 어떻게 학습자의 유창성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1급부터 6급에 이르는 수업의 흐름이 모두 PPP 모형을 토대로 하고 있다면 이것이 오히려 학습자의 유창성 발달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은 초급부터 배워 왔던 수많은 문법 항목들을 연결하고 학습한 표현들을 망라하여 더 종합적인 시각에서 자신의 언어 지식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를 통해 유창성이 계발되고 언어 능력이 크게 신장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문법과 어휘 능력을 갖추었으며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에게 TTT 모형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3.3. 교수의 목표 및 교수법 개발의 구성 원리 설정

본 연구에서는 ‘유창성에서 정확성으로’를 지향(Thornbury 1999:129,135)하는 TTT 모형을 적용하여, 중급 초반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말하기 교수법의 개발을 시도하고자 한다. 교수법은 다음의 다섯 가지 원리에 의해 개발되어야 한다.

첫째, 학습자가 주체가 된 언어 사용의 기회를 수업 전반에 걸쳐 제공한다. TTT 모형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자원에 근거하여 유의미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언어 자원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14:981-982). 본 교수에서도 역시 교사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고 학습자는 의사소통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장치를 활용할 것이다. 첫째는 각 단원에서 생성 단계를 전면 배치하여 학습자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며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도록 할 것이고, 둘째로는 학습자 주도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극을 활용할 것이다. 단원의 시작 부분부터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TTT 모형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대화문 생성 과제를 수행한 후 이어지는 교사와의 질의응답과 학습자 간의

토의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언어 능력을 확인하면서, 향후 지속될 교수·학습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한다.

둘째, 실제 언어의 '사용(use)'을 연습하도록 한다. 이 교수법은 개별 문법 항목의 학습과 이해에 목표를 두고 있지 않으며, '문법 학습'의 선제적 연습 후 의사소통 과제를 수행한다는 절차를 따르는 것 또한 아니다. 의사소통 수행 자체가 핵심 과제이며 학습자로 하여금 의미 전달을 위해 언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지영(2014:267)에서 언급한 사용의 적절성, 그리고 의도한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수사적 표현이나 효율적인 발화 전략 등에 주목하여 각 단원을 개발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습자가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실생활과 직결되는 주제와 내용으로 구성하고 해당 상황에서 실제 언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담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문법과 표현은 과제 수행을 위한 부차적 지식과 도구가 될 것이다. PPP 모형은 목표 문법을 위주로 문법의 의미와 쓰임을 이해시킨 후 구조화된 연습 등을 거쳐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과제를 수행하는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TTT 모형을 적용한 수업에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언어를 실제 사용하는 맥락에서 문법과 표현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하고 이로 인해 언어 형태에 주목하게 할 것이다. 문법과 표현 역시 단일한 개별 문법 항목보다는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 이상의 통사 단위로 이루어진 표현을 제공할 것이다.

넷째, 담화 구성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문법과 표현을 제시한다. 강현화 외(2017:11-13)는 언어 교육에서 초점을 두는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문법은 담화의 맥락에 기반하여 기술하여야 함을 논한 바 있다.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화자는 각각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문법과 표현이 선택되므로 담화적 맥락을 고려한 문법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담화 구성에서 의사소통적 완결성을 강조한 김지영(2012:68)의 논의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르면 과제를 수행할 때 학습자들은 일반적인 대화 규칙에 따라 의사소통 상대자의 주의를 끌며 대화를 시작하고, 대화의 주제가 선정되면 발화의 순서 교대를 통해 주제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 또한 주제 전개 과정에서 설명 요청, 명료화 요구 등 의미 협상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대화 내용을 다른 주제로 전환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특정 주제를 회피하기도 하다가 적절한 시점에서 주제를 종결하면서 대화를 마무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살려 완성도 있는 담화 구성을 위해 학습자가 알아야 할 문법과 표현을 제공할 것이며,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표현들을 제시하고 그 형태도 단일한 조사, 어미 차원에서 벗어나 복합 표현의 형태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발달을 평가하고 학습 전략을 개발하게 한다. 담화 구성

을 위해 필요한 문법과 표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 다음 첫 번째 제시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사소통을 위한 과제를 부여할 것이다. 이후 교사는 첫 번째 과제에서 수행한 결과와, 학습을 거쳐 최후로 수행한 결과물을 비교해 보게 함으로써 학습자가 과제 수행 전후의 변화를 스스로 인지하게 한다. 학습자들은 이 과정에서 메타 인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과제를 생각하며 평가하게 될 것이다.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4.1. 단원 구성

각 단원의 구성 체계는 ‘Task1-Teach-Task2’의 흐름을 유지하되, 각 단원의 학습 목표 및 주제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첫 부분에 도입을 위한 질문을 제공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점검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각 단원은 ‘도입-과제 1-학습-과제 2-평가’의 순서로 구성될 것이다. 단계별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도입>에서는 시각 자료를 통해 단원의 주제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수업 목표를 제시한다. 그리고 간략한 질문을 통해 단원에서 학습자들이 수행할 과제를 인식하도록 한다. 이어서 <과제 1> 단계에서는 상황을 구체화한 역할 카드로 과제를 부여한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할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짝활동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유창한 대화를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면서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로서 문법과 표현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학습>에 해당하는 단계로, 학습자들은 앞서 시도했던 역할극의 모범 대화를 듣거나 읽으면서 <과제 1>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문법과 표현에 주목하게 된다. 이후 대화에 나타난 주요 문법과 표현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해당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이용하여 말할 수 있는지 학습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맨 처음 <과제 1>에서 했던 역할극을 다시 수행하면서 학습한 문법과 표현을 내재화하게끔 한다. 앞선 <과제 1>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하거나 필요한 만큼 충분히 담화를 구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 단계에서 학습을 통해 표현에 대한 갈등을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과제에 대한 수행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스스로 느낌으로써 학습에 대한 효능감이 한층 높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확장된 표현을 학습하는데, 이 단계는 단원의 주제와 직결되는 표현에서 더 나아가 유사한 주제나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을 배우고 익히는 단계이다. 확장된 표현을 학습한 이후에는 맥락이 있는 짧은 대화 연습을 통해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해당 표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익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보다 다양한 상황

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과제 2> 단계가 이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과제 1>을 변형한 3-4개의 의사소통 과제가 상황 카드로 주어지며, 학습자는 앞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담화를 구성해 본다. 이 과정에서 앞서 배운 표현을 의사소통의 도구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결 완성도 있는 담화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학습자 스스로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대해 성취감을 느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 <평가>에서는 도입에서 제시되었던 수업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학습자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한다.

4.2. 단원의 적용

<도입> 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삽화를 제시한다. 이 단원에서는 삽화를 제시하여 주제를 한눈에 확인하도록 한다. 삽화 아래에는 '수업 목표'를 제시하여 단원에서 달성해야 할 의사소통 목표를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학습자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질문을 두 세 개 제시한다. 질문은 학습자 자신이 경험한 일을 소재로 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목표로 제시된 내용이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학습자가 느낄 수 있을 만한 질문으로 구성한다.

다음으로 <과제 1> 단계의 운용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단계에서는 첫 번째 의사소통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역할극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한 다음, 각 참여자의 역할과 그들이 처한 상황이 적힌 두 장의 역할 카드를 제시한다. 학습자들은 카드를 보고 역할극을 수행한 뒤 소감을 말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의사소통의 한계를 느끼게 함으로써 문법과 표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역할극 다음에 학습자에게 질문할 내용을 제시하고, 실제 수업에서는 질문을 추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다. 개별적으로 역할극을 수행한 뒤에는 몇 팀을 대상으로 다른 학습자들 앞에서 역할극을 시연해 보도록 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대화의 구성 및 문법과 표현 사용에 관해 토의를 진행한다. 시연된 대화에서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특정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어떤 문법과 표현을 이용했는지 등이 토의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위에 예시한 질문은 개별 역할극 뒤에 이용할 수도 있고 일부 학생의 역할극 시연 뒤에 이용할 수도 있는데, 역할극 시연 뒤에는 위의 질문 외에 '다른 팀의 대화는 여러분 팀의 대화와 어떻게 다른지?'와 같은 질문도 추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토의할 질문을 제공하는 역할 외에 학습자가 대화에서 어떤 문법과 표현을 사용했는지 짚어 주는 역할을 한다.

한편, 교사는 <과제 1>과 <과제 2> 단계에서 녹취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학습자의 대

화를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두 가지 목적에서인데, 하나는 <학습> 단계의 문법과 표현 교수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자의 향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비교 자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학습자의 현재 상태는 <학습> 단계를 거치면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학습> 단계에서는 모범 대화 확인 뒤 단원의 주제와 직결된 표현을 배우고, 이어서 범위를 넓혀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을 배우고 익힌다. 모범 대화는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을 법한 실제성 높은 구어체 대화로 구성하며, 핵심 표현이 담긴 구절은 학습자가 특별히 주목하도록 빈칸으로 남긴다. 학습자는 대화문을 두 차례가량 듣는데, 첫번째 듣기에서는 <과제 1>의 역할극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내용과 대화 구성에 초점을 맞춰 이해한다. 이때 대화문 아래에 제시한 내용 이해 질문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이해 정도를 점검한다. 두 번째 듣기에서는 표현에 초점을 맞춰 듣는데, 핵심 표현에 집중하여 다시 들으면서 빈칸을 채워 본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단원교사는 이 단계의 수업 운용 시 <과제 1> 단계에서 학습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과제 2> 단계에서는 <과제 1>과 유사한 의사소통 과제를 3-4개 부여하고, 앞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다양한 담화를 구성해 보도록 한다. <과제 1>에서처럼 상세한 역할 카드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어떤 대화를 구성해야 하는지 그 내용이 적힌 상황 카드를 제시한다. 학습자는 앞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담화를 구성하며, 이때 교사는 학습자들이 표현과 문법을 알맞게 활용하여 담화를 구성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상황에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보다 유창하고 완성도 높은 담화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배운 표현 중 상황에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여 유창한 발화로 완성도 높은 담화를 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제 2>를 수행하면서 학습자는 자신의 의사소통 수행이 한층 향상되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에서는 성취도를 점검한다. 점검 질문은 도입에 제시되었던 학습 목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과제 1→학습→과제 2'의 과정을 충실히 따랐다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교사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우선 학습 목표로 제시된 것을 달성했다고 생각하는지 학습자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 외에 처음과 비교하여 무엇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지 묻는다. 학습자가 자신의 의사소통 수준이 향상된 것을 보다 직접적으로 느끼도록 하기 위해 대화 #1과 대화 #2를 명시적으로 비교해 줄 수도 있다. 또는 학습자가 두 대화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발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두 대화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위에서 언급한 대화 구성과 표현 사용 및 문장 수준의

향상 등을 짚어줄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향상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3. 연구의 의의

학부 과정에 진학하는 유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은 대부분 중급 수준으로, 이들은 초급부터 학습해 온 표현을 망라하여 더 종합적인 시각에서 언어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유창성을 개발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학습자들에게 의사소통 과제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TTT 모형은 주요한 교수 방법론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PPP 모형에 비해 지금까지 실제적인 수업 모형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TTT 모형을 적용한 교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TTT 모형이 수업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를 실험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TT 모형에서 늘상 지적되곤 했던 문법과 표현의 배열 문제, 수업 중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학습자의 언어 상황, 이를 대처하는 교수자의 자질과 경험의 문제 등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하기 위해 수업 방향을 제한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일차적으로는 실제 교육 과정에 적용되고 수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종전의 교재들과 달리 학습자 주도의 과제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교재를 개발하는 데에도 본 모임의 연구 성과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교수 방법론 및 교재 개발 방향의 다각화라는 면에서 본 연구가 한국어교육 현장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현화(2010), “한국어교육학 연구의 최신 동향 및 전망”, 국어국문학, 155호, 국어국문학 회, 39-78쪽.
- 강현화 외(2017), 담화 기능에 따른 한국어 유사 문법 항목 연구, 한글파크.
- 국제한국어교육학회(2005), 한국어교육론 1, 한국문화사.
- 김선자(2016), ESA 기반 수업이 초등학생의 말하기 능력 및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정 김용경 박석준 이동은 이미혜(2010), 한국어 표현교육론, 형설출판사.
- 김정은(2015), 한국어 유의 문법 교육 방안 연구 -다문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인교육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2012), 과제 중심 접근법에 기반한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 방안 연구 : 비고츠키 사회문화이론을 적용하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영(2014), “TTT 모형을 적용한 한국어 말하기 교재의 모듈 조직 방안”, 어문논집, 72권, 민족어문학회, 257-276쪽.
- 박수진 최보선(2022), “한국어 문법 교육을 위한 형태 초점과 과제 중심의 절충적 수업 모형”, 교양교육연구, 16권 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55-268쪽.
- 박영훈(2020),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교육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 내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31권 4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55-82쪽.
- 박정아(2012), PPP 수업 모형과 ESA 수업 모형의 효과 비교: 영어 듣기·말하기 능력 신장과 정의적 측면,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2014), 한국어교육학사전, 도서출판 하우.
- 신지원 김재욱(2021),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한국어 관용어 교수-학습 방안 연구: 플립드러닝과 TTT 모형을 중심으로”, 외국어교육연구, 35권 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305-322쪽.
- 예미희(2016), TTT 모형을 활용한 한국어 부정표현 지도방안 : ‘안/ -지 않-’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2013), 한국어 교재 대화 텍스트에 나타난 구어 담화표지 교육 방안 연구,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준호(2010), “TTT 모형을 활용한 추측 표현 교육 연구 -“-는 것 같다”, “-나 보다”, “-는 모양이다”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44권, 이중언어학회, 247-273쪽.
- 황은빛(2017), 거꾸로 학습을 통한 문법지도가 초등학생의 영어 문법 및 읽기 능력과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iley, K.M. · Nunan, D.(2005), ISE Pract Teaching: Speaking, McGraw-Hill Education.
- Thornbury, S.(1999), How to teach grammar, Longman.

「 한-노 동시통역 교수법 연구 」

정혜린 교원, 강동희 교원, 이에바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동시통역과정에서 필요한 각각의 기술과 전략은 교육 초기단계에서 개별적으로 학습되어야 하며, 구조화된 학습 단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습득된 다양한 기술들이 성공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Kalina 2000: 26). 또한 그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학습자가 겪는 어려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그 원인 또한 다르다. 그러나 동시통역 교육 현장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동시통역 교육은 통번역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동시통역 학습자가 습득해야 할 기술과 지식에 비해 학습 시간이 매우 짧으며 학계의 연구 성과와는 다르게 여전히 주제에 따른 통역 연습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권상미 2017: 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동시통역 습득 단계에 주목하여 한-노 동시통역 시 학습자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교수요목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임의 구성원은 모두 동시통역 실무자이자 동시통역을 교수한 경험이 있거나 이번 학기 동시통역 수업을 맡고 있는 교수자로 그간 수집한 데이터와 학습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노 동시통역 교수요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모임을 구성하였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한-노 동시통역 교수법 개선 방안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통번역대학원의 한-노 동시통역 교수법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학습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한-노 동시통역 학습자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교수요목을 개선하고자 한다.

3. 연구 진행 내용

3.1. 선행연구 분석

동시통역을 처음 입문하는 학습자들은 듣기와 말하기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적합한 훈련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학습자들은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고, 이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이어져 동시통역에서 필요로 하는 신속하고 빠른 언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야기된다(Bbyyobob, 2015: 59) 따라서 동시통역에 입문하는 1학년 2학기 학습자와, 양방향 동시통역을 본격적으로 학습하기 시작하는 2학년 1학기의 동시통역 과목의 교수요목은 학습자가 듣기와 말하기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한 기초 훈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동시통역 기초 교육과정에서 문장구역은 속도감과 순발력 훈련을 키우는 데 있어 유용한 훈련방법이 될 수 있으며(이유아, 2014: 278), 또한 원문을 신속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재구성하고, 도착어로의 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동시통역 교육 방법이다(방교영, 2003: 121; 허지운, 2020: 30-31).

그러나 언어 간 차이에 따라 듣고 말하는 동시 행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동시통역은 연사의 발화가 있을 후 거의 비슷하거나 2~3초 이내에 통역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출발어와 도착어 두 언어 사이에 어순의 차이 있다면 통역사는 출발어 연사의 발화를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맥락 또는 배경지식을 통해 예측하여 통역하게 된다(원종화, 2010: 134). 러시아어와 한국어는 언어체계가 다르고 어순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언어 방향을 고려한 동시통역 전략을 세워야 한다(전혜진, 2011: 378-379). 따라서 학습자는 듣기와 말하기라는 동시 행위의 메커니즘을 습득하는 것과 동시에 동시성을 유지하기 위해 언어 간 차이를 극복할 전략을 익혀야 한다. 초기 학습자들이 한-러 동시통역을 수행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통역 실패의 원인은 동시통역을 구성하는 각 하위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권상미 2017: 193), 동시통역을 구성하는 하위영역을 Gile(2009)의 노력모형(Effort Model)에 따라 분류해 보면 청취분석(listening), 작업기억(memory), 발화(production), 조율(coordination)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질(Gile, 2009: 170)에 따르면 이 네 개의 단계에서 필요한 인지 역량의 합이 통역사의 인지 역량보다 크면 통역의 질이 저하된다. 따라서 동시통역 학습자는 이 네 개 하위 영역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다만 학습자가 느끼는 어려움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 원인 또한 다양하므로 학습자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교수요목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3.2. 동시통역 강의계획서 분석

본 연구모임에서는 2023년 1학기 통번역대학원에 개설된 동시통역 교과목의 강의계획

서를 분석하였다. 각 동시통역 수업은 총 16주차 수업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오리엔테이션과 중간, 기말고사, 보강주차를 제외하면 한 학기 동안 약 11번의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각 주차의 수업내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매주 주제를 정하여 주제와 관련된 연사텍스트를 학습자가 통역하고 교수자와 플로어에 남아 있는 학습자가 통역을 듣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불과 AB 동시통역 과목의 경우 시역 -> 텍스트 읽고 통역 -> 텍스트 보면서 통역 등 동시통역 연습 방법을 중심으로 교수요목이 구성되어 있으며, 한중과 AB, BA 동시통역은 텍스트 있는 통역 -> 텍스트 없는 통역 -> 회의 시나리오가 있는 통역 -> PPT통역 -> 영상 통역 등 유형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세 개 과목 외의 동시통역 수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주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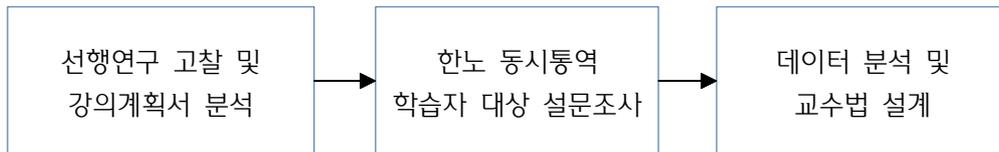
[표 1] 2023년 1학기 동시통역 과목 주제

AB동시		BA동시	
대분류	소분류	대분류	소분류
경제	경영, 산업	경제	금융
사회	저출산, 고령화, 노동, 복지, 연금	사회	저출산, 고령화
정치	국제정치, 양자협력, 다자협력, 국제기구, 국내정치	정치	외교
과학기술	바이오, 정보통신, 4차 산업혁명	문화	대중문화
안보	식량안보, 안보	과학기술	IT, 운송, 인공지능
자원	자원, 신재생 에너지, 전기자동차	사회	저출산, 고령화
환경	기후변화, 수자원, 재해	자원	에너지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엔터테인먼트	환경	자연재해, 환경재해
의료	코로나, 보건, 공공의료	문화	대중문화
세계문제	코로나	의료	건강, 보건
남북문제		법률	
		안보	

그러나 2학년 1학기 동시통역 수업은 학습자가 양 방향 동시통역을 본격적으로 학습하기 시작하는 과목이며,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듣고 말하기 동시행위의 메커니즘과 언어 간 차이 극복을 위한 전략을 습득해야 하는 과목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매주 특정 주제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동시통역 기술 및 지식의 습득 단계에 기반한 교수요목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기초 연구단계로 학습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3. 설문조사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통번역대학원 한노과 2학년 1학기에 동시통역 수업을 수강하는 11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설문 응답자인 학습자들은 1학년 2학기에 동시통역입문수업을 대부분 수강하고 경험해 보았지만 이는 입문 단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이었으며 본격적으로 한->노, 노->한 동시통역을 학습하기 시작한 시기는 2학년 1학기였다. 따라서 동시통역 초기 단계의 학습자들을 겪는 어려움을 설문조사 응답을 통해 파악하였다. 설문조사의 문항 구성은 크게 ‘한->노 동시통역에서 겪는 어려움’과 ‘노->한 동시통역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사한 문항들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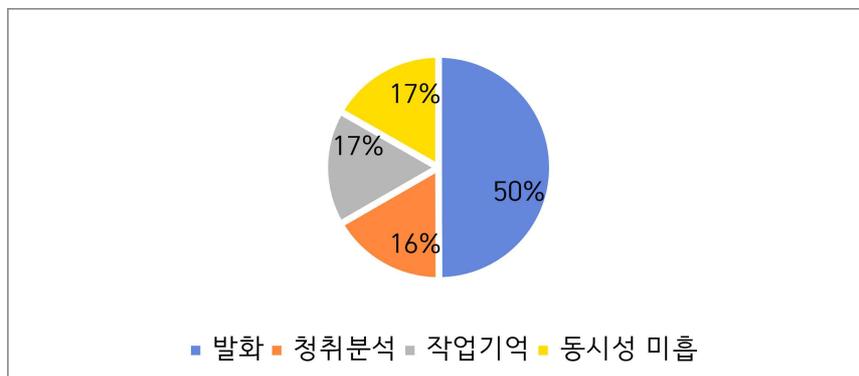
[그림 1] 연구 절차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4.1 연구 결과

1) 한->노 동시통역 학습자의 어려움

한->노 동시통역 학습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객관식 문항에서 학습자들의 절반이 ‘발화’라고 답했으며, 다음으로는 ‘청취분석’과 ‘작업기억’이 각각 17%를 차지했고 ‘동시성 미흡’이라고 응답한 학습자의 비중은 16%였다.



[그림 2] 한->노 동시통역에서 ‘가장’ 어려운 점

위의 객관식 문항에 이어 다음 문항에서는 한->노 동시통역 학습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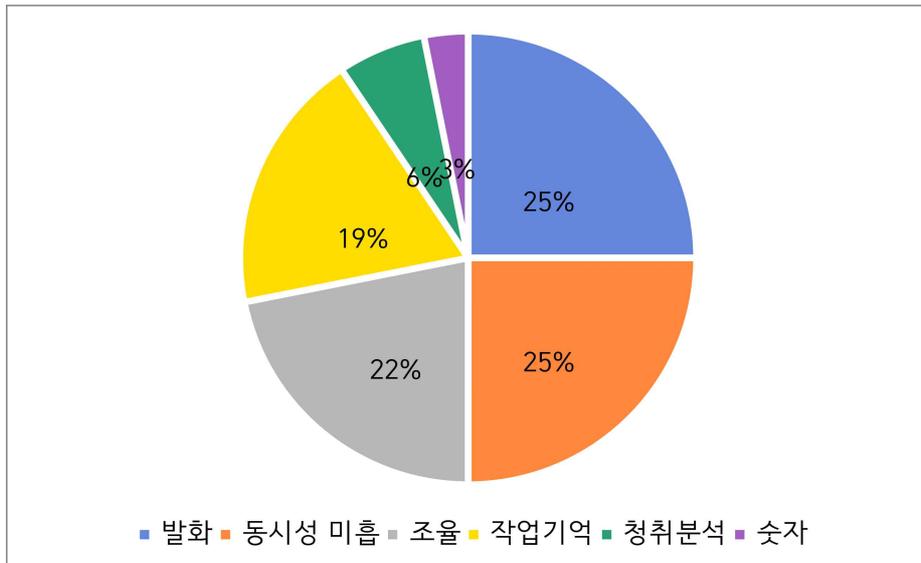
상세 기술하도록 했는데, 전 문항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이 한->노 동시통역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은 항목은 '발화'였고, 그 세부항목으로는 '문장구성'에서 가장 어렵다고 했으며, 다음으로는 도착어로의 '전환'과 '도착어 표현'을 꼽았다.

[표 2] 한->노 동시통역에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상세기술 답변

대분류	세부항목	응답수 (%)	
청취분석	출발어 이해 부족	1	1 (9%)
작업기억	고유명사 누락	1	2 (18%)
	다음 문장 누락	1	
발화	문장구성	4	7 (64%)
	도착어 표현	1	
	전환	2	
동시성 미흡	청성시차	1	1 (9%)

'문장구성'이라고 답한 이유로는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상이한 어순 구조로 인해 도착어로 완전한 문장을 구성해 통역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빠른 도착어로의 전환과 러시아어 표현 또한 한->노 동시통역에 있어 가장 주요한 문제점으로 꼽고 있었다. 한->노 동시통역에서 '발화' 다음으로 가장 어렵다고 답한 항목은 '작업기억'이었는데 한국어 고유명사 등 나열이 되는 부분에서 몇몇 명사들이 누락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작업기억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은 통역을 하면서 연사의 다음 발화를 듣고 기억하는 일이 어렵다고 서술했다. 그밖에도 학습자들은 한국어에 대한 빠른 이해 부족으로 인해 '청취분석'의 문제를 지적했다, B언어로 빠른 구성을 요하는 '동시성 미흡'을 한->노 동시통역의 어려운 점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한->노 동시통역에서 어려운 점을 복수 선택하도록 하는 문항이었는데,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고른 항목으로는 '발화'와 '동시성 미흡'이었고, 다음으로는 '조율', '작업기억', '청취분석', '숫자' 순이었다.



[그림 3] 한->노 동시통역에서 어려운 점(복수 선택)

한->노 동시통역의 어려운 점을 복수 선택한 후 상세한 기술을 하도록 했는데 ‘발화’에 서의 어려움은 도착어에서의 ‘문장구성’, ‘도착어 표현’을 꼽았으며, 도착어에서의 문장구 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사의 다음 발화를 듣고 기억하지 못함으로써 다음 문장의 통역이 누락된다고 답했다.

[표 3] 한->노 동시통역에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상세기술 답변 (복수응답)

대분류	세부항목	응답수 (%)	
청취분석	출발어 이해 부족	1	1 (4%)
작업기억	고유명사 누락	1	6 (24%)
	다음 문장 누락	5	
발화	문장구성	5	6 (24%)
	도착어 표현	1	
동시성 미흡	동시성 미흡	2	5 (20%)
	순차식 통역	3	
조율	심리적 문제	6	6 (24%)
숫자	숫자 통역	1	1 (4%)

‘심리적 문제’를 한->노 동시통역의 문제로 답변한 학습자들은 도착어 문장구성의 어려 움이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답하면서 다음 문장을 기억하지 못하여 더 긴장하고 실 수를 하게 된다고 답했다. ‘동시성 미흡’의 이유로는 작업기억의 문제와 문장구성의 어려

움으로 인해 문장을 끝까지 듣고 통역하다보니 청성 시차가 길어지고 ‘순차식 통역’을 하게 된다고 답했다. 또한 ‘청취분석’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어 텍스트의 의미를 바로 파악하지 못해 직역하거나 도착어에서 어색한 표현이 나와 통역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그밖에도 ‘숫자’가 나올 때 한->노, 노->한에서 모두 빠른 전환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한 학습자도 있었다.

2) 노-한 동시통역의 어려움

노-한 동시통역 시 가장 어려운 점 한 가지를 묻는 질문에 학습자의 41.7%가 청취분석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뒤를 33.3%로 발화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노-한 동시통역 시 학습자가 느끼는 어려움은 청취분석, 발화, 동시성 미흡, 작업기억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시성 미흡 항목을 발화 항목에 포함시킬 경우 그 비중은 50%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 노-한 동시통역 시 가장 어려운 영역

그러나 이 문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한 가지 대표적인 어려움 보다는 청취분석과 발화, 작업기억과 발화, 발화문제로 인한 동시성 미흡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를 다시 범주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노-한 동시통역 시 가장 어려운 영역(상세기술)

대분류	소분류	응답수	응답 비율(%)
청취분석	B언어 문장구조	6	54.5%
	B언어 속도		
	B언어 지식 부족		
	배경지식 부족		
작업기억	청취내용 기억	1	9.1%
발화	전환, 동시성	8	72.7%
	A언어 표현		
	A언어 어휘		
	A언어 통역 발화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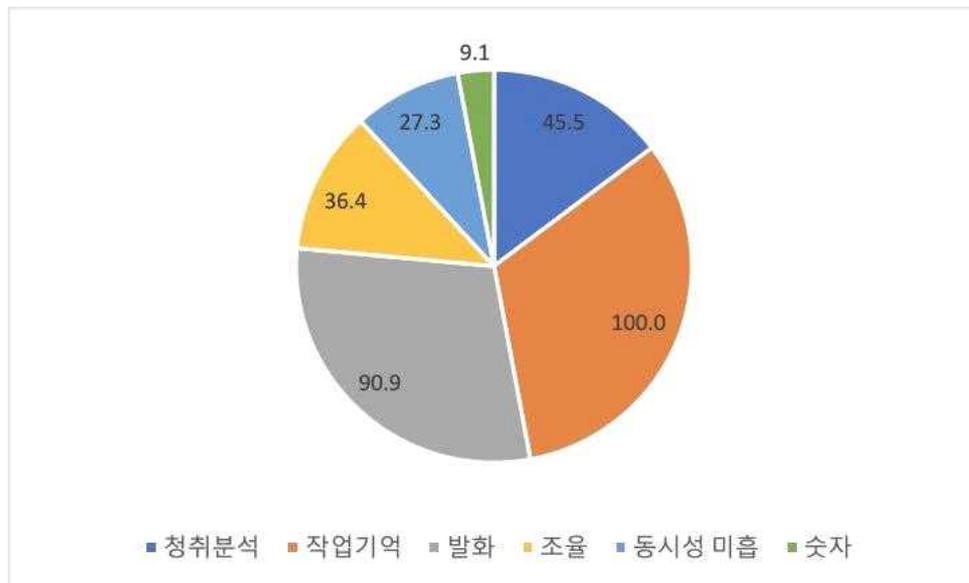
상세 기술 분석 결과 위 항목의 응답과 같이 발화 영역의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발화 영역이 어렵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즉각적 전환의 어려움, 즉 동시성의 문제와 대응어 및 대응 표현의 부족, 그리고 한국어 발화 속도를 꼽았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청취분석의 경우 러시아어의 문장 구조가 복잡하거나, 연사 발화 속도가 빠른 경우 듣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출발어 어휘와 표현, 배경 지식의 부족을 그 이유로 언급하였다.

작업기억과 관련하여 한국어 표현을 고민하는 사이에 들었던 연사의 다음 발화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고 기술하였다.

이는 비유노바(Вьюнова, 2015: 59)가 언급한 동시에 듣고 말하는 메커니즘에 익숙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외에도 출발어 이해의 문제와 도착어 표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노-한 동시통역에서 어려운 점을 복수 선택하도록 하는 문항에서는 작업기억이 91.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위 문항과 같이 동시성 미흡을 발화 항목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발화 영역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나, 복수 응답에서 작업기억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난 것은 특기할 만 하다.



[그림 5] 노-한 동시통역 시 어려운 영역(복수 선택)

위 항목에 대한 상세기술을 분석한 결과 청취 분석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출발어 문장구조가 복잡해질 경우 논리구조 및 맥락 파악이 어렵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언급하였고, 숫자와 다단어로 이루어진 어구에 대한 즉각적 이해가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작업기억 영역에서는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어순 차이에서 오는 구조적 차이 때문에 서술어를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처리하려고 했으나 잊는 경우를 언급하였고, 나열의 경우 일부 내용을 누락하는 문제, 숫자를 듣고 잊어버리는 문제를 언급하였다. 발화 영역에서는 적합한 A언어 어휘와 표현에 대한 부족으로 전환에 어려움을 겪거나 숫자를 러시아어로 듣고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이 빨리 되지 않는 어려움을 언급하였으며 이 밖에 한국어의 주술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다고 기술하였다. 일부 학습자는 심리적 어려움이 있다고 기술하였는데, 통역을 하는 내내 오역 및 누락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또는 불안감을 느끼며, 한국어가 모국어인 만큼 비문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한국어 발화 시 강한 사투리 사용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노-한 동시통역 시 어려운 영역(상세기술)

대분류	소분류	내용	응답수	응답비율(%)
청취분석	B언어 문장구조	논리구조, 맥락 파악 어려움	6	54.5
	B언어 지식 부족	숫자, 다단어 어구		
작업기억	청취내용 기억	서술어 잊음(내용, 동사 시제 등)	3	27.3
		나열		

대분류	소분류	내용	응답수	응답비율(%)
발화	전환, 동시성	숫자	8	72.7
	A언어 어휘 및 표현	주술 호응		
조율	심리	오역 및 누락에 대한 불안감	3	27.3
		한국어 비문에 대한 불안감		
		한국어 사투리에 대한 걱정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한->노 동시통역에서 학습자들이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은 발화, 청취분석, 작업기억, 동시성 미흡의 순으로 나타났고, 노->한 동시통역에서는 청취분석, 발화, 동시성 미흡, 작업기억 순이었다. 노->한 동시통역에서는 러시아어 발화가, 한->노 동시통역에서는 러시아어 청취분석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은 이유로는 학습자들이 대부분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이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노->한 동시통역 시 발화가 '가장 어려운 점'에서 두 번째 순위였고, 복수선택 문항에서는 가장 많은 응답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볼 때 한->노, 노->한 동시통역 방향 모두에서 학습자들은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표현 능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시통역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는 교수요목의 구성이 주제 기반 보다는 동시통역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를 각 단계별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물로 동시통역 초급 학습자를 위한 강의 구성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6] 동시통역 초급 학습자를 위한 강의 구성안

주차	AB동시		BA동시	
	영역	연습 방법	영역	연습방법
1	수업 소개 및 요구조사		수업 소개 및 요구조사	
2	청취분석	AA 통역 후 문장구역	청취분석	BB 통역 후 문장구역
3	청취분석	AA 통역 후 문장구역	청취분석	BB 통역 후 문장구역
4	청취분석, 발화	듣고 예측하기, 문장구역	청취분석	듣고 예측하기
5	청취분석, 발화	듣고 예측하기, 문장구역	청취분석	듣고 예측하기
6	발화	문장구역 후 문장 단위 동시통역	발화	문장구역 후 문장 단위 동시통역
7	발화	문장구역 후 문장 단위 동시통역	발화	문장구역 후 문장 단위 동시통역
8	중간고사		중간고사	

주차	AB동시		BA동시	
	영역	연습 방법	영역	연습방법
9	작업기억	빠른 순차 문장 단위 동시통역 - 숫자, 열거, 고유명사 등 활용	작업기억	빠른 순차 문장 단위 동시통역 - 숫자, 열거, 고유명사 등 활용
10	작업기억, 발화	문장 단위 동시통역	작업기억, 발화	문장 단위 동시통역
11	조율	느린 동시통역	조율	느린 동시통역
12	조율	느린 동시통역	조율	느린 동시통역
13	통합	동시통역 연습	통합	동시통역 연습
14	통합	동시통역 연습	통합	동시통역 연습
15	기말고사		기말고사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강의 구성안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학습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동시통역 초급 학습자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학습자의 동시통역 능력 습득에 필요한 학습방안을 고찰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교수법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4.2 활용 방안

본 연구는 동시통역 교육 과정에서 기존의 주제 기반 교수법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동시통역 습득 단계에 주목한 교수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유형화 한 한-노 동시통역 학습자의 어려움은 향후 학습자의 개별 학습 방향 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동시통역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전략의 단계화를 통해 체계적인 교수요목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학습자는 자신의 습득 단계를 파악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장단점을 인식하고 개선방향을 적용하는 등 교실 밖 자기주도 학습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본 연구 모임을 통해 도출한 한-노 동시통역 교수법을 적용하고, 학습자의 반응과 효용성을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나은 동시통역 교수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투고함으로써 타언어 동시통역 교수자 및 러시아어 교수자와 공유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권상미. (2017). “전략기반 통역수업의 교수요목 설계를 위한 실행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 방교영. (2003). 접속사 문의 문장구역 연구. 통번역학연구, 7, 107-123.
- 이유아. (2014). 동시통역교육을 위한 도구로서의 문장구역 활용에 관한 고찰. 일어일문학, 61, 259-279.
- 원중화. (2010). 영-한 동시통역 전략의 방향성 연구. 통역과 번역, 12(1), 131-155.
- 전혜진. (2011). 한-노 동시통역 전략 연구. 슬라브어 연구, 16(2), 353-381.
- 허지운. (2020). 동시통역을 위한 학습자 문장구역 전략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18(2), 5-35.
- Вьюнова, Е. К. (2015). Использование переводческих стратегий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становления навыка синхронного перевода. Филологические науки. Вопросы теории и практики, (10-1), 54-60.
- Gile, D. (2009).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Vol. 8).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 Kalina, S. (2000). Interpreting competences as a basis and a goal for teaching.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0(2000), 3-32.

「 학부에서의 웹툰 번역 교수법 연구 」

조원석 교원, 박건영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글로벌 OTT 미디어 상에서 웹툰을 기반으로 한 OSMU 콘텐츠가 연이어 전 세계적 흥행을 달성하며 웹툰은 2000년대 초반 온라인 커뮤니티의 하위문화에서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한국의 대중문화 원천 콘텐츠로 자리매김함: 많은 드라마, 영화가 웹툰을 원작으로 제작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2010년대 중반 시작된 웹툰 번역 서비스가 활성화 되었고 플랫폼이 안정화되며 웹툰 번역에 대한 교육계와 학계, 업계의 주목도는 점점 높아지는 상황임.

그러나 이러한 산업적 맥락에 비교하여 여전히 학부 과정에서의 체계적 웹툰 번역 교육을 위한 교재와 커리큘럼 및 구체적인 교수방식은 부재한 상황임.

EICC학과는 최근의 추세에 발맞춰 2022년 처음 웹툰게임번역 과목을 개설하였으며, 웹툰 번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고자 본 모임을 구성함: 본 연구모임의 구성원인 교수자 2인은 EICC학과의 2023학년도 1학기 웹툰 번역 과목을 담당함.

본 연구모임을 통해 1) 번역의 관점에서 웹툰의 텍스트 구조를 규명하고 2) 각 번역 항목에 필요한 수업자료를 제작하며 3) 체계적인 웹툰 수업을 위한 교수법을 수립하여 웹툰 번역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고, 나아가 학과 전체의 교육목표 달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함.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학부에서의 웹툰 번역 교수법 연구

- 소주제 1. 웹툰 번역 수업자료 제작
- 소주제 2. 웹툰 번역 수업 교수법 수립

목적: 웹툰 번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방법 모색

- 목적 1. 번역의 관점에서 웹툰의 텍스트 구조 규명
- 목적 2. 각 번역 항목에 필요한 수업자료 제작
- 목적 3. 체계적 웹툰 번역 교육을 위한 교수법 수립

3. 연구 진행 내용

3.1 교과목 소개

- 과목명: Translating Korean Games and Webtoons (1)
 - 2023년 1학기 한국외대 EICC학과 교과목
 - 전공 2학년 수업, 양학기 수업
 - 전반부는 웹툰 번역, 후반부는 게임 번역 학습 진행: 1-8주차까지 웹툰 번역 학습 및 실습, 평가 진행
 -
- 주차 별 강의구성
 - 1-2주차: 웹툰의 텍스트 구조 분석 및 번역 항목 규명
 - 3-7주차:
 - 1교시: 각 번역항목 별 사례분석 및 번역에 필요한 배경지식 설명(학생 발표, 교수자 설명)
 - 2교시: 과제 리뷰 및 피드백, 번역 실습
 - 8주차: 중간평가
- 수업 자료: 교수자가 준비한 강의자료와 실습자료, 코믹스/웹툰 관련 국내외 학술논문

3.2 교과활동 소개

- ◎ 1-2주차: 웹툰에 대한 개괄 수업
 - 영상 번역의 맥락에서 웹툰 번역을 다루기 위해 멀티모달텍스트의 종류, 특징과 번역 방법 소개
 - 영상 번역 사례를 소개하고 유사하게 적용한 웹툰 번역 사례 소개
 - 웹툰의 전신인 만화 텍스트의 요소 소개
 - 웹툰의 텍스트적 특징과 구조 소개
 - 웹툰 번역의 특징, 난점 소개하고 항목 별 번역 사례 제시

웹툰제목		스크롤 다운
<p>-<u>나레이션 텍스트</u>(서술자)</p> <p>-<u>말풍선 텍스트</u>(인물 간 대화)</p> <p>-<u>효과음</u></p> <p>-<u>시각기호</u>(배경그림, 인물그림)</p> <p>-<u>그림에 포함된 언어텍스트</u> (<u>언어적 파라텍스트</u>)</p>	<p><u>네러티브</u> (이야기구조)</p>	
<p>작가의 말 (작가가 독자들에게 <u>건내는</u> 사담, 인사말, 공지사항 등)</p>		
<p>하이퍼링크(<u>팬카페</u>, 작가 개인 블로그)</p>		
<p>플랫폼 <u>접속자 댓글</u>(<u>베스트 댓글</u> - <u>일반댓글</u>)</p>		



항목1. 문장부호

- 1) 말 줄임표("나.. 난") → 하이픈 대체("I-I'M")
- 2) 파형대시("이쁘다~") → 유지("PRETTY~")

웹툰 · 웹툰번역에 사용되는 문장부호 표기 및 용법은 일반 원칙과 차이가 있음

항목2. 어휘

- 1) 인명("임주경") → 음차("JUGYEONG LIM")
- 2) 신조어

-의미역("대박"→"SUPER PRETTY")

-등가표현 대체("ㅋㅋ"→ "HEH")

"HEH"는 영미권 SNS에서 자주 사용되는 'e-laughter(SNS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웃음표현)'중 하나

항목 3. 효과음

"화악":의태어, 어떤 기운 따위가 갑자기 세계 끼치는 모양

→ “FLASH”:동사, (섬광 따위가) 잠깐 비치다 · (불길이 치솟듯 무언가)갑자기 나타난다
(한국어)의태어 효과음 “화악”

→ (영어) 상황묘사 효과음(descriptive sound effect) “FLASH”로 대체

웹툰 번역의 경우 장르적 특징과 언어적 차이로 인해 상황묘사 효과음 빈도수가 높다는 사실 강조

◎ 3-7주차: 웹툰 번역 관련 이론 학습 및 실습 진행

○ 3주차

- 한영 번역에 있어서 일반적 주의할 점을 사례와 함께 소개
- 웹툰 번역시 주의할 점 소개

<수업 실습 사례>

(1) 효과어 번역 실습

- 웹툰 번역에서 자주 쓰이는 효과어 유형 설명: 의성어와 의태어
- 음차 번역과 의미 번역(상황 묘사)
- 의태어의 경우 의미를 반영하는 동사, 형용사 등으로 번역되는 사례가 많음.



(출처: <이번 생도 잘 부탁해>)

(2) 제목 번역 실습

- 웹툰 제목 번역에서 고려할 점 논의 및 사례 제시
- 다양한 장르의 웹툰 한국어 제목을 제시하고 조별로 영어 제목으로 번역하는 활동 후 공식 영어 제목과 비교하며 논의함.
- 학생들은 제목 텍스트의 특성을 살려 웹툰의 내용을 전달하면서도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을 결과물로 산출함.

<제목 번역 실습 결과물>

한국어 제목	공식 제목	학생 번역
이두나	The Share House with Previous Idol	The Girl Downstairs
앞집에는 나리가 살고있다	Nari Next Door	A House in front of a House
외모지상주의	Good looking (Good looker) takes all	Lookism
튜토리얼 탑의 고 인물	Master of the Tutorial Tower	The Advanced Player of the Tutorial Tower
내가 키운 S급들	The S-Level Hunter	My S-Class Hunters

○ 4주차

- 글과 그림의 연결성을 살리는 번역 사례와 다양한 방법 논의
- 감탄사와 호칭어 번역 실습

<수업 실습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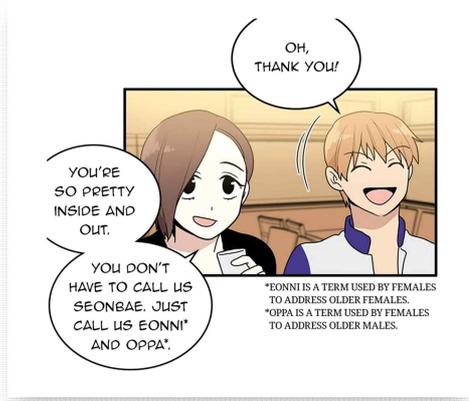
(1) 작화와 문화를 고려한 언어적 결텍스트 번역 실습



(출처: <쌈 마이 웨이>)

- 위의 컷에는 '보리밥', '열무 보리밥', '생활의 달인 출연' 등 문화적 요소를 포함한 언어적 결텍스트가 있어 이의 번역 방법을 조별로 논의함.
- '보리밥'의 경우 음차한 'boribap', 의미를 직역한 'barley rice', 해외에서 보다 잘 알려진 한국 음식인 'bibimbap', 목표 문화권의 음식으로 대체한 'poke' 등으로 다양한 번역 결과물을 산출함. 또한 컷에서 해당 언어적 결텍스트의 공간적위치와 다른 언어적 결텍스트 '열무 보리밥'을 고려하여 'diner'로 번역하기도 함.

(2) 감탄사와 호칭어 번역 실습



(출처: <My I.D. is Gangnam Beauty>)

- 위의 장면에서, 선배, 언니, 오빠라고 하는 한국의 대학생들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호칭어를 번역할 때, 각주를 통해 각 호칭어가 한국어 발화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부연 설명을 제공
- 특별히 한국을 배경으로 한 웹툰의 번역에서, 호칭어의 사용은 극의 전개와 인물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번역독자에게 호칭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일반적인 번역기법은 아니지만, 맥락에 따라서 호칭어의 경우 위의 사례와 같이 상세한 부연 설명을 제공한다는 것을 학생들과 논의하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이와 유사한 호칭어에 대해 직접 번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

○ 5주차

(1) 효과어 번역: 장르와 인물의 동작을 고려한 번역

(2) 문장부호 처리

<수업 실습 사례>

(1) 효과어 번역

(출처: <똑 닳은 딸>)

- 위 컷의 두 효과어 '끼익'과 '툑'의 경우 스텔러물이라는 장르의 특성과 사무실에 몰래 숨어든 주인공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몰래 나가는 동작을 반영한 목표어 표현으로 번역되어야 함. 따라서 '툑'의 경우 'thud' 등 동작의 크기와 소리가 큰 어휘보다는 'tap' 등의 작은 동작과 소리를 나타내는 어휘로 번역되어야 함을 논의함.

(2) 문장부호 처리



(출처: <Neolithic girl>)

- 위 장면에서 '문장부호' 하이픈은 인물의 발화가 외부의 개입으로 강제 종결되었음을 나타내는 문장부호임. 그러나 코믹스와 같은 웹툰의 인접 장르에서는 동일한 화행에서 "더블 하이픈"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됨. 웹툰에서 문장부호는 화행을 드러내는 중요한 기능을 하면서, 실제 번역 사례에서도 오류가 빈번이 발견되는 항목임. 인접 장르인 코믹스 번역 사례 분석을 통해, 상황 별 정확한 문장부호 용례를 학습함.

○ 6주차

- (1) 효과어 번역: 배열 방향과 위치
- (2) 문화소 번역

○ 7주차

- (1) 그림과 글의 상호보완 및 생략
- (2) 폰트와 대소문자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 2022년에 개설되어 아직 운영 초기인 본 교과목의 수업 자료 및 교수법 방향에 대해 교수자들이 연구하고 논의한 결과 교재의 부재, 학생들의 친숙도와 관심도에 비해 번역 이론과 한영 번역에는 익숙하지 않아 실제 수업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존재함.

4.1 수업 자료

- 웹툰 번역 수업 자료 관련 가장 어려운 점은 수업 교재로 사용할 만한 단행본 등의 부재임.
 - 만화 번역, 그래픽 노블 번역, 웹툰 번역 등에 관한 국내외 학술 논문, 학술회의 발표 자료 등에서 이론과 사례, 번역 방법을 제시한 후 실제 웹툰 번역 사례를 제시하여 논의하고 수업 중 번역 실습, 번역 과제를 통해 적용하는 방법을 채택함.
- 학생들의 흥미를 이끄는 수업 자료 채택
 - 학기 초 수요 조사를 통해 수업에서 다루어 보고 싶은 특정 장르나 작품, 기존 번역에 아쉬운 점이 있었던 작품 등에 대한 학생 의견을 취합하여 이를 수업 자료로 활용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관심을 증대함.

4.2 교수법

- 웹툰에 대한 학생들의 친밀도, 관심도는 높으나 흥미에서 더 나아가 이론과 실제를 번역학의 관점에서 학습할 필요가 있음.
 - 웹툰 번역도 ‘번역’이라는 점을 주지하고 한영 번역과 영상 번역의 특징, 고려 사항 등을 먼저 인지하고 웹툰의 텍스트적 특징에 맞는 번역 방법을 안내해야 함.
- 수강 학년과 눈높이를 고려하여 강의를 진행할 필요성
 - 학기 초 수요 조사에서 학생들의 눈높이, 배경지식, 번역 실습 수업 수강 경험 유무를 파악하고 웹툰 번역 학습에 필요한 번역 이론, 번역 방법을 적절한 난이도로 소개해야 함.
 - 이론과 예시 학습을 먼저 진행한 것이 실제 번역 실습 및 과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 의견이 많으나 리딩 분량과 난이도를 적정선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과제와 평가 방법 다양화
- 수업 시간에는 조별 번역 실습을 통해 번역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 한편 개별 과제에서는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확장하여 보다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과제를 부과한 결과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었음.

5. 교수법 연구모임의 효과 및 제언

- 웹툰 번역 수업이 수반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모임을 통해 다양한 수업 방안을 연구하고 논의하였으며 이를 적용한 결과 학생들이 웹툰 번역의 특성을 인지하고 이를 고려한 번역 결과물을 산출하며 흥미롭게 수업을 수강하고 참여하였음.
- 웹툰의 텍스트적 특징과 기본 구성 요소에 초점을 맞춘 1학기 수업에 이어 2학기 수업 Translating Korean Games and Webtoons (2)에서는 보다 난이도가 높은 신조어, 언어유희, 유머, 구어체, 관용구 등의 번역 단위를 학습하고 웹툰 외 문학 번역 등 다른 유형의 텍스트 번역과도 연계한 교과활동을 구성할 계획이며 지속적 수업 자료 및 교수법 개발을 위해 논의를 지속할 예정임.
- 추후 실습 조 구성의 다양화와 조원 로테이션, 공동 번역, 중간/기말고사 출제 문항 다양화 등 학생들에게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업을 더욱 개선하고자 함.

※ 참고문헌

- 강경이, 김혜림(2021) 한국 웹툰 번역 업계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언-관계자 심층 인터뷰 조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2(3) 9-39.
- 김수명, 이지민(2017) 웹툰 [신의 탑] 그림텍스트 번역 연구. 통번역학연구. 21(1) 1-25.
- 남원준(2010) 학부에서의 번역이론 교육-‘영어 번역이론 및 실제’ 교과 운영의 경험에 관한 사례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8(1) 29-50.
- 마승혜, 김순영(2021) 웹툰 한영 번역양상 및 멀티모달 기계번역(MMT) 활용 가능성 모색-의성어/의태어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5(4) 103-124.